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②

남서곶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2

남서곶

발간사



인천 서구는 대규모 간척사업과 도시개발 등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옛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민중들이 거주하고 생업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생활문화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는 마을의 형성과 변천을 조사하고 그 안의 사람들과 생활문화를 조명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인천서구문화원은 서구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향토지 발간 및 조사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시리즈 역시 그 정신을 이어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 되는 요즘, 서구 관내의 여러 마을을 발굴 조사하여 도시개발로 변해온 내 고장 서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현재 마을을 지키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옛 마을 모습, 지역 어르신만이 알 수 있는 마을 이야기를 구술·채록하여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옛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의 석곶면(石串面)·모월곶면(毛月串面)과 1995년 인천광역시로 승격될 때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黔丹面)을 편입하여 지금의 권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석곶면과 모월곶면은 승학현(乘鶴峴-싱아고개)을 경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형적으로 모월곶면 지역을 ‘북서곶’, 석곶면 지역을 ‘남서곶’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역시 북서곶, 남서곶, 검단 세 지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편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그 두 번째로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남서곶』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을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소개하고 근현대 도시화를 통해 변화된 생활문화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이어서 각 마을의 문화유산과 인물을 소개하고, 마을과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남서곶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남서곶의 연표를 통해 통시적인 남서곶 역사문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를 통하여 사라져가는 인천 서구 마을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인문·사회 환경을 고려한 지역 재생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 서구문화원은 향토문화유산발굴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기획하여 ‘울타리 없는 문화 놀이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정군섭

목 차

프롤로그

7

I. 남서곶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11

- 1. 자연과 지리 12
- 2. 역사적 변천과 지명유래 18
 - 1) 탄생과 변천
 - 2) 행정동의 연혁
 - 3) 법정동의 지명유래

II. 남서곶의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문화

39

- 1. 문화와 풍습 40
 - 1) 전통혼례
 - 2) 회갑연
 - 3) 상례모습
 - 4) 두레패(농악대)
- 2. 사회와 환경 54
 - 1) 개건너와 번지기 나루터
 - 2) 인천교
 - 3) 청송심씨 고택
 - 4) 원창동 당산
 - 5) 세어도의 전깃불

3. 교육과 행정	72
1) 가재울강습소와 가좌농민학교	
2) 석남공립국민학교	
3) 세어도분교	
4) 석남동사무소	
4. 산업	84
1) 인천화력 1호기 준공	
2) 울도화력발전소	
3) 경인고속도로 준공식	
4) 원적산 관통도로 공사	

Ⅲ. 남서곶의 문화유산 99

1. 국가지정문화재	101
1) 천연기념물	
2. 시지정문화재	104
1) 기념물	
3. 비지정문화재	106
1) 유물산포지	
2) 국방유적	
3) 사찰	
4) 기타	

Ⅳ. 남서곶의 인물 133

1. 선주 성씨들	134
2. 전근대 인물	137
3. 근현대 인물	155

V. 남서곶 이야기

165

1. 옛이야기 167

- 1)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새신랑
- 2) 호랑이굴의 새끼 호랑이들
- 3) 안아지고개의 도둑
- 4) 저절로 열리고 닫힌 감중사의 대문
- 5) 원적사의 빈대와 말무덤
- 6) 울도의 열녀

2. 우리 동네 이야기 185

- 1) 가정동 가슴에 짓는 정자
- 2) 신현동 새오개 마을 회화나무
- 3) 원창동 갯마을 이야기
- 4) 석남동 거북시장과 정서진 중앙시장
- 5) 가좌동 부지런히 달리다

3. 직접 듣는 이야기 237

- 1) 새오개 마을 어른, 윤학의
- 2) 청라도 도지사^{島知事}, 김종안

에필로그

269

부록) 남서곶 연표

289

부록) 서곶 지역 마을이름 변천사

305



Prologue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2
남서곶

프롤로그

프롤로그^{prologue}

현재 인천 서구는 옛 부평도호부 모월곶면·석곶면 그리고 김포현 검단면·노장면·마산면을 아우른다. 부평도호부 모월곶면과 석곶면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부천군 서곶면으로 통합된 뒤로 ‘서곶’으로 불렸다. 그리고 같은 시기 김포현 검단면·노장면·마산면 역시 김포군 검단면으로 통합되어 ‘검단’으로 명명된다. 특히 서곶은 승학현^{상아고개}을 경계로 북서곶^{모월곶}, 남서곶^{석곶}으로 구분되었다. 즉 인천 서구는 전통시대 방리(坊里)에 따라서, 북서곶·남서곶·검단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인천서구도시마을誌』 역시 북서곶·남서곶·검단 세 권역으로 나누어 기획하였다. 작년 북서곶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대로 출간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두 번째 편인 남서곶을 주제로 도시마을誌를 제작하였다. 각 권역에 해당하는 법정동은 다음과 같다.

- 북서곶 : 백석동 검암동 시천동 경서동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
- 남서곶 :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 검 단 : 대곡동 금곡동 마전동 불로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남서곶은 옛 부평도호부 석곶면에 해당하는데,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석곶의 마을로 ‘봉현리, 가정리, 신현리, 포촌리, 울도, 번작리, 가좌리’가 있었다고 기록되었다. 현재 법정동 이름과 비교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식 지명 변경과 광복 이후 구제(區制) 실시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시대 마을 이름을 대체로 이어오고 있다.

마을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1871년경 편찬된 『부평부읍지』

에서 찾을 수 있다. 남서곶에는 8개의 마을이 있었으며 218호의 세대에 인구는 총 685명으로 남자 387명, 여자 298명으로 기록되었다. 이와 비교해 2018년 11월 기준으로 남서곶에는 법정동5개^{행정동11}가 있으며, 8만여 세대에 인구는 총 193,513명으로 남자 98,360명, 여자 95,153명으로 집계된다. 읍지 제작 당시 집계하지 않은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실로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남서곶에 사람이 살았던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일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동에서 구석기 유적이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가정동 유적에서는 주먹도끼와 찌개 등 석기가 출토되었다. 가정동을 비롯하여 인천 서구에서는 선사시대 문화유산이 다수 확인된다. 북서곶의 연희동, 검단의 불로동 등에서도 구석기 시대 석기가 출토되었으며, 원당동에서는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특히 청동기 시대 고인돌은 인천 서구 검단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이후 역사시대에도 다양한 문화유산이 전해진다. 시대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삼국시대 유물인 짧은목항아리와 고리자루칼이 각각 가정동과 연희동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통일신라 토기가마터가 검단신도시 발굴조사^{불로동}에서 확인되었다. 이후 고려의 녹청자 가마터가 경서동에서 일찍이 조사된 바 있고, 최근 검단신도시 발굴조사^{불로동}에서 청자 다기가 일괄 출토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조선 시대에는 명문가의 세거가 두드러지는데, 각 문중 묘역을 비롯하여 신도비, 유허지 등은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서해안의 지리적 요충지로서 주목받아 봉수, 진(鎭) 등의 관방(關防)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가정동의 축곶봉수, 검단 오류동의 백석산 봉수, 연희동의 연희진, 연희진에 소속된 포대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가정동에 위치한 축곶봉수는 국경이나 해안에 축조되는 연변봉수(沿邊烽燧)로 사용되었다. 남쪽의 성산(문학산)에서 봉수를 받아 북쪽의 백석산으로 응하는 노선이다. 현재 가정동의 지리

적 조건을 떠올리면 해안을 방어했던 봉수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축곶봉수 서쪽으로 서해 연안이 인접하여 조망이 수월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인해 육지화되었고 이후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옛 지리적 특징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광복 이후 근현대기 서구는 간척사업, 경인고속도로 개통, 발전소 건립 등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서구의 섬들 가운데 많은 수가 매립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육지화된 섬 위로 다시 새로운 마을이 생겼고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긴 세월 수많은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지만, 남서곶에는 늘 마을과 사람들이 함께해 왔다. 이번 남서곶편 역시 마을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먼저 자연·지리적 특징과 마을의 탄생과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도시화된 마을의 생활 모습을 만난다. 이어서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인물을 살펴본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옛이야기, 각 동네마다의 이야기, 지역주민이 살아온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다.

사람들이 어울려 살던 남서곶 마을 이름들을 떠올려본다. 아름다운 정자가 있는 가정, 새로 생긴 고개가 있는 새오개,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라 갯말, 포구에 있던 초소에서 번을 썼다고 해서 번지기, 맑은 시내가 흐르는 가재울. 이름처럼 아름다운 돌곶이 마을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보자.

이윤희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Chapter I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2
남서곶

남서곶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1. 자연과 지리
2. 역사적 변천과 지명유래

I. 남서곶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1. 자연과 지리

인천광역시 서구는 한반도 서북부의 해안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으로 북쪽은 김포시, 동쪽으로는 계양구와 부평구, 남쪽은 동구 및 남구 그리고 서쪽은 서해로서 옹진군과 경계하고 있다. 한반도 중앙부에 위치해 수도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고, 서부 해안에 자리하면서 관문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서울과는 한강과 경인아라뱃길로 연결되며 서해안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특성을 띠기도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나 경제발전은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의 자연·지리적 특징은 지역의 형태가 남북으로 길고, 동쪽에는 남북 방향으로 산줄기가 이어지며, 서쪽에는 해안 간석지가 넓게 발달해 있다. 이 때문에 근대적 시가지가 발달할 수 있는 평지는 동쪽의 산줄기와 서쪽의 간석지 사이에서 남북 방향으로 매우 좁게 나타난다. 동쪽의 남북 방향으로 달리는 산줄기로부터 공촌천, 심곡천, 검단천 등의 하천이 발원하고, 이들 하천이 서쪽의 해안으로 유입하는 곳에 만입상의 하구가 형성되는데, 서구에서는 이 일대에 방조제를 축조하는 방식으로 해안 지역의 대규모 간척이 이루어졌다.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지도』에서 보면 현 서구의 북부 지역은 1800년대 기준 김포군 관할 구역에, 서구의 남부 지역은 부평부 관할 구역에 속해 있었다. 김포군 관할 구역에서 보이는 지명들 중 가현산(歌弦山), 검단(黔丹), 백석산(白石山) 등은 현 서구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옛 지명들이고, 부평부 관할 구역에서 보이는 지명들 중 모월곶(毛月串), 축곶(柎串), 석곶(石串)과 바다에서 보이는 호도(虎島), 장도(獐島), 난지도(蘭芝島), 파라도(巴羅島), 기도(箕島), 정자도(亭子島) 등은 현 서구의 청라 지구 및 그 남부에 있었던 옛 지명들이다.

서구의 산지는 북부의 가현산(215m)과 계양산(395m)에서 남향(南向)하여 천마산(226m), 원적산(165m), 만월산(187m), 금마산(201m), 거마산(209m), 소래산(299m)까지 남북으로 연결되면서 인천의 북동부에 산지를 이루고 있고, 원적산-계양산 줄기는 인천도호부와 부평도호부를 나누는 경계선 역할을 했다. 천마산은 경인교육대학교를 에워싸고 있는 중구봉 뒤쪽의 산으로 가정동, 심곡동에 걸쳐있고, 안아지고개를 넘어 원적산으로 이어진다. 원적산은 안아지고개, 원적산길을 지나서 장고개까지 이어지는 산으로 석남동, 가좌동 일대에 걸쳐있다. 전통 시대에 서구 지역에는 국가 수준의 주요 도로가 통과하지 못했고, 이 지역에 발달한 소규모 마을들을 잇는 소로 중심의 교통로가 유지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동여지도』에 기록된 인천 서구 지역

석곶(石串)이라는 지명은 속칭 ‘돌곶이’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다. 이곳의 지형이 꼬챙이같이 길게 뻗어있으며 “물길이 ‘돌아서’ 간다” 또는 “돌(石)이 많다”고 해서 그런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본다. 석곶, 모월곶 등 이 지역의 지명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곶(串)’이란 바다로 길게 뻗은 썰기 모양의 육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규모가 큰 것은 반도(半島)라 한다.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주목된 것은 통일신라 말 고려 초부터로, 9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는 동안 서구 지역 사회의 독특한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 경서동 녹청자요지이다.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지방의 호족세력이 발흥하던 때로, 서구와 부평을 아우르는 지역에서도 많은 지방 호족이 출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지역이 농경을 중심으로 매우 안정되고 풍요한 사회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경서동 녹청자요지는 옛 고잔리(‘곶의 안쪽’) 지역으로 가마

의 위치가 해안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뱃길을 따라 이동이 쉬운 광역의 판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서민용으로 제작된 녹청자의 대량생산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 상권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며, 상업과 해상세력을 갖춘 상당히 유력한 호족들도 출현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인천 앞바다에서 강화수로에 이르는 해상교통은 고려와 조선 시대 서울로 수송되는 삼남지방 세곡(稅穀)의 중요 운송로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강화도의 손돌목은 급물살로 인해 해난사고가 빈번한 지점이었다. 강화를 거치지 않고 인천과 부평을 경유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것이 바로 김포굴포(堀浦)였다. 고려 시대 이미 조세선(漕稅船)이 손돌목의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서울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굴포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조선 중종대(1506~1544)에 김안로(金安老)가 재차 김포굴포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원통현(원통이고개; 간석동에서 부평으로 넘어가는 경인국도 고개)까지 이르러 아쉽게 중단되었다. 원통이고개라는 지명도 이에서 유래한다.

숙종 36년(1710)에는 금위영제조(禁衛營提調) 민진후(閔鎭厚)의 건의에 의해, 이곳 ‘석곶’에 방어진을 설치하였는데 유사시 강화 덕진진과 영종진 두 곳이 동시에 공격당하면 한양도성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길목인 이곳에 군대를 주둔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후일 조선의 개항을 앞두고 1875년 영종진이 일본에 의해 함락되자, 개항 교섭의 진행과 함께 인천과 부평 연안의 방비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1879년 화도진, 연희진(모월곶면)과 여러 곳의 포대가 축조되었던 것도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굴포 작업이 실패한 후 전조창(轉漕倉)을 석곶면 포리에 설치하였는데 “삼남의 전세·대동미를 이곳에 납입토록 하였다가 서울 공공기관의 하급 관리와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요미(料米)로 나누어

주었다.”고 하고 있어 이곳까지 온 세곡을 서울까지 육로로 수송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고였음을 알 수 있다. 이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천시 서구 원창동(석곶면) 한화 에너지 북쪽 해안에 전조창 터로 보이는 유지가 남아 있고 배가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수로도 확인된다. 더불어 이곳에서 세곡을 우마차에 실어 서울로 수송했던 고개가 안아지고개였다 하나, 설치나 폐지연대는 알 수가 없다.

서구 지역에 발달해 있던 전통 촌락들은 근대 이후에도 그 원래의 지명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예를 들면 석곶면에 있던 연희리는 연희동으로, 가정리는 가정동으로, 신현리는 신현동으로, 가좌리는 가좌동으로 각각 그 뒤의 형태만 새로운 행정 단위로 바뀌었을 뿐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검단면에 있던 마전리는 마전동으로, 금곡리는 금곡동으로, 왕길리는 왕길동으로 되었고, 노장면에 있던 당하리는 당하동으로, 원당리는 원당동으로, 마산면에 있던 불로리는 불로동으로, 대곡리는 대곡동으로 이들 역시 뒤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앞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 이후 서구 지역에서는 근대적 교통 여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새롭게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서구의 근대적 시가지는 구의 중남부에 위치한 경인고속도로 가좌인터체인지 부근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그것은 이 일대가 부평구의 중심부 및 인천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좌동, 석남동, 신현동, 가정동 일대에는 일찍부터 택지와 상가 등으로 이루어진 시가지가 발달하였다.

최근 서구 지역은 4대 권역으로 재설정되면서 지역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서부 지역, 북부 지역이 그것이다. 중부 지역은 주거 및 상업 지역이 발달하고 있는 구역이며, 남부 지역은 수출 공단 등의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있는 구역이다. 서부 지역은 주물 공단 및 광활한 해안 매립지(청라 지구 포함)를 특징으로 하

는 구역이며, 북부 지역은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 있고 최근 검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구역이다.

요컨대 오늘날 서구의 지역 구조는 가좌동을 중심으로 한 남부의 원도심과, 검단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의 신도시 개발 거점,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의 상업 및 경제 구역을 세 축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추후 지역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로부터 바다로 향하고, 교통의 요지로 조세선의 길목이며 군사적 기능도 겸비하고 있던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2. 역사적 변천과 지명유래

1) 탄생과 변천

인천광역시 서구는 조선 시대 부평도호부 석곶면(石串面)과 모월곶면(毛月串面)이 통합해서 형성된 서곶지역과, 1995년 인천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때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黔丹面)을 편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구는 한반도 서북부의 해안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북쪽은 김포시, 동쪽으로는 계양구와 부평구, 남쪽은 동구 및 남구 그리고 서쪽은 서해로서 옹진군과 경계하고 있다.

서구 지역에 관한 내용은 『여지도서(輿地圖書)』(1760년경 간행)에 “석곶면(8개 마을이 있으며, 관문에서 서남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326호 내에 남자가 565명, 여자가 646명이다), 모월곶면(8개 마을이 있으며, 관문에서 서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357호 내에 남자가 571명, 여자가 683명이다)” 등으로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 읍지(邑誌)의 내용도 소략하여 소속 방리(坊里)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

면(面) 소속의 방리가 보이는 것은 정조 13년(1789)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이다. 석곶면에는 봉현리(烽峴里), 가정리(佳亭里), 신현리(新峴里), 포촌리(浦村里), 번작리(番作里), 가좌리(加佐里), 울도(栗島)였고 모월곶면은 공촌리(公村里), 연희리(連喜里), 고잔리(古棧里), 검암리(黔巖里), 시천리(始川里), 백석리(白石里), 청라도(靑蘿島), 난지도(蘭芝島)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의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石南洞), 원창동(元倉洞), 가좌동(佳佐洞)을 포함하는 남쪽이 석곶면이었고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景西洞),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深谷洞)을 포함하는 북쪽이 모월곶면이었다. 이 두면은 승학현(昇鶴峴; 싱아고개, 가정동과 심곡동 사이의

고개)을 경계로 구분되었는데 지형적으로 모월곶면 지역을 ‘북서곶(北西串)’, 석곶면 지역을 ‘남서곶(南西串)’으로 지칭하였다.

서구 지역은 삼국시대에 주부토군(主夫吐郡; 부평의 고구려지명)의 일부와 검포현(黔浦縣; 김포의 고구려 지명)의 일부였다. 757년(경덕왕 16)에, 통일한 신라의 강역을 9주 5소경, 121군, 290현으로 편제한 바, 주부토군은 장제군(長堤郡), 검포현은 김포현(金浦縣)으로 개편되었지만 방면리(坊面里; 면·리의 편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군·현의 이름만 있으므로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고려 시대에는 995년(성종 14)에 장제군을 수주(樹州)로 승격하여 수주지주사를 두었고, 1150년(의종 4)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1215년(고종 2)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 1308년(충렬왕 34) 길주목(吉州牧), 1310년(충선왕 2) 부평부(富平府)로 개편되어 왔으나, 방면리에 대한 기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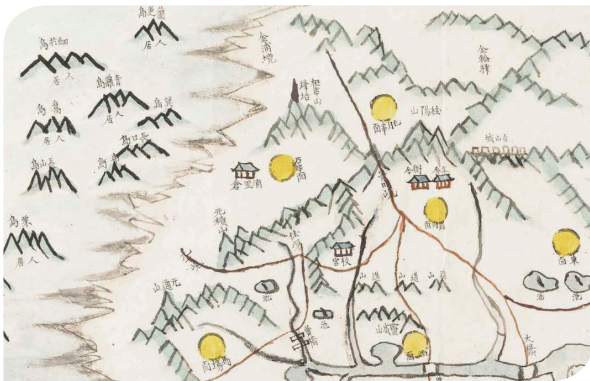
조선 사회에 오랫동안 존속되어오던 지방제도는 19세기 말의 새로운 한국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종래의 지방제도는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으로 번잡하게 설정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꾀하기 어려웠고, 봉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관찰사와 수령은 관할 지역 내의 행정·군사·사법 등의 모든 권한을 국왕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였다. 19세기 말의 한국 근대화과정에서 새로운 지방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요청이었다. 1895년 지방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봉건적 성격의 지방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종래의 지방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 본래의 봉건성과 당시의 극도로 문란했던 지방행정의 실상이 새로운 근대적 지방제도 개혁을 추진케 했다.

1895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이 단행되었는데, 이는 중앙의 기구 개혁은 물론 지방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1895년 6월 18일 단행된 지방행정제도는 484년간 유지되어 온 8도제를 폐지하여 23부(府)로 개편하고 종래의 부목군현을 폐합하여 일률적으로 군

으로 하였다. 즉 전국을 23부로 나누고 337개의 군을 부에 예속시킨 것이다. 23부에는 관찰사를, 군에는 군수를 두어 감독하였고, 군수는 관찰사의 지휘를, 관찰사는 중앙정부의 내무대신(內務大臣)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대적인 행정체계를 갖추었다. 또 1개 부가 10~20개의 군을 관할함으로써 통솔 범위에 균형을 갖추게 되었고, 일반 행정과 경찰 행정을 분리하는 등 근대적 지방제도 수립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 ; 1899년(광무3) 편찬



| 『부평군읍지』에 기록된 인천 서구 지역

1897년부터 1914년의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큰 변동은 없었다. 다만 군이 신설되거나 면리의 폐지분합은 계속 이루어졌는데, 1906년 9월 비입지(飛入地)와 두입지(斗入地) 정리에 따라 특정 행정구역에 속하면서 본토와는 떨어져, 다른 행정구역 등에 둘러싸여 격리된 월경지(越境地)와 군현의 경계가 개[犬]의 이빨이 서로 물려 있듯이 들고 난 모양인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에 대해서는 일체 정리하였다.

1914년 부제(府制)를 실시하여 군과 면의 수효를 대폭 감축하고 통폐합하는 대규모 지방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 인천과 부평을 조합한 ‘부천(富川)’군의 신설로 이제 인천군과 부평군은 사라졌으며, 부천군청은 문학면(文鶴面) 관교리(官敎里)의 옛 인천군 청사에 개설되었다. 당시 사라진 부평군에는 부내면(富內面), 계양면(桂陽面), 계남면(桂南面), 오정면(梧亭面), 서곶면 등의 5개면으로 재조정되면서 면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서곶면은 석곶과 모월곶면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모월곶면과 석곶면이 서곶면으로 통합된 이후 1940년 4월 1일에 서곶지역은 일제의 인천부 고시 제32호 <인천출장소규정>에 따라 서곶출장소를 설치하여 광복 이후까지 이어왔다. 이때 인천부는 면제가 폐지되어 있었으므로 서곶면은 이름을 잃었다. 그러나 인천부는 이 지역이 인천의 중심지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편의를 위해 서곶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이때 서곶의 촌락 이름들은 일본식 정명(町名)으로 바뀌었다가 광복 후인 1946년 1월 우리말 지명으로 회복되었다.

미군정은 인천부를 제물포시로 개칭하고 지청제도를 두어 서곶출장소는 서곶지청이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며 시(市)를 부(府)로 바꾸고 다시 출장소로 변경했다. 1949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며 다시 인천시로 개칭하여 인천시 서곶출장소 관할이

되었다. 사무실은 옛 연희진 자리에 있던 면사무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968년 1월 1일부터 인천시에 구(區)가 설치될 때 서곶출장소는 북구에 소속되었고, 동(洞)의 변동 없이 구획을 조정하는 것에 그쳤다. 옛 연희진 자리에 있던 서곶출장소는 1970년에 심곡동과 연희동 마을을 관통하는 305번 국도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전한다. 그리고 서구청이 이를 계승하다가 서구보건소로 물려주고 현재의 위치로 신축해 나갔다.

1981년부터는 승격된 인천직할시 소속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는 대통령령 제1236호에 의거 출장소가 폐지되고, 마침내 인천직할시 서구(西區)가 설치되어 검암, 경서, 연희, 가정, 신현, 석남1·2, 원창, 가좌1·2·3동을 관할했다. 서곶이라는 지명은 이때 내무 행정의 지명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서곶초등학교와 서곶중학교의 교명 속에 그리고 민간의 고유명사 속에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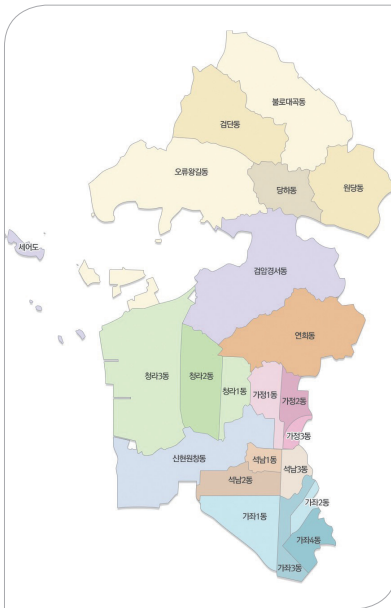
1995년 1월 1일 인천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고 2월 28일 구 조례 제342호로 법정동 간의 경계 조정이 행해져 연희동 일부가 심곡동으로, 공촌동 일부가 연희동으로 편입되었다. 또 3월 1일 김포군 검단면이 편입되어 서구 검단동이 되었다. 1998년 10월 29일 구 조례 제489호로 행정동 간 통폐합에 의해 검암동과 경서동을 합하여 검암경서동, 신현동과 원창동을 합하여 신현원창동이 되어 14개 동이 되었다.

2000년에 들어 서구는 지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청라국제도시가 17.78㎢(539만 평)에 조성되어 인구가 9만 명 늘어났고, 연희동 능안·닭우리들판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들어섰다. 면적이 0.621㎢(19만 평)에 이르고 6만 명을 수용하는 규모이다. 주택지구도 개선되어 마전지구, 원당지구,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등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경인아라뱃길이 개설되어 서구 경서동과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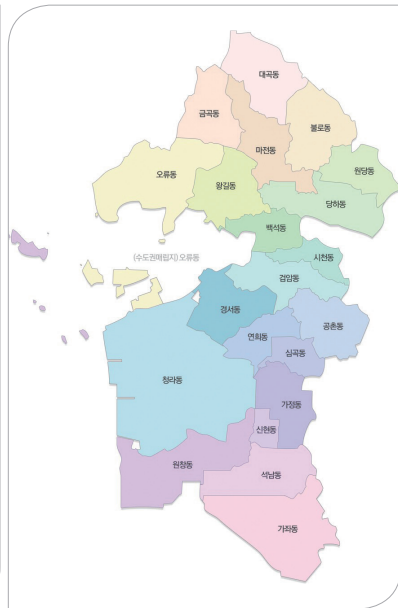
울 강서구 개화동 간에 수로가 열렸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는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등 21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6월 10일 서구 조례 제1039호로 청라동이 신설되었고, 2012년 7월 9일 서구 조례 제1156호로 청라동이 청라1동(연희·원창동 일부), 2동(경서·원창동 일부)으로 분동되었다. 그리고 2016년 청라대로 서쪽 지역을 청라3동으로 분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동



인천광역시 서구 법정동

2) 행정동의 연혁

(1) 가정1동·가정2동·가정3동

가정동(佳亭洞)은 법정동이며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이라는 행정동으로 분할되어 있다. 가정동은 철마산(鐵馬山) 옆을 넘어가는 승학현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부터가 남서곶, 지난날 석곶면이었다. 『호구총수』에는 석곶면 가정리로 기록되어 있다. 예로부터 가정마을과 산밑마을, 그리고 봉화촌이라는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세 곳을 합해 가정리(佳丁里)로 명명하였다. ‘가정(佳亭)’을 잘못 쓴 것인데 한동안 그냥 통용되다가 가정리(佳亭里)로 정정되었다.

1914년 4월 1일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부천군이 신설될 때, 부평부 모월곶면과 석곶면이 서곶면 하나로 묶여졌으므로 가정리도 부천군 서곶면 소속이 되었다. 이해 11월 20일, 부천군이 리명을 개정할 때, 비로소 가정리(佳亭里)로 바로잡았다. 1940년 4월 1일, 서곶면 전체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가정리도 인천부의 일부가 되었다. 일제는 편입 즉시 한국식 동리(洞里) 이름을 일본식인 정명(町名)으로 바꾸었는데, 가정리는 지요다쵸(千代田町)가 되었다.

8·15 광복 후, 정부는 일본식 지명을 없애는 일에 나섰고, 1946년 1월 1일 가정동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1955년 10월 1일, 인근의 신현동과 석남동을 통합해 가정·신현·석남동이라고 부르다가 1977년 5월 10일 이를 석남동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1983년 10월 1일 석남동은 다시 석남동과 가신동(佳新洞)으로 분동하였고, 가정동은 가신동에 속했다. 1990년 1월 1일 인구가 증가하자 이 가신동을 가정동과 신현동으로 분동하였다. 그리고 1991년 가정동은 1·2동으로 분동되었다. 그리고 1993년 가정2동이 다시 가정2동과 3동으로 분동되었다.

(2) 신현원창동

신현동(新峴洞)과 원창동(元倉洞)은 각각 법정동이며 신현원창동이라는 행정동으로 통합되었다. 신현동은 『호구총수』에 지금과 같은 신현리(新峴里)로 등재되어 있다. 석남동과 가정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지난날에는 새오개마을, 큰말, 작은말로 나누어져 있었다. 앞에서 설명한 가정동처럼 지난날 석곶면이었다. 신현원창동 역시 법정동 변천 과정은 이웃 마을들과 비슷하다. 석곶면 소재지가 어디였는가는 불확실하지만 이훈익의 『인천지명고』는 신현동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신현동은 이곳의 옛 우리말 이름 새고개를 한자로 바꾼 것이다.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이 새고개의 뜻을 살려 신현리라고 했고, 1914년 4월 1일 부천군이 신설될 때, 부평부 모월곶면과 석곶면이 서곶면 하나로 통합되었으므로, 신현리도 부천군 서곶면 소속이 되었다. 1940년 4월 1일 서곶면 전체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신현리도 인천의 일부가 되었다. 일제는 편입 즉시 한국식 동리 이름을 일본식 정명으로 바꾸었는데, 신현리는 갠무쵸(玄武町)가 되었다. 8·15 광복 후, 정부의 일본식 지명 제거의 일환으로, 1946년 1월 1일에 신현동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원창동은 조선 시대에 삼남지방에서 배편으로 올라온 세곡을 하역하고 보관하던 해안마을이다. 『호구총수』에는 포리(浦里)가 대표지명이 되어 법정리로 등재되어 있다. 이곳은 지난날 부평부 석곶면 소속으로 갯말과 환자곶(還子串) 등 두 개의 자연 취락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두 마을을 합해 『호구총수』의 기록과 같이 포리라 하였다. 그리고 해안 바로 앞에 있는 울도(栗島)와 장구도(長丘島), 매섬[鷹島] 등이 포리의 관할로 들어왔다.

1914년 4월 1일 부천군이 신설될 때, 부평부 모월곶면과 석곶면이 서곶면 하나로 통합되면서, 포리는 부천군 서곶면 소속이 되었다.

1917년 6월 17일 연안 섬들의 관할이 바뀌었다. 고잔리(古棧里; 현재의 경서동) 소속이던 세어도(細於島)가 포리에 소속되었고, 그때까지 포리 소속이던 장구도와 매섬은 영종면(永宗面)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1940년 4월 1일 서곶면 전체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포리도 인천의 일부가 되었다. 일제는 편입 즉시 한국식 동리의 이름을 일본식인 정명으로 바꾸었는데 포리는 히사미즈쵸(久水町)가 되었다. 8·15 광복 후, 정부의 일본식 지명제거의 일환으로, 1946년 1월 1일에 원창동이라는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1955년 10월 1일 인근의 가정동과 석남동에 통합되어 가정·신현·석남동이라고 부르다가 1977년 5월 10일 이를 석남동 하나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1983년 10월 1일 석남동이 석남동과 가신동으로 분동되었다. 1990년 1월 1일 인구가 증가하자 이 가신동을 가정동과 신현동으로 분동하였다. 그러나 1998년 11월 1일 다시 신현원창동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석남1동·석남2동·석남3동

석남동(石南洞)은 법정동이며 석남1·2·3동이라는 행정동을 포함하고 있다. 원적산(元積山) 기슭에 발달한 마을이다. 지난날 부평부 석곶면 소속으로 번작리(番作里), 고잔(高棧), 윗우물, 박가되말[朴家墓村] 등 네 개의 자연 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조선 후기 간행된 『호구총수』에는 번작리라는 법정리만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번작리와 고잔리로 분리 지정되었다.

1914년 4월 1일 일제가 전국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부천군이 신설될 때, 부평부 모월곶면과 석곶면이 서곶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번작리와 고잔리는 부천군 서곶면 소속이 되었다. 이에 11월 20일 번작리와 고잔리를 묶어 고작리(高作里)로 통합하였다. 1940년 4월 1일, 서곶면 전체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두 동리도 인천부의 일부

가 되었다. 일제는 편입 즉시 한국식인 동리의 이름을 일본식인 정명으로 바꾸었는데, 고작리는 무라가미쵸(村上將町)가 되었다. 8·15 광복 후, 정부는 일본식 지명을 없애는 일에 나섰고, 1946년 1월 1일 석남동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갖게 되었다.

1955년 10월 1일, 인근의 신현동과 가정동을 통합해 가정·신현·석남동이라고 부르다가 1977년 5월 10일 이를 석남동 하나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1983년 10월 1일에 이 석남동을 석남동과 가신동으로 분동하였다. 그리고 그 뒤 점차 인구가 증가하자 1985년 11월 15일 법정동인 석남동은 1동과 2동으로 분동되었다. 그리고 1992년 9월 5일 석남1동에서 다시 석남3동이 분동되었다.

(4) 가좌1동·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가좌동(佳佐洞)은 법정동이며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이라는 행정동으로 나뉜다.

가좌동은 지난날 부평부(富平府) 석곶면 소속이었다. 전국의 동리지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1789년(정조 13) 간행 『호구총수』에 가좌리(加佐里)로 등재되어 있다. 그곳에는 가재울과 건지(乾池)골, 감중절리(甘中節里), 그리고 능안말이라는 세 개의 자연 취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썰물 때마다 길이 열리는 앞바다에 소염도(素鹽島)라는 작은 섬이 있었다. 이 지명들은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가재리(佳裁里)와 감중절리로 합해졌다.

1914년 4월 1일 부천군이 신설될 때, 부평부 모월곶면과 석곶면이 서곶면 하나로 묶이면서, 가재리와 감중절리는 부천군 서곶면 소속이 되었다. 같은해 11월 20일 부천군이 구역 및 동리명을 재조정할 때, 장끝말(현재의 산곡동 쪽 마을) 일부를 포함시키고 가재리와 감중절리를 통합해 가좌리로 만들었다. 1940년 4월 1일 서곶면 전체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가좌리도 인천의 일부가 되었다. 일제는 편입

즉시 한국식인 동리의 이름을 일본식인 정명으로 바꾸었는데, 가좌리는 아사마쵸(淺間町)가 되었다. 아사마쵸는 구한말에 한반도를 침탈할 때 자주 이용된 군함 아사마마루(淺間丸)를 기념하여 지었다. 8·15 광복 후, 정부는 일본식 지명을 없앴는데, 1946년 1월 1일, 가좌동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1981년 인천이 직할시가 되고 구제를 실시하면서 북구 가좌동으로 행정구역 변경되었다. 1985년 인천직할시가 북구 인구 증가로 가좌동을 분동하면서 가좌1동과 2동으로 분동하였고, 1987년 가좌2동에서 3동으로 1990년 5월 가좌2동에서 4동으로 분동되었다.

3) 법정동의 지명유래

(1) 가정동(佳亭洞)

철마산 옆을 넘어가는 승학현 북쪽에 위치한다. 여기부터 가좌동 까지가 남서곶으로 지난날 부평부 석곶면이었다. 소속 마을로는 가정마을과 산밑마을 그리고 봉화촌이라는 세 개의 자연 취락이 있었다.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세 곳을 합해 가정리(佳丁里)로 명명하였으나, 이후 가정리(佳亭里)로 정정했다.

① 가정(佳亭) : 이곳의 본 마을이다. 명칭은 조선조의 개국공신 조반(趙胖)이 말년에 이곳에 와서 가정(佳亭)이라는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한다. 그 뒤 이 마을은 가정촌으로 불리웠으며, 가정촌이 음차되어 ‘가경주’ 또는 ‘개경주’라는 변형된 지명도 사용되었다.

② 봉화촌(烽火村; 봉오재; 봉화재) : 마을 서쪽 바다에 가까운 마을이다. 마을이 등지고 있는 축곶산에 봉수가 있어서 그렇게 지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취락은 축곶산에서 방아머리까지 서쪽으로 뻗쳐간 능선 아래 자리했다. 봉화촌 외에도 ‘봉화재’, ‘봉오재’ 또는 ‘봉우재’라는 변형된 지명도 함께 사용되었다.

③ 산밑마을 : 산밑주막이라고도 불렀다. 승학현 밑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인터체인지까지 자리했던 마을을 가리키는 지명이었다. 승학현을 넘어가는 고개 입구(현재의 한국전력 건물과 주유소 시설 뒤편)에 주막이 있었다고 전한다.

④ 개발단마을 : 축곶산 서쪽에 자리했었다. 1950년 한국전쟁 난민들을 주축으로 철거민들이 인천 시내에서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수용소마을’이라고도 했다.

⑤ 축곶산(杻串山; 추곶산; 봉오재산; 싸리뢰) : 싸리나무가 많아 붙여진 지명이다. 서해 쪽 봉화재 마을 앞에 있는 산으로 봉수가 있었다. 이 산의 활개가 능선을 이루며 서쪽으로 뻗쳐가다가 뚝 그치는데 이곳을 방아머리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해안을 조망하며 방어하기 때문에 방어(防禦)머리라고 한 것이 그렇게 변음된 것으로 보인다.

⑥ 승학현(昇鶴峴; 싱아고개) : 가정동 산밑마을에서 철마산과 축곶산 사이 협곡을 가르며 심곡동까지 뻗쳐 있다. 매우 길고 높은 고개지만 남쪽 등성이 너머에 새 도로를 개설하면서 한가해졌다. 옛날에는 이 고개를 중심으로 북쪽의 모월곶면과 남쪽의 석곶면으로 나뉘었다.

⑦ 아나지고개; 안아지고개 : 철마산과 계양산을 연결하는 지맥을 타고 효성동쪽으로 넘어가는 산길에 있다.

⑧ 용난골 : 철마산 남서쪽에 있다. 이곳에서 용마(龍馬)가 날아올라 승천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⑨ 피네미골 : 철마산 너머에 있다. 안아지고개를 넘어 철마산 동쪽 깊은 곳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큰 피네미골,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작은 피네미골이라고 부른다.

⑩ 수루너미고개 : 가정동에서 심곡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승학현과는 구별된다. 승학현은 서쪽이며 심곡동의 서곶로 길가 마을 ‘양가말’로 이어지지만, 이 고개는 보다 동쪽이며 심곡동의 깊숙한 곳(절골)으로 이어진다.

⑪ 천마산(天馬山) : 현재는 주로 철마산(鐵馬山)으로 불린다.

(2) 신현동(新峴洞)

석남동과 가정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지난날에는 새오개 마을, 큰말, 작은말로 나누어져 있었다. 신현동 역시 법정동 변천 과정은 이웃 마을들과 비슷하다. 옛 부평부 석곶면의 ‘석곶’은 돌곶이[石串]의 한자 음 표기이다. 돌곶이는 오늘의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을 통틀어 부르던 지명이었다. 석곶면 소재지가 어디였는가는 불확실하나 신현동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인천지명고』는 기록하고 있다.

① 신현(新峴)마을; 새오개말; 도당재고개 : 지금도 나이 많은 서곶 사람들은 새오개라고 부른다. 원창동에 세곡의 하역과 보관을 위한 포리 항구를 만들고 큰 창고를 지었다. 서울까지 육로로 실어가기 위해 새로 길을 닦으면서 고갯길을 만들고 그 고갯길을 ‘새고개’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음운변화되어 새오개가 된 것이다. 옛날의 새고개길은 마을 서쪽에 있으며 원창동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도당곶을 하던 도당산에 있어 도당재고개라고도 한다.

② 큰말 : 북쪽 취락을 큰말 또는 큰 새오개라고 했다.

③ 작은말 : 남쪽 취락을 작은말 또는 작은 새오개라고 불렀다.

④ 양금머리 : 새오개에 서서 바라볼 때, 평투고개라는 작은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그 고개를 솔앗너머라고 불렀다. 그 솔앗너머로 넘어가면 양지바른 남향의 작은 취락이 나오는데 그곳을 양금머리라고 불렀다. 지금 신현동과 석남동, 가정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⑤ 멩개골고개 : 도당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려온 구릉인데 석남동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⑥ 평투고개 : 양금말에서 새오개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⑦ 요굴고개 : 새오개 마을에서 요굴마을로 가는 고개이다.

⑧ 굴앗고개 : 새오개 마을에서 석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3) 원창동(元倉洞)

조선 시대에 삼남지방에서 배편으로 올라온 세곡을 하역하고 보관하던 해안마을이다. 세곡 창고가 있었다는 뜻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조선 시대 갯말과 환자곶 등 두 개의 자연 취락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두 마을을 합해 포리(浦里)라 하였다. 그리고 해안 바로 앞에 있는 울도와 장구도, 매섬 등이 포리의 관할로 들어왔다.

① 갯말; 포리; 포촌 : 원창동의 본 마을이다. 포리, 포촌 등으로도 불렸다. 바닷가에 있는 마을, 선착장이 있어 배가 머물 수 있는 부두라는 의미를 담은 지명들이다. 이 갯말은 간헐말, 아랫말로 나누어 부르기도 했다. 갯말은 바닷가에서부터 산의 구릉 위로 길게 자리했는데, 구릉 위에 있던 마을이 윗말이었다.

② 환자곶말 : 조정의 대여 양곡 보관창고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환자(還子)란 가난한 백성들이 춘궁기에 관으로부터 곡식을 빌려간 뒤 추수가 되면 갚는 차용제도를 말한다.

③ 울도 : 우리말로 밤염이라고 불렸다. 물에서 보면 밤톨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졌다. 1898년에 화약고가 만들어졌으나 곧 폐지되었다. 환자곶 해안에서 썰물을 따라 갯벌을 걸어 나가 섬에 가고, 밀물에 앞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갯벌은 매립으로 육지가 되었다.

④ 아랫말; 도촌(島村); 노염(露鹽)밭; 늪말 : 전조창을 세우기 전에는 작은 섬이었는데, 이후 갯벌이 메워져서 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곳을 도촌이라고도 부른다. 그 당시 이 도촌에 조수가 드나들어 허영계 노염이 서려 있어서 노염밭이 되었던 터라 노염말이라는 이름도 생겼다. 이 마을의 원로들이 늪말이라고 하는 것도 노염말의 음운변화인 듯하다.

⑤ 세어도(細於島); 서천도(西遷島); 세루섬 : 우리말로 세루섬이라 한다. 물에서 보면 가늘게 늘어져 누워 있는 모습을 보여 그렇게 지어졌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매립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서동 서단 금산에서 서쪽 6km 떨어져 있으며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큰 갯골 건너편에 있다. 큰 갯골때문에 썰물 때 갯벌을 걸어서 갈 수 없다.

가늘게 늘어진 섬이라 세어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세루 또는 서천도(西遷島)라는 별칭도 있다. ‘서쪽에 멀리 머물다’의 뜻으로 ‘서유(西留)’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세루로 음운이 변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서천은 서쪽 멀리 귀양 가 있는 섬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⑥ 호도(虎島); 범섬 : 인천 서구 원창동 산148번지에 소재한 자연 녹지지역의 무인도이다. ‘범염’ 또는 ‘범섬’이라고도 불렀는데, 생긴 모습이 호랑이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에서는 장도와 청라도에 가려져 있어서 볼 수 없으므로 뱃사람들이 붙인 이름으로 짐작된다.

⑦ 대다물도(大多物島)와 소다물도(小多物島; 거여도) : 인천 서구 원창동에 속한 무인도로, 쌍둥이처럼 나란히 떠 있는 아담한 크기의 섬이다. 대다물도의 남쪽에서 500m 지점에 소다물도가 위치한다. 썰물 때는 이 두 섬이 연결된다. 육지와와의 거리는 인천항과 8.6km, 유인도인 세어도와 1.5km에 위치하고, 영종대교와는 1.8km 거리에 있다. 섬 주변은 넓은 갯벌로 이어져 있다.

⑧ 정도(亭島) : 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에 속한 무인도로, 영종대교에서 불과 63m 떨어져 있는 섬이다. 주소는 인천 서구 원창동 산149번지로, 인천 육지와 영종도의 부속 섬인 운염도 사이에 있다. 남서쪽의 운염도와는 약 400m, 동쪽의 호도와는 약 600m의 거리에 있다.

⑨ 소세어도(小細於島; 지내섬) : 작은 무인도로 자연녹지지역의 사유지이다. 섬의 모양은 동서로 50m, 남북으로 100m 정도의 타원형인데, 그 모양이 흡사 지네와 흡사하다고 해서 ‘지내섬’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지내섬보다는 ‘소세어도(小細於島)’라는 명칭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썰물 때 갯벌이 주위에 드러나기에 세어도에 서식하는 고라니가 지내섬까지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흔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⑩ 겸섬; 키도 : 겸섬은 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의 작은 무인도로, 자연녹지지역의 사유지이다. 세어도와 김포매립지 사이의 수로 가운데 위치한다. 세어도 주민들은 이 작은 무인도를 ‘키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섬은 세어도와 선착장 중간지점에 위치해, 배 운항 시 기준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4) 석남동(石南洞)

원적산 기슭에 발달한 마을이다. 석곶면의 남쪽이라는 의미였는데 지난날 번작리, 고잔, 옷우물, 박가되말 등 네 개의 자연 취락이 자리 잡고 있었다.

① 번작리(番作里; 번지기) : 이곳은 포구였고 군대의 기지와 초소가 있어 근무 당번을 정해 번을 섰던 터라 그런 지명이 붙었다. 포구 앞에는 노송(老松)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둥근 형의 동산이 앉아 있었다. 두루미와 백로들이 마치 널어놓은 빨래처럼 앉아 있던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오늘날 ‘거북시장’이라 이르는 저자와 그 아래쪽 마을이 옛날의 번작리이다.

② 고잔(高棧) : 곶의 안쪽(고잔)을 일컫는 지명이다. 해변을 향해 쪽 뻗어간 구릉을 이르므로 많은 동명이소(同名異所)가 있다. 인천에도 오늘의 중구 일대, 남구 고잔동, 경서동까지 4곳이나 있었다. 석남동의 고잔이 특이한 것이 있다면 유독 높을 고(高)자를 쓰고 있다.

③ 옷우물; 오두물; 상엿독 : 발음되는 대로 ‘오두물’이라고도 불렀다. 옛날 이마을에 우물이 있었는데, 옷이 오른 사람이 와서 몸을 씻으면 잘 낫는다 하여 붙여졌다. 옛날에는 계곡에 숲이 우거지고 맑은 샘물이 흘렀다. 작은 규모의 간장 공장이 있었고 노송들이 있었다. 지금 석남초등학교가 들어선 곳부터 거북시장의 북쪽 끝, 그리고 신도로 옆의 지금 강남시장이라 부르는 곳까지가 옛날의 옷우물 마을이다. 지난날 병을 낫게 한 우물이 있던 그 자리는 지금도 석남약수터라 불리며 물통을 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다.

④ 박가되말 : 동쪽 산 밑에 있었으며 ‘바그메’라고도 불렀다. 이곳에 박씨의 묘가 있어 그런 지명이 붙었다고 전하는데, 이곳에서 평생 산 주민들은 박씨보다는 배(裴)씨가 더 많았다고 말한다.

⑤ 검정다리마을 : 일제강점기 때 주민들을 강제 부역시켜 만든 국방도로에 검정색 콜타르를 칠한 목제 육교 2개가 1960년 초까지 놓여 있었다. 저절로 이 육교 근방에 가옥들이 들어서고, 그 취락을 검정다리마을이라 불렀다.

⑥ 독골; 독굴; 독굴마을 : 옷우물 마을에서 원창동 쪽으로 나갈 때, 도당재산 밑의 골짜기를 바라보며 걷게 되어 있었다. 이 골짜기에서 독을 구워 독골이라 하고 여기 취락이 들어서자 독굴마을이라 불렀다.

⑦ 원적산(元積山) : 서구와 부평구를 경계 짓는 산으로 옛날부터 남으로는 장고개, 북으로는 안아지 고개를 안고 있다. 원적산을 올라 산곡동으로 넘어가는 언덕길이 원적산 고개이다. 이 고개는 오늘날 철마산 관통도로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다. 석남동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들은 철마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심곡동과 가정동에 닿아 있는 철마산의 한 지맥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나 이곳의 철마산 명칭은 잘못된 것이다.

⑧ 둔전(屯田)들 : 해변에 펼쳐진 들판이다. 지명으로 보아 군에 소속된 토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번지기라는 지명과 연계하면 옛날에 이곳이 상당한 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들판에는 윗방죽, 아랫방죽, 안방죽 등 세 개의 제방이 있었다.

(5) 가좌동(佳佐洞)

서구의 남쪽 끝이다. 가재울과 건지(乾池)골, 감중절리(甘中節里), 그리고 능안말이라는 세 개의 자연 취락이 있었다. 그리고 썰물 때마다 길이 열리는 앞바다에 소염도(素鹽島)라는 작은 섬이 있었다. 1911년 일제의 강제합병 직후 조사 작성한 『조선지리지자료』에는 한자가 오늘처럼 ‘가좌동(佳佐洞)’으로 실리고 자연취락명으로 상촌(上村; 웃말), 하촌(下村; 아랫 말), 행화리(杏花里; 살곶지), 감동사리(甘同寺里), 능내리(陵內里; 능안말) 등이 올라 있다.

‘가좌’라는 지명은 우리말 ‘가재울’의 음차 기록인 것으로 보인다. 가좌리가 민물 갑각류 가재에서 유래한다는 설이 구비 전승되어왔다. 이곳에 맑은 시내(佳佐川)가 있어 가재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시내 아래쪽에 연못이 있었는데 시내의 물이 흘러들지 않아 마른 연못이 되어서 건지(乾池)라고 불렸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말 고어의 ‘가’ 또는 ‘갯’은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를 뜻하고 가좌동이 보도진 해협으로 막힌 육지의 가장자리라 그런 지명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① 가재울 : 옛날에 ‘가재울’ 또는 ‘가재울’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한다. 이곳에 맑은 시내 가좌천(佳佐川)이 있어 가재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② 건지(乾池)골 : 가좌천 아래쪽에 연못이 있었는데 시내의 물이 흘러들지 않아 마른 연못이 되어서 건지(乾池)라고 불렸다. 이 건지에서도 큰 가재 한 마리가 나왔다고 한다.

③ 감중절리(甘中節里) : 감중사(甘中寺)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절은 빈대가 많아 승려와 신도들이 견디지 못해 문을 닫았다고 전해진다. 큰 감중절과 작은 감중절로 나누어 불렸다.

④ 보도진말(步道津; 보두지; 수도나루; 윗나루; 아랫나루) : 현재 동구 송림동과의 사이 300m의 해협에 놓인 나루를 지칭한다. 흔히 ‘보두지’라고 불렀는데 한자 뜻 그대로 썰물 때는 배를 타지 않고 징검다리로 건널 수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인천교의 아래쪽 1km 부근이 이 나루터 자리다. 윗나루와 아랫나루 두 곳이 있었으며 윗나루를 수도나루, 아랫나루를 그냥 보두지라고 불렀다. 수도나루란 수도관이 매설된 까닭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윗나루는 징검다리 통행이 가능해 뱃삿이 싹고, 하류의 아랫나루는 거의 물에 잠겨 있어서 걸어서는 건널 수가 없었다. 윗나루 자리에 인천교가 준공되면서 없어졌다. 인천 중심가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이 나루를 건너 보도진 구릉을 타고 공동묘지 서쪽 옆길을 거쳐 능안 마을로 들어가거나, 감중절 마을로 나가 국방도로를 탔다. 국방도로를 타고 북진하면 감중절과 가재울을 거쳐, 능안과 원적산 사이를 지나서 건지골을 거쳐 왼쪽으로 번자리, 오른쪽으로 박가뒀말을 거치면서 웃우물까지 나아갔다. 그대로 직진하면 가정동이 나왔다.

⑤ 해망산(海望山) : 멀리 서해와 팔미도까지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산에 감중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⑥ 장고개; 장끝마을 : 가좌동에서 산곡동으로 가는 고개이다. 이 고개 앞의 마을을 장끝마을이라 부른 데서 비롯된 지명이다.

⑦ 구루지고개 : 가좌동에서 산곡동 화랑농장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⑧ 국방도로 : 일제강점기 서울과 인천 사이의 군사연락 및 인천항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만들었다. 가좌동에서 가정동까지 경인고속도로의 직선으로 뻗친 구역이 그 후신이다.

강덕우(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Chapter II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2
남서곶

남서곶의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문화

1. 문화와 풍습
2. 사회와 환경
3. 교육과 행정
4. 산업

Ⅱ. 남서곶의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문화

1. 문화와 풍습

1) 전통 혼례

서구지역은 인천에서도 가장 오래도록 농촌 지역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통 의식이나 풍습이 근래까지도 대부분 남아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서양식 결혼식에 비교해 흔히 전통 혼례라고 칭하는 결혼 의식 절차도 서구 지역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사례다.

혼인은 양가의 결합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양가 어른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었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거행됐다. 먼저 혼인 적령기에 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 친척이나 아는 사람, 이웃 사람 등을 통하거나, 중매쟁이에게 중신을 의뢰한다. 학력, 성품, 생활력 등을 맞춰보고 서로 상대가 마땅하다고 생각되면 궁합을 본다. 궁합이 좋으면 여러 탐색 과정을 거쳐 혼사 여부를 결정한다.

혼인 의례도 서곶과 검단 등 서구만의 특징은 없다. 전통시대에는 혼인이 결정되면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인을 청하는 납채(納采), 혼인을 정한 여자의 장래 운수를 점칠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묻는 문명(問名), 신랑집에서 혼인날을 받아 알리는 납길(納吉),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보내는 납징(納徵), 혼인을 할 때에 신랑집에서 택일하여 그 가부를 묻는 편지를 신부집으로 보내는 청기(請期),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는 친영(親迎) 등 육례(六禮)를 지켜서 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곶과 검단지역의 결혼은 절반가량이 전통 혼례였다. 그러나 지금 전통 혼례는 거의 사라졌다.

혼례식도 신부집에서 올렸으나 8·15광복 이후에는 점차 간소화되었다. 결혼식장도 교회나 예식장으로 바뀌었다. 서곶 사람들은 기독교인 경우 연회감리교회나 백석교회를 식장으로 이용했고 신자가 아닌 경우 인천 시내나 부평 시내의

예식장을 이용하였다. 검단 사람들은 양곡읍이나 김포읍의 예식장, 또는 인천 시내의 예식장을 이용하였다.

서곶과 검단은 인천의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통 혼례의 양식을 지켜온 곳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도시화되면서 급격히 그 흔적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다만 육례의 전통은 지켜가는 쪽이어서, 비록 결혼식은 교회나 성당이나 예식장에서 결혼 의사를 확인하는 의혼,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물을 보내는 납채, 결혼식을 올리는 친영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 인용한 글은 『인천광역시 서구사』에 보이는 서구지역의 전통 혼례에 대한 기록이다. 결혼 절차에 관해서 요약한 글인데 혼례 의상이나 예식 절차는 기록하지 않았다.

서구문화원에서 발간한 『서구 그리고 사람들』 사진집에 1940년대, 50년대에 찍은 전통 혼례 사진이 여러 장 보인다. 사모관대(紗帽冠帶)에 흉배(胸背)를 하거나 혹은 각대(角帶)만 한 신랑과 활옷에 원삼(圓衫)을 입고 족두리를 쓰고 비녀를 꽂은, 아름다운 신부 모습의 사진이다.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도 있고 그냥 맨얼굴의 신부도 있다.



명륜당 앞에서 찍은 전통혼례 사진



원창동 최용복님의 전통혼례

1962년에 촬영한 검단지역의 결혼식 사진에는 휘윽한 어느 초가 앞마당을 혼례복을 입은 신랑이 걸어가는 사진이 있는데 사진 설명은 다음과 같다.

“검단 완정부락 지역의 전통 결혼식 모습으로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들고 신부집에 도착하는 신랑의 모습. 기러기는 짝을 지어 한평생 의종게 사는 동물이다. 짝을 잃으면 다시 짝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부간의 믿음과 화목, 정절, 질서의 상징으로 믿으며 부인이 남편을 따르는 상징성,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는 덕목의 상징으로 혼례의 으뜸 예물로 삼았다.

오래전 전통 혼례에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처음 행하는 의례를 전안례(奠鴈禮)라고 했다. 이때 기러기와 같이 의리를 지키겠다고 신부에게 바치는 서약의 의미를 뜻한다. 기러기는 색실로 머리를 감아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간다.”라고 적고 있다.



| 기러기를 들고 신부집으로 향하는 신랑(검단 홍종헌님)

또 다른 설명에는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해서 시작되는 전안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안례는 전통 혼례식의 중요한 서막이다.

“신부집에 마련하는 초례청은 대청이나 마당에 차일을 치고 병풍과 휘장을 둘러 만든다. 초례청에서 행하는 혼례식을 초례 또는 대례라고 하고 그 장소를 초례청이라 한다.

사진은 전안례를 행하는 모습으로 신랑이 전안상 위에 보자기를 펼쳐 놓고 그 위에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올려놓고 절을 올리는 모습이다. 전안례는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기러기를 바치는 예이며 당시 중요하게 여겼다. 이때는 하객들도 농을 하지 않고 정숙한 자세로 지켜보았다. 당시 신랑이 엄숙하게 상 위에 기러기를 올려놓는 모습이다. 이러한 전통 혼례의 일부였던 전안례 행사는 그 격식이 어려워 대사를 치른다고 할 정도였다. 혼례 방식도 전통 혼례에서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제3의 장소로 예식장이 생기면서 점차 사라졌다.”



검단 홍종현님의 전안례



| 솥검정 칠을 한 신랑과 친구들 (검단 좌동)

그렇더라도 서구지역에서는 1970년대까지도 여전히 전통 혼례가 종종 거행되었던 것 같다. 1973년 검단의 한 결혼식에는 눈썹과 입과 턱 주위에 수염처럼 솥검정 칠을 당한 신랑이 얼굴에 온통 먹칠을 한 친구들과 대례상 앞에서 찍은 짓궂은 사진도 보이기 때문이다.

혼례는 마을 전체의 경사로 애어른 할 것 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하고 국수를 먹고 기뻐하면서 떠들썩하게 그 의식을 구경하는 흥미 거리이기도 했다. 남정네와 사내아이들은 대체로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나, 아낙들과 계집애들은 매우 관심 있게 맨 앞에 몰려들어 구경하던 생각이 난다.

전통 혼례는 저녁 해가 질 무렵인 신시(申時), 즉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대례상 좌우에 촛불을 켜놓고 시작되는 것이 전례였다. 그래서 혼례 ‘혼(婚)’ 자에 ‘저녁때’ 또는 ‘어두울’이라는 의미의 ‘혼(昏)’자가 들어있는 이유라고 한다.

사진 속에서 보듯 인간이 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관혼상제(冠婚喪祭) 네 가지 의례 중에서 가장 기쁘고 흥겨웠던 두 번째 의례인 혼례 풍습을 서구지역에 남은 낡은 사진 속에서 추억한다.

2) 회갑연

삶의 과정에서 거치는 통과의례(通過儀禮)인 관혼상제(冠婚喪祭) 외에도 중요한 기념 의례가 회갑연(回甲宴)일 것이다. 이 풍습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지만 서구지역이라고 해서 과거부터 다른 지방과 다른 특별한 풍습이 있던 것은 아니다. 역시 『인천광역시 서구사』에 보이는 내용을 발췌해 본다.

전통시대에는 회갑날 마당에 차일을 치고 풍성한 음식을 장만하고 일가와 친지들을 모셔다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

떡과 과일을 높이 권 큰상을 차려 회갑 당사자 내외를 모시고 장남 차남의 순으로 헌수(獻壽)를 올리는데 이때 기생들이 지화자를 부르며 흥을 돋구었다. 그러나 그런 회갑연은 노인들의 기대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라지고 있다. 노인층 일각에서는 오히려 잔치를 벌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현상이 생겼다. 서곳과 검단의 노인들은 대부분 회갑연을 직계 자손들에게서 간단히 헌수를 받고 먼 곳을 여행하는 일로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고향연이 옛날 회갑연처럼 많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집에서 음식을 차리는 일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도시화가 되면서 단체 손님 받는 뷔페 집 등 전문 음식점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초대 측인 회갑 당사자의 자식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내놓는 축의금을 챙겨 음식점에 대납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뷔페 집에 열리는 경우 회갑 당사자보다 연로한 어른들은 스스로 음식을 골라 담아 먹게 하는데다가, 청첩장을 남발하는 결과로 손님들이 많이 몰려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차라리 오늘날의 회갑 풍조를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실제 이 같은 풍경이 어느결에 만연해 있어 애초 우리가 전통적으로 치러왔던 회갑연의 본래 의미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920년의 가좌동의 한 회갑연 사진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역사 자료처럼 남아 있다. 수염을 기르고 갓을 쓰신 어른이 백화(百花)가 난만(爛漫)한 병풍을 뒤로하고 회갑상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떡과 밤, 대추 등 과일에 약과와 산적 등 아주 풍성하고 호사스럽다.

“환갑은 육십갑자(六十甲子)를 새로 바꾼다는 뜻으로 만으로 60 세는 노경(老境)의 시작이라 하여 일가친척이 모두 모이고 동네 사람들이 축복을 해 주었다. 조선 숙종대 이후에는 환갑을 주갑(周甲)이라 명칭 하였고 영조 이후에는 대례(大禮)로써 부모 주갑에 자식들이 가능한 한 큰상을 차리고 차례차례로 헌주(獻酒)를 했다.”는 사진 설명이 붙어 있다.

1915년 검암의 회갑연에는 회갑을 맞은 당사자의 부인이 요즘은 볼 수 없는 조바위를 쓴 모습이 보인다. 서구에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난날 낙향해 터를 잡은 권문세가(權門勢家)와 누대에 걸쳐 세거(世居)한 문중이 많아 이런 풍습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이다. 대체로 1960년대까지의 사진 기록들이 주를 이룬다. 이후 이런 전통 회갑연이 시류의 변화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1920년 박용구님 회갑연



| 1915년 정태노님 회갑 기념 사진

3) 상례모습

흔히 장례(葬禮)라고 이르는 관혼상제 중 사람의 일생에 세 번째 맞는 큰 의례이다.

상례는 사람의 죽음에서 행해지는 의례 전체를 말한다. 상례는 평생 의례 관습 중 전통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남아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른 의례와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상례는 보통 3일장이었으나 여유 있는 집이거나 혹은 일기가 불순하거나 가족이 다 모이지 않았을 경우에 5일장을 하기도 한다. 기독교인들은 발인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로 하루 늦추기도 한다.

서구지역의 상례는 인천의 다운타운에 비해서는 최근까지 전통의례가 잘 지켜졌고, 그 절차 의례는 경기도나 인천의 전통 상례와 다르지 않았다. 최근에 들어 모든 가정의례가 간소화되면서 그것도 특징이 없이 간소화되고 있다.

이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사』의 한 구절인데 변모해 가는 우리 상례(喪禮) 전통을 말하고 있다.

입관이 끝나면 비로소 상제들은 삼베로 된 상복을 입었다. 머리와 허리에는 새끼 끈을 둘렀으며 행전도 차고 짚신을 신었다. 상주는 부친상인 경우 대나무 지팡이를, 모친상인 경우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었다. 이때 제사상도 마련하고 장례식까지 상식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대사를 치르는 일에 내 일처럼 나섰다. 막걸리 한 말, 고기 세 근, 백미 한 말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부조하거나 돈을 부조하였다. 장례식 날은 마을 사람들이 상여집에서 상여(喪輿)를 꺼내와 조립하여 운구 준비에 들어갔다. 다른 지역에선 종이로 꽃상여를 만들어 장례 뒤에 불태우는 전통이 있었으나 서곶과 검단의 상·장례에선 일회용이 아니라 견고한 상여를 해체 보관하였다가 조립하여 사용하였다.

상여는 마을의 장년층 남자들이 품앗이하듯이 메었다. 상두꾼이 요령을 올리며 앞장서 상여를 이끌면 상여꾼들이 뒷걸음질 쳐서 상주에게서 술 한 상을 받아 내기도 하였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마지막 제사를 지내고 곧 하관했다. 명정(銘旌)은 관 위에 펴놓고 횡대(橫帶)를 덮은 다음 회격(灰隔)하고 평토(平土)했다. 평토가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오른편 아래쪽에 묻고 성분(成墳)하였다.

위와 같은 전통 상례 절차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최근 도시화와 기독교의 영향 등으로 간소화되고 절충되었으며, 장례식장의 이용으로 더 크게 변화되고 있다.

남서곶에서는 1966년 가좌동의 심운섭(沈雲燮) 선생의 장례 모습이 사진에 남아 있다. 1960년의 검단의 상여 모습, 1975년의 원당능곡의 상여 모습, 1981년의 금곡동, 1980년대 검암동의 상여 모습이 남아 있는데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에는 검암동 정씨 가문의 장례를 끝으로 “서구지역에서 전통적인 상여 모습이 이 시점을 끝으로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쓰고 있다.

1980년대 청라도의 상여 행렬에 대한 사진 설명에서도 역시 “꽃상여로 운구하는 모습은 80년대를 기점으로 서구지역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보통 맨 앞에 만장기가 서고 고인의 영정이 그 뒤를 따르고 운구를 이끄는 요령(종을 치며 만가를 선창하면 상두꾼, 향도꾼이 후렴)을 울리고 북을 치며 꽃상여가 나가고 그 뒤를 유족과 주민이 따른다. 당시 만장은 부조에서 가장 크게 쳐 많을수록 고인의 덕으로 평가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요즘 이 같은 장례 행렬은 완전히 사라져 볼 수 없다. 가장 먼저 흔적 없이 사라진 우리 전통의 하나는 상례 의식일 것이다.



| 심운섭님 장례 모습



| 검단 이철옥님의 상여 운구



| 검단(원당 능곡) 상여 운구



| 검단(금곡동) 상여 운구



| 검암동 상여 운구



| 청라도 김재용님 외조모(밀양박씨) 상여 행렬

4) 두레패(농악대)

두레는 농촌에서 농사일이 바쁠 때 서로 도와서 공동으로 작업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을 이른다. 특히 우리나라 중남부지방 논농사 지역에서 마을의 성인 남자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협력하기 위해 조직한 공동노동조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이다.

두레는 “주로 논농사에서 모내기·김매기 때와 같이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투입해야 할 때 관행되어 왔다.”는 것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설명이다. “두레에 의한 공동노동은 모내기, 물대기, 김매기, 벼 베기, 타작 등 경작 전 과정에 걸친 것이고, 특히 일시적으로 많은 품이 요구되는 모내기와 김매기에는 거의 반드시 두레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두레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면 마을의 성년이 된 남자는 전원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조직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두레에는 임원을 두었는데 대체로 “전체 통솔자인 행수(行首) 또는 황수(皇首)라고도 하는 지휘자 1명, 행수의 보좌인 도감(都監) 1명, 작업의 진행을 지휘하는 수총각(首總角) 1명, 규약에 따라 두레꾼의 행동을 감시하는 조사총각(調查總角) 1명, 기록과 회계를 맡은 유사서기(有司書記) 1명, 방목지(放牧地)의 가축을 돌보며 가축으로부터 논밭을 보호하는 방목감(放牧監)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행수와 도감은 그 위치로 보아 “자작 농가 가운데에서 덕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며, 그 밖의 임원은 소작농이나 머슴 가운데에서 선출한다.”는 것이다.

“두레의 운영과 기능에서 또 한 가지 불가결한 요소는 공동회연(共同會宴)이다. 공동회연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풋굿, 호미씻이[洗鋤宴]였다. 대체로 김매기를 마친 뒤 공동 작업에 직접 참여한 사

람들이 모여, 음식과 술을 먹고 농악에 맞추어 여러 가지 연희를 곁들여 뛰고 놀면서 1년의 노고를 잊고 결속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밖에 “두레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는 농악이 있다. 농악이 있는 두레는 작업을 하러 갈 때 농기(農旗)를 앞세우고 장구, 팽과리, 북을 풍물재비들이 치며 간다. 김매 때는 장구재비 혼자만 소리를 하면서 풍물을 잡는다. 농악은 노동의 고통을 경감시켜 더욱 힘을 내게 하고, 협동심을 북돋우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레는 20세기 무렵부터 쇠퇴하여 “오늘날에는 원형적인 두레는 없어지고 변형적인 형태로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두레라는 이름으로 공동노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며,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이같이 두레의 소멸은 토지 사유화의 발달과 화폐 경제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설명이다.

사진으로 남아 있는 두레패 모습은 1938년의 시천동 청년단 두레패와 1947년 가좌동 농악대 두레패가 있다. 시천동 두레패 사진은 광복 전이어서 우리 전통에 대한 일제의 보이지 않는 압제가 있었는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복장도 조촐한 한복에 징과 장구, 팽과리뿐이다. 더구나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라고 쓰인 농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와 달리 가좌동 두레패 사진은 촬영일이 광복 후인 1947년 12월 17일로 되어있어서인지 정식 복장은 아니더라도 머리에 전통 고깔을 쓰고 있다. 우리가 흔히 농악대라고 하는 모습 그대로이다. 모르는 해도 인천에서도 서구지역이 가장 오래도록 두레패가 남아 활동하지 않았을까 싶다.

서구문화원에서 발간한 사진집 『서구 그리고 사람들』에 수록된 가좌동 사진은 “1940년대 가좌동농악대(두레패)”라는 제목 아래 “가좌동에서는 농기를 갖추고 농번기에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동네 주민이 한데 모여 단합된 공동체의식 행사를 주관했다. 특히 농기는 논두렁에 꽂아 놓고 농악에 맞추어 농부가를 합창했으며 마을을 상징하는 농기는 신성하게 여겨왔다. 예전에는 마을 농기가 꽂혀 있을 때 이곳을 지날 때, 신성한 마음을 가졌고 벼슬이 높은 이들도 말에서 내려 지났다고 전한다. 서구지역 각 동에서는 1945년 광복을 전후해 농기를 많이 장만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72년 전 사진을 보며 인천 지역의 곡창지대였던 서구가 급격한 변화로 눈 한 뼘 남지 않은 도시가 되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진 속의 가좌동 두레패 인물들도 이제는 거의 다 계시지 않으시리라는 생각도 해 본다.



| 1938년 시천동 청년단



| 1947년 가좌동 농악대

2. 사회와 환경

1) 개건너와 번지기 나루터

옛날 해안 초소가 있어 번(番)을 섰던 곳이라서 생긴 마을 이름이다. 이곳에는 인천 송림동으로 통하는 나루터가 있는데 번지기나루라 불렀다. 가좌동 인천교 자리를 웃나루, 그 밑을 아래나루라고도 불렀다. 웃나루는 만조 때만 나룻배로 건너고, 간조 때는 돌다리를 건너다녀서 선가(船價)도 아래나루에 비해 싼 편이었다. 이 나룻배를 건너고 혈떡고개를 넘어 배다리로 통행하였다.

이곳에 가재가 많이 사는 건지(乾池)가 있었고 고려 시대에는 큰 가재 한 마리가 건지에서 나와 ‘가재울’이라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가재리(佳裁里)’라 하였고, 이후 ‘가재’가 변음되어 ‘가좌(佳佐)’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으로 이곳을 건지가 있던 곳이라 하여 ‘건지골’로도 불리었다.

두 인용문이 다 『인천광역시사』의 기록이다. 앞의 글은 개건너 나루인 번지기(번직이)나루에 대한 설명이고 나중 것은 가좌동의 지명 유래를 설명한 글이다. 그야말로碧海桑田(碧海桑田)이어서 외지 사람들이나 근래 태생들은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꿈같은 과거사요, 지명 유래일 것이다. 또 다른 호칭으로는 이곳을 ‘보도진나루’라고도 불렀다.

현재의 남구 도화동과 서구 가좌동 사이에는 길고 깊은 해협이 뻗쳐 있어서, 이곳에 바닷물이 들어와 있을 때는 나룻배로, 물이 빠져 있을 때는 갯벌에 놓인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 서구 지역으로 왕래했다.

그런 까닭에 지난날 인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중·동구에 사는 사람들은 서쪽을 통칭 ‘개건너’라고 부르기도 했다. 다시 말해 개건너는 좁은 뜻으로는 이 해협 건너편 마을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넓은 의미로는 서쪽의 모든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물론 그 당시 서곶과 검단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있기는 했었다. 두 시간에 한 번쯤 동인천역을 출발해 김포 양곡이나 강화로 가는 노선이었다. 그 노선은 경인국도를 타고 송의동과 주안을 지나 십정동에서 서쪽으로 꺾어져 굽이굽이 산야를 달려 서곶의 중심지인 연희동까지 가는데 한 시간 이상 걸렸다고 한다.

서곶이 직선거리로는 결코 멀지 않으면서도 인천의 다운타운에 살던 시민 일반에게 ‘먼 곳’이라는 느낌을 주고 낙후되고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지리적 여건 때문이었다. 그래서 개건너라는 명칭은 시내 사람들이 시골에 대해 약간 낮춰 부르는 뉘앙스로 사용되었던 시기도 있었다.

사진은 가좌동의 어른 심재갑(沈載甲) 선생께서 소장하신 사진이다. 서구문화원이 발간한 사진집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에 게재되어 있기도 하다. 1950년대 후반으로 당시 심 선생께서 재직하시던 “인천중학교·제물포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고 있다. 당시 농촌의 모자라는 일손도 돕고 봉사활동도 했다. 뱃머리에 있는 분이 인중·제고 선생을 지냈던 심재갑 선생이고 노를 젓는 분은 백낙구 씨나 강복남 씨 중 한 분이였을 것이다.”라는 설명이 사진 아래 붙어 있다.

1940년대 가좌동 이종창 씨가 소장하신 또 다른 사진 설명에는 “나룻배에 농작물을 지게에다 싣고 장에 나가 팔던 때이다. 옛 사람들의 의복은 한복이 주를 이루고 개량복도 보인다. 이 당시 나룻배를 젓던 사공은 가좌동에 살던 백낙구, 강복남 두 분이 도맡았다고 한다. 이곳의 나룻배는 1958년 인천교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 학생의 통학 및 가좌동 농작물을 배다리·동인천 지역에 내다 팔던 주요 교통수단”이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긴했던 교통로인 개건너 번지기나루터는 1958년 도화동과 가좌동 사이의 해협에 인천교(仁川橋)가 놓이면서 사

라지고 말았다. 인천교가 놓이자 이를 통해 노선버스가 빈번하게 직행 운행했고 시간도 30분 이하로 줄어들었다. 통행이 편해지면서 이 지역 사람들의 통학과 통근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인천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백석 출신으로 초대와 2대에 걸쳐 인천시 민선 시의원을 지낸 심덕기(沈德基) 선생이다. 선생은 1957년 인천교(仁川橋) 건설을 추진해 인천의 동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생전의 심 선생은 사학(私學)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신 분이다.

지금 갯골은 모두 매립이 되고 육지화 되어 어디에 다리가 놓였었는지 지역 토박이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서 그런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인천 시내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울 뿐이다.



| 농촌봉사활동을 위해 나룻배를 탄 학생들과 심재갑 선생



| 가좌동 윗나루터에서 도화동으로 오가던 나룻배

2) 인천교

인천교는 옛날 ‘번직이나루’에 놓였던 다리로 매립이 되어 사라진 채 지금은 이름만 남았다. ‘번직이나루’는 ‘번지기’, ‘번저기’ 또 이곳 지명인 번작리(番作里) 등으로도 불렸는데, 위치는 현재의 동구 송림동과 남구 도화동, 그리고 서구 가좌동이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가좌동 방향으로 가면서 왼쪽 동구 구민운동장과 인천의료원으로 꺾이는 고가도로를 막 지나는 지점이다.

숙골동산을 넘으면 ‘번저기나루’가 있는 주안염전 갯골이 나온다. 갯골 너머가 개건너라고 하는 서관(西關)이다. 번저기나루에는 나룻배 대신 웅장한 인천교가 걸려 있고, 개건너 일대의 야산은 공장지대로 변하고 있다.

1980년대 초, 故신태범(愼兌範) 박사의 『인천 한 세기』 책의 구절이다. 인천교는 1957년 2월에 착공하여 1958년 1월 17일에 준공했다. 이 다리의 개통으로 인천 서부지역과 당시 중심지인 중·동구 지역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었다. 당초 길이는 210m, 폭 12m였다. 1973년에 다리 폭을 두 배가 넘는 30m로 넓히기도 했으나 1980년대 시세 확장과 공업용지 수요로 이 일대 48만여 평 바다를 매립해 육지가 되었다.

이쯤에서 이 인천교 다리 건설에 있어 숨은 공로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교 건설에는 서구 백석동 출신인 故심덕기(沈德基; 1911~1992) 선생의 역할이 컸다. 심 선생은 1952년과 1956년 두 차례에 걸쳐 민선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심 선생에 관한 자세한 이력은 『서구사(西區史)』에 기록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32년 경성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금촌금융조합에 근무하면서 일제의 수탈 만행으로부터 민족 자본을 지키기 위하여 고심, 노력했다. 1952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 선거에서 초대 인천시 시의원에 당선된 뒤, 1956년 제2대에도 연거푸 재선되었다. 제2대에 들어와서는 인천시의회 의장에 피선되어 농업과 공업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정책을 펴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1957년에는 인천교 건설을 추진해 인천의 동서지역 간 균형 발전을 꾀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인천교 건설은 심덕기 선생이 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다소간 영향력을 발휘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이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을 자기 출신 지역을 위한 단순한 선심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장 주민들 통행 불편의 해소라는 이득도 있었지만, 그보다 거시적 안목으로 인천 전역의 균형 발전을 내다본, 미래적이고 건설적인 사업이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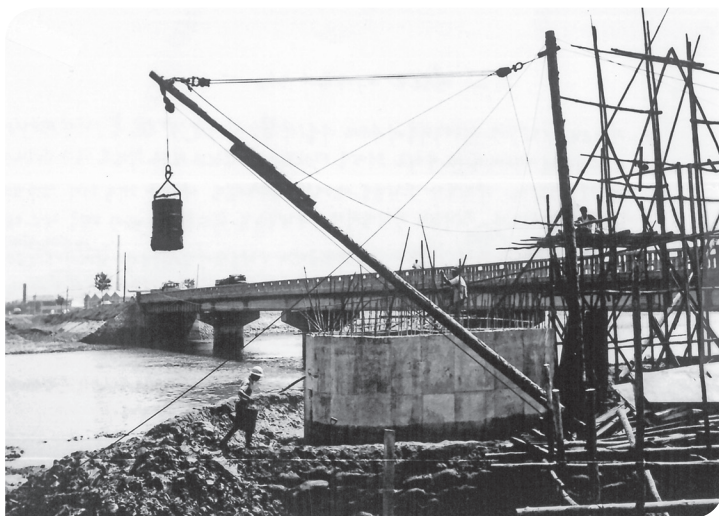
뒤의 사진은 바로 그 확장 공사 장면이다. 새로운 교각을 세우는 모양인데 공사 도구들이 웃음을 짓게 한다. 지금 같으면 어렵도 없을 잇댄 나무와 와이어를 얹어 설치한 크레인이나, 오늘날과 같은 파이프 형이 아닌 목재 비계가 보이기 때문이다. 반세기 세월의 거리를 느끼게 한다.

심덕기 선생의 해안과 선견이 서려 있던 인천교는 이런 과정을 거쳐 1985년 시세 확장과 공업용지 부족으로 이 일대 48만여 평 바다를 매립하면서 이름만 남긴 채 사라지고 말았다.

송림동 혈떡고개에서 가좌동 앞 인천교에 이르는 길은 왼쪽으로 잘 정돈된 주안염전이, 그리고 오른쪽은 야트막한 구릉이 도화동을 감싸고 있었다. 인가도 없고 자동차 통행도 별로 없는 한적한 교외, 염전지대에 지나지 않았던 곳. 이제 그곳은 아련한 추억 속에만 남아 있다.



| 1960년대 인천교 준공 모습



| 인천교 확장 공사

1965년 인천교 다리가 개통되어 그동안 나룻배로 오고가던 시내 통행은 도보와 마차, 자전거로 대체되었고 얼마 후 버스가 김포·강화까지 운행되어 많은 부분에서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 좌측의 산은 해마산, 중앙은 서달산, 원적산 우측으로 호봉산의 모습이 보인다. 좌측 뚝방 너머에는 동아목재가 들어서 원목을 바다에 띄워놓고 목재 가공업이 시작되어 목재 단지가 형성되고 70년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주안공단이 들어서면서 인천교는 변화를 지속시키며 80년도 중반기에 가좌동 택지 조성 and 아파트 단지를 조성으로 그 수명을 다하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육지화로 다리 역할을 마쳤다.

3) 청송 심씨(靑松沈氏) 고택

인천이란 도시의 운명이 그래서인지 아주 오래된 고택(古宅), 고가(古家)가 드물다. 넓고 고즈넉한 뜰과 운치 있게 휘어져 올라간 추녀와 댓돌이 놓인 시원한 대청마루와 창호지를 바른 가지런한 창살을 가진 한옥 고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생각나는 대로 남구 승의동에 있던 故김은하(金殷夏) 국회의원 덕건물이나 구한말 전환국(典圖局) 방판(幫辦)으로 있던 안경수(安駟壽)의 중구 전동(錢洞) 저택 등이 품격을 갖춘 한옥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모두 사라지고 없다.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이 중구 남북동의 시 문화재 자료 제16호인 ‘조병수 가옥(趙炳洙家屋)’이 있는데, 이 집은 189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서구 가좌동 280-3번지에 앉은 청송 심씨(靑松沈氏) 구옥(舊屋)이 3백 년 역사를 가진 인천 최고령의 고옥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집은 청송 심씨 영의정 안효공(安孝公) 휘(諱) 온(溫)의 10대손,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總府副總管) 증가선대부이조참판(贈嘉善大夫吏曹參判) 심공(沈公) 한웅(漢雄, 1652~1715)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1940년 심공 한웅의 8대손 심공 상필(相弼, 1873~1957)과 그의 자 심공 운섭(雲燮, 1899~1966)이 4년간에 걸쳐 증축 공사를 하였다.

이분들은 이 공사를 위해 백두산에서 한국송(韓國松) 재목을 벌채하여 압록강 신의주까지 뗏목으로 운송하였으며 지붕의 기와는 서해 영흥도(靈興島)에 있었던 병자호란(丙子胡亂) 시의 충신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사당(祠堂)이 오랜 풍상으로 퇴락하여 헐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와를 배 3척으로 운반하여 이 집의 기와로 삼았다.

인용한 글은 1978년 10월 3일 청송 심씨 참정공파(僉正公派) 회장이던 심재갑 선생 등이 기록한 이 집에 대한 찬문(撰文) 일부다. 이 글로써 간략하게나마 청송 심씨 고가의 역사와 내력을 알 수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1950년 6·25전쟁이 터져 인천시민 수만 명이 개건너 나루를 건너 가좌동 일대로 피난해 왔을 당시 이 고택에 무려 30여 가구가 들어와 생활했는데, 마당의 우물이 마르지 않아 피난민들의 극심한 식수난을 해결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우물은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다.

우리 집 역시도 처음 전쟁이 났을 때 일차로 피난했던 곳이 개건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살이어서 기억에는 없지만, 혹시 심선생님 댁 우물 신세를 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후 이 고택은 1950~60년대에 들어 인천중학교·제물포고등학교 교장이시던 길영희(吉英羲) 선생의 주도로 인천중·제물포고 생도는 물론 서울고교, 인일여고, 송도고교 학생들의 특별활동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때 특별활동이란 문맹퇴치운동, 가재물야학당 운영, 브나로드 운동, 사방사업(砂防事業), 근로봉사, 학급 야영 등이었다.

현 주인인 심재갑 선생의 선대(先代) 심운섭 선생은 이 구옥에서 가좌야학당을 열어 당시 가난으로 학업을 포기한 청년 학생들을 위해 공부를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같은 내용은 『서구사』 인물편에도 보인다.

심운섭 선생은 창영학교를 거쳐 1919년 인천상업학교를 졸업했다. 서곳 출신으로서 최초로 보통학교 과정을 수학하고 중학교 과정을 마친 분으로 기록된다. 인천상업학교를 나와 금융조합(金融組合) 서기로 근무하였고, 1940년대에는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환일형제운송점(丸一兄弟運送店)을 경영하기도 했다.

1930년대 이른바 브나로드운동에 나서 가좌동 261번지 자택에 가재울강습소를 열어 문맹퇴치와 더불어 농촌 계몽운동을 벌였다. 후에 그는 이 강습소를 확장해 원적산 줄기 아래인 지금의 가정초등학교 자리에 교실과 운동장을 구비한 학교 형태로 확장하여 주민 교육에 열성을 다했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남서곶에 국민학교를 개설하기 위해 진력하여 1946년, 마침내 석남국민학교를 유치, 개교하는 데 공을 세웠다. 석남초등학교 개교와 함께 강습소를 닫고 학교 초대 기성회장을 맡아 학교 발전에 힘썼다.

이 같은 선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심재갑 선생도 교육계에 투신했고, 또 사비를 들여 가좌농민학교를 세워 지역 청소년 교육을 위해 헌신하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청송심씨 고택 심재갑 선생이 답사온 시민들에게 고택을 소개하는 모습

10여 년 전, 한때는 이 유서 깊은 구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여파로 헐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고택이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데, 그냥 아무 보호 대책 없이 헐릴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심씨 문중에서는 서구 공촌동의 심즙 신도비(沈諱神道碑) 인근으로 이전, 복원하려 했으나, 이 신도비가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32호여서 현 규정상 문화재로부터 200m 이내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저촉되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했던 것이다.

다행히 오늘까지는 보존이 되어 오고는 있지만, 근처 일대의 ‘눈부신 현대화’로 이 고택이 설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더구나 개발론자들의 눈에는 이 고택이 마치 애물단지처럼 보이고 있을 터이니, 관할 기관에서는 한시바빠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천에서 다시 보기 어려운, 이처럼 오래되고 보존이 잘 된 옛집을 그냥 시류에 휩쓸려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4) 원창동 당산



| 원창동 당산



| 원창동(SK에너지)

지금은 매립이 되어 이곳 일대가 해안이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나 과거 이 해변에 도당제(都堂祭)를 지내던 당산(堂山)이 있었다. ‘원창동 당산 모습’이라고 해서 『서구 그리고 사람들』 사진첩에 사진이 남아 있기는 하나 당산 전체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1950년대 그 산 아래 바위 절벽을 배경으로 소풍을 나와 일가족이 찍은 사진이어서 산 전체를 조망하기는 어렵다.

사진 설명을 참조하면 당산에 대해 대강이나마 짐작을 할 수 있다. “원창동 해변가로 예전에 이곳에 당집이 있어 도당굿을 하기도 했다. 원창동 뒷산의 지명이 도당산이고 현재에도 산 중앙부분 원신타미널 위에 도당 터 지석이 현존한다.

사진의 바위산은 예전에 용머리[龍頭]로 불리어졌다. 당산에서 바다 쪽으로 약 100m, 서쪽에는 자치도(雌雉島; 가투리섬)가 있었고 석남국민학교 시절 주로 소풍을 왔던 울도(栗島)가 있었지만 정유공장이 들어서며 바닷가가 매립되어 육지화 되었고 경인에너지(현 SK 에너지)가 들어섰다. 옛 지명은 서곶면 포리(浦里) 갯말이었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이 도당산은 용머리 혹은 용두산이라고 불린 것을 알 수 있다. ‘용의머리 혹은 용머리[龍頭山]’에 대한 설명은 『인천시사』에 보인다.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바닷가에서 뭉치었는데, 그 형상이 마치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바로 도당제산이고 그것이 바닷가로 흘러내려와 ‘뭉친’ 곳이 곧 용머리가 되는 것이다. 도당제산에 대해서는 『인천의 지명 유래』에 그 설명이 나온다.

원창동과 신헌동, 석남동이 경계를 이루는 높은 산이다. 옛날 이곳에서 도당굿을 하였는데 갯말에서는 그 후 마을 앞산으로 당산을 옮겼다.

큰 산의 능선줄기가 바다에서 멈추었는데 이 산을 당산이라 한다. 본래 도당제산에 있던 도당을 포리에서는 이곳으로 옮겨 왔기 때문이다.

앞의 글들을 정리하면 도당산, 혹은 도당제산의 끝줄기가 바닷가 마을인 ‘서곶면 포리 갯말’에 멈춰선 것이 곧 ‘용머리’이며 ‘웃골’ 마을의 뒷산이었다는 말이 된다. ‘포리 갯말’은 원창동의 원 지명으로, 후일 갯말에서는 당산을 도당제산에서 ‘마을 앞산’ 곧 용머리로 옮겼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그러니까 사진 설명 속의 ‘도당제산’이란 말은 ‘당산’이라는 표기가 옳을 것이다.



| 1970년대 원창동 옷골 마을과 도당산

또 한 장의 사진은 바로 앞의 사진 설명에 등장하는 ‘옷골’ 사진인데 1970년대 풍경이다. “원창동 옷골 마을 모습이며 뒷산은 도당산(도당제)으로 마을 동제를 지내던 산제사 터가 남아 있다. 이 산으로 원신타널이 뚫리고 SK에너지 정유시설(경인 에너지, 한화에너지)이 들어서 있고, 마을에는 서구 체육시설(게이트볼)이 들어서 옛 모습이 없어졌다.”고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속의 잔잔히 나무가 우거진 마을 뒷산이 산제사(山祭祀)를 지냈던 도당산의 모습인 것이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 두 사진 설명에 등장하는 ‘옷골’이라는 지명이다. 이 지명은 어떤 일인지 『인천시사』 나 『인천광역시 서구사』 혹은 『인천의 지명 유래』 의 어느 지면에도 보이지 않는다.

옷골이라는 지명은 전국 여러 곳에 보이고 인천에도 강화지역에 몇 군데 보이는데, 특히 강화읍 월곶리 옷골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저기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윗골로도 부른다.”는 설명과 양사면 북성리의 옷골 설명에서 보듯 북성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요곡 등으로 불리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충남 논산의 옷골은 임진왜란 때 피

난한 곳이라 해서 피난골, 옷골로 불렸다는 설도 있다.

그러니까 옷골은 아마도 ‘외지다, 외따로 떨어져 있다’는 뜻에서 ‘멀다’는 의미의 ‘요(堯)’ 혹은 ‘요(遼)’를 뜻하는 지명이 아닌가 싶다. 원창동의 옷골은 서곶 중심에서 보면 바닷가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말이다.

아무튼 원창동 당산은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관장하는 으뜸의 신당”이 있던 곳이다. 당집이 있었고 당산나무는 수유나무였다.

서구 일대에는 당산나무와 신당이 마을을 지키는 지킴이 구실을 해왔다. 그리고 현재는 축제형인 거리제는 없고, 마을 단위의 동제가 도당굿 형태로 치러져 오다가, 근래에는 유교와 무속이 혼재된 형태의 동제가 일부 마을에 존속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사』의 설명대로 과거 원창동 당제는 도당굿 형태를 띠었다. “연희동과 가정동과 원창동은 당제가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지석(支石)만 남은 상태로 과거와 같은 도당굿은 열리지 않는 듯하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당굿은 사라지고 간소화된 산제나 산신제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세어도의 전깃불

지난 2007년 2월 28일 세어도에 한국전력의 전기가 공급되었다. 세어도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섬이었는데 이날 해저 케이블을 통해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기록으로는 사람이 이 섬에 살기 시작한 해수로 105년여만의 일이라고 한다.

서구청에서 지난 2004년 9월 이 세어도에 전기 공급 계획을 세우고 2005년 3월 국비 14억 7천만 원, 시비 4억 8천만 원, 구비 4억 8천만 원 등 총 24억 5천 8백만 원을 들여 원창동-세어도 간 1.8km 구간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한 것이다.

전기는 문명, 문화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첫째가는 표시일 것이다. ‘불빛’이란 것이 특히 ‘문명(文明)’의 그 ‘밝을 명(明) 자’의 상징이 아닌가. 암흑은 미개요, 광명은 문명이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세어도 주민들 스스로가 설비한 50kW짜리 자가(自家) 발전기에 의존해 불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야간에만 전기가 공급되어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해저 케이블을 이용한 전력 공급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기 개통으로 섬 생활환경 전반이 개선될 것이다.

세어도는 본디 “가늘고 길게 늘어진 섬의 형국을 뜻한 이름이고, 서천도(西遷島)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세어도가 서쪽 저 멀리 떨어져 있어 생긴 이름”이라고 『인천시사』는 적고 있다.

특히 고잔(高棧)과 상대하여 조선 말 항구로 쓰였던 포리(浦里)는 오늘의 원창동인데 1917년 일제에 의해 행정 구역이 변경될 때, 고잔리 소속의 ‘세루(細於島)’를 포리에 속하게 하고, 포리 소속의 장구도(長丘島)는 영종면 중산리에, 응도(鷹島)는 운북리에 편입시켰다는 기록도 함께 보인다.

세어도에 관련한 또 다른 기록으로, 1866년 9월 6일 경기감사 유치선(兪致善)이 대형 이양선(異樣船) 3척과 소형 3척 중 대형 1척은 울도 앞 나룻가에 머물고, 2척은 세어도 쪽으로 갔다는 보고를 조정에 올린다.

10월 9일에는 덕포첨사(德浦僉使) 이두현(李斗鉉)이 “부평 일대에 정박하였던 큰 이양선 5척 가운데서 3척이 오늘 동틀 무렵에 세어도 밖을 향해 갔는데 본진에서 감시하였으나 산이 가려 보이지 않았습시다.”라는 보고를 하는 등 병인양요(丙寅洋擾) 직전의 세어도 앞바다의 급박한 정세가 고종실록(高宗實錄) 등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밖에도 그 동안 인근의 계산동, 경서동 유물 출토로 보아 세어도에도 저 먼 선사시대, 후기 신석기시대의 조개 무덤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제 이 섬도 전깃불처럼 환하게 그 정체를 드러낼 날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세어도는 어촌 체험 마을 조성과 함께 또 하나의 역사적 보물로서 철저히 발굴되고 또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세어도는 원창동에 속한 서구의 유일한 유인도이다. 섬 면적 0.408km², 주변 갯벌 면적 0.99km²이다. 표고 40m 이하의 동고서저형 구릉지로서 해안선 길이는 4.2km의 작은 섬이다. 원래는 경서동 서단 금산에서 서쪽으로 6km 거리에 있었으나 오늘날 매립으로 육지에서 불과 700m 거리로 가까워졌다.

세어도는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던 섬인데 근래에 들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청라지구 매립과 행정선 정서진호의 운항 등으로 행락객이 늘고 입소문이 퍼진 까닭이다. 2007년까지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던 ‘오지(奧地)’ 이미지가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도 했지만, 이곳을 해양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서구의 야심찬 의지와 홍보가 큰 몫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재하는 사진은 1960년대 세어도 여름 풍경이다. “당시 세어도 마을 주민들은 해군들과 친목 도모를 위해 종종 친선 경기를 가졌었다고 한다. 앞에 보이는 섬이 호두섬(호도)으로 당시 해군들의 기지였고 그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산들이 영종도이다. 현재는 호두섬 옆으로 영종대교가 지나고 있다. 사진의 배경은 위치상으로 세어도 용두 지역(간나지떼부리)으로 보인다.”는 사진 설명이 붙어 있는데 사진 속의 사람들이 혹 그 친선 경기와 관련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다.



| 1960년대 세어도



| 최근 세어도

문득 낡은 사진 한 장으로 세어도의 옛날과 오늘을 비교하면서 행여 관광지 개발에만 과욕을 부려 그나마 남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나 않을지 하는 염려가 앞선다.

굳이 덧붙인다면, 차제에 세어도가 원래부터 ‘가늘게 늘어선 섬’이라는 의미로 불렸다면 어째서 여러 문헌에 서천도(西遷島), 서변도(西邊島), 서일도(西日島) 등으로 기록되었는지, 또 현지 주민들이 부르는 ‘세루’는 다른 지명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밝혀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파고 세우고 하는 물리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오히려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만에 불을 밝힌 세어도 관광지에 더 큰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아닐까 싶기 때문이다.

3. 교육과 행정

1) 가재울강습소와 가좌농민학교



| 1940년대 가좌농민학당

“가좌동의 최초 교육기관으로는 전통시대의 서당을 시작으로 1920년대 가좌강습소(현 가정초등학교)가 세워졌다. 가좌동의 심운섭(沈雲燮) 씨가 교사를 초청해 운영했으며 당시 학생이 100여 명에 이르렀고 학교 현판은 시천동에 거주하던 김여(劍如) 유희강(柳熙綱) 선생의 친필이었다고 한다.

그 후 1940년대 자택 사랑채에서의 교육을 시작으로 가좌농민학당을 50년대까지 운영했다. 교실이 없어 주안염전의 소금창고를 이용하기도 했다.”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에 실린 1940년대 가좌농민학당 사진 설명이다. 사진 설명이어서 가좌농민학당의 내력을 길게 다 쓸 수가 없었을 것이지만, 앞의 ‘청송 심씨 고택’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는 대

로 “심재갑(沈載甲) 선생의 선대(先代) 심운섭 선생은 이 구옥에서 가좌야학당을 열어 당시 가난으로 학업을 포기한 청년 학생들을 위해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가좌야학당은 1946년에 개교한 석남초등학교나 가정초등학교의 모태(母胎)인 동시에 1950년대 심재갑 선생이 별도로 세운 가좌농민학교의 시발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 내용 보충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사』에 실려 있는 심재갑 선생의 구술문(口述文)을 읽어보자. 심 선생께서 당신의 선친에 대한 구술 대목에 그 내용이 나온다.

브나로드운동도 하셨어요. 1930년대 가재울강습소, 가좌강습소라고도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과 강습소를 열어 문맹퇴치 교육, 계몽교육을 실천하셨어요. 그게 뒷날 석남초등학교 모태가 됐어요. 아버님 브나로드운동은 가좌강습소였어요. 뒷날 내가 만든 가좌농민학교도 결국 그걸 이어받은 거지요.

일제 말기, 40년대 전반일 거예요. 선친께서 주축이 돼서 남서곶에도 국민학교 하나 만들자 해서 간절하게 여론을 일으키셨어요. 그게 당국에 받아들여져서 결국 석남학교가 됐지요. 아버님이 하시던 가좌강습소는 처음 우리 집에서 벌이셨으나 원적산 줄기 아래로 옮겨 터를 잡고 만들었어요. 지금의 가정초등학교 자리지요. 아버님이 제대로 학교가 들어앉게 터를 닦아 놓으셨고 건물만 지으면 되는 곳인데 아버님 생각은 달랐어요. 학교는 남서곶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그래서 석남초등학교 자리에 개교한 거지요. 내 아버님은 석남학교 초대 기성회장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심운섭 선생께서 1930년대 이른바 브나로드운동에 나서 가좌동 261번지 자택에 가재울강습소를 열어 문맹퇴치와 더불어 농촌 계몽운동을 벌였고, 후에 이 강습소가 원적산 줄기 아래, 지금의 가정초등학교 자리에 교실과 운동장을 구비한 학교 형태로 확장하여 주민 교육에 열성을 다하다가 일제강점기 말에 남서곶에 국민학교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1946년, 마침내 석남국민학교를 개교하는 데 이른 것이다. 그리고 심운섭 선생은 석남초등학교 개교와

함께 가재울강습소를 닫고 석남초등학교 초대 기성회장까지 맡아 학교 발전에 힘쓴 것이다. 좀 더 구술문을 읽어보자.

참, 지금 생각하니 아까운 게 있어요. 그 무렵에 아버님이 가좌강습소를 해산 하는 기념으로 남학생, 여학생 모두 50여 명, 여학생이 더 많았어요. 50여 명과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진 속 학생들이 전원 맨 발이에요. 신발이 없어서지요. 그 시절 서곳은 그렇게 가난했어요. 내 막내아우 가 강습소 다녔으므로 네가 잘 보관해라 하고 그 사진 넘겨주었는데 지난번 서구 문화원 박한준 원장이 서구 사진집 낼 때 내놓으라 했더니 없어졌대요. 그 아까운 사진,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 인접 마을 그 사진 있는 집 있느냐고 수소문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가좌농민학교는 1946년 가재울강습소, 곧 가좌강습소가 폐교된 뒤 1948년에 심재갑 선생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중학교 3학년 때, 1948년도에 우리 집 사랑채에서 조그맣게 야학을 했어요. 내 스승인 이인수 선생님이, 심훈(沈薰)의 『상록수』로 비교하면서 칭찬을 해주서 격려가 됐습니다.

당시 서곳은 교육이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 뒤 전쟁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고 대 학교 2학년 때 다시 열었어요. 염전 창고를 빌려서, 그 염전 창고가 지금 어디냐 하면 가좌동 쪽이었어요. 지금 인천교를 중심으로 한 해협에 있던 저수지 많았던 부분, 서구 끝자락이지요. 거기서 초등반, 중등반으로 나뉘서 야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법대 동기들이 도와줬어요. 김수열, 이효섭, 이종명, 이상균. 초등반, 중등반 한 반이 50명 정도였습니다. 당시 서구 쪽은 학교가 멀고, 또 중간에 학교가 없어서 교육의 기회가 적었고 문맹률 높고 취학률이 적었어요. 우리 야학에는 여학생이 많았죠. 왜냐하면 사범학교는 남녀 같이 뽑았지만, 일반적인 학교의 추세가 여자의 비율이 남자의 반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가좌농민학교의 터전을 닦은 시기는 1960년대, 곧 1962년에 시작 되었고 7년 후 학생들이 정규 학교로 진학하면서 문을 닫은 것이다.

사실 1950, 60년대에는 인중, 제고 길영희 교장선생님이 앞장서서서 인중, 제고생은 물론 서울고교, 인일여고, 송도고교 학생들의 특별활동 장소로 우리 집 300년 된 고택을 사용하기도 했지요. 그때 특별활동이 문맹퇴치운동, 가재울야학당 운영, 브나로드운동, 사방사업, 근로봉사, 학급 야영 등을 했지요. 가좌농민학교는 1960년대 들어가면서부터죠.

가좌동산 30번지, 교실 3개, 한 60~70평 되고 운동장하고 교지(校地)를 합하면 한 1천 평 된 것 같습니다. 가좌농민학교 건물은 1962년도에 지었습니다. 그 전에 흙벽돌집이었어요. 한 7년 계속하다가 생활이 조금 윤택해져서 학생들이 정규 학교를 가니까 닫게 되었죠.

심재갑 선생의 구술문에서 보듯 가재울강습소에서 가좌농민학교까지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야학의 운영 역사야말로 옛 서구의 교육자 부자(父子) 두 분의 선각적 삶의 궤적이고 참된 사회운동, 사회봉사의 커다란 면면이라고 할 것이다.

2) 석남공립국민학교

1946년 9월 1일에 설립 인가되어 9월 24일에 박제익 선생이 초대 교장으로 서구 석남3동 109-32번지에 개교한 학교이다. 앞의 가재울 강습소 편에서 언급한 바 있는 대로 이 학교는 가좌동의 심운섭(沈雲燮) 선생의 발의와 노력으로 설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서곶 지역에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서곶 학교, 부평 학교에 통학하기가 어려워 포기했거나 가세가 여의치 않아 배우지 못하는 학령 아동들을 위해 심운섭 선생이 자택에서 강습소를 열어 운영했고, 그 아들인 심재갑 선생이 선친의 뜻을 이어 가좌농민 학교를 개교해 이들을 교육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심운섭 선생은 남서곶에 학교가 들어선다면 그 중심이 되는 석남동에 세워져야 한다는 지론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끈질기게 노력하여 마침내 학교 설립 인가를 얻어냄으로써 석남공립국민학교를 개교시킨 숨은 공로자인 것이다.

지금이야 인종(人叢)이 늘고 교통이 편리해져 곳곳에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들어서 있지만, 당시 마을은 촌락 단위로 산재해 있어 남서곶의 중심이 되는 석남동에 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선생의 지론은 당연한 것으로 들리지만, 오늘 생각해 보면 아동들의 통학 편리를 우선한 민주적이고 공평한 선각적 해안의 논리가 아니었던가 싶다.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에 석남공립국민학교 제1회 졸업 사진이 보인다. 정확한 연도와 날짜는 미상한데, 1946년 9월에 가을 학기로 출발하였으니 1952년 8월경에 졸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속의 졸업생이나 교사나 다 여름 복장이다. 남학생들은 반팔 윗옷에 반바지를 착용했고 여학생들도 치마저고리를 입은 학생 외에는 대부분 짧은 반팔 윗옷과 짧은 치마, 그리고 맨발에 고무신을 신었다.

그러나 1957년 제7회 졸업생이나 1959년 제9회 졸업생, 그리고 1963년 제13회 졸업생들은 모두 동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 적힌 졸업 기념 날짜가 각각 3월 15일, 3월 20일, 2월 9일이니 당연할 것이다. 학기제는 1946년 이후 4년간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 졸업사진을 찍을 때는 이미 일제 때처럼 다시 4월 학기로 고쳐진 모양이다. 물론 이 4월 학기는 1962년에 3월 학기로 바뀐다.

사진 설명에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유리창이 없어 창호지를 붙이고 수업을 했다고 당시 재직했던 이종윤 선생님은 고증한다.”고 되어있다. 사진 속의 졸업생들은 팔십 고령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런 역경, 어려움을 겪고 오늘의 석남초등학교가 건재한 것이고 역사를 이어 오는 것이다.



| 인천석남공립국민학교 제1회 졸업



| 석남국민학교 제7회 졸업



| 석남국민학교 제9회 졸업



| 석남국민학교 제13회 졸업

석남초등학교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생활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1950년대 재학생들의 복장이, 특히 여학생들의 복장이 거의 한복 치마저고리 위주에서 1960년대에 들어서는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간편복 등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머리 모습도 여학생들의 단발과 남학생들의 상고머리, 뽕뽕머리가 아닌 점차 자유로워진 두발 모습이다.

1963년 한때 교사(校舍) 신축으로 일부 학생들이 일시 가좌농민학교 교실을 빌려 수업했다고도 하는데, 가재울강습소를 열어 운영하시고 석남초등학교 개교의 산파 역할로 크게 공헌하신 뒤 초대 기성회장까지 맡으셨던 심운섭 선생과 또 그분 아드님 심재갑 선생이 문을 연 가좌농민학교와 이 학교의 깊은 인연을 새삼 생각하게 한다.

3) 세어도분교

1966년 12월 31일에 송현초등학교 세어도분교로 설립된 학교이다. 1995년 2월 28일에 폐교되고 현재 학교 터에는 마을회관과 어촌계회관이 들어 있다. 워낙 규모가 작은 섬인 데다가 물과 가까워도 그동안 낙도(落島)처럼 거의 잊혀 있던 섬이어서였는지 학교의 개교나 폐교에 대해 교육청은 물론 관할 교육지원청에조차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사』에 실려 있는 원창동 353번지 세어도 태생인 1939년생 최영식 씨의 구술문과 박한준 前 서구문화원장이 재차 최영식 씨의 구술을 통해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어도분교의 내력을 살펴본다.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가 없었거든요. 동네에서 한문 가르치는 선생이 한 분 있었어요. 그때는 학력은 떠나서 그냥 한문공부를 했어요. 한문공부도 천자(千字) 안쪽에서만 배우다가 말았어요. 초등학교가 생기면서 학교를 다닌 겁니다.

석남초등학교 세어도분교입니다. 졸업은 못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쟁이 나서 피난 가는 바람에 졸업을 못했어요. 집안이 어렵고 해서 그럭저럭 세월이 흐른 것이지요.

위의 인용문은 최영식 씨의 직접 구술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송현초등학교 세어도분교 이전에 석남초등학교 소속의 세어도분교가 앞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펴낸 『인천교육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박한준 前 서구문화원장의 기록이다.

1946년 10월 석남초등학교 세어도 분교가 1학급으로 개교하였다. 1회 입학생이었던 최영식의 구술에 의하면, 개교 당시 인천신흥국민학교에서 부부가 교

사로 왔는데, 그가 4학년이던 1950년 6·25전쟁 당시 월북한 것으로 추측되고 하였다. 그 후 세어도분교는 석남초등학교에서 송현초등학교로 소속이 바뀌었다. 현재 어촌계 사무장인 양성철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교사가 3명이었고, 학생수도 30명 정도였으며, 신입생은 격년제로 모집했다고 한다. 그래서 같은 또래라 하더라도 입학 시기를 놓치면 2학년 차이가 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면서 1995년 2월 28일자로 세어도 분교가 폐교되었다. 학교가 폐교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육지로 생활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인지 상주인구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육지를 지척에 두고도 낙도 신세였던 작은 섬 세어도의 당시 학교 내력과 모습에 대한 개략이다. 정말이지 세어도가 이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세어도분교에 관련한 사진은 앞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어촌계 사무장 양성철 씨가 소장한 사진 몇 장이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에 남아 있을 뿐이다. 1970년대 세어도 서쪽 끝 ‘아랫말’의 초가집들 너머로 송현초등학교 세어도분교가 있던 자리와 마을 당터가 있던 풍경을 보여준다.



| 1970년대 세어도 마을

또 다른 사진은 1970년대 세어도분교 운동장에서 세어도마을 청년회(4H클럽)와 원창동(본동) 청년회 간에 친선 배구경기를 끝낸 뒤 기념 촬영한 모습과 배구시합 직전 두 팀 간 간단한 의식(儀式)을 갖고 양 팀 대표가 서로 악수로써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학교 화단에 있던 200년 된 고욤나무에 대한 설명도 짤막하게 적혀 있는데 이 나무는 아직 존재한다고 한다.

세어도분교가 사라진 지 23년. 이 사진들은 그보다 훨씬 전인 거의 반세기 전에 찍은 것이다. 이 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나, 당시 학교 마당에서 배구시합을 가졌던 분들이 혹 이 사진을 본다면 남다른 감회에 젖을 것이다.



| 세어도 마을청년회



| 세어도 마을청년회와 원창동 청년회 간의 친선 배구경기

4) 석남동사무소



| 1960년대 석남동사무소

아, 이런 사진도 있었구나 싶다. 1960년대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더 오래된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1960년대에 들어서 연희동, 가좌동 등이 큰 집은 아니더라도 지붕에 기와를 얹고 시멘트를 바른 양옥 건물로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론 연희, 가좌동사무소가 신축, 개소한 때가 1965년이니, 이 같은 석남동사무소의 모습은 1960년대 초 무렵까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아직 앞선 두 동사무소보다 착공이 늦어진 까닭일지 모른다는 말이다.

어쨌거나 이 사진을 보니 1960년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가 떠오른다. 입학 서류로 호적초본이 필요해 그것을 떼러 처음 이런 곳에 갔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호적초본을 떼러 간 곳이 동사무소가 아니고 좀 규모가 큰 출장소이기는 했지만, 문득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이다.

양 팔뚝에 토시를 낀 채, 누런 테를 두른 도수 높은 돋보기안경을 쓰신 서기 아저씨가 두툼한 서류철을 이리저리 들추던 광경이 생생히 떠오른다. 벗어난 이야기지만 조금 더 길게 그때 사정을 늘어놓

자면, 아저씨는 우리가 ‘제기종이’라고 부르던 얇은 패지(罫紙) 밑에 먹종이[墨紙]를 대고 쓱쓱 달필을 돌려 복사 서류를 만들어 주었다. 그 한자로 써진 서류를 소중히 챙겨 들고 돌아오던 기억! 60세 이상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과 추억이 있을 것이다.

다시 사진 속으로 돌아가자. 몇 평이나 될지. 아무리 커 봐야 그저 10여 평 내외가 아닐까 싶다. 여느 가정집을 구해 동사무소 건물로 개조해 쓴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도 지난해에 새로 이영을 얻었는지 비교적 두툼한 초가지붕에는 흰 눈이 남아 있다.

미닫이 식으로 된 동사무소 ‘정문’ 옆에 내려 달린 두 개의 간판 중 오른쪽 것에 “인천시석남동사무소”라는 글자가 돋보기를 통해 아주 희미하게 보인다. 사진 아래 “仁川市 石南洞”이라고 크게 쓴 흰 글자는 아마 사진을 보관하던 담당자가 훗날 확인을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 그 옆의 간판에는 “대한××후원회인천시석남동분회”라고 쓰여 있는 듯한데 나머지 두 글자는 식별하기 어렵다.

이것이 5~60년 전 우리네 관공서 청사의 모습이었다. 혹자는 뭐 이런 딱한 사진을! 하며 심드렁하거나 무관심할지 모른다. 그러나 1960년대면 아직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몇 불 운운할 처지도 못 되는 어려운 시기였다. 더구나 인천의 다운타운에서는 벽지(僻地)로 생각하던 서곶에 동사무소가 개설되었다고 당장 행정을 맡아볼 청사를 지을 예산이 어찌 그리 간단하고 쉽게 마련되었을 것인가. 그러니 민간의 집 한 채를 빌렸거나 어찌어찌 확보해서 주민 행정을 본 당시의 사정을 우리는 심드렁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초가를 엮고 돌담을 쌓은 집에 살던 시대가 훨씬 정답고 의로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 틀림없이 내 아버지, 어머니, 그 앞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이런 집에서들 한 시대를 살신 것이다. 옛 석남동 동사무소 사진을 보며 그런 감회를 느낀다.

4. 산업

1) 인천화력 1호기 준공



| 인천화력 1호기 준공 기념식

서구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 나아가 수도권의 도시 생활문화의 변화를 가져온 것 중의 하나가 전기일 것이다. 그리고 서구가 그 일선에서 공헌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위 사진은 1970년 5월 29일에 있었던 인천화력발전소 1호기 준공 기념식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인천화력은 서구 원창동 울도 매립지에 건설된 중유와 천연가스(LNG) 연소 겸용 화력발전소다. 1967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해 2년 8개월 만인 이날에 1호기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당시 매일경제신문은 “경인공업지구의 주요 동력원이 될 시설 용량 25만kW의 인천 제1호기 준공식이 29일 인천시 울도에 자리 잡은 매머드 전원(電源)기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인사 다수

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며 “인천화력 제1호기가 자리 잡을 울도에는 앞으로 25만kW의 제2호기와 31만 3천kW의 제3호기가 각각 착공되어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경인화전(京仁火電)이 추진하는 31만 6천kW의 화전(火電)도 이 지역에 세워지고 있어 종래 무명의 낙도였던 밤섬은 도합 1백 13만kW의 발전설비를 갖는 우리나라 최대의 전원 기지가 된다.”고 매우 자랑스럽게 쓰고 있다.

더구나 인천화전 1호기는 당시 서울화력 제5호기와 더불어 국내 최대 단위 용량으로서 신문들은 “이들 두 발전소의 출력만으로 경인지구 전 전력 수요를 커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를 내고 있는데, 이로써 서구 원창동 일대가 경인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서민 생활 편리에 크게 이바지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날 자 경향신문이 보도한 “인천화전 1호기의 준공은 그동안 전력 개발에 쏟아온 열의의 결정이라고 치하하고 경제 개발에 직결되는 전력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여 공장과 가정에 부족 됨이 없게 공급, 보다 향상된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라고 당부했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치사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력 개발에 쏟아온 열의의 결정”이라는 말 속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부족한 전력 사정과 함께 그것을 서구 울도의 인천화력 제1호기가 일단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울도와 목섬간의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218만 5000m²의 부지 위에 건설된 인천화력은 오늘날 시설용량 115만kW의 화력발전소로서 연간 약 100억kW의 발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발전설비는 애초 “모두 중유(重油) 전소식으로 건설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1981년 4월 6일 제11차 경제장관 협의회에서 이 발전소를 평택화력발전소와 함께 천연가스 사용 발전소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1984년 2월부터 1986년 9월간에 걸쳐 중유 및 가스 연소 겸용 발전 방식으로 개조되었으며, 1986년 12월 9일 2호기의 천연가스 최

초 연소를 개시로 가스 발전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1987년부터는 연간 약 60만 톤의 천연가스를 소화하여 가스 이용 기술 개발 및 발전용 연료의 다원화 구현은 물론, 국내 에너지 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무공해 발전소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 완벽한 안전 설비의 구비는 물론 종합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 운용하여 인천 지역 대기 오염 방지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기록하고 있다.

2017년 1월에 작성된 한국관광공사 여행지(旅行誌) 『대한민국구석구석』도 인천화력에 대해 “수도권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발전소! 한국중부발전의 인천화력본부는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자인 수도권에 위치하여, 전기 생산 후 송전 시 전력 손실이 적은 장점이 있어 수도권 전력 계통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발전소”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은 인천화력의 전기가 서구와 인천시, 나아가 수도권 전체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중요 지점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더불어 이 지역 일대 도시 생활문화의 변화를 가져 온 주인공으로서 서구 울도 일대의 지역적 공헌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아무튼 사진 속 하늘은 온통 만국기로 뒤덮이고 단상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호화롭게 꾸며진 것으로 보인다. 단상 천정 때문에 그들이 저서 연대에 선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의 뒤쪽 빈자리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아 박 대통령이 틀림없을 것 같다. 설마하니 동석했던 다른 장관이나 관계자의 사진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날 수많은 단상 배석자들 중 정작 신문 지상에 이름이 실린 사람은 김일환(金一煥) 당시 한전 사장뿐이었다.

2) 울도화력발전소

서구 원창동 울도 동쪽에 있던 화력발전소이다. 전력수급의 안정과 민간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1967년 12월 13일자 정부 방침에 따라 동해전력과 호남전력 등 3개 민간 화력발전소 중 하나로 건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해전력이 1972년 2월, 그리고 호남전력이 1973년 5월에 한국전력에 인수되어 현재 국내 유일의 민간 화력발전소로 운영되고 있다.

1997년 9월 폐지되기 전까지 국내 유일의 민간 전력회사 소유의 화력발전소였다. 중유전소 기력발전설비(汽力發電設備) 2기로 구성되었으며, 단위 기기 용량은 16만 2400kW급이다.

이 발전소는 한국화약(주)와 미국의 유니온 오일(Union Oil)회사가 공동 출자하여 1969년에 설립한 경인에너지(주)가 건설하였다. 같은 해 2월 19일 건설 공사에 착수하여 1972년 2월 19일 발전을 개시하고, 같은 해 4월 17일 준공하였다. 건설비는 1억 3,750만 달러(자가 자본 1,625만 달러, 상업차관 1억 2,125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주 기기는 일본 히다치제작소(日立製作所)에서 제작, 공급하였으며 보일러는 반옥외식 중유전소형(重油全燒形)이고, 터빈은 16만 2400kW급 반동, 재열식이다. 준공 후 연간 약 20억kWh의 전력을 생산해 오고 있으며, 1969년 11월 24일 한국전력공사와 체결된 전력 수급 계약에 따라, 발전되는 전력은 전량 한국전력공사에 판매되었다.

또 생산된 전력은 인천화력발전소 구내에 설치된 송전 설비 및 부평변전소를 경유하여 경인지구에 공급되었다. 이 발전소는 기존 화력을 복합 화력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2호기는 1997년 7월 15일, 1호기는 1997년 9월 4일 폐지되었다.

1981년 한국전력공사가 펴낸 『한국전력 20년사』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이 발전소 준공 기사는 1972년 4월 5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보인다.

“제3의 정유공장인 경인에너지의 간이 정유시설과 32만 4천kW 규모의 경인화력발전소가 오는 17일 인천 울도(栗島) 현지에서 준공식을 갖는다. 경인공업지구의 산업 원동력이 될 경인화력이 준공되면 국내 총 전원(電源) 설비는 현 226만kW 규모에서 294만kW로 늘어나며, 일산(日産) 5만 배럴의 경인 정유 공장이 준공되면 국내 유류 판매 사업은 유공과 호남정유와 함께 팽팽한 3파전을 벌이게 된다. 경인에너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김종희(金鍾喜) 씨와 공동대표이사 조지 B 슈나이더 씨.”

김종희 씨는 한국화약의 창업자로, 1970년대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계획에 의해 점차 유류, 전력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것에 착안, 정유공장을 설립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중유로써 터빈을 돌리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울도화력발전소의 기본 에너지가 된 ‘경인에너지의 간이 정유시설’은 애초 ‘경인에너지’ 상호로 시작하여 이후 ‘한화에너지’로 개명했다가 1999년 9월 1일자로 ‘인천정유(주)’로 바뀌었는데, 1972년 4월 17일 울도화력발전소와 동시에 준공식이 거행되었던 것이다.

현재는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도를 저하시키기 위한 환경처 고시(1991년 12월 8일)에 따라 발전용 연료를 현재의 저황왁스유에서 1997년 9월 1일부터 LNG로 전환하였다.

울도에는 이보다 앞서 1970년 5월에 인천화력발전소 1호기가 준공되었고, 2호기 3호기 공사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민간이 발전기 터빈을 돌려 국가 경제 건설에 참여한 국내 유일, 최초의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다.

울도는 그 지형학적 위치 때문인지 밤섬이라는 순박하고 낭만적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병인, 신미양요 같은 외세의 침입 길목이 되거나 외국인의 폭약 창고지대가 되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간척을 통한 공업지대, 공업항으로 이미 낙점이 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것

이 이 섬의 운명이었는지 오늘날에 와서도 끝내 공업지역이 되고 만 것이다. 그 같은 기록들이 『인천시사』에 차례대로 보인다.

조선군은 화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함대에 2백여 발의 포탄을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그러나 미국의 월등히 우세한 화력으로 말미암아 조선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철수함으로써 조·미 양군의 교전상황은 일단 종식되었다. 이때 미국은 부상자 2명이라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강화해협을 거슬러 올라가 한강으로 북상하려 하였으나 주력 전함인 포함 모노카시호가 손돌목에서 좌초를 당하자 응급 수리하여 작약도 근해로 귀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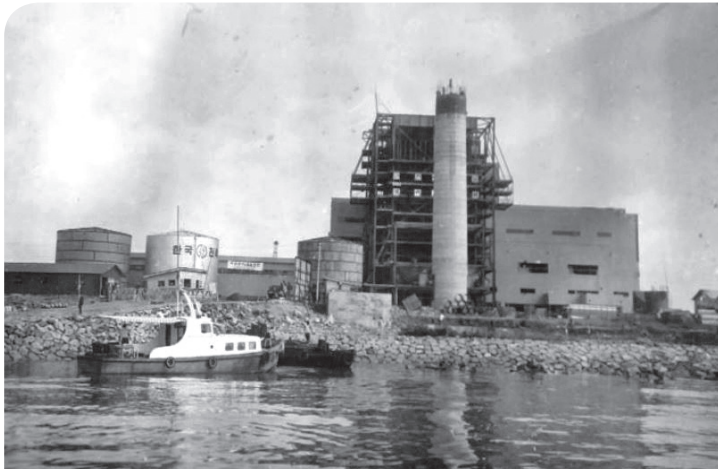
한편, 미국의 수뇌부는 이 사건을 조선군 수비대가 미국함대에 불법적인 선제 공격을 가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미국 측에서는 “10일 이내에 조선측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복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위협적인 언사를 담은 서신을 장대 끝에 매달아 작약도 동북쪽 2km 지점의 울도 해안에 꽂아 두는 등 10여 일 동안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미 양측 간에 수차례나 서신이 교환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군이 적절한 사과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대대적인 상륙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타운센드(Townsend)는 모오스(Morse)가 철도 및 광산이권에 관심을 기울이던 1894년경부터 독립상회를 계획하여 1895년 말부터 독립경영을 시작하였다. 그는 1897년 3월 미국의 거대석유기업 스탠다드 석유회사와 계약을 맺어 조선에서의 석유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였다. 그는 1896년 인천 월미도에 약 50만 통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지었다. 그는 1900년 부평 서면 울도에 폭약창고를 건설하여 세창양행과 함께 폭약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경인공업지대를 병참기지화한 일제는 이에 필요한 적절한 공업항을 물색하기 위해 인천항 북부에 대한 수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월미도 서부에서 울도 북쪽에 이르는 수로는 대형 선박의 정박이 항시 가능한 수심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면한 북해안에는 광대한 간사지가 발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간사지를 매립하여 광대한 공장지대를 형성하고 이로부터 경인공단지대와 연결하면 자유로운 공업항으로서의 천연의 양항이 될 수 있음이 판명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일제는 1936년부터 1941년에 이르는 6개년 사업으로 인천 북항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총공사비 188만원으로 시작된 북항 건설은 공장용지 223,357평, 철도 2,213 km, 연락도로, 상하수도공사와 함께 준설선이나 소형선박의 출입이 자유롭게 접안 시킬 수 있는 항만 공장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되었다. 북항 공사는 1938년에 총독이 직접 순시할 정도로 공사가 중시되고,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100만 평에 달하는 공업지대를 조성한다는 의욕을 보였지만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중단되었다.

이 같은 격변과 공업화의 역사 속에서 울도는 “종래 무명의 낙도였던 밤섬은 우리나라 최대의 전원(電源) 기지가 된다.”는 당시 신문기사 구절에서 보듯 이처럼 경인지구의 유류, 전력 에너지 본산이 되어 나라 경제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 1970년대 울도화력발전소

3) 경인고속도로 준공식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로 1967년 3월 24일 착공(문제는 경인고속도로 애초의 인천 시발점인 가좌동 현장에 세워진 기공식 축하 아치인데 날짜가 1967년 5월 27일이라는 점이다. 아직 문헌 기록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기공식 날짜 1967년 3월 24일은 서울 쪽에서의 착공일이고, 1967년 5월 27일은 인천 쪽, 가좌동 현장의 착공 날짜가 아닌가 싶다.) 첫 삽을 뜬 후 전 구간 29.5km가 완공, 개통된 것은 1969년 7월 21일이다.

그러나 1968년 12월 21일자 동아일보는 “서울에서부터 인천시 가좌동까지의 23.4km 구간에 대한 준공식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원 건설부장관 등 정부 요인과 수많은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착공일로부터 꼭 3일이 모자란 1년 9개월 만에 전 구간 29.5km의 79.3% 공정인 23.4km를 완공한 것이다. 가좌동에서 인천터미널까지의 마지막 6.1km 구간 공사는 이듬해인 1969년 7월 21일에 이르러 완공되었다. 그 애초 역사의 현장인 가좌동에서 박 대통령 내외와 정부의 건설 관계자들이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

길이가 짧은 경인고속도로조차도 100% 완공이 안 된(당시 경부고속도로는 전체에 5~6%밖에 안 되는, 겨우 한 구간 공사를 마쳤다.) 상태에서 정부가 서둘러 준공식을 가진 것은 아마 당시 고속도로에 대한 탐탁지 않은 시선과, 특히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상당수 사람들이 제기한 시기상조론이나, 무용론을 겨냥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 신속한 토목 건설 능력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도 상승과 함께 차관 도입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도 한다.

어쨌든 그날 주원 건설부장관은 식사(式辭)를 통해 “격증하는 수송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대국토건설계획(大國土建設計劃)의 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고속도로가 부분적이거나 개통됨으로써 그 경제적 효용이 산업, 경제, 문화, 국방 등 각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은 물론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소득 격차를 좁히게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한다.

준공식 당시 경인고속도로는 총 길이가 23.4km이었다. 그 후 1969년 7월 21일 2차 완공된 길이는 29.5km로 연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감도 속에 표시된 애초의 계획은 ‘제2한강교(영등포 쪽)를 시점으로 해서 인천항 제2선거(도크)까지 노폭 31m, 총연장 32km’이었다.

100%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1968년에 서둘러 준공식을 거행했던 이유는 이미 앞에 기록한 대로이고, 또 계획보다 길이가 줄어든 데에는 예산 문제나, 혹은 다른 이유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 1967년 경인고속도로 기공식 축하 아치

조감도 속에는 6차선의 고속도로 단면도와 함께 1967년 1차 공사 개요가 나타나 있다. 위치는 ‘가좌동 지내(地內)’, ‘연장(延長) 640m, 폭 34m’로서 공사량은 ‘절토 27,027m³, 성토 21,410m³, 암거 1개소, 배수관 4개소’ 등이다. 완성된 노폭은 31m로 애초 계획보다 다소 줄어든 상태다.

50년 전 사진이어서 상태가 좀 선명치 못하는데, 서울 시발점 제2한강교(근처의 여의도와 영등포 인터체인지가 보인다.)에서 직선으로 뻗어 내려와 왼쪽에 부평이라고 표시된 지점 일대에서 거의 직각으로 구부러진다. 그곳이 지금 서인천 인터체인지이다.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 희미하게 회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1967년도 1차 공사 계획 구간인 가좌동 지역이다.

그 아래로는 ‘주안’이라는 지명과 ‘염전’으로 표시된 지대가 보인다. 이때쯤이면 아직 북항 일대, 곧 청라지구가 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 서북부 일대의 천연 해안선과 섬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곳을 지나 고속도로로는 다시 구부러져 인천항 제2선거에 닿게 된다.



경인고속도로 공사 조감도

생각해 보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인천처럼 본래의 해안선을 온통 매립으로 빼앗긴 도시가 또 있을까 싶다. 더욱 아쉬운 것은 한국 최초의 천일염 산지인 주안 염전의 매립이다. 고속도로를 뚫고, 교통 편리한 그 인근에 공단을 세워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당시 정부의 의도였다 해도 주안염전, 가좌동 개건너 입구까지 광대하게 자리잡았던 염전만은 그대로 두었었더라면.... 특히 이 조감도를 보면서 탄식처럼 남는 아쉬움이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어쨌거나 우리나라 고속도로 역사에서 인천 쪽 첫 착공지인 가좌동 지명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4) 원적산 관통도로 공사

원적산 관통도로는 서구 가좌동에서 부평 산곡동 입구(옛 백마장 입구)에 이르는 길을 부르던 명칭이다. 본래는 원적산(元積山)인데 그동안 철마산(혹은 천마산)으로 잘못 알고 이 절개한 길을 철마산 관통로라 부르고 길 전체는 철마로라고 불러 오다가 최근에 원적산 길로 바로 잡았다는 것이 대략 『인천시사』에 기록된 내용이다.

원적산(165m)은 지난날 부평부(富平府) 남쪽 15리에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뻗어 북쪽으로는 안아지고개에서 천마산에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장고개에서 원통산으로 이어진다. 이 산줄기는 옛날에는 마장면과 석곶면을 경계한 산으로 지금도 부평구와 서구의 경계가 되고 있다.

이 산은 우리나라 산경표(山徑表)에 원적(元積)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원(怨)이 쌓여 원적(怨積)이 변한 것’이라고 전한다. 즉 종종 때 경인운하를 팔 당시 원통이고개의 암벽 때문에 실패하고 북쪽의 안아지고개를 또 파다가 역시 실패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이 산을 원한이 쌓인 곳이라 하여 원적이라 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아무튼 원적산 관통로는 1972년 10월 2일에 개통되었다고 『인천시사』 연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1974년 5월 27일자 동아일보는 뜻밖에 “지난 69년에 착공했으나 완공 예정보다 1년이 늦은 72년까지 겨우 길만 트는 등 전제 공정의 44.5%밖에 진척을 못 본채 공사를 중단했다.”고 적고 있다. 아마 실제로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길만 뚫은 정도의 공정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던 모양이다.

역시 동아일보에 “이 도로는 전혀 포장도 안 돼 있고 하수도 시설도 없어 비만 오면 흙탕물이 튀고 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패여 있으며 날씨가 좋으면 흙먼지가 일어 연도 주민들은 극심한 먼지 공

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 구절로 보아서도 그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1983년에 발간된 『인천개항 100주년』 사진첩에는 “부평지구와 구 시가지를 잇는 연장 3,380m, 노폭 20m의 도로다. 1969년 착공했던 이 도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다.

이 관통로의 버스운행 개통식은 1972년에 있었다. 이제 이 길을 통해 버스가 산곡동 방면으로 달릴 수 있음을 사진이 보여준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 편리가 그다지 획기적인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서구문화원에서 낸 사진집에는 “당시 노면이 아스팔트가 아닌 흙길 이어서 비나 눈이 오면 원적산을 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 가좌동 전지골까지만 운행하는 예가 종종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다음 사진이 그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듯하다. 흙길에 자갈이 듬성 듬성 보이고 가장자리 쪽은 노면이 몹시 울퉁불퉁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도 개통식을 가진 것을 보면 노선버스 운행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민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도로포장은 나중이고 우선 버스부터 투입했을 것인데, 그것이 곧 그 시절 우리 인천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웠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도 한다.

사진은 관련 인물들이 앞면을 화환으로 장식한 항도교통 구식 버스 앞에서 막 개통 테이프를 자르려는 순간이다. 이 장면을 보며 거듭 ‘정말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감회와 함께 쓴웃음을 짓는다.

아무튼 인물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검은 양복에 와이셔츠 깃을 밖으로 내어 입은 분이 당시 인천시 부시장이었던 노창현 씨이고, 오른쪽 옆에 있는 사람이 송창용 씨이다. 송창용 씨가 항도교통의 사장이었는지 아니면 버스운송조합장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후일 제물포버스 사장으로 인천직할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지내기는 했었다.



| 원적산 관통도로공사 모습



| 원적산 노선버스 개통식

어쨌거나 서구 토박이, 특히 가좌동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추억어린 사진일 듯하다.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고 까마득히 잊고 있던 이 개통식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원적산을 관통해 버스가 산곡동 방향으로 뚫린 길을 쉽게 내달릴 것이니 지난날에 비해, 특히 가좌동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교통 편리가 돌아갔을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굳이 가좌동 토박이를 들어 말해본 것이다.

사진 촬영 날짜는 1972년 7월 10일. 그러나 앞서도 지적한 바대로 『인천시사』는 1972년 10월 2일로 개통 일자를 적고 있다. 약 석 달가량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사진 속 인물들의 복장을 살펴보면 초복이 가까운 7월 10일은 아니라는 느낌이다. 당시 담당자가 혹 10월 7일을 오기했는지.... 그렇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행사가 무려 46년 전, 추억조차 가물가물한, 우리가 못 살던 시절의 일이었다는 점이다.

김윤식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Chapter III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2
남서곶

남서곶의 문화유산

1. 국가지정문화재
2. 시지정문화재
3. 비지정문화재

Ⅲ. 남서곶의 문화유산

현재 서구에 지정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2), 인천시지정문화재(15) 총 17개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인천 최초의 사적으로 지정되었던 경서동 녹청자요지와 천연기념물인 신현동 회화나무가 있다. 인천시지정문화재에는 대표적으로 심즙 신도비, 조서강 묘 등이 있다.

지정문화재 외에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면 서구에는 현재 총 93점의 문화유산이 파악된다. 비지정문화재로는 두밀 유물산포지 등 유물산포지, 연희진 터 국방유적, 청송심씨 묘역 등 묘지, 밀양당씨 정열비, 가정 터, 대곡동 굿당, 왕길동 염전 터를 비롯한 기타 자료 등 모두 78점이 찾아진다. 아직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지역민의 관심과 손길을 통해 지난 역사의 흔적을 이야기 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남서곶은 현재 행정동인 가정동(1~3동), 신현원창동, 석남동(1~3동), 가좌동(1~4동) 지역으로 여기에 남아있는 지정·비지정문화재 13기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국가 지정의 천연기념물(1), 시 지정 기념물(1), 유물산포지(5), 국방유적(2), 사찰(1) 및 기타(3)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가정동, 신현원창동, 석남동, 가좌동에 거주했던 선주 성씨들의 역사적 자취가 도시화되는 중에도 묘지나 선영 등의 형태로 남아 있어 기록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비록 현재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자취들이 오랜 세월동안 그 역사성을 간직한 ‘터’의 이름으로 문화유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국가지정문화재

1) 천연기념물

(1)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 지정 : 천연기념물 제315호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1-7



| 신현동 회화나무

천연기념물인 신현동 회화나무는 염곡로와 원창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 일대는 주택이 회화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이며, 나무 아래에 신현동우회에서 기증한 제단이 놓여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중 회화나무는 5수에 불과한데, 신현동 회화나무 외에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317호),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318호),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319호), 창덕궁 회화

나무(472호)가 등록되어 있다. 삼척 회화나무(94호)와 부산 괴정동 회화나무(316호)는 그 가치를 상실하여 지정해제 되었다.

회화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고목으로 높이 22m, 둘레 5.59m인 500년 된 나무이다. 회목, 회화목, 괴목, 괴화목으로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가지는 녹색으로 무성히 퍼지며 자르면 냄새가 난다. 황백색의 꽃이 8월에 피는데 루틴이라는 황색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 지혈제 등의 약제로 사용된다.

마을에서 자라는 정자목으로 윗부분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여 밑부분으로 내려오면 풍년이 들고 이와 반대로 밑에서부터 피어서 위로 올라가면 흉년이 든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마을 동제의 신목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나무의 모양이 좋아 예부터 학자들이 서당이나 서원 등지에 즐겨 심어 학자나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며 세계적인 조경수목으로 알려져 있다.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15호로 지정되었다.

신현동 회화나무 유래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원래 이 마을의 당산인 도당산에 있다가 큰 홍수로 인해 마을로 떠 내려와 지금의 위치에 심어졌다고 하는 것과 어느 지역에서 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바닷물에 떠 내려와 심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두 가지 이야기 모두 회화나무가 현재의 위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회화나무는 마을의 안녕을 비는 작은 당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을 원로들이 매년 5월 28일(경로당 완공일)에 마을제를 올리고 있다.

서구에는 현재 천연기념물 신현동 회화나무를 비롯해 7수의 풍치목과 4수의 정자목, 그리고 2수의 당산목 등 13수의 보호수가 있다. 강화 지역을 제외한 육지 인천 중에는 가장 많은 보호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호수로 구분될 수 있

는 나무들이 32수 파악된다. 그 가운데 남서곶 지역에는 가좌동 건지골 음나무, 아랫마을 음나무, 여우재 음나무와 원창동 세어도 고로쇠나무, 고욤나무, 소나무 등 6수가 남아 있다.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나이가 가장 오래된 나무는 정선 두루봉에 있는 천연기념물 433호 주목이다. 고도 1,300m쯤의 능선에 3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데, 가운데가 가장 오래된 나무로 1천 4백 살이고, 나머지 두 그루도 각각 1천 1백 살과 1천 2백 살이다.

현재 한국에는 수령이 100년이 넘는 나무가 10만 그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거수는 단순히 오래 산 큰 나무라는 의미 이외에도 오랜 세월 동안 천재지변이나 생리적 노쇠 등에 의한 자연적 훼손과 화재, 6·25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의 개발에 의한 인위적 외압을 견디면서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간직했기 때문에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래되고 큰 나무들을 신성시하는 풍습은 나무를 인격화하기에 이르렀는데, 나무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일까지 생겼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가운데 ‘용문사 은행나무’와 ‘속리산 정이품송’이 각각 ‘당상관’과 ‘정이품’의 벼슬을 하사받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예천 천향리 석송령’과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은 나무이면서도 재산을 소유하고 세금까지 내는 부자 나무로 유명하다.



신현동 회화나무



신현동 회화나무 당제

2. 시지정문화재

1) 기념물

(1) 조서강 묘(趙瑞康 墓)

- 지정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호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119-2



| 조서강 묘

조서강(趙瑞康; 1394~1444)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경(子敬), 호는 경은(耕隱)이다. 조선 개국 공신 조반(趙胖)의 둘째 아들로 1414년(태종 14)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간 후 내외의 주요 관직을 거쳐 이조참판에 올랐다.

특히 1431년(세종 13)에는 기주관(記注官)으로 『태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좌간의를 거쳐 경상도관찰사, 형조참의 등을 역임한 후 1441년(세종 23)에 도승지가 되어 세종을 측근에서 보필하였다.

『부평읍지』에 따르면 조서강은 이조참판을 지낸 후 만년에 사직할 것을 청하고, 부친 조반의 별업(別業)인 가정(佳亭)에 은거하였다고 한다. 그가 사직하여 이곳에 내려왔을 때 세종은 궁중 화공을 보내 가정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다. 안평대군은 그 제영시(題詠詩)를 모아 『석호가정별업도(石湖佳亭別業圖)』라는 서화집을 만들기도 하였다.

조서강 묘는 석남동 경인에너지 진입로 좌측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그의 묘역에는 호석을 두른 전방후원(前方後圓) 형식의 봉분을 중심으로 옥개석에 비신과 기단이 일체형을 이루고 있는 묘비(높이 84×너비 45×두께 15cm)와 문인석 1쌍, 새 묘비, 상석과 향로석이 있다. 묘는 장방형 기대석으로 둘러싸여 있다.

“가선대부 이조참판 조공지묘(嘉善大夫吏曹參判趙公之墓)”라고 새겨진 비의 후면에 새겨진 음기는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마멸되어 있다. 조서강 묘의 봉분과 묘역에 설치되어 있는 석물 등은 조선 초기 분묘로서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인천 유일의 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문인석(좌)



| 문인석(우)

3. 비지정문화재

1) 유물산포지

(1) 가정동 유물산포지

가정동 유물산포지 ①

- 시대 : 고려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27, 28, 29 일대

북망산의 남쪽 능선의 끝부분에 서부 중앙교회가 있는데 교회 건물의 서쪽 주변에서 녹청자편과 요벽(窯壁), 도기편, 자기편 등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사적 제211호인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에서 수습된 유물과 매우 유사하다. 교회를 조성하면서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동 유물산포지 ②

- 시대 : 삼국~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30임, 31임, 64임, 72임, 64, 36, 38, 55, 54임, 40임, 42임, 43임 일대

북망산의 서쪽 사면 경작지 일대로 북망산과 구 해안선 사이에 있는 단구상의 충적 지대이다. 유물산포지의 일부는 경작지의 조성과 가좌-경서동간 도로개설 공사 등에 의해 빠르게 훼손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타날문토기편과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2) 환자곶 유물산포지

- 시대 : 시대미상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0, 11, 12임, 15임 일대

원창동 유물산포지 ②에서 북쪽으로 400여m 떨어진 곳에 해발 30~40m 정도의 나지막한 능선이 위치하고 있다. 능선은 남-북 방향으로 두 개로 나뉘어 있다. 유물은 이 두 능선 주변의 경작지 일대에서 확인되었다. 능선의 북쪽 및 동쪽 사면은 봉수대길 공사로 인해 절단된 상태이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경질토기, 백자 등이 수습되었다.

(3) 원창동 유물산포지

원창동 유물산포지 ①

- 시대 : 삼국~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 49임

원창동 유물산포지 ②에서 남쪽으로 500여m 떨어진 해발 20m 내외의 나지막한 능선의 정상부와 남쪽 사면 일부 밭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능선 북쪽과 남쪽의 말단부에는 목재 가공 공장과 민가들이 들어서면서 대부분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경질토기편,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원창동 유물산포지 ②

- 시대 : 삼국~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54, 56, 59 일대

원창동 동사무소의 남동쪽에 위치한 해발 62m 구릉 북쪽 사면 말단부에 위치하는 20m 내외의 낮은 능선에 해당한다. 구릉 주변은 정유 공장 및 주택 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다. 정상부 주변과 북사면 일대는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민가가 부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민가의 주변 밭 일대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백자 등이 수습되었다.



| 가정동 유물산포지 ①



| 가정동 유물산포지 ②



| 환자곳 유물산포지



| 원창동 유물산포지 ①



| 원창동 유물산포지 ②

2) 국방유적

(1) 가정포대 터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9-1



| 가정포대 터

가정포대는 연희진에 소속되어 있던 6~8개의 포대 중 하나로 서구 가정동 봉우재 일대에 해당한다. 해안에서 가정오거리 방향으로 들어오는 갯골(심곡천)을 방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대가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포좌의 방향은 서남방을 향하여 인근의 포대와 교차 사격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최근까지 석축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석축은 남아있지 않고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및 운요호사건을 겪으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한 조선의 조정에서는 서해안의 방비를 서둘러 1879년(고종 16) 인천에 화도진을 설치하고, 부평에는 연희진을 설치하였다. 일

명 용의 머리 혹은 용두산이라고 불리는 지점이며 이에 따라 용두포 대라 불렀다고도 한다. 부평 연안에는 연희포대와 원창동, 가좌동에 포대가 있었다고 전해오나 현재 찾기가 어렵다.

연희진은 수도의 관문이며 요충지인 당시 부평의 연안이 개항지로 제시될 것에 대비하여 1879년 7월 1일 설치되었지만, 1882년 헐파되었다. 연희진지는 후에 서곶출장소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계명공원으로 조성되어 표지석만 설치되어 있다. 주변으로는 연희 우성아파트와 서곶중학교가 들어서 있으며, 당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2) 축곶봉수 터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54



축곶봉수 터

축곶봉수는 서구 가정동 산 54번지 일대의 나지막한 구릉정상(해발 79.8m)에 위치하는 조선시대 제5거 직봉노선의 연변봉수이다. 봉수에서 남쪽으로 약 350m의 거리를 두고 북망산(해발 101m)이 위치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해발 100m 내의 나지막한 구릉이 남북으로 연이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해발 225m의 철마산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태이다. 서쪽으로는 서해 연안에 인접한 까닭에 멀리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양지초등학교의 남쪽 정면에 위치하는데 북쪽 하단부의 송화학습장을 지나 푸른농장으로 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 현재는 이곳이 봉수 터라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있고, 석축이 남아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도시 발전의 관건은 교통의 편리함에 있다. 전근

대는 교통로가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길을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지만, 현재는 대단위 주택조성이나 도로, 철도 등 계획적으로만 들어지는 차이가 있다. 경기만에 위치한 인천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근의 강화·김포 지역과 더불어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곳이다. 따라서 강화, 김포, 서구 등에는 다수의 성곽과 포대 등 관방유적과 더불어 전근대 중요한 교통 및 통신체계였던 봉수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통신체계였던 봉수 가운데 서구지역에는 축곶봉수와 백석산 봉수가 위치하고 있다. 축곶봉수는 서구 가정동의 해발 103m인 북망산 북쪽 79.2m의 나지막한 구릉 정상에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원래 바다에 인접하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꾸준한 간척사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되었으며, 동쪽은 305번 지방도를 사이로 철마산(226.5m)과 마주하고 있다. 남쪽의 성산(문학산) 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북으로 백석산봉수에 응하였던 가정동 축곶산 마루에 위치하고 있다. 축곶(紐串)은 이 산에 싸리나무가 무성해서 붙여진 것인데 산모양이 꼬챙이 같이 생겼다 해서 축곶산이라고도 불렀다.



『부평부읍지』 축곶봉수

『부평부읍지』 봉수조에 “축곶산 봉수는 남쪽으로 인천부 성산(문학산) 봉수에 응하는데 거리가 25리이고 북쪽으로 오류동 백석산 봉수에 응하는데 거리가 20리이다”고 하였다.

축곶봉수는 잔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연대(煙臺), 연소실, 방호벽, 우물지 등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고 대부분의 봉수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데 비해 타원형이어서 봉수로서 보존가치가 높다.

연대는 봉수대의 중심이 되는 시설로 거화(擧火)를 위해 축조한 높이 3m 내외의 토축, 석축 또는 토·석 혼축의 인공시설물을 말하며 연대의 상부 중앙에는 원형 혹은 방형의 연소실이 마련되어 있다.

축곶봉수대에 남아 있는 1기의 연대는 석축으로 축조되었으며 봉수제가 폐지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석재의 반출 등 인위적인 훼손이 진행되어 원형을 많이 잃은 상태이다. 연대 주변에는 수목이 우거져 있어 그 뿌리에 의한 석재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대의 평면은 얼핏 보기에 원형으로 파악되지만, 잔존 기저부의 형태로 보아 원래는 방형으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하는 연대의 규모는 직경이 동서 8m, 남북 8.2m, 높이는 동북쪽이 1.6m~2m, 남서쪽이 1~1.2m 가량 잔존하며 연대 하단부의 둘레는 27.5m 가량이다.

연소실은 내륙에 위치한 내지봉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봉수군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위험이 컸던 해안의 연변봉수에서만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물이다. 평시 또는 비상시 거화를 위해 연대 상부의 중앙에 마련한 연료 소성실로서 방형과 원형 및 외방내원(外方內圓)의 복합형 등 세 가지 형태로 남아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연소실이 확인되는 연변 봉수는 약 10개소 가량인데 대개 방형과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복합형 양식의 연소실에 남아 있는 봉수는 강화도 삼산면의 어류정 요망대가 유일하다.

축곶봉수의 연소실은 연대 상부의 북쪽에 방형의 형태를 취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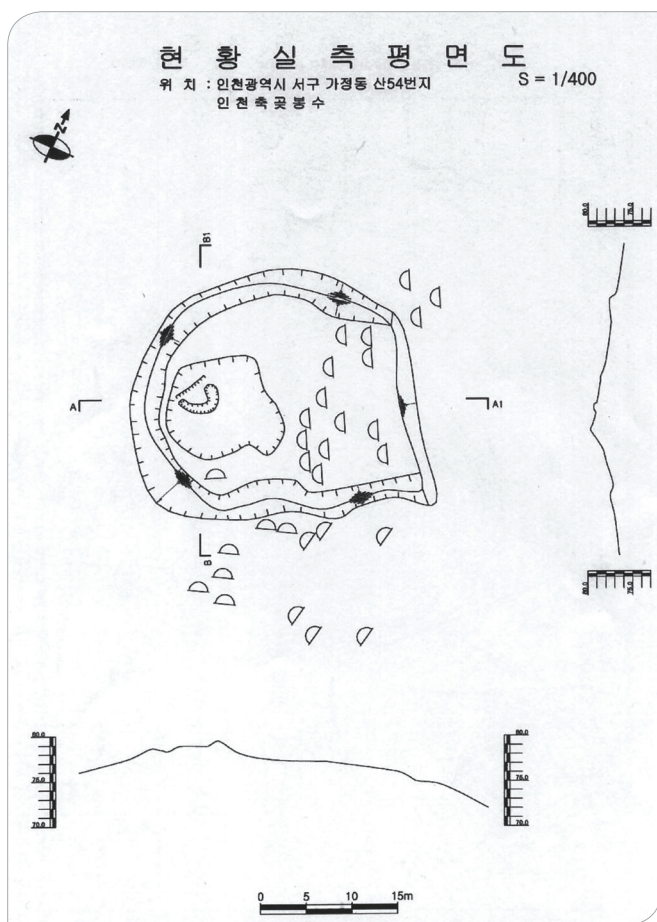
있는데 부정형 활석으로 축조하였으며 바닥에는 잡석이 깔려 있다. 연소실의 규모는 직경이 동서 2.5m, 남북 2.2m 가량이며, 깊이는 70cm 가량이다.

방호벽은 방화벽 혹은 방화석축이라고도 하며 봉수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저지하거나 거화 시 실수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방화용 시설물이다. 이러한 방호벽은 내륙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내지봉수에 설치된 시설물로 연변봉수인 축곶봉수에서 이러한 방호벽이 확인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봉수에서 방호벽이 확인되는데 울산 유포봉수의 경우 전체둘레 216m 가량의 초대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방호벽이 시설되어 있다. 특히 흙과 돌을 섞어 타원형으로 쌓은 방호벽은 현재까지 국내 다른 봉수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호벽의 규모는 동서길이 26m, 남북길이 22.5m, 높이 0.8~1m이며, 전체 둘레는 85m 가량이다.

창고지는 봉수대에서 거화에 필요한 각종 비품 및 재료와 신호전달 비품, 방화 비품 및 무기 등을 보관하기 위한 소규모의 건물을 두었던 곳이다. 축곶봉수의 창고지로 추정되는 곳은 평면 타원형의 방호벽 내에 있는 연대 동북쪽의 평탄지이다. 현재 다수의 민묘가 분포하고 있어 창고와 관련된 유구는 이미 훼손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건물지의 경우 봉수대의 중요시설 가운데 하나가 봉군의 휴식과 취사를 위한 건물이다. 건물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봉수마다 1~10 섬까지 비축하고 있던 쌀 외에 밥솥, 가마솥, 수저, 사발 등의 취사비품과 물통, 물독, 표주박 등 음수용 비품 및 혹한기 난방을 위한 화로 등 각종 비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건물의 형태는 기와집, 초가집 등 다양하게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축곶봉수의 건물지는 봉수대 동쪽 하단 사면에 위치한 남북장축의 평지로 건물지의 정면에는 우물지가 남아 있다.

우물지는 봉수대에서 근무하는 봉수군의 취사나 생활에 필요한 우물이 위치한 자리이다. 축곶봉수의 동쪽 하단 사면부에는 ‘승학약수터’로 지칭되는 우물지가 남아 있다. 평면 원형으로 현재 파이프를 통해 물이 고이는 곳은 70×90cm 가량의 원형 구덩이가 파여 있다. 이 우물지의 우측 상단부에는 축곶봉수의 건물지로 추정되는 평탄지가 있다.



축곶봉수 평면도

봉수(烽燧)는 변방의 긴급한 군사정보를 중앙에 알리는 군사통신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봉수의 어원은 ‘봉(烽)’으로 흔히 ‘봉화’라 하는데, 이리 동을 태워 연기를 낸다고 하여 이리 ‘낭’자를 써서 낭화(狼火)·낭연(狼煙)이라고도 한다. 봉수의 봉(烽)은 야간에 횃불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고, 수(燧)는 낮에 연기를 올려 통신하는 형태이다.

봉수는 수십 리의 거리를 두고 서로 살피기 좋은 요지의 산 정상에서 밤에는 횃불을 들고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전달하였고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어서 횃불이나 연기로 연락이 불가능할 때는 봉수군이 직접 달려가서 알렸다. 봉수는 역마(驛馬)나 인편(人便)보다 시간이 단축되었고, 신속한 효용성을 발휘하여 지방의 급변하는 민정상황이나 국경지방의 적의 동태를 상급기관인 중앙의 병조에 보고하였다.

봉수제의 유래는 오래되었는데 중국에서는 후한 광무제 때에 이미 상당히 정비된 봉수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봉화·봉산성(烽山城) 등의 기록이 보여 삼국시대부터 있어온 것으로 짐작되지만 확실한 것은 고려 의종(毅宗) 이후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봉수 관련법이 정리, 정착되는 것은 조선시대인데, 조선왕조는 교통수단과 아울러 통신수단도 정비하여 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외침과 같은 국경지방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정부 또는 이웃 지방에 알리는 동시에 그 지방 주민에게도 알려져 신속하게 대응토록 함에 의도가 있었다. 즉 봉수로는 국가의 신경조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역로(驛路)와 함께 군사행정상의 의미를 지니면서 통치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게 하였다. 다만 역제가 주로 중앙의 공문을 지방관아에 전달하는 하향식임에 비하여, 봉수제는 변경에서 중앙으로 급보를 전달하는 상향식에 그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역제가 행정 기능 중심인데 대하여 봉수제는 군사 기능 중심이었다.

세종 때에 이르러 고려의 봉수제를 바탕으로 당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평상시(無事)때 1거(驛)로부터 적과 접전 때 5거에 이르는 관계규칙을 새로 정하면서, 각 지역의 봉수대를 새로이 축조하고 나아가 봉수의 연결선을 일제히 획정하는 등 그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이후 봉수제는 파벌·역참제도와 병행되면서 그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다가 1894년 현대적인

전화통신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봉수의 관장은 그 기능상 군사 책임자가 맡았다. 즉 중앙에서는 병조의 무비사(武備司)가,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 및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도절제사·순찰사 등 군사 책임자가 관리하였다. 특히 수령은 봉수군의 근무활동을 수시로 감독하고 연대책임을 졌으며, 그들의 차출과 근무 상황은 물론 봉수대 시설의 이상 여부를 항시 살펴야 했다. 그리고 봉수군은 출번(出番)·퇴번(退番)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부근의 주민을 중심으로 차출하였다.

봉수를 통해 신호를 알리는 방법을 거화법(擧火法)이라 하는데, 횃불의 수를 정해 봉화를 올리는 제도이다. 신호의 표시는 평상시 아무 일이 없으면 1거(炬)하다가 사태가 일어나면 거수를 늘렸다. 이때 육지에서는 적이 출현하면 2거, 국경에 접근하면 3거, 국경을 침범하면 4거, 접전하면 5거로 하였다. 바다에서는 적선이 바다위에 나타나면 2거, 해안 가까이 오면 3거, 우리 병선과 접전하면 4거, 적군이 육지로 상륙하면 5거를 올리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칙상 모든 봉수에는 봉수대(烽燧臺)가 다섯 개 있었는데, 5거일 경우에는 횃불 다섯을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봉수의 연락망은 기능의 중요성에 비례해서 간선과 지선으로 나뉘었다. 간선은 변경지방에서 중앙으로 직접 통하였기 때문에 직봉(直烽)이라 하였고, 그 사이에 보조선으로서의 지선이 있었는데 이를 간봉(間烽)이라 하였다.

봉수대는 설치된 지역에 따라 경봉수(京烽燧)·연변봉수(沿邊烽燧)·내지봉수(內地烽燧) 등 3종류로 나뉘어진다. ‘경봉수’는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하는 중앙 봉수로서 서울 목멱산(南山)에 위치하며 목멱산봉수 또는 남산봉수라 불렸다. ‘연변봉수’는 연해봉수(沿海烽燧)라고 하는데 동서남북 국경의 제일선에 위치하는 봉수이다. 또한 연변의 영진(營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권설봉수(權設烽燧) 등이 있었다. ‘내지봉수’는 복리봉수(腹裏烽燧)라고도 하는데, 경봉수와 연변봉수를 연결하는 봉수로 수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의 연결체계는 권설봉수에서 연변봉수를 거쳐 내지봉수를 지나 경봉수에 이른다.

전국의 봉수는 5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정해진 노선을 따라 서울의 목덕산(남산)을 종점으로 하고 있다. 경흥에서 서울에 이르는 것이 제1거, 동래에서 서울에 이르는 것이 제2거, 강계에서 서울에 이르는 것이 제3거, 의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것이 제4거, 전라도 순천에서 서울에 이르는 것이 제5거이다. 봉수는 동서남북의 어느 변경에 위치한 봉수대에서 올린 봉화이든지 약 12시간이면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봉수군의 태만, 봉수대의 관리 소홀로 불거(不舉)·불통되거나 전달 소요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여러 규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들 봉수 가운데 인천과 부평을 통과하는 것이 제5거이다. 제5거는 순천의 방답진(防踏鎭)에서 처음 피어오른 후 남해안을 서쪽으로 돌아 진도·여귀산(女貴山) 봉수에 이르고, 그 곳에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수원·염불산·남양·해운산·안산·정왕산 봉수를 거쳐 인천의 문학산 봉수와 부평의 축곡산(軸串山) 봉수에 이르고, 다시 김포 백석산·통진 수안산·강화 대모성산·진강산·망산 봉수를 거쳐 교동으로 들어가 화개산 봉수에 이른다. 이곳에서 다시 강화·하음산·남산, 통진 남산, 김포 냉정산, 양천 개화산 봉수를 거쳐 서울의 남산에 도달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의 봉수는 모두 21개소로 시대와 성격상 고려시대 축조의 연변봉수 13개소, 조선후기 축조 요망대 성격의 권설봉수 8개소로 파악된다. 노선별로는 조선시대 5거제의 봉수 구분상 여수돌산도에서 시작하는 제5거 직봉 11개소, 간봉 3개소이며, 5개소는 제5거 노선에 속한 권설봉수이다. 교동도의 수정산 봉수는 제4거 간봉노선의 연변봉수이다. 봉수대가 위치한 높이는 가장 낮은 백석산 봉수(47m)에서 가장 높은 진강산 봉수(443m)에 이르고 있으며, 100~300m높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산성의 내부에 위치하는 봉수도 인천의 성산(문학산) 봉수와 강화도 남산봉수, 송악산봉수, 대모산봉수 등 4개에 달하고 있다.

3) 사찰

(1) 석남사 터

- 시대 : 미상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



석남사 터

석남사 터는 석남초등학교 뒷산에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골목길을 지나 절골 3길의 석남동 111-1번지 민가에서 뒷산으로 5분 정도 올라가면 있다. 사찰터로 전해지지만 창건이나 폐사와 관련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지금은 그 당시의 석축들로 추정되는 돌들이 민묘들의 석축으로 사용되고 있다.

4) 기타

(1) 가정 터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74



| 가정 터

조선의 개국공신 조반의 별장 터이다. 가정동 사거리 서쪽으로 100m 떨어진 지점에 정자는 없고 유적비만 세워져 있다. 원래 이 지역은 마을 안의 동산이 있었던 곳인데 도시계획으로 동산이 없어지고 주거지역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옛 지점을 찾아 표지석을 세웠다. 『부평부읍지』 고적 조에는 “가정(佳亭)은 석곶면(石串面)에 있는데 부흥군 조반(復興君 趙胖)의 별장[別業]”이라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도로변에 표지석만 남아있다.

본래 이곳은 조반의 외가(합천이씨)가 있는 곳으로 조반이 이곳에 별장을 경영한 것은 말년(60세)인 1400년(태조 4~정종 2)경으로 추

정된다. 표지석에는 ‘가정지(佳亭址)’라고 새겨진 비문이 있는데 뒷면에는 이곳에서 만년을 지내며 부친을 그리워했을 조서강의 시가 새겨져 있다.

한가한 틈을 타 좋은 날씨에 촌가에 이르니
아름다운 십리 들판에 여러 가지 꽃이 피었구나
얼근히 취하여 나귀 타고 돌아올 제
태평성대의 춘흥이 절로 나누나

조반(1341~1401)은 고려 공민왕 때, 12세의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북경으로 가서 매부 단평장(段平章)에게 의탁하여 중국어와 몽골어를 배우고 승상 탈탈(脫脫)의 인정을 받아 원에서 벼슬을 하였다. 귀국하여 1382년(우왕 8)에는 판도판서(版圖圖書)로 정조겸주청사(正朝兼奏請使)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왕의 시호 및 승습을 청하고 돌아왔으며, 1385년(우왕 11)에는 사은사(謝恩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우왕대에는 임견미(林堅味), 염흥방(廉興邦)의 전횡이 심하였는데, 염흥방의 종인 이광(李光)이 조반의 조업전(祖業田)을 강탈하자, 조반은 이광을 죽이고 그 집에 불을 질렀다. 이에 염흥방이 조반이 반란을 꾀하였다고 무고하여 조반과 그의 가족이 옥에 갇혔다. 이에 우왕은 최영, 이성계와 협의하여 조반을 석방하고 임견미, 염흥방 등을 숙청하였다. 조선이 건국되자 조반은 개국공신 2등으로 부흥군(復興君)의 칭호를 받았다.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의 관직을 역임하고 1401년(태종 1)에 61세로 세상을 떠났다.

조반이 서구와 인연을 맺은 것은 분명하나 그가 가정동으로 이주하여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서구에 별장을 짓게

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그의 둘째 아들인 조서강이 가정동으로 입거했고, 그 후손들이 세거(世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정 터의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반의 가계를 살펴보면, 배천조씨의 시조는 조지린(趙之遴)으로 중국 송나라 사람으로 고려에 귀화하여 황해도 배천에 정착하였다고 전한다. 조반은 시조로부터 14세손이 된다. 조반의 선대는 고려 덕종~예종 대에 다수의 재상 및 고위 관인을 배출하면서 명문가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무인정권기에 들어와서는 활동한 인물들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신란을 계기로 정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종대에 이르러 당시 집권자인 임연(林衍)을 상대할 수 있는 세력으로 평가되었던 조오(趙璈, 7세손)로 인해 다시 명문가로 부활하는 기회를 잡았으나 조오세력의 확대를 두려워한 임연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러다가 고려말에 이르러 조반과 조림(趙琳, 11세손)이 출사하여 관직 활동을 함으로써 배천조씨 가문은 조선 개국공신 가문으로까지 번성하게 되었다.

조반의 처는 사운서(司醞署) 직장(直長)을 지낸 이양오(李養吾)의 딸이다. 이씨와의 사이에 3남을 두었는데 서로(瑞老), 서강(瑞康), 서안(瑞安)이다. 조반의 큰아들 조서로는 1405년(태종 5) 생원시에 장원 급제하여 이조좌랑, 사헌부 지평(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둘째 아들 조서강은 1414년(태종 14) 생원시에 합격하고 그해 문과을과에 급제하여 감찰에 등용되었다. 세종대 의정부 사인(舍人)으로서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이 되어 『태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침지중추원사, 경상도관찰사, 우승지, 도승지 등을 거쳐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태종실록』(권2, 1년 10월 임오조)에 조반의 졸기(卒記)가 수록되기도 하였다. 시호는 숙위(肅魏)이며 왕명으로 불천위(不遷位)를 받았고 묘소는 개풍군 북면이다. 부인은 정경부인의 봉작을 받았다.

(2) 사창지(社倉址)

- 시대 : 조선
- 소재 : 원창동

사창은 조선시대 전세(田稅)와 사환미[社還穀]를 보관하던 창고이다. 고종23년(1886) 서구 원창동 포리(浦里, 현 SK에너지 북쪽)에 경기감영의 지시로 창고를 지었던 것으로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전세의 현물 수납이 폐지됨에 따라 사창도 없어지고 농민의 경작지로 변했다고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세금 중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것이 쌀이었는데 당시는 모두 현물로 세금을 내야했기 때문에 이 세곡을 서울까지 운반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다. 당시 육상 교통에 있어 화물 수송은 인력이나 소와 말을 이용하였는데 도로조차 변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화물은 부득이 강이나 바다를 이용하였다. 이것을 조운(漕運)이라 하는데, 이 역시도 해상 교통수단이 열악해서 세곡의 운반을 작은 범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세곡을 적재한 선박이 서울의 관문인 인천을 거쳐 서울의 경창(京倉)에 도착할 때까지 뱃길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사십여 일이 걸렸고, 선박이 운행하는 뱃길에는 갖가지 위험과 사고가 도처에 널려 있었다.

조운을 통한 관곡수송은 각종 사고와 부정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조운은 낮에만 항해했고, 일기가 불순한 날, 장마철이나 풍랑이 심한 겨울철에는 운행하지 않았다. 한편 세곡선이 자주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는 세곡의 대부분을 미리 빼돌리고 배를 일부러 침몰시킨 후 풍랑으로 인한 파선으로 가장하기도 했다. 또 청탁과 부정으로 관곡을 수송하는 배에 세도가의 곡물까지 선적하였는데 이로 인해 과적 운행을 하게 되어 사고를 초래하는 일

도 많았다. 잦은 선박의 조난과 부정은 조선사회의 정치·경제사정과 기술수준의 낙후성이 복합적으로 일으킨 결과였으나, 정부는 선박 전조기술의 향상과 항해술의 전수를 위한 대책에는 소극적이었다.

조세선의 운항 도중 봉착하는 난관이 풍랑이었는데 이 풍랑을 손돌목과 같은 험로 상에서 만난다면 침몰을 면하기 어려웠다. 김포굴포는 손돌목을 회피하기 위한 운하계획으로 고려시대부터 개착이 시도되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착안한 사람이 무신정권시대의 무인집정 최이(崔怡)다. 그가 서해와 한강 사이에 운하를 굴착하여 연결시키려고 사람을 보내어 안남(부평) 땅의 지세를 보게 하였으나 불가하여 중지하였다. 조선에 들어와서 중종대(1506~1545)에 김안로(金安老)가 굴포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굴포작업에 실패함으로써 손돌목이란 조운의 난관은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제기된 방안이 전조창[漕運倉]의 설치이다. 전조창은 삼남의 조세선이 손돌목까지 가지 않고 전조창까지 와서 세곡을 납입하면 이곳에서 서울까지 육로로 수송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이다. 서구의 전조창은 부평구 석곶면 포리(浦里), 즉 원창동에 있었던 것으로 『부평부읍지』에 기록되어 있다.

(3) 경인고속도로 기공지

- 시대 : 1967년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I.C



| 경인고속도로 주변_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기공식이 1967년 3월 24일 이곳에서 거행됐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가좌동 톨게이트-서울 영등포 구간이 1968년 12월 21일 개통되었으며 이어 가좌동-신흥동-제2도크 입구까지의 구간이 1969년 7월 20일에 2차로 개통되어 총연장 29.5km 4차선이 완성되었다. 근대화를 위한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겨레의 동맥인 도로의 혁명을 부르짖고 그 첫 결과를 맺은 것이다.

당시 고도의 경제성장에 진입하며 산업시설은 확장되고, 교통수요는 격증일로에 있었으며, 차량의 증가와 함께 점차 고속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로의 근대화작업을 서둘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 39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의 도로개

발정비에 힘썼으나, 당시 도로사정은 전근대적 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도로혁명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는 302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자하였으며 이어 도로정비촉진법까지 제정하고서 도로개발에 주력하였다. 이렇게 정부가 도로개발 사업에 경주한 끝에 1967년 3월 착공한 경인고속도로는 총예산 3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중장비 8만대, 연인원 87만 명의 노동력이 집중된 연장 93.9km, 폭 20.4km의 4차선 도로였다.

이 경인고속도로의 완공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천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한 서울과 인천을 동서 생활권으로 묶어 주어 지역개발에 기여하여 인천을 항만도시와 공업도시로서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으며, 한국의 경제성장은 물론 교통완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에는 산업발달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심한 교통체증이 일어 1994년 10월 19일 서울기점(신월동)~서인천I.C까지는 8차선, 서인천I.C~제2도크까지는 6차선으로 1998년 12월 2일에 확장공사가 완공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의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의 일로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당시 1962년부터 1966년까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부는 의도하였던 경제개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송 부문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국적인 교통조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에서 도로 교통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기존 도로의 수송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고속도로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제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은 수도권인 인천향과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의 고속화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산업구조상 단거리 운송으로 기동성이 요구되면서 도로교통에 의한 운송

시대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도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산업경제·사회생활·여가선용·국가방위 등 전반에 걸쳐 근간을 이루는 혈맥이라 볼 수 있는데, 당시의 운송 분담은 철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육상도로의 투자는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부문 투자가 저조하였던 것은 산업구조적으로 운송 분담이 높았던 철도시설투자에 집중된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도로 확충에 필수적인 건설장비와 원자재 부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64년 울산정유공장의 준공으로 아스팔트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면서 기존 도로의 확충 및 포장에 본격화되고 고속도로·산업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이 생산활동과 사회활동에 직결되면서 도로 개발이 속속 진행되게 되었다. 고속도로의 등장은 사회전반에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특히, 운송산업과 토목기술의 축적 경험을 얻게 된 건설산업은 해외진출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24일 착공되는데, 소요자금 중 일부를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대조건 관계로 시간이 지연되었다. 거기에 공사 수주업체의 능력과 경험 부족으로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했다. 본격적인 공사를 1968년 4월부터 시작하여 인천 용현동-서울 양평동 구간 총 연장 29.5km의 4차선 노선을 1년 3개월 만인 1969년 7월 21일 개통하게 되었다. 공사가 완료된 20일이 때마침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날이었기 때문에 ‘아폴로 하이웨이’라 명명하기도 했다. 공사업체는 전국 도급순위 1·2·3위 업체인 현대건설·대림산업·삼부토건이 공동출자하여 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를 설립, 수행하게 되었는데 구간이 짧은 데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교량과 육교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공업화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도시가 확대되면서 도심지에 산재

한 공장들은 이제 그 여건의 변화로 변두리로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장용지 확보는 개별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경제개발 기간 동안 유향토지를 공업단지로 개발하여 개별기업의 부지난을 해소하고 경영효율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폐염전을 공업단지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968년 건설부의 ‘경인고속도로 연변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후, 인천시를 시행자로 하여 인천기계공업단지의 일부분을 흡수 통합하여 인천지방공업단지를 준공하기도 했다. 나아가 1974년에는 인천 내항의 전면 ‘도크’ 화가 이뤄져 동양 최대의 갑문식 도크가 완성되는 것도 그 일환이라 하겠다.

1980년대 후반부터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일으켰던 경인고속도로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표현하던 시대도 있었다. 인천항 수출입 화물의 절반 이상을 실어 나르는 경인고속도로는 지금까지도 도로정체로 인해 서울-인천간 화물운송 소요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이면에는 수송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이는 항만의 선박이 오래 지체되는 체선 현상과 육상의 교통체증에 의한 물류비의 증가가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는 뜻이기도 했다. 따라서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확장과,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건설되었던 것이다. 현재는 2017년 인천시로 이관되고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부차적인 여러 가지 작업들이 정비되고 있다.

(4)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 시대 : 현대(1975. 9. 24), 현충시설
- 소재 : 연희동 (2018. 7. 25. 가정동에서 연희동 경명공원으로 이전)



|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가정동 경인고속도로변에 있는 콜롬비아군 참전 기념비는 1950년 6·25전쟁 당시 지구 반대편에서 달려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기꺼이 희생한 콜롬비아 용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나 2018년 7월 25일 연희동 경명공원으로 이전되어 콜롬비아군 611명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제막식 및 참배행사가 거행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즉시 파병을 결정했고, 콜롬비아는 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 지원군을 보냈다. 콜롬비아군은 참전을 결정하자마자 미국식 장비로 재무장한 뒤 미국 교관단으로부터 12주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이와 함께 189명이 탑승한 해군 프리깃함도 한국 해역에 투입할 준비를 하기 위해 진주만에서 미 해군과 합동훈련에 나섰다.

1951년 4월 프리깃함 파딜라호가 한국을 향해 출항한 데 이어 1천여 명의 병력으로 편성된 콜롬비아 1보병대대도 5월 21일 미국 수송선을 타고 콜롬비아를 떠났다. 이들은 1951년 6월 15일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 고위 장성, 한국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부산항에 입항했다. 육군으로는 유엔군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국에 도착한 것이다. 콜롬비아는 교대병력을 포함해 연인원 5천 100여명의 병력을 모두 4차례에 걸쳐 한국에 보냈다.

이들은 김화 400고지 전투, 연천 180고지 전투, 골모고지 전투 등에서 격전을 치렀다. 콜롬비아군은 군율이 엄하고 용맹하기로 소문났으며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는 신조를 지켜 전투마다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참전 기간 중 전사 143명, 실종 69명, 포로 30명과 부상자 등의 고귀한 희생이 뒤따랐다. 휴전된 1953년부터 1954년까지는 유엔군 방어작전지역 경계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국에 한국전쟁 참전국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이 진행됐고 인천에는 콜롬비아군 참전비 건립이 결정됐다. 그해 9월 24일 서구 가정동에 비 높이 10m, 기단 높이 2m의 콜롬비아군 참전비가 세워졌다. 매년 콜롬비아 독립기념일에 주한 콜롬비아 대사와 6·25참전유공자회 인천시 서구지회 회원들이 참석해 추모식을 거행한다.

2003년 5월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참전비에 는 낮은 땅에서 피 흘린 콜롬비아 용사들의 고귀한 뜻이 적혀 있다.

카리브해 바다의 정기를 타고난 콜롬비아 용사들!

국제연합(UN)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마침내 611명의 고귀한 생명이 피를 흘렸다. 우리는 그들을 길이 기념하고자 여기에 비를 세운다.

(5) 가좌동 청송심씨 고택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80-3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한옥은 가좌동의 선주 성씨인 청송 심씨(靑松沈氏) 고택으로 일명 심재갑 고택이라고도 한다.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으로 추증된 심한웅(沈漢雄; 1652~1715)이 처음 입향하여 거주하면서 역사적 연원을 갖게 되었다. 이후 심상필(沈相弼; 1873~1957)과 그의 아들 심운섭(沈雲燮; 1899~1966)이 4년간 증축공사를 했다.

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사랑방과 그에 딸린 방, 왼쪽에는 헛간과 외양간이 있는데, 중부지방의 전통적인 기와집으로 ‘ㄱ’자 모양의 안채와 ‘ㄴ’자 모양의 행랑채가 합하여 전체적으로 ‘ㄷ’자형을 이루고 있다.

1940년에 안채를 헐고 다시 지었는데 압록강에서 소나무를 가져와 서까래와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데 집을 다시 지을 때는 3년이 걸렸고 당시 개성목수들이 못을 전혀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엮어서 튼튼하게 지었다고 한다. 6·25전쟁 때는 피난민이 몰리면서 이 집에 20가구 이상이 살았다고 하며 1950년대에 농촌계몽운동의 하나로 야학을 지도하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 가좌동 청송심씨 고택(1950년대)



| 가좌동 청송심씨 고택(2000년대)

강옥엽 (인천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Chapter IV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2
남서곶

남서곶의 인물

1. 선주 성씨들
2. 전근대 인물
3. 근현대 인물

IV. 남서곶의 인물

1. 선주 성씨들

인천지역 선주(先住) 성씨(姓氏)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이훈익의 『인천지명고』(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1993년)에서 시작되었다.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의 작업이 다른 연구서에서 그랬듯이 문헌 자료보다는 당대의 집성촌에 대한 탐방과 해당 성씨 원로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인천지명고』에 기술된 남서곶의 선주 성씨는 가정동 5개 성씨, 신현동 4개 성씨, 원창동 6개 성씨, 석남동 3개 성씨, 가좌동 6개 성씨, 모두 합해 24개 성씨인데 동별 구분은 의미가 크지 않다. 2~3개 마을에 걸쳐서 세거해온 가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1) 가정동

- 김해김씨(金海金氏) : 고려 시대부터 집단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5~6가구만 살고 있다.
- 성주이씨(星州李氏) : 조선 초기부터 입향(入鄕)하여 대성(大姓)을 이루고 살았으나 지금은 5~6가구만 살고 있다.
- 함천이씨(陝川李氏) : 조선 초기부터 집단 거주했으나 지금은 소수 가구가 살고 있다.
- 배천조씨[白川趙氏] : 조선 개국공신 숙위공(肅魏公) 조반(趙胖; 1341~1401)이 가정동에 별업(別業)을 지었다. 이조참판을 지낸 그의 아들 조서강(趙瑞康; 1394~1444)이 세종 때 벼슬에서 물러나 가정동에 입향 정착하였다. 그 후 후손들이 세거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 한양조씨(漢陽趙氏) : 조선 초기에 입향하여 대성을 이루고 살았으나 지금은 5~6가구만 살고 있다.

2) 신현동

- 김해김씨(金海金氏) : 신라 시대부터 집단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10여 가구만 살고 있다.
- 파평윤씨(坡平尹氏) : 조선 중기부터 집단 거주하였다. 지금은 20여 가구가 살고 있다.
- 전주이씨(全州李氏) : 조선 중기에 입향하였다.
- 경주이씨(慶州李氏) : 조선 중기에 입향하였다.

3) 원창동

- 진주강씨(晉州姜氏) : 입향 시기가 불명확하다. 10여 가구가 살았으나 모두 떠났다.
- 김해김씨(金海金氏) : 울도에 터를 잡고 조선 중기부터 살았으나 매립 개발된 뒤 모두 떠났다.
- 나주나씨(羅州羅氏) : 조선 중기부터 살아온 대성이었다.
- 밀성박씨(密城朴氏) : 경기도 양지(陽智) 현감을 지낸 박우(朴祐; 1493~1568)가 16세기 전반에 입향한 후, 그 후손들이 15대에 걸쳐 세거하면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다.
- 밀양손씨(密陽孫氏) : 조선 초기부터 살았다.
- 경주최씨(慶州崔氏) : 조선 중기부터 살았다.

4) 석남동

- 제주고씨(濟州高氏) : 옛날부터 집단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10여 가구만 살고 있다
- 경주김씨(慶州金氏) : 김교진(金敎珍; 생졸년 미상)이 19세기 후

반에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 경주최씨(慶州崔氏) : 최갑진(崔甲鎭; 생졸년 미상)이 19세기 전 반에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5) 가좌동

- 밀성박씨(密城朴氏) : 부호군을 지낸 박영섭(朴永燮; 1630~졸년 미상)이 17세기 전반에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박영섭은 16세기 전반에 원창동에 입향한 박우(朴祐; 1493~1568)의 후손이다.
- 반남박씨(潘南朴氏) : 용양위 부호군을 지낸 박봉령(朴鳳齡; 1647~1728)이 17세기 후반에 입향한 후 그 후손들이 세거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 달성서씨(達城徐氏) : 서윤(徐潤; 생졸년 미상)이 16세기 전반에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 청송심씨(靑松沈氏) : 통덕랑(通德郎) 심한웅(沈漢雄; 1652~1715)이 17세기 후반에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 성주이씨(星州李氏) : 통덕랑 이탁(李晫; 1600~졸년 미상)이 17세기 중엽에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세거하면서 집성촌을 이루었다.
- 전의이씨(全義李氏) : 훈련원정(訓鍊院正)을 지낸 이효가(李孝可; 생졸년 미상)가 16세기 후반에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2. 전근대 인물

1) 가정동

(1) 조반(趙胖; 1341~1401)

배천조씨[白川趙氏]이고 시호는 숙위(肅魏)이다. 증 보국공신 정헌대부 좌우위 보승호군(贈輔國功臣正憲大夫左右衛保勝護軍)과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 추증된 세경(世卿)의 아들이다. 고려조에서 왕명의 출납, 숙위(宿衛), 군기(軍機) 등의 일을 보던 관청인 추밀원 종2품 벼슬인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와 밀직사 소속의 종2품 벼슬인 사사(私事)를 지냈으며, 조선에서 추충협찬개국공신(推忠協贊開國功臣)으로 부흥군(復興君)에 봉해졌다. 또한 정헌대부(正憲大夫)의 품계를 받고, 의정부에 속한 정2품 벼슬인 참찬(參贊)에 이르고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던 문하부(門下府)의 부사에 올랐다.

12세에 부친을 따라 청국 베이징(北京)에 가서 한문과 몽고의 글과 말을 배워 중서성(中書省)에서 역학의 일을 했다. 1368년(공민왕 17)에 부모 봉양을 위해 귀국하였다. 고려조에서 밀직사로 정령(政令)과 조정의 출납, 궁중의 숙위(宿衛), 군사 기밀을 담당하던 관청에 근무할 때 요승 신돈(辛旽)을 참할 것을 상소할 일로 인해 과천으로 유배되었다가, 1382년(우왕 8)에 판도판서(版圖判書)의 직으로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경사(京師)에 다녀왔고, 1385년(우왕 11), 경사(京師)에 가서 공민왕의 시호와 승룡 요청을 하고 돌아와 정3품의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제수받았다. 1387년(우왕 13)에 무진피화(戊辰被禍)에 얽히기도 하였다. 그 뒤 공은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겸 개성윤(開城尹)이 되었다. 1389년(공양왕 1)에 순안군 왕방(王肪)과 함께 왕의 낭위(郎位)를 알리려 남경에 가게 되는데 이때 윤이(尹彝), 이초(李初) 등이 고구려의 재상이라 사칭하고 이성계(李

成桂)가 고려왕을 폐하고 장차 명을 침범하려 하니 명제에게 장차 출병하여 줄 것을 청하였는데, 이는 무고임을 설명하고 그들이 고려의 재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명 황제의 의심을 풀었다.

다음 해 귀국하여 윤이와 이초의 사건을 보고하여 이색 등 수십 명이 피해를 당하는 옥사를 일으켰다. 1391년 공전(公田)을 함부로 빼앗아 성현의 탄핵을 받고 관직이 삭탈되어 죽림으로 귀양 갔으나, 곧 풀려나 1392년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복위되었다. 조선 개국 후에는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되고 부흥군에 봉해졌으며,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가 되었다. 조반은 배관의 장문을 가지고 조선 개국의 사실을 알리러 명나라에 갔다가 3달 만에 돌아왔다. 1394년 재차 명나라에 다녀왔고, 1395년에는 판중추원사에 또다시 제수되었다가 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를 거쳐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使)에 이르렀고, 이 당시에 부평부 석곶에 가정별장(佳亭別莊)을 지었다. 1396년에 정헌대부참찬문하부사(正憲大夫參贊門下府事)에 올라 명나라 황제의 성절(聖節)을 하례하고 돌아왔다. 1398년에는 하정사(賀正使)가 되어 명나라에 들어갔으나 등주에서 제왕의 방해로 다음 해 돌아와 배천 향리에 은퇴하여 참선(參禪)에 정진하다가 1401년 61세로 사망하였다.

(2) 조서강(趙瑞康; 1394~1444)

자는 자경(子敬), 호는 경은(耕隱)으로 조반의 둘째 아들이다. 1414년(태종 14)에 문과식년방(文科式年榜)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431년(세종 13)에는 조봉대부(趙奉大夫) 문반품계(文班品階)를 받고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지제교(知製敎)로서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으로 태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이후 사헌부 장령, 집의(執義)를 거쳐 집현전의 부제학, 사간원 좌우사간(司諫院 左右司諫), 중추원 첨지중추원사와 진무사를 지냈는데 이는 진무

영의 으뜸 벼슬로 강화유수를 겸직하였다.

함길도 수복지구 진무사 등을 거쳐 세종 23년(1441)에는 승정원 도승지를 역임하고 1443년(세종 25)에는 가선대부의 품계를 받고 이조참판을 지냈다. 일찍이 문장과 덕행이 뛰어나 존경을 받았다. 50세에 현직에서 물러나 인천 가정(佳亭)에서 은거하며 유유자적하였다. 이곳 가정은 그의 부친 조반의 별장이 있었던 곳으로 경치가 아름다워 안평대군(安平大君), 정인지(鄭麟趾), 유의손(柳義孫), 황정홍(黃廷或) 등 당시의 명사들이 자주 내왕하면서 지었다는 시 13수가 전해지고 있다. 세종은 누차에 걸쳐 벼슬길에 나오기를 청했으나 나가지 않았다. 화공(畫工)을 보내 그의 거처인 가정을 그려 바치게 했고, 안평대군은 석호가정별업지도(石浩佳亭別業之圖)에 가정 시가와 그림을 모아 화첩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후일 왕은 부의(賻儀)로 쌀과 콩을 보냈으며, 제문을 지어 보냈다고 한다.

(3) 조치(趙治; 생몰년 미상)

조서강의 아들이다. 조선 정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1459년(세조 5)에 승정원 좌우부승지(左右副承旨)를 지냈으며, 이어 예문관과 홍문관의 종2품, 규장각의 으뜸 벼슬인 제학(提學)에 올랐다. 또한 1466년(세종 12)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와 대사간에 올랐다. 노후에 배천본산[白川本山]에 은거하다 세상을 떠났다. 이조참판에 추증(追贈)되었다.

(4) 조맹근(趙孟謹; 생몰년 미상)

조치의 아들이다. 1468년(세조 13)에 문과에 올라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을 역임하였고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전북 함열영노당(咸悅迎老堂)으로 낙향하였다.

(5) 조한명(趙漢明; 생몰년 미상)

가정동 배천조씨 문중 출신으로 중추부사를 지냈다. 『승정원일기』 영조 32년(1756) 8월 17일에 첨지, 동년 8월 17일에 첨지 중추부사를 제수한 기록이 있다.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10월 13일자에는 고인이 된 그에게 통덕랑 벼슬을 추서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후손들이 선략장군행충무위(宣畧將軍行忠武衛)로 임명한다는 교지를 보존하고 있다.

2) 신현동

(1) 박세명(朴世命; 1644~?)

본관은 밀성박씨(密城朴氏)로 자는 인숙(仁淑)이며 석곶면 새오개 출신이다. 도사(都事)를 지낸 신광(信光)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를 받고 중추부에 속한 종2품의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2) 박득주(朴得柱; 1747~?)

밀성박씨로 자는 성우(聖佑)이다.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지낸 시원(時元)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을 지냈다.

3) 원창동

(1) 박우(朴祐; 1493~1568)

밀성박씨로 자는 천여(天汝)이다. 박거령(朴居齡)의 아들이다. 음사(蔭仕)로 성균관의 4부(四府) 중, 서부(西部) 참봉을 거쳐 통훈대부 행 양지현감(通訓大夫 行 陽智縣監)을 지냈다.

(2) 박신안(朴身安; 1531~1584)

박우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하여 찰방(察訪), 홍문관 교리를 지냈다.

(3) 박대충(朴大忠; 1552~1592)

박신안의 아들이다. 사마시에 급제하여 음사로 군자감 봉사(軍資監奉事)를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병화로 사망했다.

(4) 박대신(朴大信; 1555~1617)

박신안의 둘째 아들이다. 1582년(선조 15)에 문과생진양시(文科生進兩試)에 급제하였고 학행(學行)이 고명(高明)하였다. 벼슬은 조선 때 관리의 감찰, 규탄을 맡아보던 종5품의 관직인 중부도사(中部都事)를 지냈다.

(5) 박연(朴淵; 1576~?)

박대충의 아들이다. 음사로 통정대부 행 남양부사(通政大夫行南陽府使)를 지냈다.

(6) 박종남(朴宗南; 1592~1633)

박대충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통훈대부, 홍문관교리를 지냈다.

(7) 최훈기(崔勳基; 1845~1900)

본관은 경주최씨(慶州崔氏)이다. 자는 중희(仲禧)이며 호는 중원(重園)이다. 참봉(參奉)으로 조선 고종 때 석곶 포리(현 원창동)에 있던 전조창[漕運倉]의 세곡관(稅穀官)을 지냈다.

4) 석남동

(1) 김정묵(金正默; 1887~?)

본관은 경주김씨(慶州金氏)이다. 자는 미영(迷英)이다. 부친인 김교진(金敎珍)은 경기도 이천에서 석남동으로 처음 입향하여 세거를 시작한 인물이다. 말년에 정3품 당상관(堂上官) 품계(品階)인 통정대부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가좌동

(1) 박봉령(朴鳳齡; 1647~1728)

본관은 반남박씨(潘南朴氏)이고 자는 명원(鳴遠)이다. 인천 원우금에서 가좌동에 입향한 시조이다. 박봉령의 부친은 박수(朴琇)이며 부사과(副司果)를 지내고 사후에 우승지(右承旨)의 벼슬을 증직 받았다. 무인으로 여러 벼슬을 거쳐 무관의 최고직인 절충장군으로 행 용양위 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을 지내고 사후 첨지중추부사에 추증되었다.

(2) 박영섭(朴永燮; 1630~?)

본관은 밀성박씨이며 자는 문(文)이다. 부평부 석곶면 가좌리에 16세기 초에 처음 입향한 인물이다. 선대는 원창동에서 1500년대 초 처음으로 세거를 시작한 박우(朴祐)의 후손이며, 신현(信鉉)의 아들이다. 문·무과에 급제하여 종4품 문반품계인 조봉대부(趙奉大夫)의 품계를 받고 선략장군 행 용양위 부사과(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를 거쳐 부호군(副護軍)을 지냈다.

(3) 박기동(朴箕東; 생몰년 미상)

밀성박씨이며 자는 석범(錫範)으로 부평부 석곶면 가좌리에서 출생하였다. 박영섭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정3품 당상관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고 행 용양위부호군을 지냈다.

(4) 박승옥(朴承沃; 1817~1885)

밀성박씨로 자는 도길(道吉), 초휘(初諱)는 홍범(洪範)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선략장군을 거쳐 절충장군으로 행 용양위 부사과를 거쳐 부호군을 지냈다. 그 후 정3품 당상관 통정대부에 올랐다.

(5) 박예병(朴禮秉; 1847~1894)

박승옥의 아들이다. 각 군현에 어린이의 교육을 위해 두었던 동몽훈도(童蒙訓導)로 재직하다가 고종 때 임진정시병과(壬辰庭詩丙科)에 급제했다. 여러 벼슬을 거쳐 1865년(고종 2)에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용양위 부호군의 벼슬을 지냈다.

(6) 박제견(朴齊堅; 생몰년 미상)

밀성박씨로 자는 성요(性堯), 초휘(初諱)는 술(戌)이다. 초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통덕랑을 비롯해 많은 관직을 거쳐 정2품 품계인 가선대부에 이르렀다.

(7) 서경서(徐景瑞; 1545~1592)

본관은 달성서씨(達城徐氏)이다. 부친인 서윤(徐潤)은 부평부 석곶면 가좌리에 입향한 시조이다. 자는 만서(萬瑞)이고 선략장군을 지냈는데, 1592년(선조 25)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 전사했다. 이에 조정에서 병조참의에 증직하였다.

(8) 서직리(徐稷履; 1585~1624)

서경서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경성진 수군병마권관(鏡城鎭水軍兵馬權管)을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쳐 무관 관직인 정3품 당상관 절충장군을 지냈다.

(9) 서유원(徐有遠; 1721~1804)

달성서씨로 자는 원서(元叙)이며 가좌리에서 출생하였다. 숙종 때에 통사랑(通仕郎)을 지낸 서봉수(徐鳳修)의 아들이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조선 말 궁내부에서 협판을 지냈다.

(10) 서내수(徐來修; 1736~1801)

달성서씨이며 자는 군명(君明)이다. 서명정(徐命鼎)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정3품 당하관 품계인 통훈대부의 계를 받고 군자감정(軍資監正)으로 재직했다.

(11) 서영보(徐永輔; 1737~1805)

자는 성검(聖儉)으로 서유진(徐有珍)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사후에 증 가선대부 행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贈嘉善大夫行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추증되었다.

(12) 서학순(徐學淳; 1763~1835)

서영보의 아들이다. 자는 치호로 가좌동 출신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많은 관직을 지냈다. 사후에 가선대부 전행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 오위장(嘉善大夫前行同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五衛將)을 추증받았다.

(13) 서광년(徐光年; 1873~1953)

달성서씨로 자는 경언(景彦)이다. 부친은 서상영(徐相永)이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진사에 이르고 의정부 소속의 성균관 교수를 역임하였다.

(14) 심자(沈鎡; 1518~1578)

본관은 청송심씨(靑松沈氏)이고 자는 중시(重試)이다. 통례원(通禮院) 좌통례(左通禮)를 지낸 심달원(沈達源)의 아들이다. 1546년(명종 1)에 생원시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통훈대부의 품계를 받고 선공감(繕工監)의 첨정(僉正)을 지냈으며, 공적이 인정되어 사후에 의정부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15) 심우정(沈友正; 1546~1599)

심자의 셋째 아들이다. 자는 원택(元擇), 호는 빈죽(賓竹)이다. 1564년(명종 19)에 생원시 급제, 1583년(선조 16)년에 별시(別試) 문과(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에 속한 정6품의 관직인 전적이 되었다. 형조좌랑(刑曹佐郎)에 전임되어서는 간악한 자를 조사하고 난폭한 자를 처벌하여 위엄을 보이고, 백성들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하여 명성이 높았다. 이후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 호조, 예조, 형조, 공조좌랑을 지냈으며, 외직으로 전라도 도사(都事), 해운판관(海運判官)을 역임하였다.

1589년(선조 22), 한성부 서윤(庶尹)으로 벼슬을 살던 중 무고를 당해 선전군수로 좌천되었다. 임진왜란 때에 종사관이 되었고, 한강, 임진강 등의 방어에 참전하고 왕세자가 있는 이천에 가서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이 되었다. 그 후 조지(朝旨)에 의해 심우정은 강원도에서 군사를 모집했고 유언비어로 인해 파직되었다가 1593년(선조 26), 한성에 있는 적이 물러나면서 군기시정(軍器寺正)을

거처 파주목사, 사간원 헌납을 역임한다. 이후 1597년(선조 30)에 광주목사(廣州牧使)에 취임하여 산성을 수축했다. 다음 해에는 영남에 있는 명군(明軍)의 군량을 조달하는 책임을 제수받았다. 세상을 떠난 6년 뒤에 호성(扈聖), 선무공신에 책록되었다. 후에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아들 심즙(沈諶)이 선무원종(宣武原從)에 참여한 관계로 누차 심우정(沈友正)을 추증하여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16) 심즙(沈諶; 1569~1644)

심우정의 셋째 아들이다. 자는 자순(子順)이고 호는 남애(南崖)이다. 1596년(선조 2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보직되고 예문관에 들어가 검열(檢閱), 대교(待敎) 등을 역임하면서 사정(邪正)을 논했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해 한때 은거하였다. 1601년(선조 34)에 예문관 검열로 복관되어 여러 요직을 역임하고 수원판관이 되었는데, 당시 간관이었던 정홍익(鄭弘翼)과 함께 무고를 받은 성훈(成渾)을 변론하다가 옹진현령으로 좌천되었다.

1605년(선조 38) 전적(典籍)·예조정랑·정언겸문학(正言兼文學) 등을 두루 거쳐 1607년(선조 40)에는 죽산부사(竹山府使)로 나아갔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장령(掌令)으로 직언을 하다가 다시 면직되었다. 그 뒤 은계찰방(銀溪察訪)·해운판관(海運判官)을 거쳐 고령현감이 되었으나, 정인홍(鄭仁弘)이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을 비방한 데 반발하다가 탄핵을 받아 다시 면직되었다.

1614년(광해군 6) 양호염철조도사(兩湖鹽鐵鐵調度使)로 나갔다가 사예(司藝)·검상(檢詳)·사인(舍人)·보덕(輔德) 등을 역임하고, 폐모론이 일어나자 한때 관직에서 물러났다. 인조반정 후 병조참지가 되고, 왕의 신임을 얻어 도승지·안변부사, 형조·공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1636년(인조 14)에는 형조판서로서 남한

산성에 왕을 호종(扈從)하였다.

이때 화친의 조건이 되는 볼모로서 왕족인 능봉군(綾峯君)이 왕의 동생으로, 판서인 그가 대신으로 가장했다가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이듬해 이로 인하여 유백증(兪伯曾) 등의 탄핵을 받아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으나 1638년(인조 16)에 용서받아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그러나 1644년(인조 22) 아들 동구(東龜)가 심기원(沈器遠)의 모반 사건에 연좌되어 유배되자 지병이 악화되어 죽었다. 뒤에 아들로 말미암아 직첩(職牒)이 환수되었으나, 숙종 때 송시열(宋時烈) 등에 의해 신원(伸冤)되었다.

(17) 심동구(沈東龜; 1594~1660)

자는 문징(文徵)이고 호는 청봉(晴峯)이다. 심즙의 아들이다. 1615년(광해군 7)에 진사에 급제한 뒤 1619년(광해군 11)에 알성급제하여 태릉 참봉(泰陵參奉)을 지내고 1624년(인조 2)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해 승문원 주서(承文院注書)에 임명되었다. 한림원 설서(翰林院設書)를 거쳐서 전적으로 승진한 뒤 40여 관직을 역임했다. 삼사(三司)에 있을 때는 시강원(侍講院)에서 춘추관 지제교(知製敎)를 겸했다. 1634년(인조 12)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재직 시 왕의 뜻에 거슬러 청하현감(淸河縣監)으로 좌천되었다. 이곳에서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 3년 동안 군·현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으며 그가 떠나자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병자호란 후에는 삼사를 벗어나지 아니했고 호남의 안렴사(按廉使)로 임명되었다. 1638년(인조 16) 가을에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에 재임 중 남이공(南以恭)이 김청음(金淸陰), 정동계(鄭桐溪)를 탄핵하려 하자 남이공의 부당함을 상소하고 직을 사임하여 4년간 은거했다. 1641년(인조 19)에 춘추관 지제교(春秋館知製敎)에 복관되었다. 그 후 의정부 검상(檢詳), 사인(舍人)이 되어 서장관으로 심양(瀋陽)에 다녀왔다. 그 후 응교(應敎)를

거처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을 지냈다. 1644년(인조 22) 심기원(沈器遠)의 역모에 연계된 것으로 무고되어 장흥(長興)으로 유배되었다. 1650년 효종이 즉위하면서 사면되었다. 1655년(효종 6)에 심즙, 심동구 부자는 은전(恩典)을 받게 되나 다시 한 달 후 관작이 추탈되었다. 그 후 1693년(숙종 19) 40년 만에 복관되었다.

(18) 심유(沈攸; 1620~1688)

자는 중미(仲美), 호는 오탄(梧灘)이다. 심동구의 아들이다. 1642년(인조 20)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1650년(효종 1)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 주서(承文院注書)가 되었고 한림원에 추천되었으나 고사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그의 선대 심즙, 심동구의 억울함 때문에 벼슬길에 나가려는 마음이 없었기 까닭이었다. 심유는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병조좌랑을 거쳐 용안현감(龍安縣監)으로 나아갔다가 현종 초에 사헌부 지평(持平), 장령(掌令), 집의(執義)와 사간원의 헌납, 사간에 걸쳐서 계속 선대의 면보(冕報)를 주청하였다. 또한 성균관 직강(直講), 사성(司成), 사도정(司導正) 등을 지내고 옥천군수를 지냈다. 다시 내직(內職)으로 옮겨 사복시(司僕寺)의 정(正) 벼슬과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필선(弼善) 보덕(輔德)의 벼슬을 역임하고 안변부사(安邊府使)로 나가는데 홍문관에 서 언관(言官)으로 선임하였다. 1674년(현종 15), 심유는 사간으로서 제2차 복상문제(服喪問題)로 송시열(宋時烈)을 변호하다 광주(廣州)로 가게 되었다. 1682년(숙종 8)에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임명되고 교리(敎理), 응교(應敎)를 거쳐 의정부 사인(舍人)을 거쳐 사헌부 집의(執義)가 되었다가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승진되어 우승지가 되었다. 그 후 병조참지, 예조참의를 거쳐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다.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사간원 대사간,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예조, 형조, 호조의 참의를 수행하였으며 홍문관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19) 심경(沈敬; 1629~1694)

자는 계휴(戒休)이고 심동구의 아들이다. 통훈대부의 문반 품계를 받고 평시서령(平市署令)을 지냈다. 사후 가선대부 전 동지중추부사 겸 우림위장(嘉善大夫前同知中樞府事兼羽林衛將)을 지낸 심봉징(沈鳳徵)이 조부의 행적을 추증하여 통정대부 이조참의로 1735년(영조 11)에 교지(教旨)를 받았다.

(20) 심한웅(沈漢雄; 1652~1715)

자는 영숙(英叔)이고 심경의 아들이다. 부평부 서곶면 가좌리에 처음 입향하여 세거를 이룬 인물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통덕랑을 지냈으며, 사후 아들 심봉양(沈鳳陽)에 의해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21) 심철희(沈喆希; 1703~1758)

자는 이성(而聖)으로 심한웅의 손자이다. 1737년(영조 13) 무과 병과에 급제하였다. 1747년(영조 23)에 조봉대부 행 상의원 주부(朝奉大夫行尙依院主簿) 등을 거쳐 통훈대부 행 사헌부 감찰(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을, 1748년(영조 24)에서 1755년(영조 31)에는 절충장군으로 승차되었으며 다음 해에 절충장군 행 충무위사용(折衝將軍行忠武衛司勇), 같은 해에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 겸 오위장(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兼五衛將)에 오르게 된다. 또한 충무위(忠武衛) 소속에 부사과(副司果) 벼슬을 지냈다. 1758년(영조 34)에는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충무위의 부사용(副司勇)을 지냈다.

(22) 심공좌(沈公佐; 1731~1768)

자는 국경(國卿), 심철희의 아들이다. 1754년(영조 30)에 정5품 통선랑(通善郎)을 지냈고 무과에 급제하여 통덕랑(通德郎)을 거쳐 절충장군 행 관북병마우후(折衝將軍行關北兵馬虞候)를 지냈다.

(23) 심홍조(沈弘租; 1764~1813)

자는 치원(致遠), 심공좌의 아들이다. 1784년(정조 8)에 무과 병과에 급제하여 1789년(정조 13)에 내금위(內禁衛)의 효력부위 겸 선전관(效力副尉兼宣傳官)에 오른다. 1791년(정조 15)에 선략장군 행 훈련원 주부(宣略將軍行訓練院主簿)를 맡아 병사 훈련의 주무를 보며 오위도총부에서 도사(都事)직을 수행했다. 1801년(순조 1)에는 어모장군 행 훈련원 첨정(禦侮將軍行訓練院僉正)으로 승직되며, 1808년(순조 8)에 절충장군 황해도병마우후 겸 토포사(折衝將軍黃海道兵馬虞候兼討捕使)로 승직되어 외관직을 수행하였다. 이어 1809년(순조 9) 절충장군 행 함경북도 병마우후겸토포사(折衝將軍行咸鏡北道兵馬虞候兼討捕使)를 지냈으며 초계군수(草溪郡守)를 지냈다. 사후에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겸 내금위장(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內禁衛將)으로 추증되었다.

(24) 이언척(李言愴; 생몰년 미상)

본관은 전의이씨(全義李氏)이다. 자는 양이(陽而), 호는 입암(笠菴)이다. 이효가(李孝可)의 아들이다. 1605년(선조 38)에 무과에 급제하여 오위도총부 부사과(副司果)를 시작으로 여러 요직을 지냈다. 특히 1628년(인조 6)에 일어난 난을 진압하여 인조가 영사원종공신(寧社原從功臣)을 내렸다. 사후 병조판서를 내리고, 묘비에는 갈 충효공성병기 익명영사원종공신(竭忠效功誠炳幾 翊命寧社原從功臣)과 함께 무의공(武懿公)이란 시호를 내렸다.

(25) 이정관(李廷觀; 생몰년 미상)

전의이씨로 자는 원빈(元賓)이다. 이언척의 손자이다. 음사로 벼슬에 나가 여러 관직을 거쳐 의금부 도사(都事)를 지냈으며, 선공감(善功監) 감역관(監役官)을 지냈다.

(26) 이지학(李志學; 생몰년 미상)

자는 성보(聖輔)이며 이정관의 아들이다. 진사에 급제하였고 여러 관직을 거쳐, 통훈대부의 품계를 받고 니산현감(尼山縣監)을 지냈다.

(27) 이지행(李志行; 1629~1689)

자는 형보(亨甫)이며 이정관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에 오르고 영변도호부사(寧邊都護府使)를 지냈다.

(28) 이형원(李馨遠; 1657~1745)

전의이씨이며 자는 덕중(德中)이다. 통훈대부 이명윤(李命尹)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의 관계(官階)를 받고 김해부사(金海府使)를 지냈다.

(29) 이현상(李鉉相; 1715~1783)

자는 화숙(和叔)으로 이형원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통훈대부의 관계를 받고 가산군수(嘉山郡守)를 지냈다.

(30) 이탁(李喈; 1600~?)

본관은 성주이씨(星州李氏)이다. 자는 휘숙이며, 부평부 석곶면 가좌리에 처음 세거를 시작한 입향조이다. 평양판관(平壤判官)을 지낸 이근(李近)의 손자이며, 봉직랑(奉直郎)을 지낸 종례(終禮)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통덕랑을 지냈다.

(31) 이규용(李圭容; 1817~1906)

성주이씨로 자는 성지(成之), 초휘(初諱)는 만용(晩容)이다. 초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내고, 1842년(헌종 8)에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고 중추부 첨지사(僉知事)로 왕명의 출납, 숙위, 군기를 맡아보던 정3품 벼슬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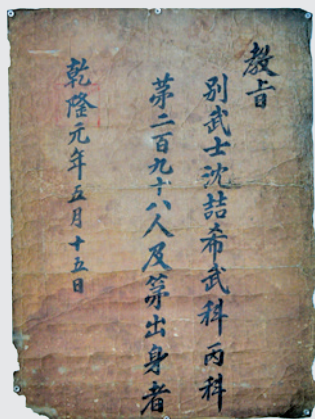
(32) 이교선(李敎善; 1848~1906)

성주이씨(星州李氏)로 자는 순원(舜元)이며 호는 송은(松隱)이다. 통정대부 행 첨지중추부사(通政大夫行僉知中樞府事)를 지낸 이숙(李淑)의 손자이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순후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모님 상을 당해서는 예절과 제의에 최선을 다했으며, 사후 27년을 한결같이 조석으로 성묘하여 무릎 꿇던 자리가 깊이 팻 정도로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향당(鄉黨)에서 그 효성을 상계(上啓)하려 하였으나, 군이 사양하고 말렸으며 군(郡)의 많은 관민이 모여 표창하려고 거마(車馬)를 보냈으나 사양하였다고 한다.

(33) 안동김씨(安東金氏; 1767~?)

안동김씨는 성주이씨(星州李氏) 가문에 출가하여, 부군 이도용(李道容)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석곶면 봉현산에 장사를 지내고 부군묘에 하루같이 정성을 다해 3년 시묘(侍墓)의 예를 다했다. 1813년(순조 13) 조정에서 효부 정려(孝父旌閭)를 세워 고귀한 열행(烈行)을 치하였다.

심철희 무과급제 교지



1736년(영조 12)에 5월 15일에 있었던 병진(丙辰) 정시(庭試)에서 별무사(別武士) 심철희(沈喆希)가 무과(武科) 병과(丙科)에 298위로 급제하였다는 교지, 즉 홍패(紅牌)이다. 별무사는 조선의 훈련도감(訓鍊都監) 마병(馬兵)과 금위영(禁衛營) 및 어영청(御營廳)의 기사(騎士)들 중에서 선발한 군사들이다.

심한웅 추증 교지



1745년(영조21) 8월 3일에 통덕랑(通德郎) 심한웅(沈漢雄)을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에 임명한다는 교지이다. 교지 말미에 절충장군수공홍도병마절도사(折衝將軍守公洪道兵馬節度使; 중2품) 심봉양(沈鳳陽)의 고(考)이기에 법전에 의거해 추증한다고 되어 있다.

심홍조 임명 교지



1809년(순조 9) 7월에 심홍조(沈弘祖)를 절충장군행함경북도병마우후겸도포사(折衝將軍行咸鏡北道兵馬虞候兼討捕使)에 임명한다는 교지이다.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정3품(正三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3품의 상계(上階)로서 어모장군(禦侮將軍)보다 상위 자리로 당상관(堂上官)의 말미이다. 처(妻)에게는 숙부인(淑夫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교지(教旨)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문서이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봉건적 관료 정치의 유산이기도 하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교지의 종류는 관료에게 관작·관직을 내리는 고신(告身: 사령장), 과거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추증교지(追贈教旨), 시호교지(諡號教旨) 등이 있다. 교지라는 용어 또한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대한제국기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여 변화가 있었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고문서 중 교지류는 비교적 많이 전해지고 있다.

3. 근현대 인물

1) 가정동·신현동

(1) 윤 탁(尹 濯; 1918 2002)

파평윤씨 집성촌인 부평부 서곶면 신현리 133번지에서 출생했다. 1934년 3월에 인천공립상업보습학교(현인천고등학교) 2년과 1936년 3월 경성공립직업학교(현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3년을 졸업했다.

졸업 후 고향에 와서 1936년 4월부터 1939년 3월까지 신현학원, 1939년 4월부터 1942년 5월까지 가좌학원에서 학동들을 가르쳤다. 1942년 6월부터 1947년 9월까지 경기도 부천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다. 1947년 인천시교육청 초등학교원으로 임용되어 1952년 12월까지 석남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어 서곶초등학교로 옮겨 근무하다가 교감으로 승진하고 1957년 12월까지 일했다.

1958년 3월부터 서곶을 떠나 1963년 5월까지 석정초등학교, 화현초등학교, 신성초등학교, 불은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했다. 1960년 1월 대통령 면려포장(勲勵褒章), 현근정포장을 받았다. 1963년 겨울방학 후 임지인 강화로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선박이 성에(얼음)와 부딪치는 사고로 몸을 크게 다쳐 교육자의 길을 떠났다. 은퇴 후에 고향 신현동에 살면서 서곶 지역의 사표로서 깊은 존경을 받으며 85세를 누리고 타계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 6년간 서곶의 간이학교에서 가르치고, 8·15광복 후 석남과 서곶에서 10년간 교편을 잡은 터라 60~70대에 이르는 서곶 토박이 수천 명을 가르친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다. 서곶 출신으로 오랜 세월 고향의 학동들을 가르친 분은 경서동 출신 허정 교장과 윤탁 선생 두 분이다.

아들 윤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4대 의장과 인천광역시의회 제5대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그 후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제7대 이사를 연임(2014-2018년)하면서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서구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익을 담당했다. 아들 윤갑상은 인천 서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2) 원창동

(1) 박금한(朴金漢; 1912~1995)

족보에 실린 이름은 형원(衡遠)이다. 원창동 환자곶의 밀성박씨 집성촌 출신이다. 계양산 너머에 있는 부평공립소학교와 부평향교가 너무 멀어서 책을 구해와 독학했다. 그러나 지혜롭고 지도력이 탁월해 마을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평생을 살았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남서곶에 국민학교를 개설하기 위하여 진력했고 광복이 된 후 1946년 마침내 석남국민학교를 유치 개교하는 데 성공하고 20여 년간 기성회장을 맡아 학교 운영과 남서곶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50년대에 서곶 지역 유지들이 검암동에 영화중학교를 설립하자 이에 참여하여 유지재단 감사를 맡기도 했다. 이 학교는 서곶의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으로 그 후 서인천중-고려중-인광중으로 교명을 변경하다가 서인천고등학교로 정착하였다.

그는 원창동의 동장을 오랫동안 맡기도 했다. 1956년 지방자치 제도가 실현되자 시의원에 출마하였고, 당선이 유력하였으나 부인이 병상에 눕게 되자 “아내가 죽어가는데 무슨 정치냐?” 하고 병간호를 위해 출마를 사임하기도 했다.

선생은 그 후에도 교육 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여 1982년 신현초등학교가 개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개교 후 10년 이상 육성회장을 맡았으며 많은 장학금을 고려중학교, 인광중학교나 저명한 장학재단에 보내기도 했다. 그밖에 의용소방대 후원, 일선 경찰 격려, 북구청-서구청 독립 이전 남서곶은 북구청 관할이었음-자문위원을 맡았다.

남서곶 토박이들은 선생을 검소하고 부지런했으며 낮은 곳을 찾아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2) 박상오(朴尙五; 1930~1981)

밀성박씨 집성촌 출신이다. 서곶초등학교의 전신인 서곶심상소학교를 다니다, 부평동 소재 부평공립심상소학교(현 부평동초등학교)로 전학해 졸업하였다. 총명하고 지도력이 좋았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통신강의록 교육으로 독학하며 아버지의 농사를 거들었다.

8·15광복 후에는 애국청년회 활동을 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인천시내 축현국민학교에서 열린 지원병 모집에 응하여 육군에 입대했다. 단기교육을 받고 하사관으로 임관되어 많은 전투에 참전했으며 인천상륙작전 후 북진하는 부대를 따라 압록강 근처까지 진격했다가 중공군에 포로로 잡혀 만주로 끌려갔다. 그 후 탈출하여 미군에 귀순했으나, 포로 신분이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다. 그 후 반공포로 석방 때 풀려나 길고 긴 불운의 운명을 벗었다.

그는 수난 어린 군대 경험 때문에 유난히 애국심과 반공정신이 강했다. 인천시의용소방대장을 지내는 등 국가와 인천과 고향 서곶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였고 고향 사람들의 중망을 받았다. 서구문화원장을 지낸 박한준의 부친이기도 하다.

(3) 박상택(朴尙澤; 1940~1982)

밀성박씨 집성촌 출신이다. 석남국민학교와 동산중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를 나왔다. 재학 중 학적보유병으로 입대하였고, 1년 6개월의 현역복무를 마쳤다.

교사가 되어 서곶 검암동 소재 고려중학교에서 10여 년 일하고, 석남동 소재 경인여자상업고등학교로 옮겨 일했다. 1982년 졸업반 학생들을 은행 보험회사 등 입사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해 진력하며 과로를 한 끝에 수업 중 교단에서 쓰러져 순직하였다.

(4) 박상호(朴尙虎; 1947~2004)

서곶이 배출한 불교 지도자이자 저명한 포교사로 법명은 법륜(法輪)이었다. 원창동 환자곶의 밀성박씨 집성촌 출신으로 남서곶을 대표하는 지역유지 박금한의 아들이다. 석남국민학교와 동산중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왔다. 대학 졸업 후 불교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평택 청담중학교로 가서 법사(法師)로서 학생들에게 불교 교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재가불자로서 불교학자가 되려고 하였으나, 1984년 국방부가 군종 분야에 개신교 외에 불교를 추가하여 군승(軍僧)제도를 만들자 군종장교가 되기로 결심한다. 100:1 이상의 경쟁을 뚫고 합격하여 제1기 불교 군종 장교 대위로 임관하였다. 이미 사병으로 병역의무를 끝낸 뒤였으나 다시 불경과 목탁을 손에 들고 군승이 되어 일하였다.

서부전선 25사단에서 근무하며 소령으로 진급한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트럭과 충돌, 왼쪽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고 국가상이유공자로 전역하였다.

그 후 경륜 높은 대처승으로서 서울 신대방동에 있던 대한불교 관음종 종파에 속한 장안사에서 포교 사업을 전개하고 주지직을 맡기도 했다. 불구의 몸 때문에 막중한 주지의 임무를 다할 수 없다고 자각하여 신도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주지에서 물러나 서울 정릉의 천중사, 인천의 용궁사에서 포교에 주력하였다.

건강이 악화되어 고향 서곶에 와서 청담중학교 시절 동료교사로서 결혼한 동덕여대 가정과 출신 아내 이을섭(李乙燮) 여사와 세 아들과 신현동, 가정동에서 살았다. 그리고 병이 깊어져 타계하였다. 장남 박태준은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고, 차남 박찬은 인천 서구청 공무원, 삼남 박건준은 서울영등포 보건소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박상호 스님은 1기 군승장교로서 군승이 육군 군종 병과로 자리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생활 불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가좌동

(1) 김순이(金順伊; 1904-?)

석곶면 가좌리 출신이다. 1931년 독립운동을 하고 소요죄로 구속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서대문형무소 수형카드가 소장되어 있다.

(2) 박창수(朴昌壽; 생몰년 미상)

석곶면 가좌리에서 출생, 1912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기수(技手)로 측량사업을 담당했으며 주사까지 승진했다. 8·15광복 후 경찰관으로 전직하고 1952년 경위로 승진해 서대문경찰서에서 근무했다.

(3) 서상영(徐相永; 1857~1936)

문과에 급제하여 궁내부에 설치된 시종원(侍從院)에서 시종신(侍從臣)의 벼슬을 했다. 후에는 법관양성소 교관(法官養成所 敎官)을 지냈다.

(4) 심운섭(沈雲燮; 1899~1966)

1899년 9월 5일, 부평부 석곶면 가좌리(현 인천 서구 가좌동) 231번지, 명문 청송심씨 가문에서 출생했다. 그의 조상은 조선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내고 세종의 국구(國舅, 장인)였던 심온(沈溫; 1375~1418)이다. 세종대왕의 배필인 소헌왕후가 심온의 큰딸이었다. 그는 왕후가 낳은 정소공주와, 문종, 그리고 세조의 외조부가 되는 셈인데, 거기다 세종대왕의 후궁 영빈강씨의 외조부이기도 했다.

심운섭은 서곶의 대표적인 유림인 심상필(沈相弼)의 삼남 일녀 중 차남이었다. 그는 서곶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근대학교인 인천공

립보통학교(현 창영초등학교)에 입학해 1916년 졸업했다. 당시 서곶 공립보통학교는 개교하지 않았다.

그는 서곶 출신으로서 처음 중학교에 입학하는 기록도 가졌다. 1916년 4월 1일 인천상업학교에 입학, 1919년 3월 7일 졸업했다. 동기생 중에 뒷날 성공회 사제이자 애국지사가 된 강화 출신 조광원(趙光元), 개성 출신 청년운동 지도자 하규항(河圭抗)이 있었다. 이들 인천상업학교 19회 동기생들은 졸업 직전 3·1운동이 일어나자 후배들을 이끌고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다 적발당해 수포로 돌아갔다. 졸업반 전체 생도들이 나섰다고 전해지므로 심운섭도 동참했을 것이다.

인천상업학교 학적부를 보면 주소는 계속 가좌리 231번지였다. 학교가 멀었는데도 1학년과 2학년 개근, 3학년에 결석이 1일 기록돼 있다. 가장 우수했던 과목은 강독과 회화서취(會話書取, 받아 쓰기)와 체조(체육)이었다. 학적부에는 결혼 사실도 기록돼 있다. 자녀 기록은 없는데다 장남 심재갑이 1930년생이므로 졸업한 뒤 출생했다.

심운섭은 인천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금융조합 서기로 근무하였다. 그러다 25세쯤 고향마을의 문맹률이 높은 것을 참지 못하고 문맹퇴치 운동에 나섰다. 한국의 브나로드 운동이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일어났으므로 그는 이 분야에 선구자인 셈이다. 최초의 이름은 가재울강습소다. 이곳에서 자신도 학생을 가르치고 인천상업학교 출신 동창들을 선생으로 초청해 가난한 주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한을 풀어주며 문맹퇴치와 더불어 농촌 계몽운동을 벌였다. 후에 그는 강습소를 확장해 원적산 줄기 아래인 지금의 가정초등학교 자리에 교실과 운동장을 구비한 학교 형태로 확장하여 주민 교육에 열성을 다하였다.

1940년대에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금융조합은 식민지 착취기관으로 변해갔다. 심운섭은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는 금융조합을 박차고 나와 현재의 중구 인현동에서 환일형제운송점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석남국민학교를 개설하기 위하여 진력하여 오다가 광복이 된 후 1946년 마침내 국민학교를 유치 개교하는 데 공을 세웠다. 석남국민학교 개교와 함께 강습소를 닫고 학교 초대 기성회장을 맡아 학교 발전에 힘썼다. 그의 농촌 계몽, 농민 교육 운동은 장남인 심재갑에 의해 가좌농민학교로 계승되었다.

심운섭의 장남 심재갑은 부친의 교육 사업을 이어갔다. 그가 다닌 인천중학교가 해방공간에 6·3·3제로 바뀌며 상급생들이 인천고등학교로 넘어온지라 인천고등학교 51회 졸업생이 되었다.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과 고문을 지내면서 인천고등학교 동창회보를 창간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심재갑이 부친 심운섭의 교육 사업을 이은 것은 1948년 야학을 연 것 말고도 1962년 10월 3일 ‘가좌농민학교’를 다시 연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다.

이원규 (전 동국대학교 교수)

김순이 서대문형무소 수형카드



氏名 金 順 伊		異名	指紋番號	1 2 3 4 5 6 7 8 9 10	
年 齡	昭和 6 年 9 月 4 日	身 分	職業 労働	身長	1.70 米
本 籍	縣 道 川 市 西 串 漢 延 村	香 地	常用 手 口 概 要		
生 地	縣 道 川 市 西 串 漢 延 村	香 地			
住 居	縣 道 川 市 西 串 漢 延 村	香 地			
最 近	罪 名 殺 擄	其他前科	檢 舉		
刑 名	懲 役 禁 錮	年 月 日			
刑 務 官 署	仁 川 支 所				
入 所 年 月 日	昭和 6 年 8 月 8 日				
出 所 年 月 日	昭和 7 年 4 月 20 日				
刑 務 所 名	西 門 刑 務 所	刑 務 所	支 所		
檢 舉 官 署	道 警 察 署				

김순이는 1904년 5월 23일 생으로 부천군 서곶면 출신이다. 당시 주소지가 부천군 서곶 가좌리(현 가좌동)으로 적혀있다. 1931년 독립운동 중 소요죄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8개월간 복역하였다. 직업란에는 노동(勞働), 신장란에는 1m 67cm라고 기록되었다. 사진촬영일은 1931년 9월 14일이다.

Chapter V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2
남서곶

남서곶 이야기

1. 옛이야기
2. 우리 동네 이야기
3. 직접 듣는 이야기

1. 옛이야기

- 1)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새신랑
- 2) 호랑이굴의 새끼 호랑이들
- 3) 안아지고개의 도둑
- 4) 저절로 열리고 닫힌 감중사의 대문
- 5) 원적사의 빈대와 말무덤
- 6) 울도의 열녀

1. 옛이야기

1)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새신랑

옛날에 대여섯 살에 부모를 잃은 형제가 원적산 아래 지금의 석남동에서 외숙과 함께 살고 있었다. 형은 16세 되던 해 결혼했는데, 외숙은 오막살이 초가집을 하나 지어 조카들이 따로 살 수 있게 해 주었다. 형은 아름답고 착한 아내와 아우를 부양하기 위해 남의 집 암소를 맡아 키웠다. 그 소를 부려서 절반은 주인집 농사일을 거두고 절반은 남의 집 소 품팔이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송아지가 태어나면 처음에 태어난 것은 주인이 갖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소머슴이라고 했다.

초가을 어느 날이었다. 산 너머 마을에서 호랑이가 소를 물고 간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벌벌 떨며 해진 뒤에 밤길에 나서지 않고 외진 산길을 가지 않으려 했다. 새신랑은 소에게 풀을 먹이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호랑이에게 빼앗길까 봐 소를 끌고 풀이 있는 산기슭에 가지 못해 암소가 어제 하루를 굶은 터였다. 소가 자기 소유인 사람들은 소를 물고 산에 갔다. 소와 사람이 함께 있으면 호랑이가 나타나도 소를 물고 가지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새신랑은 그럴 사정이 아니었다.

“안 되겠어. 내가 쇠풀을 베어 와야지.”

그가 낮과 지게를 챙기고 나서자 새색시가 걱정스런 얼굴을 했다.

“여보, 간밤 꿈자리가 좋지 않았어요. 앞 논둑에서 아무 풀이나 베어다 먹이면 안돼요?”

새신랑은 지난 저녁에 소 주인이 와서 소가 야위었다고 걱정하던 얼굴을 떠올렸다.

“걱정 마요. 깊은 산에는 안 갈 테니.”

그는 아내를 그렇게 안심시키고 쇠풀이 좋은 원적산으로 올라갔다. 한참 풀을 베어 지계에 올리고 찰닝쿨로 만들 밧줄로 단단히 묶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어흥 하는 소리와 함께 산 전체가 울렸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살펴보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새신랑은 지계 작대기와 낫을 들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산중호걸 호랑이님, 나 죽는 건 서럽지 않으나 어린 아내와 아우가 있소이다. 나를 못 본 척하고 갈 수는 없는지요?”

호랑이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발을 멈췄으나 도저히 배가고파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몸을 날려 덤벼들었다. 새신랑이 ‘이제 죽는구나’하고 발길을 돌려 뛰기 시작했으나 소용없었다. 겨우 세 걸음을 달리고 그는 호랑이에게 물려 숨이 끊어졌다.

해가 저도 새신랑이 돌아오지 않자 새색시는 시외숙에게 알렸다.

“외삼촌님, 그 사람이 풀 베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외숙은 놀란 얼굴을 했다.

“호랑이가 출몰한다는데 왜 산에 갔단 말이나?”

“소를 굶길 수 없어서요.”

새색시가 울면서 대답했다.

외숙은 날이 밝자 관아에 고변한 뒤 마을 남자들과 함께 조카를 찾아 나섰다. 한나절을 찾은 끝에 낫과 지계를 찾고 다시 한나절을 찾은 끝에 새신랑의 피 묻은 옷 조각을 발견하였다.

“새아기야, 어찌면 좋으냐. 네 남편이 호환을 당했구나.”

외숙은 옷자락을 보여주며 말했다.

새색시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호환이 일어나자 부평부사는 포수들을 소집하는 방을 붙였다.

천하의 포수들은 이 글을 읽을지이다. 원적산에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아라. 본관은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하여 임금님에게 충성하고자 현상금을 거노라.

호랑이를 잡는 포수에게 상급으로 천냥을 주겠노라. 호랑이 가족도 총을 명중시켜 쓰러뜨린 포수에게 주겠노라. 그밖에 천냥을 또 내놓겠노라. 이걸 나머지 포수들에게 도운 공로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분배할 것이니라. 스스로 자신이 천하의 최고 포수라고 생각하는 호걸들이여, 어서 부평 석곳 땅에 와서 호랑이를 잡아라!

부평부사의 포고를 보고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포수들이 모였다. 그 가운데는 노란 두건을 머리에 매고 달린다 하여 ‘노랑포수’라고 불리는 저 북방의 강계 포수들도 있었다.

닷새 뒤, 천마산 골짜기에서 총성이 울렸다.

“내가 호랑이를 잡았다. 나는 강계포수 강만수다. 내가 이곳 부평 땅까지 와서, 사람을 해친 호랑이를 잡았노라.”

그는 호랑이 몸뚱이를 밟고 서서 소리쳤다.

강계포수에 의해 사살된 호랑이는 우마차에 실려 부평 관아로 갔다. 우마차 앞에는 강계포수가 늙름한 모습을 하고, 부평부사가 보낸 말을 타고 갔다. 그의 주변에는 함께 온 그의 동료들이 따라 걸었다.

부평부사는 약속한 상금을 주고 칭찬하였다.

“그대가 우리 임금님과 본관과 우리 고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노라.”

상금과 함께 호랑이 가죽을 받은 포수는 의기양양하여 북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가는 길에 원적산 아랫마을에 들러 줄지에 청상과부가 된 새색시에게 호랑이 가죽을 판 돈을 주고 위로했다고 한다.

2) 호랑이굴의 새끼 호랑이들

천마산 아래 산 밑 마을 아낙네들이 봄에 산나물을 뜯으러 나섰다가 원적산까지 갔다. 이 산에는 맛있는 산나물이 지천으로 많아서 음력 삼월부터 석 달 동안 여인네들이 쭉부쟁이와 두릅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루하루 날이 지남에 따라 원추리, 취나물, 고비, 홀잎나물 등을 뜯었다. 산 중턱 이상으로 올라가면 참나물, 모시대, 잔대, 참취, 곰취, 단풍취 따위를 뜯을 수 있었다.

“난 왜 봄이면 몸이 나른하고 괜히 가슴이 울렁거리는지 몰라.”

젊은 강화댁이 말했다.

그러자 나이가 엇비슷한 아낙이 대답했다.

“나도 그래. 괜히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거든.”

그러자 몇 살 더 많은 인천댁이 대꾸했다.

“이 여편네들이 봄을 타는군. 그래서 봄바람을 맞고 싶어서 나물 핑계 대고 나온 거군. 하긴 옛날부터 봄은 여인네들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정네들의 계절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남정네들은 가을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걸까요?”

강화댁의 말에 나이 많은 여인이 다시 대답했다.

“그렇지.”

“그랬구나. 그래서 남편이 주막거리 얼굴 반반한 기생년 집에 가고 싶어 안달한 거로구나.”

여자들은 고살이나 우물가에서 나누지 못하는 말들을 실컷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물을 뜯었다.

일행에서 조금 떨어졌던 안산댁이 장벽처럼 막아선 집채만한 바위 앞에서 소리쳤다.

“이리들 와 봐요. 여기 원추리가 지천으로 많아요.”

여인네들은 모두 그쪽으로 가서 원추리를 잔뜩 뜯었다.

“우리 낭군이 좋아하는 나물이 이렇게나 많네. 아이 좋아라.”

“원추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괜히 금슬 좋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지.”

여인들은 머리에 이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나물을 많이 뜯은 터라 대부분이 이제 산을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여기 낮은 굴이 있어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런 굴이 있네. 아, 그런데 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려요. 귀여운 새끼들이예요.”

나물을 이고 가기 쉽게 큰 무명보자기에 싸서 묶고 있던 여인네들은 그쪽으로 가서 목을 뽑고 들여다보았다. 얼룩덜룩한 털을 가진 작은 새끼들이 서로 뒹켜 자고 있었다.

“저건 호랑이 새끼야! 여긴 호랑이굴이라고!”

누군가가 소리쳤다.

“뭐라구요?”

여인네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얼른 나물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어흥 하고 산 전체가 울리도록 호랑이가 울었다. 수풀 사이로 황소만한 호랑이 모습이 언뜻 보였다.

“아이구머니나! 사람 살려랴!”

여인네들은 간이 콩알만해져서 나물 보따리고 뭐고 치마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내달려갔다. 호랑이는 몇 번 더 위협하듯이 크게 포효하였으나 다행히도 여인네들을 잡아먹을 생각은 없는지 뒤를 쫓지 않았다.

마을 어귀로 내려와서 여인네들은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십 년 감수했네.”

“아이고, 나는 저승 문고리까지 잡아보고 온 기분이에요.”

그렇게들 말하며 살아 나온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강화댁이 가우 똥했다.

“이상한 일이에요. 새끼를 가진 호랑이가 왜 우리를 물어다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지 않았을까요?”

아까 어미 호랑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안산댁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중송아지 한 마리를 물고 있었어요. 중송아지를 물어오지 못한다면 나를 물어다 새끼들에게 줬을 거예요.”

이때부터 호랑이가 무서워서 산 밑 마을은 물론 근방 마을 사람들은 산나물을 뜯지 못했다. 그리고 새끼 호랑이들이 있었던 원적산의 바위를 ‘범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3) 안아지고개의 도둑

옛날에 원적산 안아지고개에 도둑이 끊었다. 고개를 넘는 행인들만 터는 것이 아니라 계양산과 천마산 주변 마을까지 이동하며 재물이 있다고 알려진 민가를 털었다.

그들이 이십 리나 되는 한들마을(현재의 백석동)까지 진출해 민가를 털자, 마침 고향에 와 있던 조정의 감역(監役) 벼슬을 하던 심씨가 호통을 쳤다.

“이놈들, 불쌍한 민초들의 재물을 털다니 너희가 사람이냐?”

그러자 도둑 두목은 그 자리에서 심 감역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달아났다.

이 사실이 보고되자, 조정은 대책을 논의했다.

“누가 그 도둑들을 토벌할 것인가?”

임금이 근심하자 조병하(趙秉夏)가 나섰다.

“전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꼭 도둑을 토벌해 전하의 근심을 덜겠습니다.”

조정은 부평부사를 면직시키고 그를 후임자로 제수했다. 조병하 부사는 부평부사로 취임하자마자 안아지고개의 도둑 두목을 잡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지혜로운 관장이어서 선부르게 나서지 않고 미리 두목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지난날 안아지고개에서 줄개 노릇을 한 자를 붙잡아 심문했다.

줄개는 이마를 땅바닥에 박고 목숨을 애걸했다.

“사도 나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이 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제대로 답한다면 목숨은 살려 주마. 그리고 네 공로로 두목을 잡는다면 죄를 용서하고 상금을 내릴 것이니라.”

부사의 말에 졸개는 머리를 조아렸다.

“물으시는 대로 아뢰겠습니다.”

“두목의 용모에 대해 말해 보아라.”

“몸이 호리호리하고 눈빛이 날카롭습니다요. 저희 수하들이 딴 생각하는 것을 귀신처럼 알아차립니다요. 마치 가슴속을 꿰뚫어 보는 듯 합니다요.”

“그럼 네놈이 사로잡혀서 지금쯤 심문당하는 것도 알아차리겠구나.”

“그렇습니다요.”

“그놈이 축지법을 쓴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습니다요. 바람처럼 빠르게 달립니다요. 자기 말로는 하루에 오백리 길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요.”

“자, 모든 것을 말하여라. 그놈이 걷는 버릇, 밥 먹을 때의 행동, 잠자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말하여라.”

조병하 부사는 졸개로부터 들은 것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 그는 수하에 많은 나졸을 거느리고 있었고, 서해안에 배치된 군사기지에 병력을 요청할 권리도 부여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치밀했다.

그가 부임한 뒤에도 안아지고개 산적의 민가 털이는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두목은 하나의 산맥으로 이어진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을 무대로 신출귀몰하게 움직였다. 그자가 이 마을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포위망을 치면 산 너머 엉뚱한 곳에 나타났다.

조병하 부사는 번번이 실패했지만 예상하던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목의 행동 특성 파악에 주력하면서, 생포 당한 도둑들을 치밀하게 심문했다. 그는 도둑 잡는 일에 거듭 실패하여 파직당할지 모른다는 걱정하는 형에게 말했다.

“형님, 그놈은 여우처럼 영악합니다. 이건 물속에 그물을 던져 목표한 한 마리 고기를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부가 이

굴이 나면 물고기의 모든 버릇을 알게 되고 언젠가는 잡게 마련이지요.”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생포한 줄개로부터 두목의 이상한 버릇을 듣게 되었다.

“두목은 도둑질 나가는 걸 출행이라고 합니다요.”

“그건 나도 들어서 안다. 출행 나갈 때 하는 버릇이라도 있느냐?”

“있습니다요.”

“그게 뭐냐?”

“손에 참기름을 바릅니다요.”

“무슨 기름이냐?”

“모릅니다요. 작은 호리병에서 기름을 손바닥에 부어 손 전체를 문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요.”

조병하 부사를 수행한 아전은 그것도 낱알이 기록하였지만, 부사는 그냥 웃어넘겼다.

“하하하, 참기름을 손에 바르면 민첩해진다고? 참으로 엉뚱한 놈이로구나.”

조병하 부사는 다시 한 달 이상을 도둑 두목과 머리싸움을 벌였다. 그는 예감이 있는 곳에 미리 나줄을 배치하고, 어떤 때는 예감이 전혀 없는 곳에 배치하여 두목을 혼란스럽게 했다.

결국 안아지고개 두목은 눈이 내린 날 붙잡혔다. 부사의 명으로 나줄들이 일부러 눈 위에 거릿처럼 찍어놓은 발자국을 보고 그것이 거릿이라고 판단하여 그곳을 통과하다가 붙잡힌 것이었다.

조병하 부사는 도둑 두목을 대면하는 순간 혀를 찼다.

“과연 민첩하고 총명하게 생겼구나. 너 같은 자가 병사가 되어 복무한다면 나랏일이 오늘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터인데. 아깝구나.”

도둑 두목은 형틀에 묵힌 채 고개를 들었다.

“사도 나오리, 아까울 것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민초들이란 벌레

만도 못합니다요. 부모가 굶어 죽고, 아내는 양반에게 겁탈당해 자결했는데 이 한목숨이 어찌 아깝습니까?”

“네놈이 죽음을 앞에 두고 궤변을 늘어놓는구나. 죽을 몸이니 마지막 소원이나 말하여라.”

조병하 부사가 말했다.

“고아가 되어 외가에 맡겨져 있는 아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네 아들이 와 있다. 만나거라.”

아들을 만나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도둑 두목에게 부사가 갑자기 생각나서 물었다.

“네놈이 출행할 때 손에 기름을 발랐다는 게 사실이더냐?”

“그렇습니다.”

“무슨 기름이냐?”

“쥐기름입니다요.”

“왜 쥐기름이냐.”

“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니까요. 저는 제가 늘 쥐라고 생각하며 뛰었습니다.”

“그랬겠구나. 너는 정말 쥐처럼 민첩하고 영리했지.”

조병하 부사가 두목을 잡아 처단하자 안아지고개의 도둑떼는 사라졌다.

4) 저절로 열리고 닫힌 감중사의 대문

남서곶의 감중절리 마을(현 가좌동)의 뒤편 우뚝 솟은 산봉우리에 감중사(甘中寺)라는 절이 있었다. 그 봉우리는 해망산(海望山)이고, 절은 그 산의 서쪽에 위치하여 서해가 바라다보였다.

그 절에서는 하루에 두 번씩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법당 앞에 선 사천왕문이 밀물과 썰물에 따라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것이었다. 이것을 구경하러 많은 신도들이 전국에서 찾아왔다. 대개는 뱃사람들이었다.

“이거 참 이상한 조화입니다.”

처음 온 신도들이 그렇게 말하면 주지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부처님의 뜻이지요. 우리 절의 부처님은 늘 서해를 향해하는 배의 선주님들과 사공님들을 보살피십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계속 문을 열고 바라보셔야지요. 그리고 절문이 닫혀 있는 시간이 꽤 긴데 그동안은 신도들에게 절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게 부처님의 뜻인가요?”

“그게 아니니까 아무 때나 오셔도 좋다고 일주문 옆으로 제가 길을 내었지요.”

신도들은 참으로 신이한 일이라고 여겨 시주금을 듬뿍 내놓으면 서도 고개를 가우뚱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지 스님은 빙긋이 웃었다.

“불심이 깊어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감중절리에 뱃사람들은 없었지만 5리쯤 떨어진 보도진 해협에 선착장이 있고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루터도 있었다. 거기서 소문이 퍼져나가 많은 뱃사람들이 찾아와 불공을 드렸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두 사람의 선주가 이 사찰에서 불공을 드린 다음날에 배가 침몰하여 배와 선원들이 바다에 수장된 것이다. 하필 침몰한 바다가 절에서 바라보이는 곳이었고 문이 닫힌 시간이었다.

그러자 불운한 사찰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시주를 많이 하던 선주 신도들이 발길을 끊었다. 그리고 얼마 후 감중사는 문을 닫았다. 일설에 의하면 억불정책에 의해 강제로 문을 닫고 법당도 헐렸다고 한다.

5) 원적사의 빈대와 말무덤

옛날 남서곶 원적산에 원적사(元積寺)라는 오래된 사찰이 있었다. 풍광이 좋은 숲속에 들어앉은데다가 도랑에 있는 샘물이 맛이 좋았다. 스님들도 불심이 깊고 신자들에게 친절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인가 빈대가 생기더니 점점 늘어났다. 수천, 수만 마리가 법당의 마루 틈과 기둥 틈에 들끓었다. 그러다가 스님이나 신도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진군하는 병사들처럼 쏟아져 나와 몸으로 기어올라 마구 물었다.

절을 찾아왔던 신도들이 몸을 긁으며 울상을 했다.

“주지 스님, 빈대에 수십 군대를 물렸어요. 빈대를 끝까지 안 잡을 건가요?”

주지 스님은 미안한 표정을 했다.

“빈대도 생명인 것을 어떻게 살생을 합니까?”

신도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신도가 줄어드니 절 살림이 어려워졌다. 민가로 탁발을 하러 가면 개구쟁이들이 놀려댔다.

“빈대절에서 온 스님, 빈대처럼 생겼네!”

절을 싫어하는 어른들은 쏘아붙였다.

“빈대나 잡아먹으면 배부를 텐데 무슨 탁발을 해뭇!”

탁발 스님들은 빈손으로 돌아왔고, 지친 몸을 눕히면 빈대가 어디 갔다가 왜 이제 왔느냐 하는 듯이 덤벼들었다.

참다못한 젊은 스님들은 불멘소리를 했다.

“주지 스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주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게 모두 우리의 불심을 확인하려고 부처님이 주는 시련이네. 참고 이기면 빨리 해탈의 경지에 이를 것이네. 사명당 유정대사님은 임진왜란 직후 왜국에 갔을 때 왜의 왕이 쇠로 만든 방에 가두고 펴

펼 꿇게 불을 땀으나 참으셨네.”

주지 스님은 절에 빈대가 많아진 것이 부처님이 자신과 젊은 스님들과 신도들의 불심을 확인하려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유정대사님은 승병을 일으켜 왜구를 많이 죽였으니까 살생도 하셨지요.”

“허허,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소승들도 나라와 절을 지키기 위해선 빈대를 죽여야 합니다. 빈대는 임진왜란 때 조선 땅에 쳐들어온 왜놈 군대보다도 더 나쁘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불심이 깊던 주지 스님도 두 손을 들었다.

“나도 못 참겠네. 어서 빈대를 잡세.”

주지 스님은 젊은 스님들과 함께 빈대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미 늦은데다가 빈대란 놈들이 사람이 잡는다고 없어질 놈들이 아니었다. 잡을수록 더 늘어나니 어쩔 수가 없었다.

주지 스님은 불상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빈대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이곳이 불도의 도량으로 적당치 않다는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 모시고자 하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였다. 아무리 불공을 드려도 빈대가 없어지지 않고, 하루에 한 말씩 잡아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절을 옮기라는 부처님의 계시라고. 절 살림이 어려워졌지만 말 한 마리는 남아 있었다. 스님들은 말 등에 길마를 엮고 불상과 중요한 기물을 실었다.

“더 좋은 자리를 찾아 움막이라도 짓고 시작하세.”

주지 스님은 젊은 스님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주지 스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짐을 가득 실은 말은 산 비탈을 내려오다가 실족해 골짜기로 굴러 죽어버렸다.

주지 스님은 거꾸로 처박힌 불상을 내려 반듯이 모셔놓고 울먹였다.

“부처님, 도대체 저한테 어찌라는 겁니까?”

불상이 뭐라고 하는지 젊은 스님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주지 스님은 분명히 대답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이 자리에 묻으라고.”

스님들은 불상과 기물들을 죽은 말과 함께 산기슭에 묻었다. 사람의 무덤처럼 봉긋하게 봉분을 만들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원적사 불상 와묘(臥墓)’라고 표석을 세웠다.

그 뒤 주지 스님과 젊은 스님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백 년이나 2백 년이 흐른 뒤에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무덤을 ‘원적사의 말무덤’ 또는 ‘원적사의 부처무덤’이라고 불렀다.

더 많이 세월이 흐른 뒤에 다른 스님들이 불상을 찾아 새 절을 세우려고 그 봉분을 파 보았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6) 울도의 열녀

옛날에 울도(栗島)에 영렬이라는 노비가 있었다. 정씨(鄭氏) 가문에 예속되어 16세에 이르렀는데 착하고 부지런하여 주인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비록 노비 신분이었지만 자식처럼 아꼈으며 영렬도 주인을 진심으로 섬겼다.

정씨 집안에는 종인(鍾仁)이라는 그녀와 동갑인 노복이 있었다. 비록 남자종과 계집종의 신분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동무처럼 지내고 친남매처럼 의지하였다.

어느 날, 주인이 두 사람을 앉혀 놓고 말하였다.

“너희가 서로 좋아한다는 걸 내가 안다. 내가 혼례를 치러 줄 테니 평생의 반려가 되는 게 어떨겠느냐? 나도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너희를 지켜 주마.”

노복 종인과 노비 영렬은 큰절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주인 나으리. 저희의 평생소원입니다.”

주인 정씨는 노비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초례청을 만들어주고 혼례를 올리게 했다. 젊은 부부는 기쁨에 넘친 표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같이 밭에 나가 오순도순 김매기를 하고 우물에서 물길을 때도 같이 가서 서로 무거운 것을 들겠다고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였다.

“저 두 사람을 보면 행복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네. 비록 노비이지만 자기가 행복하다고 여기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지.”

“참으로 부럽네. 부부 금실이란 저래야 하네.”

“저 두 사람은 전생에서 이생까지 인연이 이어진 것이란 생각이 드네.”

그러나 너무 큰 행복은 하늘도 질투한다던가. 두 사람의 인연은 길지 못했다. 두 사람이 열아홉 살이 되던 해 어느 날이었다. 주인 정씨의 아들이 낚시질하는 것에 동행했던 종인이 주인 아들이 물에 빠

지자 몸을 던져 구해내고 그는 목숨을 잃게 되었다.

남편의 주검을 앞에 놓고 영렬은 슬프게 울었다. 주인집은 아들을 대신해 죽은 노복을 위해 엄숙하게 장례를 지내주었다.

“이미 떠나간 사람을 어찌겠느냐. 네 노비 문서를 없애겠다. 그런 다음 우리 식구가 되어 살자꾸나.”

주인이 위로하였으나 그녀는 지친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리고 그 날 밤, 남편이 죽은 바닷가의 소나무에 목을 매었다.

주인 정씨와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정절을 가상히 여겨 합장해 주었다. 비록 노비 신분이었으나 조정에서도 열녀의 정려(旌閭)를 내려 칭송하였다. 그 정려는 세월이 흐르면서 허물어졌고, 마을 뒷산에 있던 두 사람의 무덤은 울도에 발전소가 들어서며 없어졌다. 그러나 원창동과 석남동의 토박이 원로들은 이 가륜한 전설을 기억하고 있다.

이원규 (전 동국대학교 교수)

2. 우리 동네 이야기

- 1) 가정동 가슴에 짓는 정자
- 2) 신현동 새오개 마을 회화나무
- 3) 원창동 갯마을 이야기
- 4) 석남동 거북시장과 정서진 중앙시장
- 5) 가좌동 부지런히 달리다

2. 우리 동네 이야기

1) 가정동 가슴에 짓는 정자

가정동의 가정을 한자로 쓰면 아름다울 가(佳)에 정자 정(亭)이다. 즉, 아름다운 정자가 있는 동네이다. 그런데 가정동에는 그런 정자가 없다. 그 정자의 유래를 잠깐 훑어보자.

조선 개국공신의 한 사람인 숙위공(肅魏公) 조반(趙胖)이 정계에 서 은퇴하여 바다가 보이는 동산 위에 별장을 지었다. 이 별장이 석호가정(石湖佳亭)인데 짧게 가정(佳亭)이라 불렀다. 그 정자는 현재는 없다. 다만 정자가 있었다는 표지석 ‘가정지(佳亭址)’만이 동산 위에 있을 뿐이었다. 그의 자손이 늘어 가정동은 배천조씨의 마을이 되었다. 신현동이 파평윤씨 마을이듯이. 그런데, 가정동에는 조씨 친족 간에도 금기어가 있다. 아침에 “조반 드셨어요?”라는 인사말이다. 조상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단다.

그런데 그 ‘가정지’가 있던 앞동산이 없어졌다. 토지주택공사(LH)가 가정동을 ‘가정 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이란 명칭으로 ‘루원 시티(LU 1 City)’로 만들면서 그 동산을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덤프로 청라도 길에 실어갔다. 성황당 고개도 뭉개지고, 느티나무도 잘려 박새도 날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루원(樓苑)이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정원’이라 해도, ‘가정동의 가정(佳停)이란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름’이라 해도 나는 싫다. 그런데 지하철이 지난 2016년 7월 29일에 개통되었다. 꼬마 자동차 붐붐이를 연상케 하는 차량 두 칸이 검단오류에서 남동구 운연까지 오간다. 전동차의 출발과 도착 및 출입문의 개폐도 기관사도 없이 자동이다. 또 기다리는 시간도 짧다. 이번 열차를 놓쳤다고 발을 동동거리면 바보다. 다음 열차는 버스보

다 더 빨리 온다.

며칠 전 저녁 무렵에 지하철을 타고 가정역에서 하차를 하였다. 안내표지판대로 4번 출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나왔다. 앞동산이 없어진 것은 알았지만 청라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청라지구 아파트 단지에 걸린 저녁놀이 낯설다. 뽕밭이 바다가 되어 외딴섬에 도착한 기분이었다. 문득 이 외딴 섬에서 추억의 딱지를 넘기고 싶어졌다.

초등학교 시절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 오후는 나른하고 심심하다. 그럴 때면 앞동산에 오른다. 이미 와 있던 친구들과 어울려 닭싸움을 한다. 의기양양하게 나섰지만 한 발로 깨끔질도 제대로 못하고 졸(卒)이 된다. 그다음에는 말뚝박기 놀이를 하는데 두 다리에 힘을 주어야 했다. 버팀목은 당연히 ‘가정지’라는 표지석이다. 술래가 되어 구부린 등에 올라탄 친구가 장군이라도 된 듯 “끼랴” 하면서 내 엉덩이를 친다. 참다가 벌떡 일어나면 그 녀석은 내 목을 잡고 늘어진다. 화김에 녀석을 고꾸라트린다. 서로 씹씹거리다 동쪽의 국방도로-경인고속도로의 근간인 도로이며, 인천상륙작전 때 서울을 진격한 도로-를 본다. 서울로 한진 고속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고 있다. 저 고속버스를 언제 타 보나. 저걸 타고 나도 서울에 가고 싶다. 돌아서면 바다가 보인다. 초승달이 봉숭아로 물들인 누나의 손톱처럼 수평선에서 웅크한다. 뭉게구름도 개나리, 진달래꽃으로 청라도를 덮는다. 꽃의 산이 된 청라도 앞으로 뱃길 따라 뚝단배가 봉우재로 들어오고 있다. 그때 우리는 쥐었던 주먹을 풀고 국환이네 집 마당으로 내려간다.

마당에는 조개 살 사람, 밴댕이와 게를 살 사람 등이 모여 있다. 개똥이 아버지는 봉우재에서 리어카에 해산물을 잔뜩 싣고 와 풀어 헤쳐 놓는다. 철게, 방게 자루에서는 게들이 거품을 내며 발 크기 자랑을 하고 있다. 바지락은 함지박에서 입술을 빼죽 내밀다가 짹을 못 찾았는지 슬그머니 집어넣는다. 분명 영종도에서 잡아 온 것이다.

용유도와 덕적도 사이로 나간 배는 꽃계를 낚으면서 운 좋게 망에 걸려든 조기 몇 마리에 의기양양했으리라. 하지만 그건 조기가 아니고 조기 사촌이라는 누군가의 소리에 정갑이 아버지는 울컥하신다. 강화도에서 잡아 온 뱀뎡이는 상자가 비좁다 하면서도 늘어져 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썩 놔이지만 이 상자 속을 한번 뒤져보라고 녀석을 부린다. 이때, 개똥이 아버지가 바빠진다. 상자 속에는 뱀장어 서너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 뱀장어를 본 어른 몇 명은 잠자코 있다. 왜 그랬을까?

“어이 조씨, 자네 요즘 오줌발이 약해졌다며? 내가 큰놈 두 마리 챙겼으니, 내일 쌀 뒷박이나 인심 좀 쓰게. 인생 뭐 있나?”

개똥이 아버지가 조씨 귀에 대고 이 말을 속닥거렸을 거다. 웃는 조씨의 빨개진 얼굴에는 두 볼에 웅덩이가 넓고 깊었다. 개똥이 아버지는 배타는 사람과 한통속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체했다.

어느덧, 어스름에 마당은 썰렁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마당 구석의 바랭이 풀섶을 뒹진다. 철계와 방계 몇 마리가 그곳에 있다. 게들이 부대 자루 꿰진 곳에서 비집고 나와 숨은 것이다. 그것을 잡아 게 달리기 시합을 한다. 선을 그어 놓고 “요이, 땅!” 하면, 내 게가 잘 가다가 선다. 거품을 뿜으면서 버틴다. 빨리 가라고 아무리 고함쳐도 요지부동이다. 그 방계를 뒤집어 보니 배가 넓다. 암놈인 것이다. 이에 오늘은 틀렸구나. 저녁을 먹으러 간다며 콩지가 빠지게 집으로 도망을 갔다.

호적초본을 떼어보면, 아버님의 주소는 경기도 부천군 서곶면 가정리 188번지이고, 나는 인천시 북구 가정동 188번지이다. 같은 집이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가정동은 원래 부천지역이었다가 인천시로 편입된 것이리라. 하지만 가정동은 원래 해변마을이었다. 바닷가에 제방을 쌓아 ‘신답’이라는 옥토가 있던 마을이다.

추수를 끝내면 징과 팽과리 나팔소리를 벳가마에 그득 담았다. 이제 그 소리는 어디서 들을까? 그리고 아름다운 정자 즉, 가정(佳亭)은 어디에다 세울까? 안아지고개를 생각해 본다. 하지만 거기에는 고속도로에서 청라도로 연결되는 지하철도가 시작된다. 정자를 세울 데가 없다. 차라리 내 가슴에 세워야겠다. 그리고 재개밭에 흩어진 소꿉친구를 찾아 나서자. 이제 말뚝박기를 할 수 없는 나이지만 가정(佳亭)에 둘러앉아 코흘리개 웃음을 마셔야겠다. 당연히 안주는 강화도에서 잡아 온 밴댕이를 구워야 제격일 것이다.

이창섭 (경인문학회 회원)

2) 신현동 새오개 마을 회화나무

신현동에는 커다란 회화나무가 있다.

굵고 기다란 나뭇가지를 사방으로 늘어뜨리고 서 있는 커다란 회화나무 옆으로 나 있는 조그만 길을 따라 회화나무를 반 바퀴 정도 돌아 걸어가면 저 앞에 철대문이 보인다. 벌써부터 내 발자국 소리에 귀를 쫓긋 세우고 짓는 개소리가 당차게 들린다. 다시 메아리가 되어 ‘쿵쿵, 쿵쿵커억’ 소리가 들려올 때는 사시나무가 되어 입까지 얼어붙어서 아무도 불러내지 못해 마음만 졸이던 어린 시절. 그때 필자에게 신현동 할머니, 당숙네는 커다란 회화나무와 우렁찬 소리로 짙어대는 개가 있는, 무섭고도 위엄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할머니와 당숙네가 신현동을 떠나고 인연이 다한 이래로 필자 또한 신현동의 기억을 잊고 살았고 성인이 된 후 독립을 하면서 새로이 서구에 자리를 잡았는데 자리를 잡고 정신 차려보니 글썽 여기 신현동이 아닌가. “너, 당숙네 가던 길에 있던 큰 나무 생각나?” 어머니가 돌연 물으신다. “그 나무 돌아서 철대문집 당숙네? 사나운 커다란 개가 엄청 짙어댔지?” 불현듯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더니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산책 삼아 회화나무 보러 가자신다.

거의 40년만에 신현동 회화나무와 동네를 찾아가는 길. 신현동은 딱히 연고가 없는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그런 동네는 아니어서 회화나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동네 근방에만 오면 꽤 멀리서도 한 눈에 회화나무의 모양새가 보였던 예전과 비교하면 이제는 표지판을 발견하기 전에는 지역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을 찾아 물어가야 하는 숨겨진 회화나무가 되었다. 왜냐하면 회화나무 인근이 주택가로 개발되면서 회화나무는 주민들의 보금자리와 어우러져야 했기 때문이다.



| 신현동 회화나무 안내 표지판



| 신현동 회화나무

신현동 회화나무는 주변의 5층 주택의 높이를 훌쩍 뛰어넘어 하늘을 향해 높이 22미터 이상이나 가지를 뻗고 있는데 그 둘레 또한 5.59미터에 달해 실제로 눈앞에서 보았을 때 높이와 넓이가 실측값만큼 가늠이 되지 않는다. 그저 감탄만 자아낼 따름이다. 성인이 된 지금도 이러한데 어린 시절에 보았던 회화나무는 그저 정말 커서 나무 꼭대기가 없다고 느낄 정도의 웅장함 자체였던 것은 인상 탓만은 아니었던 것이 확실하다.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15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신현동 회화나무는 새오개로 68번길(신현동 131-7 외 6필)에 위치한 수령 500년으로 추정되는 보호수이다. 회화나무는 잡귀를 물리치는 나무로 귀신나무로 칭하기도 하고 고고한 선비정신을 상징한다 하여 조선 궁궐의 마당이나 출입구, 양반이나 선비들이 기거하는 마을과 집에 많이 심어졌다 한다.¹⁾

신현동 회화나무는 원래 마을 당산인 도당산에 있다가 큰 홍수로 인하여 마을로 떠 내려와 지금 위치에 자리 잡았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바닷물에 떠 내려와 심어졌다고 하

1) 박한준 편,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이야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22쪽.

는 설도 있다. 두 설 모두 처음부터 현재의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²⁾ 500여 년으로 추정되는 수령이 말해주듯 그 탄생 설화의 진실은 신현동 회화나무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새오개’(신현동의 옛 이름, 이 이름을 이어받아 현재의 도로명 중에 새오개로가 있음)라는 마을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이곳에 정주하게 된 이후부터 이 지역의 모든 것을 경험한 말 없는 산증인이 바로 신현동 회화나무라는 사실이다.

회화나무와 신현동 사람들

오래 산 만큼 회화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리 다양하지 않다. 왜 그럴까? 마을 주민 윤학의(81세, 신현동경로당 전 사무장)에 따르면 신현동 회화나무 일대에 파평윤씨가 모여 살았기에 신현동 회화나무는 ‘윤씨네 나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 한다. 문중 또는 문중 관련 사람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회화나무 근처에 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세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수궁되면서도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진다.

종가댁에 오가며 늘상 회화나무를 봤다던 윤학의의 회상에 따르면 어릴 때는 ‘훼나무’라 불렀다 한다. 원래 회화나무는 “한자로 괴화(槐花)나무로 표기하는데 발음은 중국 발음과 유사한 회화로 부르게 되었다. 훼나무를 뜻하는 한자인 ‘槐(괴)’자는 귀신과 나무를 합쳐서 만든 글자”이다.³⁾ 곧 악귀를 물리치는 나무라는 뜻이니 ‘훼나무’라는

2) 박한준 편, 위의 책, 35쪽.

3) 두산백과 홈페이지(<http://www.doopedia.co.kr>) 참조.

옛 이름도 자연스레 붙었을 것이다.

윤학의는 또 회화나무 앞이 논이었는데 한국전쟁의 와중에 회화나무 앞 논길에서 인민군이 산쪽으로 도망가던 모습을 회상했다. 한편 그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들이 양부인들과 소나무숲(명가골, 가좌동부터 송림동에 이르는 해안 따라 있었던 소나무숲)으로 놀러 왔던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전쟁 혹은 이후 주한미군의 이러한 모습이 소설 속에도 꽤 등장한다. 이원규의 단편소설 『겨울의 끝』에도 부두 쪽 미군 부대 근처에서 미군과 한국 여성들이 희롱하는 것을 주인공 ‘나’가 어린 시절 보았던 이야기가 나온다.⁴⁾

반면 신현동 회화나무는 한국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한국전쟁 속에서도 무탈하였고 미군들과 여성들이 희롱하는 배경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 배경에 등장하는 소나무숲이나 미군부대의 이미지와 정반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나무이다. 윤학의의 회상대로 신현동이 인천의 변두리이지만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도 한국 전쟁기에도 무탈할 수 있었고 회화나무도 지금까지 현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윤학의는 “옛날 회화나무는 모습은 그대로 있었으나 죽어가는 나무와 같았다.”고 회고하였다. “그런데 문화재가 되고 나서 어느 날 주사, 영양제도 꽃아놓고 하더니 지금은 살아나서 좋아졌다.”고 힘주어 설명하였다. 신현동에서 50년 넘게 살아왔다는 신현동경로당에서 만난 주민 모씨도 이와 거의 똑같이 언급하였는데 오랫동안 신현동에 뿌리내리고 살아오느라 노쇠해진 회화나무의 모습에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그러다가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래로 회화나무는 나무의

4) 이원규, 「겨울의 끝」, 『깊고 긴 골짜기』, 고려원, 1991, 179쪽.

사의 도움을 받아 건강이 좋아졌다. 회화나무가 말을 했다면 ‘세상 좋아졌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라고 감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500년을 넘게 사니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을까. 허나 나무의사의 보살핌을 받는 일만큼 회화나무와 신현동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준 일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신현동에 거주하는 정모씨(70세)에게 회화나무는 서러움 가득한 윤씨네 시집살이 와중에 말뿐이지만 말이라도 위로의 마음을 다정하게 건네주는 사촌형님을 연상하게 한다. 마음씨 좋은 사촌형님은 회화나무 근처에 살았다. 가끔씩 사촌형님네 갈 때면 회화나무 앞 작은 길을 지금과는 다르게 회화나무의 가지가 길게 길에까지 드리워져 있는 걸 가지를 밟지 않고 손으로 들어 치우면서 지나갔다 한다.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사촌형님네 가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듣고 오면서 또 회화나무 길로 접어들어 회화나무 앞에서 다시 한번 서러움을 이기고 살아갈 용기와 의지를 다지고 돌아가 삶을 이어갔다.

개인적으로 회화나무의 덕을 본 일이 없다 하더라도 회화나무가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지 않고 곳곳이 생기 있게 살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신현동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었다. 사실 나무의사의 정기검진과 치료를 받기 이전부터 신현동 사람들의 마음속 회화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나무로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현동경로당에서 주관하여 20년 가까이 매년 경로당 창립기념일인 5월 28일에 당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도당산에서 도당제를 드리고, 신현동 회화나무 아래 제단에서는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도당산은 큰당산의 역할을, 신현동 회화나무는 작은당산의 역할을 한 것이라 한다.⁵⁾

5) 박한준 편, 위의 책, 36쪽.



| 신현동 회화나무 당제 전경(2018년 5월 28일)

마을에 서당을 꾸며서 가르침에 힘쓰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윤문의 회장의 정신을 기리는 공덕비가 신현동경로당 입구 왼쪽에 놓여있다. 옛 서당터 근처에 지금의 신현동경로당을 짓고 그 뜻을 이어받아 회화나무의 당제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신현동경로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감사하다. 신현동우회 이상덕 고문을 비롯해 관계자들은 회화나무의 당제가 지속되는 데에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이에 공감이 된다. 마음만으로는 역부족인 사회가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사회 아니던가.

신현동경로당에서 당제의 형식으로 회화나무에 제를 올리지만 무속인이나 마음 편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빌 곳이 필요한 주민들이 때때로 오며가며 회화나무 아래서 간절한 마음을 증폭시키곤 한다. 한 번은 무속인들이 회화나무에 빌고 색색의 줄과 천들을 나무가지에 걸어두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자기들만의 방식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회화나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회화나무가 있는 곳에서 풀 수 있도록 회화나무와 함께하는 행동수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 신현동경로당 역대 회장들



| 제1대 회장 윤문의 공덕비

회화나무와 새오개마을이야기가 탄생하는 날을 바라며

50년 전만 해도 앞에 눈을 끼고 있어서 멀리서도 한눈에 보였던 신현동 회화나무, 현재는 사방으로 주택이 생겨서 주택이 한가운데 있게 되었고 마을의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면 느닷없이 그 멋진 자태를 보여준다. 500여 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꼬.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수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깃든다.

마을의 구조와 배치가 다소 변하더라도 회화나무의 자리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회가 조금씩 변해감에 따라 회화나무의 의미도 조금씩 변해가리라. 현재는 당제를 지내지만 50년 후에는 회화나무와 함께 우리는 무엇을 계획할까? 아무도 모를 일이다. 하나 분명한 건 회화나무가 그 자리에 계속 존재한다면 오며가는 주민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천연기념물로서 그 가치를 찾아낸 이상 나무의 사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관리를 지지하는 바이다. 수령이 많아 언제까지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가능한 날을 최대한 누리볼 수 있기를 바란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주는 말 없는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회화나무가 잘 살아가길 최선을 다해 도와보자.

주택가를 만들면서도 회화나무는 함부로 하지 않았던 앞 세대들의 뜻을 이어받아 회화나무와 함께 하는 삶, 지금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마을과 잘 어울리는 500년 넘은 나무와 함께 하는 삶은 또 다른 의미에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싶다. ‘천연기념물이니까 보러 가자’ 보다는 ‘뭔가 가보자’ 혹은 ‘어떤 느낌인가 가서 느껴 보자’는 식의 접근방식으로 회화나무와 마주하면 매우 다양한 의미들이 생겨날 것이다. 어린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손을 잡고 회화나무의 그늘이 어떤지, 회화나무 이파리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걸 사진에 담으면 또 어떤 사진이 되는지 이야기해보자. 회화나무 옆에 있는 쉼터가 작아 아쉽긴 하지만 날 좋으면 그곳에서 김밥을 먹으며 쉬어 가도 좋을 것이다.

남녀노소 지나는 길에 회화나무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씩만 만들어도 하루에 수백, 수천가지의 이야기가 생긴다. 비슷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다소 흥미로운 새로운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따분한 이야기가 생길 수도 있다. 무엇이든 회화나무와 함께 하는 이야기라면 일상의 작은 활력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회화나무와 함께 일상의 이벤트를 벌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언젠가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1988)의 토토로가 사는 녹나무와 같은 멋진 이야기를 품은 회화나무 이야기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신현동 회화나무를 느끼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500여 년의 역사가 담긴 새오개마을이야기가 회화나무 갈라진 나무 기둥 사이에서 나오는 날이 기대된다.

윤미란 (인문학연구실 오만가지 연구원)

3) 원창동 갯마을 이야기

인천 하면 떠오르는 풍경에는 바다를 빼놓을 수 없다. 바다에 이어 갯벌, 항구, 섬 등의 단어들도 따라 나온다. 인천 서구 역시 서해와 면해있으므로 바다, 섬과 관련한 이미지를 떠올릴 법하다. 하지만 서구 주민 가운데에도 서구에 섬이 있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예전에는 섬 혹은 바다 위였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연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다였을까 라고 의문을 가진다면, 인천 서구 지도를 찾아 해안선을 확인해 보자. 세로 방향으로 곧게 뻗은 해안선은 누가 보아도 인위적이다. 수업시간에 암기했던 한반도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이라는 기억이 무색해진다. 인천의 육지부 면적의 34%(106.789km²)가 간척을 통해 늘어난 땅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구의 간척지라고 하니 그 면적이 상당하다.

본래 서구에는 청라도, 세어도, 울도 등 크고 작은 섬이 총 34개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원창동의 세어도, 소세어도[지내섬], 호도[범섬], 대다물도, 소다물도, 정도, 켜섬[키섬]과 오류동의 매도[갯섬] 8개의 섬이 남아있다. 사라진 26개의 섬은 간척을 통해 육지화되어 오류동, 경서동, 원창동 등으로 편입되었다.

청라국제도시 역시 간척을 통해 만들어진 땅 위에 세워진 것으로, 이름 역시 매립으로 사라진 섬 청라도(靑蘿島)에서 따오기도 하였다. 최근 도로명 표기 등의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이름만큼 아름다웠을 청라도를 상상으로밖에 떠올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바다 위 멀고 가까운 거리에 섬들이 떠 있었을 서구의 갯마을 풍경이 궁금해졌다.

육지로 변해버린 섬들의 흔적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먼저 대규모 간척이 실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조선 시대 지리지와 고지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부평부읍지』와 『광여도』, 『대동여지도』 등이 그 예이다.



『광여도』 부평도호부

이 가운데 조선 후기에 제작된 『광여도』를 살펴보면, 당시 부평부에 해당하는 난지도, 청라도, 응도, 울도(원창동)에 ‘인거(人居)’라고 표기되었다. ‘人居’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산다는 뜻으로 해당 섬이 유인도임을 알려준다.

특히 청라도에는 ‘절수(折受)’라고도 적혀있다. ‘折受’는 개인이 주인이 없는 땅을 조사해 관에 신고하면 국가에서 그 토지를 떼어 주어 개인의 소유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절수는 황폐한 농지를 개간하기 위한 농업 정책이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궁방(宮房)의 경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절수는 주인이 없는 땅이나 빈 땅으로서 토지 대장 등에 올라 국가에 세를 내는 토지가 아닌 곳이 대상이었다. 따라서 오래 버려져 거칠어진 밭, 갈대밭, 갯

가 진흙땅, 냇가 개흙땅, 산림, 버려진 방죽 등이 대상이었다.

농경사회에서 농지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이다. 게다가 섬에서의 농사는 육지에서의 그것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았을 터였다. 청라도 역시 당시 황폐해진 농지 개간의 대상이었다. 주인 없는 갯가의 척박한 땅을 찾아내고 다시 일구었던 섬사람들을 옛 지도를 통해 만난 것이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을 찾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살폈다. 여러 기록 중에 병인양요의 전초가 된 이양선 출몰 관련 기사가 눈길을 끈다. 바로 다음의 『고종실록』 권3, 고종 3년(1866) 9월 6일의 기사이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이양선(異樣船) 큰 배 3척과 작은 배 3척이 이번 5일 오시(午時)에 팔미도(八尾島)로부터 올라왔는데, 큰 배 1척은 부평(富平) 울도(栗島) 앞 나룻가에서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으며, 큰 배 2척과 작은 배 3척은 석곶면(石串面) 세어도(細於島) 쪽으로 올라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천주교 박해인 병인박해로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는 함대를 이끌고 강화해협을 통한 서울까지의 수로 탐사를 강행한 뒤 조선을 침략했다. 위 기사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 중 하나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이양선은 모양이 다른 배, 즉 다른 나라의 배로 주로 조선후기 우리나라 연해에 나타난 외국 선박을 지칭한다. 서해안에 출몰했던 이양선들은 섬과 갯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난생처음 보는 외국의 배가 삶의 터전 가까이 다가왔을 때 호기심을 갖거나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이후 밀려드는 외세에 대비하여 국방과 치안을 보강하는 조치들이 서구에서도 이루어졌다. 연희동에 연희진(連喜鎭)을 설치하고 여기에 소속된 포대를 배치했다. 포대는 연희동의 용두포대[연희포대], 가정동 봉우재에 가정포대, 원창동과 가좌동에도 포대를 배치했다. 이어 계양산 경명현에 중심성(衆心城)을 축조하여 방어 체제를 갖추고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하여 경기도 연해의 방어를 담당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구 열강 세력은 조선을 향해 더욱 속도를 내었다. 위 실록에도 등장한 울도는 1900년에 미국인 사업가 타운센드가 폭약 창고를 짓기도 했다. 이후 울도의 화약 창고에서 일어난 화재를 다룬 신문 기사를 통해 당시 울도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화약고(火藥庫) 섬에 발화(發火)로 소동(騷動)

【인천】인천서(仁川署)에서는 지난 6일 오후 9시경 인천 근해에 있는 부천군 서권면[西串面] 밤섬[栗島]에 불이 났다는 보고를 받고 동 섬에 화약고가 있는만치 대경실해야야 소방수 3명을 대동하고 묘전(墓田) 보안주임이 경비선으로 급행하였는 바 전기 밤섬의 마진 편 굴섬[礪島]에 잇는 인천부중경(仁川府仲町) 송전덕차랑(松田德次郎)의 소유 화약고 고지기 김장윤(金長允, 31)의 집에 동일 오후 8시 20분경 발화하여 동 11시 20분경에 동초가 1동을 전소하여 버리었다는데 손해는 1백여원이라는 바, 전기 김장윤은 이 인적이 먼 섬에서 홀로 이 화약고를 보아주고 근근히 생명을 이워가든 것이라 한다.

「동아일보 1934. 12. 08 기사」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화약고 섬’은 울도[밤섬]이다. 울도는 멀리서 보면 밤톨처럼 생겨 밤섬이라 부르기도 하고 밤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한다. 귀여운 제 이름 대신 ‘화약고 섬’이라 칭하니 상반되는 이미지가 도드라져 보인다.

한편 ‘인적이 먼 섬에서 홀로 화약고를 맡아 지키던’ 창고지기 김장윤씨의 처지를 떠올리니 펍 딱하다. 식구들과도 떨어져 홀로 외딴 섬에서 일하던 그의 집에 불이 난 것이다. 경비선을 타고 소방수들이 급히 왔으나 그의 초가는 모두 타버렸다. 창고를 보아주는 조건으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갔다는데 갖고 있던 초가마저 불탔으니 오갈 데가 없어졌을 것이다. 자기 집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빌미로 창고지기 일자리마저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후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빈곤한 섬 살이에 지낼 곳마저 사라져 멀리 갯골을 바라보는 허망한 뒷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게다가 12월이었으니 한겨울 추운 날씨를 생각하면 더욱 처량하다.

불이 나면 경비선이 출동해야 했던 울도 역시 지금은 간척으로 육지가 되었다. 1978년까지도 섬으로 존재했었으며 원창동 해안과 섬 사이에 넓은 갯골이 있었지만, 썰물 때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다고 한다. 1972년에는 경인에너지가 정유공장과 화력발전소를 짓기도 했다. 이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한 소방대원의 출동이 가능해졌으니 처량한 김장윤씨 같은 사람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사라진 섬들의 흔적과 갯마을 풍경을 지도, 실록, 신문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여러 번 글로 읽어본들 한번 듣고 보는 것만 하라. 직접 서구의 사라진 섬과 남은 섬을 경험해보기로 했다. 특별히 서구문화원 정군섭 원장님의 주선으로 청라도 원주민 김종안님을 만나 취재할 기회가 생겼다.

김종안님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청라도 도지사(島知事)’로 불리신다. 그만큼 고향 청라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깊다는 표현일 것이다. 이주 전인 1990년대 청라도의 가옥들 사진과 동아매립지 관련 보도자료 등을 문화원에 기증해주셨다.

어린 시절 갯가에서 놀다 어머니께 꾸중 들은 이야기며 바다에서 주꾸미, 망둥이, 숭어 낚시하던 이야기, 물때에 맞춰 나가고 들어와

야 해서 예비군 훈련시간이 줄었다는 이야기, 매립공사 당시 소란스러웠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청라도 앞의 갯골이 깊은 편이어서 어른들은 갯가에 나가 노는 것을 엄하게 단속하셨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천지 보이는 게 바다고 갯벌인데 나가 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바다에 나갔다는 사실을 숨기고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가면, 단박에 어머니는 알아차리셨다고 한다. 땀에는 흔적을 지웠지만 어머니 눈에 허영게 앉은 소금이 보이지 않을 리 없었다. 야단맞고 울상이 되어도 바다는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였다. 망둥이 잡으러 문점도까지 헤엄쳐갔다고 하니 소년의 울찬 행동력을 누가 말릴 수 있었을까 싶다.

잡은 망둥이는 말려두었다가 겨울에 반찬으로 자주 먹었다고 한다. 북어처럼 마른 망둥이는 물에 담가 불렀다가 조리거나 무쳐서 먹었다. 흔하계는 밥을 지을 때 솥 안에 따로 그릇에 담아 찌먹었다. 지금은 고급 식재료가 되기도 했고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말이다.

취재를 마치고 청라도로 향했다. 내 눈에는 빼곡한 아파트와 갈대밭만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흰히 그 시절 청라도를 보는 듯했다. 섬 주변 바다 풍경과 여기 어디쯤이 누구네 집, 당제 지내던 나무 옆으



| 옛 청라도를 기억하며

로는 누구네 집 하고는 청라도 마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쪽으로 배를 부리던 데는 ‘배뿌리’, 저쪽에 고개 넘어가던 데는 ‘재 빼기’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이제 마을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청라도는 그 자리에 있었다.

청라도 취재 뒤로 직접 바다를 건너 섬으로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구의 남은 섬 8개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섬은 세어도가 유일하다. 나머지 7개의 무인도 가운데 일부는 출입통제 군사지역이거나 사유지이고 들어갈 방법도 곤란하여 세어도를 답사 장소로 결정했다.

세어도는 밀물과 썰물 모두 바닷물이 들어오는 큰 갯골이 있어서 걸어서는 들어갈 수 없다. 세어도 주민이 아닌 일반 방문객이 세어도에 가기 위해서는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행정선 ‘정서진호’를 이용해야 한다.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발 3일 전까지 탑승 예약 후 입도가 가능하다. 정서진호는 하루 36명이 정원이고, 매일 운항하지 않기 때문에 월초 홈페이지에 갱신되는 일정을 확인하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세어도 주민 또는 그 가족은 만석부두에서도 입도가 가능하다. 보통 세어도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오전 10시이고 물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오후 4시이다.

서구의 세어도 방문을 위해 정서진호를 예약하고 입도 날짜를 기다렸다. 당일 아침 서둘러 세어도 선착장을 찾았다. 탑승 시간은 오전 10시였지만 미리 와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예상 외의 많은 방문객을 만나게 되어 최근 높아진 세어도에 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뒤 12명씩 나누어 선착장으로 입장했다. 탑승 인원 제한 때문에 인원을 나누어 배를 타고 섬으로 향했다. 항해시간은 10분 내외로 짧았지만 가까이 세어도와 컴섬, 멀리 영종대교 앞의 호도와 정도를 볼 수 있었다.



| 세어도 선착장



| 정서진호

세어도에 닿자 앞서 도착한 이들이 무리를 지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출사를 나온 사진동호회 사람들로 보였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괜히 반갑고 흐뭇했던 이유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중 ‘미지의 섬’으로 세어도가 선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어도는 이제 더 이상 입소문을 통해야는 사람만 찾아오던 곳이 아닌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선착장 초입에 세워진 안내도를 따라 둘레길을 걷기로 했다. 언덕을 오르는 길목에 ‘김침지 나무’라고 불리던 고로쇠나무가 비탈에 자리하고 있다. 과거 마을 사람들은 출어 시기가 되면 제물을 차리고 풍어와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언덕 위 어촌계 회관 맞은편에도 오랜 세월 세어도와 함께한 고욤나무 한 그루가 있다.

언덕을 올라 선착장을 바라보니 켄섬이 한눈에 들어왔다. 켄섬은

키도 라고도 불리며 1960년대 인천 연안부두 매립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채취하기 전에는 지금보다 크고 둥그런 모양이었다.

언덕에는 세어도 어촌계 회관과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가 자리한다. 이 자리는 본래 세어도 분교 자리였다. 1946년 석남초등학교 세어도 분교로 개교했지만 6·25전쟁 이후 1960년대에 송현초등학교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주민 감소와 더불어 학생 수도 줄어들어 1995년에는 폐교되고 말았다.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어촌계 회관과 어촌체험마을을 종합안내소가 세워졌다.

건물 안을 살펴보니, 어촌계 회관은 공사에 참여하는 인부들 숙소로 쓰이는 듯했다. 과연 세어도 곳곳은 집을 새로 짓는 등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주변에서 굴착기와 대형 화물차 같은 중장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찾는 이들이 늘어가면서 관광기반시설들이 확충되고 섬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복지도 더불어 향상되어가는 추세이다.



| 세어도 어촌계 회관



|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

안내소 역시 비어있었는데 낚시와 갯벌 체험을 위한 교육과 대강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본 경험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많지 않지만, 친구 외가댁인 자월도에서 조개를 캐던 기억은 선명하다. 긴 시간 멀미를 참아가며 도착한 섬은 오기 전에 기대했던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았다. 뭐랄까

조금 불친절하달까. 숙소로 들어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했고 편의점도 화장실도 찾기 어려웠다. 지친 몸을 간신히 추슬러 밖으로 나가니 썰물 때인지 바닷물이 너무 멀어 물놀이도 하지 못했다.

낙담하던 우리에게 친구는 꽃삽과 바가지를 손에 쥐여 주었다. 조개를 캐보라는 것인데 발이 푹푹 빠져 움직이기도 힘들고 몸에 개흙이 묻는 것도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이미 친구는 저만치 걸어가 버렸다. 별수 없이 적당한 곳에 앉아 땅을 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숙된 말로 포인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조개가 많이 나오는 곳이 따로 있었다. 똑같이 보이던 진회색 갯벌도 눈에 익자 다르게 보였다. 배가 고프ں 줄도 모르고 우리는 조개를 캐고 친구가 여러 번 재촉한 뒤에야 자리를 떴다.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잡아 온 조개를 서로 비교하던 모습이 기억에 선명하다.

당제를 지내던 소나무 군락을 만나면 본격적인 둘레길이 시작된다. 나는 중앙산책로를 따라 섬 끝까지 가서 왼편으로 돌아서 섬 남쪽을 걷는 코스를 선택했다. 가늘고 긴 섬의 형태이기에 가능한 둘레길이다. 둘레길을 걷다 보면 세어도의 맑고 깨끗한 자연을 만날 수 있다. 오랜만에 숲길을 걸으니 나무를 기어오르는 초록색 애벌레가 보이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향긋한 흙내음도 맡을 수 있었다.

섬 북쪽에서는 강화도를 볼 수 있는데, 강화 동점도는 정말 가까워 보여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전망대를 끼고 왼편으로 돌아서 섬의 남쪽 둘레길로 접어들니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세어도의 갯골은 넓고 깊기로 유명하여 갯벌에 나갔다가 물때에 맞춰 나오지 못하면 고립되기도 한다. 갯벌에는 퐁퐁 뚫린 게 구멍이 있고 손바닥보다 작은 게들이 보였다. 작은 웅덩이에 돌맹이를 던져보니 소리에 놀란 게들이 도망쳤다.

진회색의 갯벌과 대비되는 붉은색의 칠면초(七面草)가 눈에 띄었다. 칠면초는 염생식물로 칠면초처럼 색이 변한다고 해서 붉은 이름이다. 처음에는 초록색을 띠다가 여름에 꽃을 피우고 나서는 점차 자주색으로 변한다. 늦은 가을이 되면 서남해안의 갯가를 붉은빛으로 물들여 ‘갯벌의 단풍’으로 불린다. 가을을 맞이해 붉게 물든 ‘세어도의 붉은 단풍’을 한참 감상했다.

단풍이라면 노란빛도 빠질 수 없다. ‘세어도의 노란 단풍’을 완성하기 위해 섬 남쪽에 펼쳐진 갈대숲으로 향했다. 금빛 갈대가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어떤 단풍 명소보다도 부럽지 않다.

둘레길을 더 건자 소세어도로 들어가는 돌다리가 나왔다. 소세어도는 지내섬 또는 작은 시루라고도 불린다. 물이 빠져나간 뒤라 소세어도 주변은 온통 갯벌로 둘러싸여 있었다. 돌다리를 건너면 나무데크 산책로가 설치되어 둘러보기에 편하다. 전망대와 정자도 있어 잠시 쉬어가며 주변 풍광을 감상할 수도 있다. 소세어도 전망대에는 선착장에서 만난 사진동호회 일행들이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다. 세어도에는 가게나 식당이 많지 않아 도시락과 마실 것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소세어도에서 나와 남측 둘레길을 따라 걸으니 멀리 영종대교가 있고 그 앞으로 호도, 정도, 대다물도, 소다물도가 차례로 보였다. 앞서 선착장에서 멀리 매도와 키도를 보았으니 서구의 8개 섬을 다 본 셈이다.



| 세어도 풍경



| 소세어도

둘레길 산책을 마치고 다시 어촌계 회관으로 돌아와 마을 골목길로 내려가 보았다. 세어도 주민들은 인천 물에도 살림집이 있어서 양쪽 집을 오가며 생활한다고 한다. 집 외벽에 그려진 벽화와 장대에 높이 매단 승어가 있는 풍경이 이색적이다.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 주인의 올해 새우젓 어획량 감소와 가격 상승에 관한 이야기며 내년에는 가게를 새로 지어 번듯한 식당으로 변할 것이라는 소소한 일상을 듣고 있자니, 아직 사람이 사는 섬이 서구에 남아있어서 참 다행스러웠다. 따뜻한 봄날 야생화를 보러 다시 한번 세어도를 찾기로 다짐했다.

배 시간이 남아 커피 한잔을 얻어 마시며 서구의 갯마을 풍경을 찾아 떠난 여정을 돌이켜보았다. 시작은 옛 지도에서 발견한 ‘人居’, ‘折受’라는 단어였다. 주인 없는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았을 사람들을 만났다. 이어 실록에 기록된 이양선 출몰 기사를 읽으며 조선 후기 외세의 등장에 대처했을 사람들을 생각했다. 일제강점기 신문에 실린 화약고 섬의 창고지기의 딱한 처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사라진

푸른 섬의 마을주민을 만나 아직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섬에 다녀왔다. 끝으로 아직 서구에 남아있는 섬에서 맑고 깨끗한 자연을 만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인천 서구 갯가의 풍경은 변하였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과 섬마을과 갯마을을 기억하는 이들이 자연을 잘 보살피고 지킨다면 사라진 섬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영 사라진 것이 아니다. 더불어 남은 섬은 서구의 보물로 오래도록 빛날 것이다.

이윤희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4) 석남동 거북시장과 정서진 중앙시장

서구의 지리와 교통, 전통시장의 부흥

인천에서 나고 자라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서구에 대한 기억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항상 가족과 함께 검단과 백석 부근으로 성묘를 갔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명절이 되면 찾는 곳이기는 하지만 이외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서구를 찾을 일이 많지는 않다. 그나마 최근에는 친구나 동료 중에 청라나 가좌, 가정동 일대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거나 교통과 교육 등 인프라가 잘 구축돼 그쪽으로 이사를 할까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서구가 심리적으로 점차 가깝게 느껴지기는 한다. 실제로 서구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로 나가기도 수월할 뿐 아니라 인천 어느 지역이든지 자가용으로 20분, 지하철로도 그에 준하는 시간이면 충분히 오갈 수 있다고들 한다. 그리고 보니 최근 들어 서구가 가깝게 느껴졌던 까닭이 바로 이러한 교통 여건의 개선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실제로 서구는 근 10년간 여러 개발 정책이 진행되면서 산업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주거시설 등이 증가하였고 인구유입률도 높아졌는데, 이러한 변화의 기반에는 지하철의 개통과 함께 신설 도로의 건설 등 교통 여건의 개선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 동구와 부평구에 인접하고 있는 서구는 서쪽으로는 인천항 북항에서 세어도까지의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 검단까지, 동쪽으로는 가좌 IC부터 부평과의 경계를 맞대고 김포 한강신도시 이전까지를 행정구역으로 감싸고 있다. 그러니까 서구의 행정구역인 가좌동이나 가정동

은 위도상으로는 부평구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셈이어서 실제로 동인천이나 주안에서는 매우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지하철 1호선이 서구의 바로 아래 지역으로만 이어져 있었고, 버스 등의 대중교통도 많지 않아 남인천과의 왕래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이전에는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아 어린 시절 서구를 갈 때면 자동차로도 1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는데 때문에 서구가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처럼 다른 도시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더듬어보면 동인천이나 주안, 부평까지는 자주 드나들면서 바로 그 위 지역인 가좌나 가정동까지는 쉽게 왕래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처럼 도로 사정과 교통여건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그러던 것이 2016년 서구를 중심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었고 서울지하철 1호선을 비롯하여 인천지하철 1호선, 공항철도 등과도 연결되어 인천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과 공항신도시까지의 이동이 전에 비해 훨씬 편리해졌다. 그로 인해 인구의 이동과 유입이 활발해졌고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중교통편도 증가하여 이제는 많은 버스들이 서구 노선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노선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서구를 경유하고 있어 서구와 인천의 다른 지역구들을 원활히 이어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이 같은 변화들, 특히 교통 편리성의 증대는 서구의 발전뿐 아니라 인천의 도시개발에 있어 지역간의 소통을 통한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서구 지역민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생활 터전을 공유하며 마음만 먹으면 쉽게 왕래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이전 시기 여러 이유로 단절 아닌 단절을 겪어야 했던 인천 지역민들이 화합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구는 인천광역시의 서북부에 위치하며 비교적 넓은 면적을 행정구로 포함하고 있다. 인구수 역시 인천의 자치구들

중 상위 두 번째로 많아 2018년 현재 약 54만명의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인천의 총인구가 301만명에 달하니 그 중 서구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원래부터 서구의 면적과 인구수가 이처럼 크고 많았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북구에서 서구로 승격한 이후, 1995년 김포군 검단면을 편입하면서 현재의 비교적 넓은 행정구역을 갖추게 되었고, 이후 진행된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늘고 각종 시설이 유치되면서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서구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하여 검암동, 경서동, 검단 지역에 인구가 대량 유입되면서 신도심이 형성되었는데, 원도심인 가정동과 가좌동도 꾸준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가정동과 가좌동 일대를 관통하며 개통되면서 원도심이었던 이 지역이 최근에는 역세권으로서 개발의 화재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는 서구의 전 지역이 차차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활기를 이어가면서 서구만의 전통을 유지하는 장소가 있다. 바로 서구의 전통시장들이다. 서구의 전통시장은 크게 네 곳으로 거북시장, 강남시장, 중앙시장, 가좌시장이 있으며 대부분 원도심인 가정동과 가좌동에 집중적으로 위치한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원래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곳이어서 대개는 원도심에 위치하게 되는데, 보통은 신도심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축소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서구의 전통시장들은 원도심이 새로운 교통의 요충지로 떠오르면서 더불어 다시 활기를 찾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찾고 있어 흥미롭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서구의 전통시장들은 인천지하철 2호선의 가좌역과 석남역, 가정역 사이에 밀집하고 있다. 역 이름에도 시장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듯이 역에서 나와 도보로 단 몇 분이면 시장에 다다를 수 있어 그 편리성이 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서구 지역민들이 시장을 찾기 수월해졌고 또 인천의 다른 지역민들도 간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해 시장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거북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장들은 현대화되어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할 수 있으니, 실제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삼아 전통시장을 찾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또 두 세개 역 안에 시장들이 밀집해 있어 서구의 전통시장들을 한 번에 다 둘러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이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특성을 내세워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려는 것인데 이들 시장을 기반으로 주거와 일자리 등을 늘려 도심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오래된 전통시장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주변에 상권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방에 주거시설을 늘린다면 재생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도심으로써의 면모를 되찾게 되지 않을까 싶다.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전통시장이 독심 있게 버티고 있는 지역이기에 그만큼 새로운 서구의 역사를 계획하고 전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거북시장



| 거북시장

서구의 전통시장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시장을 꼽자면 거북시장을 들 수 있다. 다른 전통시장들이 1980년대 초반에 형성되었던 데 비해 거북시장은 그보다 앞선 1960~70년대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그 역사만 해도 이미 반백년을 넘어서고 있다.

거북시장은 현재 석남 1동에 위치하며 인천지하철 2호선 석남역에서 걸어서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지하철을 이용할까 하다가 차를 타고 가봤는데 역시 도로 사정은 좋지 않았다. 원도심들이 대개 그렇듯이 2차선이나 4차선 도로가 대부분이고 시장 입구쪽으로 가면 주정차된 차들과 사람들로 붐벼 차로 지나다니기에 꽤 혼잡한 편이다. 그래도 거북시장에는 공용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주말에는 주차료도 무료여서 차를 타고 장을 보러 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사진으로 보이는 것처럼 거북시장은 하나의 골목에 시장이 형성된 게 아니라 일반 도로의 양옆으로 노점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이다. 도로 폭이 넓어 통행만 한다면 수월하겠지만 자동차와 오

토바이 등도 함께 다니기에 사실 보행이 그다지 자유롭지는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러 오는 작은 화물용차부터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까지 이 골목으로 차를 몰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시장 길은 항상 붐빈다. 공용주차장이 시장의 끝머리에 위치해 있으니 차를 가져온 사람들은 우선은 시장을 가로질러 주차를 한 후 다시 시장을 보러 내려와야 한다. 그래도 주변 도로가 좁고 복잡한 데 비해 공용주차장을 작지 않게 마련해 놓아 접근성과 편의성은 높은 편이다.

주차 후 약간 경사진 골목으로 내려오니 시장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갖가지 좌판들에 과일, 야채부터 시작해 수산물과 생활잡화, 떡볶이, 치킨, 족발 등 한 끼 든든히 채울 수 있는 뜨끈한 음식들까지 역시 없는 거 빼곤 다 있는 그야말로 전통시장의 풍요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전통시장의 묘미는 이처럼 모든 생필품들이 모자이크식으로 함께 엮여져 늘어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물품들이 섹션별로 나뉘어 있어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전통시장처럼 이런저런 물건들을 한꺼번에 구경할 수 있는 즐거움은 적은 편이다.

물론 구역별로 정돈되어 있으니 마트를 한 바퀴 돌면 모든 물건들을 둘러볼 수는 있겠지만 이상하게 마트에서는 한가롭게 구경하기 보다는 메모해 간 물건들만 빠르게 사고 나오게 된다. 아마도 대개 대형마트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또 창이 없으니 금방 답답하게 느껴져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에 비해 전통시장은 특히 거북시장처럼 현대화되지 않은 시장의 경우 탁 트인 도로에 여유롭게 물건들을 진열되어 있고 가림막이 없어 시원한 바람까지 맞으며 장을 볼 수 있으니 둘러보기에도 한결 수월하고 재미도 있다.

또 간간히 떡볶이, 오뎅 등 방금 만들어 신선하고 따끈한 간식들

로 허기를 채우고 다시 힘을 내서 구경할 수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쇼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시장에 자주 갔던 이유도 이런 맛있는 간식들을 맛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김장철이라 그런지 거북시장에는 유독 배추나 무,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대량으로 구매해 가는 손님들도 많으니 상인들의 얼굴도 밝고 시장이 활기가 넘친다. 또 주말이라 그런지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과 데이트를 나온 젊은이들도 눈에 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개 마트에서 장을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전통시장은 이렇게 한 번씩 시간을 내서 구경을 나오는 특별한 장소가 된 것 같다.

실제 전통시장에 나오면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 질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더 큰 장점도 있다.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에 몇 번씩 공급되는 물건들이라 마트보다 더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물건을 구입해보니 특히 야채나 과일의 경우 마트에 비해 가격이 절반 수준이고 품질도 좋아서 꽤 만족스러웠다. 또 여러 가게들을 둘러보면서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을 비교해보고 흥정도 해가며 살 수 있어 장 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가격을 깎거나 흥정을 해도 기분 좋게 받아주며 물건의 원산지나 요리 방법까지 알려주는 시장 상인들이 있어 더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장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예전부터 전통시장을 사람 냄새 나는 시장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거북시장에서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맡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거북시장 보도육교

거북시장은 입구에서부터 약 100미터 가량 대로를 따라 쪽 이어져 있는데 끝자락 한켠에는 위에 말했던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길의 중앙에는 사진과 같은 보도육교가 놓여 있다. 시장의 끝이 경인 고속도로와 맞닿아 있어서 바로 옆 지역 사람들이 시장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고가교를 지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이다. 이 보도육교는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고속도로로 나뉜 양측 지역민들이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보도육교를 지나 넘어가면 아기 장수 설화로 유명한 천마산 자락에 거북이 마을도 형성되어 있으니 가족들과 연인들과 함께 시장을 구경한 후 한 번 둘러볼 만하다. 장을 본 후 양손에 비닐봉지 하나씩을 들고 육교를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자니 서구에서 진행 중인 ‘사람과 장소를 이어주는 소통의 중심’,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 중심’이라는 도시개발사업의 모토가 바로 이러한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업그레이드된 재래시장, 중앙시장



| 정서진 중앙시장

거북시장이 재래시장의 면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거북시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중앙시장은 현대화된 시설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통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중앙시장은 거북시장처럼 지하철역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시장 입구 바로 건너편에 넓은 주차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장보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한층 증대시키고 있다.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입구에 ‘정서진 중앙시장’이라는 간판을 시작으로 약 200미터 가량 비교적 잘 정돈된 골목길을 따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천장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 눈비의 걱정 없이 쇼핑 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요즘의 전통시장들이 대개 이런 시설들을 갖춰놓는 데 비해 앞서 보았던 거북시장이 오히려 지금으로써는 보기 드문 재래의 모습을 유지한 시장이라고 할 만한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다양성

의 측면에서 여러 형태의 시장들이 유지되고 있으니 서구의 주민들에게는 장보기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 셈이다. 앞서 거북시장을 둘러보고 중앙시장에 도착하니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그래도 각 상점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으니 시장 안은 활기로 넘쳐나고 있었다.

중앙시장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다보니 각 상점들에서 좌판을 내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가게 안쪽에 물건들을 정리해 두고 있어 지나다니는 길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다. 가게들이 일렬로 쪽 정돈되어 있어서 있으니 깔끔한 인상을 주고 안쪽에 공간이 있으니 더 많은 물건을 구경하기에도 편리했다.

또 전등을 켜고 불을 밝혀 놓아 물건들의 신선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상의 시장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장을 보기에 좋을 듯했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양쪽 모두 시간 걱정 없이 한가하게 시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보다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시장으로 들어서니 거북시장에 비해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을 보고 있었다. 거북시장은 날이 저물면 사람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개장 시간이 짧은 데 비해 중앙시장은 오히려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증가하니 마감 시간도 늦고 개장 시장도 거북시장에 비해 좀 더 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시장에 입장하고 나면 날이 얼마나 저물었는지도 모르게 밝은 불빛들 아래서 쇼핑할 수 있으니 그만큼 장을 보는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길게 늘어선 골목을 따라 시장을 구경하다 중간지점에 다다르면 양옆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골목이 보이면서 사거리가 형성되는 지점이 있다. 다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광장처럼 보이는 그 사거리 천장에는 크고 작은 종들이 설치되어 있어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분위기를 자아내며 한층 쇼핑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천장이 있어서인지 겨울 추위도 잊을 정도로

비교적 불편함 없이 장을 볼 수 있었다. 시장 시설이 현대화되고 그만큼 각종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 상인들이 물건을 관리하고 조리하는 방식도 꽤나 위생적으로 보였다. 족발이나 닭튀김, 떡볶이 등을 파는 상점들과 특히 반찬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인들이 마스크와 조리모자를 쓰고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상인들의 이런 노력이 있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중앙시장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 정서진 중앙시장 내부 전경

중앙시장은 거북시장에 비해 시장의 폭이 좁은 대신 길이가 두 배 정도로 길고 그 안에 매우 다양한 가게들이 들어서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한층 더했다. 특히 간단히 요기할 정도의 주전부리 음식에서부터 뒷공간을 활용해 간이 식당을 운영하는 가게들이 많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식사 겸 술 한잔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전을 파는 부침개집에서부터 족발집도 여럿 있었고 싱싱한 수산물로 바로 요리를 하는 식당들도 눈에 띄었다. 둥근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시장에서 파는 신선한 음식들과 술을 곁들이는 모습들이 겨울이라 그런지 더 푸근하게 느껴졌다.

취재를 나온 터라 술은 어렵겠고 사람들이 모여든 칼국수집이 눈에 띄어 그곳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이미 거북시장을 다녀온 참이라 한참 걷기도 했고, 김이 펄펄 나는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육수를 보니 갑자기 시장기가 밀려왔기 때문이다.

칼국수집은 칼국수와 만두를 주로 파는 작은 식당인데 사람들이 꽤 줄을 서고 있었다. 운이 좋았는지 얼마 기다리지 않아 식당 안 작은 테이블에 앉긴 했지만 먹는 내내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줄이 길어져 빨리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시장 안 가게라 음식이 빨리 나왔는데 음식을 가져다주는 종업원 외에 다른 종업원이 없어 물이나 김치는 셀프, 계산도 주문과 동시에 선불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었다.

사실 가게라고는 하지만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작은 식당이라 종업원을 더 둘 수도 없을 것 같고, 손님들끼리도 합석해야 할 만큼 공간이 넉넉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찾는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음식 맛에 그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칼국수를 받아 드니 다른 가게처럼 야채나 고명이 많지는 않았다. 그래도 국물 색은 진한 빛을 띠어서 한번 들이켜 보니 역시 국물에서 여러 재료를 사용한 깊은 육수의 맛이 났다. 다음으로 면발

을 들어 입안 가득 먹어보니 적당히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방금 반죽하고 밀어낸 칼국수 면발의 탱탱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면발의 두께도 적당하여 국물의 농도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에 셀프로 담아온 김치 한 조각을 먹으니 칼칼함이 더해져 완벽한 맛을 볼 수 있었다.

뜨끈한 칼국수를 한 그릇 먹다 보니 옹기종기 붙은 테이블들의 대화가 들려왔는데 혼자 오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 이 칼국수를 드시러 일부러 버스를 타고 오셨다고 하고, 아이들 셋과 함께 다섯 가족이 앉은 테이블에서는 아빠가 이 식당을 다녀간 후 너무 맛있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주말에 나들이 겸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시장에서 바로 만들어 파니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한 동안 이 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만큼 맛있어서 이렇게 다시 시장을 찾게 된다는 말에 시장 음식점만의 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실 식당 음식점은 크기도 작고 테이블 간격도 좁아, 다소 불편한 감이 있다. 또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 여유롭게 먹지 못하고 빨리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시장을 찾고 시장음식을 맛보기 위해 식당에 들어서서 이유는 시장만의 그 활기찬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여기에서는 이런저런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불편함을 잊을 만큼 생생한 활력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분위기가 음식에 특별한 간을 더해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음식이 탄생하는게 아닐까. 또 시장 상인들의 푸근한 인심과 정이 더해지니 오래된 가족이나 친구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그리고 배불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 음식은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익숙하고 정이 가는 음식들이다.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집에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밀

대로 밀어 면을 뽑아 직접 우려낸 육수로 칼국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이렇게 시장에 나와 구경도 하고 장도 보면서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그 칼국수를 떠올리며 추억을 먹고 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고향이라고도 할 만 하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소중한 기억들을 불러내는 장소, 그리고 그 그리움들을 해소하게 해 주는 친근한 장소가 바로 시장이 아닐까 한다.

정영진 (인하대학교 강사)

5) 가좌동 부지런히 달리다

가좌동(佳佐洞)은 인천 서구 지도를 보면 맨 아래쪽, 서구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남쪽 끝에 위치하여 부평구와 맞닿아 있다. 가좌동은 본래 부평부(富平府) 소속이었던 것이 1940년 4월 1일, 인천으로 편입되었다.

인천이 된 서구 가좌동은 사진으로 확인해본 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허허벌판에 야트막한 산으로 이루어진 동네였다. 아마도 인천의 다른 곳보다 발전이 더디고 외진 곳으로 여겨졌으리라. 그러나 외진 곳이었다고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았던 듯하다. 서구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재갑(沈載甲) 선생님이 『서구사』에서 하신 인터뷰를 보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당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6·25 때 나는 인중 5학년이었어요. 처음엔 라디오도 없고 해서 못 들었다가 6·25 다음날 26일이 월요일이라 학교 갔더니 이제 전쟁이 났다 하더라구요. 학교에서는 26일 그 날은 그냥 지냈고 6월 27일 날은 무기 휴교로 보냈습니다.”

전기도 변변치 않고 라디오도 못 듣던 시절이었다. 전쟁 발발 소식은 학교에 가서야 겨우 알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던 것이 북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던 것에 비해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피난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좌동을 서구의 발이라고 일컫고자 하는 데에는 그 위치 때문만은 아니다. 발이란 본래 신체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그 발이 부지런히 움직일 때 신체는 가장 활발한 신진대사활동을 하게 된다. 가좌동도 서구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좌동을 지도상 크게 동서로 나눠 보면 동쪽으로는 주거단지, 바다와 인접한 서쪽으로는 산업단지가 주를 이룬다. 우선 산업단지를

살펴보면, 인천목재공업단지와 인천기계산업단지를 꼽을 수 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인천 북항을 끼고 있으면서 동시에 물류의 이동이 용이한 경인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기공식이 1967년 3월 24일 가좌 4동(가좌동 566)에서 있었다. 가좌동이 산업단지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갖추고 있었다.



‘코스모40’에서 본 산업단지

이 산업단지들은 주로 1960년대 후반에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70년대 중후반에 그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 나아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즈음 주요 산업시설들이 수도권권을 벗어나는 추세이지만 인천의 지리적 특징점을 생각할 때, 가좌동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어 보였다. 때문에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던 차에 인천 소식지 『굿모닝 인천』 11월호 잡지에서 ‘코스모40’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보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가좌동에는 산업단지와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곳이며 산업단지 중에는 코스모화학 공장도 한 자리를 차지했다. 1968년 2월 한국지탄공업(주)라는 이름으로 가좌동에서 시작한 현 코스모화학은 2016년 6월 공장을 폐쇄하고 울산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던 코스모화학 40번째 공장 건물이 ‘코스모40’이라는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반가웠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가깝게는 인천 중구 해안동에는 100년이 넘는 대한통운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그 지역 일대에는 일제강점기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어 카페 및 박물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강화도에도 조양방직 공장을 카페로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옛것을 허물지 않고 투박한 외관을 보존하면서 그 안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사람들에게 반전의 즐거움과 함께 역사적 시간을 선사하는 장소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늦가을,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날 오전, ‘코스모40’을 찾아 나섰다. 네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코스모40’을 가는 길은 조금 낯설었다. 여러 기업체와 공장 건물들이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네모반듯하게 늘어진 이 길 어딘가에 ‘코스모40’이 있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했다. 그 길에서 ‘아, 여기가 가좌동이구나, 인천의 변방이라고 여겨지는 가좌동이 이런 모습이구나’ 했다. 가좌IC를 돌아 들어가며 지도로만 확인하던 거리와 내 눈앞에 현재하는 거리를 맞추어 보는 것도 ‘코스모40’을 찾아가는 재미였다.

그렇게 찾아간 ‘코스모40’의 첫인상은 ‘신기하다’와 동시에 ‘참 모던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코스모40’에서는 커피, 피자, 맥주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전시와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포함한 여러 테이블에

손님이 있었는데 젊은 연인들은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바빴고 회의를 하는 듯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공장 지대에 있는 오래된 공장을 손보자 젊은이들이 시간을 내어 서구 가좌동을 찾게 된 것이다.

이곳 ‘코스모40’은 예전 공장 건물을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한 형태로 새 건물과 옛 건물이 서로 닿지 않도록 하면서도 내부에서는 두 건물이 통하도록 만들었다. 오랜 시간 거대한 기계들과 사람들이 맞물리며 바쁘게 움직였던 노동에 대한 기억, 노동에 대한 배려가 있는 설계라고 느꼈다. 한때,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생계를 책임져 주던 공장이 이제 누구나 와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코스모40



코스모 프로젝트팀의 심기보(39), 성훈식(34)씨는 11월자 『굿모닝 인천』 잡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공장도시’라는 인천의 정체성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요. 하지만 인정하고 매만지면 인천의 자산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그들의 이 인터뷰는 필자에게 꽤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한때는 타 지역 사람들을 인천으로 오게 했던 많은 공장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한 공장들이 이제 와서는 눈엣가시처럼 대우를 받는 것이 맞는 걸까, 그 안에서 땀 흘리던 노동과 씬 없이 돌아가던 공장의 기계들, 그 모든 기억들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 가능할까. 아마도 ‘코스모40’이라는 공간은 이런 고민들 속에서 탄생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노동자와 가족, 지역과 국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었던 산업시설이 이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용력을 발휘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이 있다. 이 코스모 프로젝트팀의 심기보씨가 바로 청송심씨로 심재갑 선생의 조카라는 점이다. 그 역시 가좌동 사람으로 오랜 세월 고택과 함께 더디지만 꾸준한 가좌동의 변화, 혹은 변화하지 않음을 동시에 보며 살아왔을 것이다. 그런 그이기에 이 프로젝트는 그에게 더욱 의미가 있었을 것인바, ‘코스모40’은 가좌동의 정체성을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코스모40’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 차로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청송심씨 고택이 있었다. 심재갑 고택이라고도 불린다는 이곳은 고택이랄 것이 별로 없는 인천에서 300살을 자랑하는 서구 가좌동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작지만 깔끔해 보이던 고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지붕과 기둥만 남겨진 채 고택은 한창 공사 중이었다.



| 청송심씨 고택 전경(2018년 가을)



| 청송심씨 고택 보수 공사 전경

청송심씨 심한웅(沈漢雄; 1652~1715)은 이 고택에 자리를 잡으면서 청송심씨의 입향조(入鄕祖)가 되었다. 즉 청송심씨가 서구 가좌동에 자리를 잡게 된 건 17세기 조선 후기 때부터인 것이다. 이 고택이 자리 잡은 대지는 약 300평이고 건평은 40여 평 정도라고 한다. 이 고택에 얽힌 일화는 유명한데, 1940년대 심한웅의 8대손 심상필(沈相弼; 1873~1957)과 그의 아들 심운섭(沈雲燮; 1899~1966)이 4년에 걸쳐 이 고택의 증축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위해 백두산에서 한국송(韓國松)을 벌채해 압록강 신의주까지 뗏목으로 운송했으며 지붕의 기와는 서해 영흥도에 있었던 충신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사당이 헐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 3척으로 그 기와를 운반해 와서 사용했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이야기는 청송심씨 고택을 이야기를 품고 있는 집,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볼만 한 집으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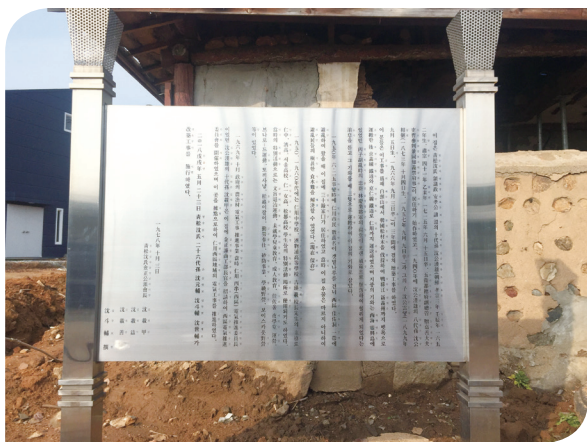
그런데 청송심씨 고택은 그냥 한번 둘러볼 만한 집에 그치지 않는다. 이 고택에 자리 잡은 청송심씨의 후손들은 여러 방면에서 가좌동의 발이 되어 뛰고 있는 것이다. 심재갑 선생의 선친이신 심운섭 선생은 1940년대 전반, 이 지역에서 브나로드운동을 전개했다. 브나로드운동은 당시 동아일보사가 주축이 되어 1931~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개한 농촌계몽운동이자 문맹퇴치운동이었다. 그런데 가좌동에서 브나로드 운동의 주축이 된 것이 청송심씨 집안이었던 것이다.

이때 심운섭 선생은 가좌강습소를 열었고, 첫 문을 열었던 장소가 바로 청송심씨 고택이었다. 심운섭 선생은 강습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고 그 결과 지금의 석남초등학교가 지어졌더니 청송심씨 고택은 어찌 보면 서구 교육의 첫 걸음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운섭 선생의 교육에 대한 애정은 그 아들 심재갑 선생으로 이어진다. 심재갑 선생은 중학교 3학년(1948년) 때부터 고택 사랑방에서 야학을 시작했다. 그러다 한국전쟁으로 야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대학교 2학년 때 다시 야학

을 열었다. 이후 1960년대 들어서면서 가좌농민학교를 시작한다. 선생의 인터뷰를 보면, “가좌동 산 30번지, 교실 3개, 한 60~70평 되고 운동장하고 교지를 합하면 한 1천 평 된 것 같습니다. 가좌농민학교 건물은 1962년도에 지었습니다. 그 전에 흙벽돌 집이었어요. 한 7년 계속하다가 생활이 조금 윤택해져서 학생들이 정규학교를 가니깐 단게 되었죠.” 선생은 “당시 서곶의 교육이 뒤떨어져 있었어요”라고 회상한다. 심재갑 선생과 그의 선친께서 일찍이 다른 분야도 아닌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더디고 뒤떨어져 있기에 오히려 더욱 자각하게 만든 역설적 환경에서 청송심씨 후손의 이 같은 노력이 현 가좌동 나아가 서구 교육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반박할 수는 없으리라.

서구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자니, 필자의 선배가 서구도서관에 대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그 선배 역시 유년 시절부터 오랜 시간 서구에 살고 있다. 선배의 이야기에 따르면 가좌동에 공장이 있다고 교육열이 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가좌동의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공장 노동자 가족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생활했으므로 자연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했다. 그 예로 선배는 곧잘 서구도서관을 찾곤 하는데 그곳에는 책이 많은 건 당연하고 대학 도서관에 없는 책도 있어 지금도 여전히 자주 찾는다고 했다.

심재갑 선생의 가좌동을 위한 땀방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제일 가난했던 서곶”을 위해 교육은 물론이요, 남서곶 경찰파출소 유치, 우체국 유치운동, 전기 유치운동, 전화 유치운동 등을 지속했고 그 결과 1965년 석남파출소가 문을 열었고, 70년대에 서곶에 전기를 들여왔으며 비슷한 시기에 우체국이 개국을 했다. 민생과 관련된 이 같은 기초적인 운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서구가 늦어 아주 분통이 터지더라고”라는 그의 말에서 그 뜻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청송심씨 고택 안내판

청송심씨 고택과 심재갑 선생의 활동을 살펴보며 자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청송심씨 고택이 어쩌서 문화재 지정이 안 된 거지?’ 이 의문에 대한 답 역시 심재갑 선생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몇 번 인천시에서 관리해 준다 그랬는데 사양했어요. 내가 팔십이 되어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말을 해요. 당신 생애에는 유지되지만 당신이 떠나면 어찌 되겠느냐고. 그런데 다행히 건축 전공한 셋째 세보가 안목이 있어서 자기가 보존하고 꾸미겠다 해요. 참 잘된 거지요.”이 인터뷰를 보고 한시름 놓았다고나 할까. 이 말씀은 늦게나마 고택을 찾은 날 확인할 수 있었다. 고택 앞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앞서 얘기했던 고택에 얹힌 여러 이야기와 더불어 마지막 부분에 “2018 무술년 5월 23일 청송심씨 26대손 심원보(沈元輔) 심두보(沈斗輔) 심세보(沈世輔)가 개축공사를 시행하였다.”라고 적혀있었다. 심재갑 선생의 세 아들이 대를 이어 고택을 보존하려고 노력 중이었다. 고택이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기대된다.

발전을 명목으로 개발이 난무하는 시대에 고택이 지금까지 옛 모습을 잃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심재갑 선생의 말대로 분통

이 터지도록 늦은 서구의 발전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개발자들의 적당한 무관심이 고택이 제자리를 지키도록 도와준 것일지도. 그러나 개발의 바람이 서구 가좌동만 언제까지나 피해갈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시점에서 우리는 고택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닐까.

가좌동의 지명 유래를 찾아보았다. 가좌동의 옛 지명은 가좌리인데 민간에서는 ‘가재울’ 또는 ‘가재울’이라고 불렀단다. 그 이유인 즉 가좌천(佳佐川)에 가재가 많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구비전승되어 오고 있다. 한편, 김병욱 인천대 명예교수는 우리말 고어의 ‘가’나 ‘갯’은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를 의미하는데 가좌동이 보도진 협으로 막힌 육지의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의 추측에서 서구의 가좌동이 필자에게 주는 이미지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는 가좌동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 조건이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심어준 심리적 작용 또한 있었다. 가좌동은 중심이 아니었기에 인천 안에서도 발전 속도가 더뎠다. 인천 출신의 선후배들에게 서구, 가좌동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대답은 비슷했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던 곳, 인천 끝, 외진 곳, 가볼 일이 없던 곳! 서구 가좌동은 지금도 이 같은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듯하다. 가좌동은 세련된 신도시도 아니고 문화재가 즐비한 곳도 아니다. 여전히 사람과 공장, 기계가 공존해야 하는 가좌동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역사이고 문화다. 가좌동(佳佐洞)에서 한자는 ‘가재울’의 가차(假借)이므로 큰 뜻은 없다고들 한다. 그게 사실이라도 이름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가좌동은 그만의 색깔로 서구를 돕고 있다고 보였다. 가좌동은 오늘도 가좌동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뤄내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중이다.

이승희 (인하대학교 강사)

3. 직접 듣는 이야기

- 1) 새오개 마을 어른, 윤학의
- 2) 청라도 도지사^{島知事}, 김종안

1) 새오개 마을 어른, 윤학의

구술자 윤학의(尹學儀)
 1938년 인천시 신현동 출생
 전 인천시 공무원
 현 파평윤씨 원평공파 종회 회장

구술일자 2018.10.10.

구술장소 인천 서구 신현동 경로당, 신현동 회화나무

채록자 윤미란 (인문학연구실 오만가지 연구원)
 이윤희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안녕하세요,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올해 발간할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에 신현동 회화나무 이야기를 담고자 찾아보았습니다. 신현동 회화나무와 신현동에 대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신현동에서 나고 자라셨나요?

나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저기 저 다세대 있는 데. 내가 지금 여든 하나인데, 여기서 태어났어요. 콩밭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는 그 영상이(예전 모습이)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지역에서 물 파는 데도 그렇고. 이 자리가 요 바로 주변이 논 자리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밭 자리고, 이렇게 동네가 있었어요.

주변이 다 논이고 여기는 동네 씨족사회, 옛날에는 여기가 그렇잖아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신현동이라 그러지만, 새오개라 그랬다가. 아, 새오개라 그랬어요, 새오개. 부르는 거는 새오개라 부르고. 그전에는 돌곶이라 그랬고. 돌곶이었다가, 새오개로 했다가, 지금은 신현동으로 됐다가, 지금은 구획 정리 사업 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가정동이라 그러지만, 그 신현 파출소 맞

은편에도 신현동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신현동에다가 구획 정리 사업 되면서 도로가 생기고 그 가정동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내가 사는 데가 주변 택지가 없어서, 우리 밭 자리에다가 집 짓고 지금도 살아요. 지금도. 옛날엔 신현동이었는데 지금은 가정동이 됐지. 예. 그랬고. 지금 또 요 8호에 손□□씨라고 있어요. 우리 호랑 연대가 되는데, 우리 집 하고 앞뒤로 살았지. 이 양반이 구성말이라고 해서 저기 일심동에도 구성말, 가운데말, 작은사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신현동에도. 그리고 저 너머를 든적골이라 그러고. 그렇게 명칭이 있었어요. 신현동인데도 분류가 그렇게 됐죠.

초등학교는 어디로 다니셨나요?

석남초등학교 2회예요 2회. (동창들) 지금도 만나는데. 엇그저께 17명 만났어요. 저는 석남초등학교가 6·25 전쟁 나고, 나무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임시로 (다녔죠). 학교를 2회 졸업생에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나온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2회 졸업생들이 있어요. 다 돌아갔지만. 다 돌아갔어요. 여기서 최□□이가 1회 졸업생인데 우리 육촌도 그랬는데 다 돌아갔고. 지금 2회 졸업생만 살았는데, 2회 졸업생도 졸업한 사람은 많지 않고, 다니다가 사변 때문에. 우리가 그때 막 중학교 1학년 짜리도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짜리도 있었을 때인데 중간에 졸업을 못 하는 애들이 있는데도 지금 (동창회에) 이제 나와요.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뭐. 17명이, 여기 회장도 동창이고요. 17명이 나왔다는 게 대단해요. 석남초등학교에서 오래됐는데도 지금 동창회다 해서, 오찬회를 2개월에 1번씩 하는데 모이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신현동 회화나무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는 어떤가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 회화나무가 우리 집안 내에 그 종가택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지금 그린다면은 이렇게 됐어요. 회화나무가 여기 있다면...

(중양을 가리키며) 여기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이제 (회화나무 근처) 우리 종가택있었고 마당 있고, 밭이 있고. 이게 회화나무인데. 이 회화나무가 사실은 우리 종가에서 그냥 소유자라는 건 없어도 아마 종가 땅이었을 거예요. 그랬어요. 지금은 회화나무라 그러는데 그때는 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부르는 말로 그냥 회나무라 그랬는데, 쳐보니까(알아보니) 회화나무라고 공식으로 이름이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회화나무가 여기도 있고 저기 장수동에도 있어요.

근데 회화나무가 이게 또 저 남쪽에도 큰 게 있더라고. 그래서 회화나무가 이제 전국에서 우리나라 토종 나무인가 싶기도 해요. 근데 거기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도 다 모르겠어요. 문화재인지 뭔지 몰라도 식수(기념수)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종가택에 오며 가며 늘 회화나무를 보셨겠어요.

아 그럼요. 그 밑에서.. 그럼요. 봤죠.

선생님 종가집이 회화나무 근처에 있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신현동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족보를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아... 근데 그건 나도 봐야 돼요. 저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여기 처음에 선대조

할아버지의 24세인가? 세대를, 몇 대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정착한 거예요.

원래 이제, 지금 윤관 할아버지라고 알죠? 윤관 할아버지가 우리 윤씨 문중에 그 5세대예요. 5대째예요. 그 양반이 사실은 부평에서 도지사 식으로 해서, 고려 때 충신이었는데, 거기 정착을 하셔서 인천 지역에 여기 지금 오류리라고. 저 서울 오류동이 아니라, 인천 오류동, 부평, 문학 이런 데서 손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가 구례리라고해서, 거기 선대조 할아버지 모신 데가 있는데 거기는 나중에 내가 서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여기 정착이 됐어요. (사진 가리키며) 저 양반이 제일 많이 알았는데 추적해서 보면 알아요. 항렬이 나랑 같은데 다 돌아가셨죠.

내가 저 양반한테 한문을 글방이라고 그랬어요. 한문을 배워서 내가 통감까지 떴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 양반이 한문을 저절로 했고. 저기 네 번째 있는 사람이 석남초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랬었고. 지금 저기 맨 첫째 있는 사람이 우리 집안, 세 번째가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나 가르친 항렬로는 조카인데 선생인. 그리고 그 옆에는 저 첫째에 있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눈은 흰칠하고, 그래서 나한테는 조카뻘 되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저기 여든다섯이고. 내 조카만큼 그렇고... 그렇게 됐어요.

회화나무랑 얽힌 이야기나 옛 추억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근데 그런 거는 뭐. 특별히 기억되는 건 없어요. 회화나무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자체로 해서 뭐 소중하고 귀하고. (주변에) 워낙 나무가 많았으니까. 이 앞에...

옛날 우리가 어릴 적 보름날 같은 경우에, 그 동네하고 여기하고 하면 깡통으로 쥐불놀이하고 서로 싸움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돌

팔매질하고. 우리가 논다는 건 자치기하고 그 뭐라 그러지? 돌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비석치긴가? 그거를 꽤 주로 했고. 그리고 이제 훗날에는 진짜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테니스 라켓 가지고 이렇게 훑어서 오면 좌악 나가고. 이렇게 말랑말랑. 지금은 테니스공이 딱딱하잖아요. 옛날엔 말랑말랑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공이 좌악 훑어서 나가면 그게 납작해져서 멀리 가요.

나무를 귀히 여겼으니까 그 주변에서 논다거나 이러지는 못하셨겠어요.

그거는 별로 내가 지금 기억이 없어요. 회화나무는 또 옛날에 씨족사회로 살 때,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양반, 상놈이라고 해서 신분에 대한 그게 있어서. 감히 거기 오질 못했어요. 우리 집안은, 여기 신현동이다 그러면 우리 씨족사회로 집단 거주처, 집거촌이 돼가지고. 우리 문중에 대표적인 그런 거가 이뤄졌어요.

여기들 계시킨 하지만, 정확히 얘기해서 가운데말은 우리 집안에, 저기 구성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었고, 작은사라 그러나? 박씨네 있고. 그리고 요 앞에는 이제 여기가 주가 되는 게 이씨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 땅이 저기 이 나무가 말이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냥 이런 소나무들이. 그래서 6·25때는(한국전쟁 이후) 이제 부평에 미군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이 산으로 와야 소나무가 많으니까. 우거져가지고. 뭐 그땐.

미군들이 사진 찍고 관광하러 왔군요.

근데 그때 뭇한 얘기지만 양부인들하고 같이 왔어요. 희희낙락하면 우리 동네 또래들이 지금 다 줍고 그랬죠. 그런 애들이 퍼놓고들

가면 그 사람들은 개방적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린 신기하니까 양부인들하고 놀 때 그걸 놓고 그러잖아. 그럼 그걸 훔쳐다가, 카메라 그런 것도 엄청 훔쳐가고, 팔고.

그 당시엔 카메라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뭐. 그리고 뭐 먹는 거부터 뭐 초콜레토, 껌 미군들이 던져주면 좋다고 쫓아가고 말이지. 그걸 말이야 받아먹고. GMC라고 그러나? 그때 그 차량에 보면 도당재 그거 있을 때 미군이 철거하게 되면 그 뭐라 그러지, 부대찌개라 그러죠? 저기 미군들이 여기 주둔했다 나가기 전인데, 부대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먹는 거를 도라무통에다가 정문 밖에다 넣어놔. 먹다 남은 거를 그렇게 내다 놓으면 그걸 주워서 먹고 끓여 먹으면, 뭐 씨레이션이나 돼지고기를 넣고 그 뭐라 그러죠 햄? 그게 그렇게 맛있는거야. 꿀꿀이 죽이야 그게. 그걸 끓여다 먹고 말이지. 여기 부대 있을 때 그랬어요. 뭐 그런 생각.

지금 말씀하신 소나무 군락, 미군들도 이렇게 와서 놀고 했던 그 군락은 어디쯤 있는 건가요?

그게 어디쯤 있냐면요. 명가골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딜 다녔냐면, 내가 동인천 중학교를 다니고, 내가 1955년도에 졸업했어요. 그 때 동인천 중학교를 다닐 때, 읍내를 돌아다니고 그럴 때, 그 산을 가야 돼. 그러면 그냥 여우니 뭐니 짐승들이 있어가지고 혼자 어린 마음에 여기서 몇 사람이 다녔어요. 양승을 외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 정말 겁이 날 정도예요.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일찍 가야 되잖아요. 읍내로 돌아가야하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그럴 때는 나룻터가 없어가지고 저 주안 염전으로.

기계공고 자리예요 지금. 거기가 동인천 중학교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55년서부터 58년도에 인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58년도

까지 학교 다닐 땐 아루나룻터(아랫 나룻터)로 다녔어요.

그럼 그게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여기가 바닷가가 이렇게 돼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그게 매립됐는데.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녔어요. 그랬을 때 그 여기 지역이 없기 때문에(소나무가 사라져 버려서). 소나무들이 말이지. 정말, 정말 아까워. 지금 보면 상당히.

그 해안가 따라서 소나무 군락이 만들어져 있었나요?

이게 가좌동에서부터 송림 8동으로 해서. 이제 그리로 걸어서 다니고 그랬어요. 58년도까지 겨울에는 아 그냥 성에가, 지금 바다엔 성에가 없죠. 성에라 그래요. 얼음이. 그거 있으면은 그냥 배가 안 다니고. 또 물 나갔을 때 여름에는, 그 이렇게 징검다리 있잖아요. 돌 그렇게 해서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이게 그 옛날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도당재라고 있을 때인데 보면 여우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니까. 도당재 꼭대기가 굉장히 높은 줄 알았거든. 거기도 나무가 많았으니까. 그랬는데. 여우 그런 거 많았어요. 그때는. 무서웠고. 그때만 해도 도깨비 나온다고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경험도 있어요. 작은사 그 위에보면, 나무가 많은데 거기는 산소가 크게 있었거든. 근데 하루 걸이를 앓는데 옛날에는 곱하고 그랬다고 아프면. 근데 저기 뭐야 산속에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우거지고 무섭잖아요. 그걸 말이지 아픈 놈을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묶어놓는 거야. 거기다. 나간다고. 아픈 게 나간다고. 그렇게 미련스럽게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또 하도 놀래서. 어른이 됐는데도 잊어버리지를 않아.

무척 무서우셨겠어요.

무서울 정도가 아니라 기절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내 위로도 두 사람이 있었대요. 다 죽은 거야. 그래서 나도 생년월일이 원래 38년인데 81년이면, 이놈도 죽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서 내가 40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문중에는 그대로 그냥,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그때 출장소에서 출생신고는 38년으로 돼 있고, 가진자로는 40년으로 돼 있고. 이렇게 했더라구요.

근데, 그 당시에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순리적으로 받아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용케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렇게까지 흔적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나면. 나무가 그 정도로 많았었다. 우거져서 여기.

신령스럽게 생각하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나 보군요.

그렇지. 미신들이 뭐. 굿을 하는 건, 수도 없었어요. 그냥 뭐 무당이 와서 집에 와서는 말이지. 아프면 그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집에 무슨 뭐 이런 걸 해놓고. 가시나무 같은 무슨 뭐 나무해서 귀신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내가 자라던 모습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개관하라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갔다왔지만. 참 뭐에서 용 났다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서구 관례가요. 인천시에서도 같은 지역이지만 여기가 상당히 팔시반된 아주 소외된 지역, 아직도 그래. 청라가 들어와서 지금 그나마 조금 저걸 했죠. 여긴 아주 상당히 외면당해서. 이게 같은 시에 예산, 세금을 내고도 여기는 개발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 능력이 없으니까 뒷전에서나 불만 터트린 거지 혜택이 없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인천지하철) 2호선도 사실 이게 할 얘기 아닌지 몰

라도 주민들 그 맘 그대로예요. 여기가 말이지 제일 소외되고 교통도 불편한데 주안 갈려면 두 번씩 갈아타고 그랬는데 이거를 2년이나 연장시켰잖아요. 이게 늦게나마 개통이 됐는데. 이제는 봐봐요. 해보니까는 예측을 못한 사람들이지, 여기가 엄청나게 지금 통행이니 많잖아요.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할 때에도 한동안 적자운영했는데도 여기는 지금 뭐 1억명 나갔다고 이제 천 만명인가 뭐 나갔다고 지난번에 벌써 이렇게 했는데. 여기 통행량이 그렇게 많은 거를 행정, 정치하는 사람들 그걸 몰라서는.

6·25 전쟁 이후로도 나무가 그대로 있었던 거 보면 이 근처는 피해가 크지 않았나 보네요?

크지는 않았고, 그 1·4 후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인민군하고 인천상륙작전 할 때에는, 내가 지금 뭐 앞뒤 순서 없이 생각나는대로 얘기하는데. 앞에 여기 논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막 쫓아가면서 총 가지고, 그 요 산도 마찬가지고 경찰이 또 총 가지고 총을 쏘면서 인민군이 도망가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그런 것도 목격을 하고.

(산쪽) 저쪽. 여기가 또 도당재라고 해서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연상이 되고. 내가 열두 살인가 열세 살 그때니까 다 알죠. 6·25 때 그랬고. 여기 6·25 때 보면 우리 외삼촌이 그때 인천고등학교... 인중이죠. 인중이었는데, 우리 집 와서 숨었어요. 여기 있으니까. 6·25 때. 근데 6·25 나고도, 거기 맨날 걸어가면 내가 메신저야. 심부름꾼이 돼서 날 계속 찾고, 날 불러다 했는데.

앞서 농지 말씀하셨는데 1949년 농지개혁 전 신현동에는 외부 부재지주들이 많았었나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대개 농토를 갖고 있었나요?

부재지주들이하고, 옛날에 그 □□이 아버지가 그 지금 관리인인가봐. 옛날에 그 무슨 땅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 다.. 이□□씨도 지주했었고. 그분은 잘 모르겠는데 추수를 하게 되면 우리 집도 소작을 했으니까. 우리 집도 소작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아야 되더라구요. 어머니가 감서부터 뭐 그냥 다 차려가지고 다 하던 걸 어렸을 때 기억을 해요. 그 때 □□이네가 그게 뭐 반장했더라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관련한 데 염전, 지금 청라지구에 있는 염전했던 고□□가 지주라고 그러더라구요. 내가 듣기로는.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씨가 지주했었다. 그 양반이. 근데 우리만큼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대부분은 골 해놓은 사람이 마른 모까지 거의 다 했었고. 매립해가지고 여기가 사실은, 옛날에 매립해가지고서는 염전도 가지고 있고 이 산 쪽으로는 논이 되니까는 그 사람이 지주 노릇 한 거 같아요.

근데 이□□씨네가 어디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틀림없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장성해서 생각해 볼 때는 농지가 아니니까 그것만 남아있고 농지도 근방에 있는 거. 저, 그 때는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어. 이 뭔데, 그분이 있었는데. 그 상당히 이 지역에서는 선각자시더라구요. 말씀도 그냥 나지막하게 그렇게 하는데. 참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집도 가보면은 그냥 그 집 하고 우리 종가집하고 비슷했어요. 옛날에 그 집이 기와집에다가 아주 으리으리했는데. 가보면 농기구도 집에 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널지마하게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때문에. 지주였었을 것이다.

이후 1970년대 초반에 그린벨트 영향은 받으셨나요?

그린벨트는.. 저, 부분적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인데.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있을 때 그걸 만들어 놓은거예요. 보상받을 때 그 임의대로 구획 정리부터 그린벨트 지정하는 거까지 보상이 아주 많이... 지정을 임의대로 해놓고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그린벨트 경계면 여기는 엄청 비싼 데, 여기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걸로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근데 짝소리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가보다 하고 수궁하고. 지금처럼 뭐 이의제기라는 것도 없어요. 이 구획 정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토지 지금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상하게 나가는 데 보면, 그 정부에서 지정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린벨트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여기도(신현동) 거의 그린벨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가 저기 됐죠.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잡아 뒀어요, 논도. 맞아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거의 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아마 이렇게 남아나지 않았나 싶어요.

(옛날에는) 아유 그때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되돌아가서, 그 이□□씨네도 가만 지금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그 양반이 지주였었다는 거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서 산도 쪽 있었는데 거기 밭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건 실경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은 거 같아요. 이 텃밭이니까. 텃밭인데도 엄청 컸거든?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많지 않았나. 아마 많았을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이 씨 집안네가 여기서는 사실 이제 여기 집안하고 이□□씨네 하고 주로 했는데 지주했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또 깨웠고. 그 집안 애들이 여기는 대부분 농사짓고 그러는 다 촌부들이었는데, 거기는 다 많이 배웠고 여기 또 아버지 형제 작은아버지 형제도 다른 사람들 보다, 상당히 동네에서는 머리가 좀 이렇게 일찍 깨어나셨다니

까, 그게 좀 많이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당제 지내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때는요. 아, 얼마 전까지도 김□□씨가 있을 때까지 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할 때 보면 말이죠. 팽가리 치고 하면서 동네를 막 돌아다녔어요. 그 큰 거 들고 팽가리 치면서, 복, 뭘 받는거 있잖아요 쌀 받고 돈받고 그러는거를,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쓰고 그랬더라는데. 그때는 제대로 했었어요. 저 양반 살아있을 때만 해도 제대로 했었어요. 저, 저 두 번째. 이게 그 양반이 또 설날 때인가 여기 도당재에서도 지금도 그걸 지내고.

(현재는) 우리 경로당에서 주관이 되어서 매년 5월 28일, 여기 (경로당) 창립기념일날 (회화나무 앞에서 당제를) 지내요. 그래서 옷도 다 하고 그랬는데. 그거 하면 축문하고 다 하는데 이제 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안 하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세 번째 전까지만 해도 다 제복하고 또 축문하고 정말 제사를 제대로 지냈어요. 올해도 우리 지내요. 지내긴 지내고. 도당재 저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또 당제 지내고 그랬죠. 그걸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원래 회화나무 앞에서도 지냈었나요?

(회화나무 앞에서는) 거기서는 안 지냈어요. 거기서는 그거는 여기서는 안 지냈어요. 도당재(산)에서 헌 걸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사실은 안 지냈어요. 근래에는 언제인가 문화재 되고 나서 했던가. 저기 개발해서 나 언제 시점은 모르겠는데. 글썄, 그게 그 회화나무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언제부터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산에서 지내는) 도당재 그거 없어지면서 여기서 했을 거

야. 여기서 그 동네 안녕이다 그래서 제사지낸 것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나도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회화나무 앞에서만 지내는 건 얼마 안 되었죠. 20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제가 듣기론 회화나무 가지가 길어서, 정비하기 전에는 가지가 바닥에 닿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잇길을 걸어갈 땐 나뭇가지를 치우면서 다녀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기관에서 보호한다고 돌로 쌓더라구. 그리고 나니까 나무가 더 안 좋아 지니까 치웠죠. 그게 한 거의 한 10년? 거의 10년 된 거 같아요. 보호한다고 그러면서 금고리를 채우기도 했어요. 수술(치료)을 해놓고 나무가 저렇게 좋아졌어요.

옛날 회화나무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비교해서 얘기해주세요.

비교하자면, 지금 많이 살았어요. 그때는 이게 문화재 되고 나서 영양제를 준다, 치료한다 그렇게 했죠. 저게 살아남은 게 용해. 그게 살아났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참 보기가 좋아. 옛날에도 모습은 그대로 있었어요. 있는데. 그게 막 죽고 그랬는데. 그땐 뭐 진짜 삭아서 없어지면 뭐 말고 그랬는데, 그게 뭐 뭘 갖다가 영양제를 갖다 꽃아주고 그랬더라구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이제, 저도 인천시 공무원 출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김□□씨가 경서동 아니에요. 경서동 그때 같이 인천시청에 있고 그랬을 때 거기 이게 문화재로 이렇게 하는 거를 김□□씨가 우리보다 좀 위. 이게 어쨌든 문화재가 되고 나서 되살아 난거예요. 재생한 거예요.

훨씬 낫죠. 관심들도 없었어요. 윤씨네 그냥 나무다. 그냥 바운더리 내에서 있었으니까. 요기로 쪽 올라가면 우리 집이 나왔거든요.

회화나무와 신현동 관련해서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그게 지금 각 지역에 가보면 문화재라고 하면, 그 답을 말이죠. 고 품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와를 요렇게 해가지고(올려서). 그 주변을 지금 펜스를 쳐놓긴 했지만, 기왕이면 문화재니까 그래도 거기다가 옛날식으로 토담식으로 이렇게 하는 특유의 그게 있죠? 그래서 아마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해서 (기와)지붕을 뺄 돌아가면서 담처럼 말이죠. 그걸(전통 토담으로 구획을) 해놓으면 이 문화재라는 것도 표시를 안 하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문화재라고 선뜻 와 닿지 않을까 싶네요.

신현동에서 평생 살아오셨는데 그간의 소회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옛날얘기도 참 우리 동네에서 추적을 해보면요, 16명이 돌아갔더라고요. 이번 일요일에도 나랑 동갑인데 사촌인데 돌아가가지고 깜짝 놀라고. 다 동창이죠. 자랄 때 있던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토박이 중에)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내가 대소사에 가서 보면 직장 생활하던 사람은 이게 보통 공무원들은 만이가 많아요. 경조사에 이렇게 가게 되면.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어요. 가면, 형이 제일 젊었어. 어떻게 된 게. 그리고 동생들은 그게, 못살았으니까 농사나 짓고 그러잖아요. 동생들이 일찍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늙어 보이고. 젊었을 때 농사짓는 게 좀 힘들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몸을 아끼면서. 그게 전부 그런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한 거 같아요. 정말. 농사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서 참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사는 거 같아요.

아까 이제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유교 문화가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거꾸로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건 한쪽에, 세상사는 게 양면성이라고. 이렇게 보면 거꾸로 돼 있지만, 이렇게 보면 바로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라는게 그렇게 바뀌어요. 한동안은 이렇게 됐다가, 이게 참. 순리라는 게 그렇게 변하더라구요. 내가 이 얘기는 배우진 못해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팔십 평생을 살다 보니,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순리는 이렇게 바뀐다. 역사, 역사라고 그러는데 순리대로 흐르는 것이 역사가 아닐까. 근데 지금 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거꾸로 되었다느니 망했다고 그러지만, 한쪽으로 보면 올바른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요.

- 후일담 -

윤학의 : 오늘 뭐 보탬이 됐는지 안됐는지 몰라도.

윤미란 : 아노 많이 보탬이 됐어요. 사실 기존에 자료 보고 그대로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 나오는 이야기들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많이 나왔어요.

이진섭(현 신현동 경로당 회장) :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까, 특히 타 지역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도 토박이들이 잘하니까 동화가 되서 분위기 같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하루에 10명은 훌쩍 넘게 오시고. 한 20여명 오신다고 보면되요. 요 근처만 봐도 경로당이 한 거의 30개 정도 되는데, 우리처럼 조용하고 화목한 데는 거의 없어요. (하하)

이윤희 : 당제 지내시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 하시니까요.

이진섭 : 그 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신 아닌 미신이랄까.



2) 청라도 도지사^{島知事}, 김종안

구술자	김종안(金鐘安) 1951년 인천시 청라도 출생 수도권매립지공사 퇴직
구술일자	2018.10.01.
구술장소	인천 서구 심곡동 중식당, 청라도
채록자	이윤희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안녕하세요,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올해 발간할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에 청라도 이야기를 담고자 찾아되었습니다. 청라도에 대해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청라도에서 나고 자라셨나요?

그렇죠. 네(한국전쟁 때 피난 내려오면서 배에서 출생). 거 우리 고향이 안동포예요. 우리 아버지 고향이지 뭐. 아버지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는 내가 들은 풍월에 의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어선,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장봉이라고 있어요. 저쪽 장봉도. 장봉도에서 배를 탔는데. 그 당시는 이제 저 배에 밥해주면 서부터 시작을 한 모양이에요. 거기서 배를 타가지고 고기 자리를 빼죠(잡으러 다녔죠). 그래서 고기 잡는 기술, 뭐 그 당시엔 먹고 살려니까 기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할아버지가, 아들만 둘 낳은 거야. 근데 한 사람은 저 공덕동, 옛날에 거기가 고양시예요. 공덕동.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갔고. 19살 때 가서 안 돌아온거야. 행방불명이 된거야. 근데 얘기 듣기로는 큰아버지가 이발사 그걸 했었대.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글방

선생을 했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도 글방 선생이 뭐 (큰 수입이) 있어 그쪽에 서. 하니까 아버지는 장봉도에서 뱃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장봉, 아니 저 강화 선두리. 우리 엄마를 거기 그 민며느 리마냥 이렇게 해서 청라도로 들어온거예요. 청라도로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장봉에는 고기가 흔했어요. 그래서 이 섬있고, 이 섬있고 해 서 이제 물을 나갔어요. 물 나가면 거기 고기가 딱 차는거야. 옛날이 니까 그랬지 지금은 없어. 그거 해가지고 배로 계속 연안부두에다가 호텔도 있고 그렇잖아요, 연안부두에. 그쪽으로도 하고 이래서 거기 서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경서동에도 땅도 좀 사고, 청 라도에도 그 당시에 땅도 사고 해서 인제 이렇게 우릴 가르친거죠.

매립되어 육지가 되기 전의 청라도의 자연환경이 궁금해요. 어린 시절 청라도 풍경은 어땠는지 말씀해주세요.

원래 바닷가 주변에는 배가 아주 많이 있어. 인근 섬에는 다 해당 하는 거였었다구. 그래서 유일하게 유인도가 인천시에는 세어도하고 청라도예요. 그런데 세어도는 뭐 행정구역이 원창동으로 지금도 돼 있다고. 지금 우리는 경서동으로 돼있고. 근데 위치상으로 보면은 세 어도가 경서동으로 되고 우리가 원창동으로 되어야 해. 위치로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거 뭐 그렇게 금방 바뀔 수가 없나 보더라고.

청라도가 섬이긴 하지만은 행정구역에 경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 나가면은 육지로 경서동을 걸어 다녔어요. 그 조금 때는 거기까지 물이 조금이라 하면, 조금하고 사리가 있잖아요, 바다에 는. 조금때는 물이 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반장화를 신고도 육지로 걸어 다녔다구요. 저 경서동으로, 그쪽으로. 걸어 다니고, 한 40분 걸려도. 청라도에서. 육지로 걸어가면은 물이 나오고, 40분 걸리고.

또 이제, 거기 유일한 교통수단이 배거든요. 물 때에 따라서 배가 다녀요. 하루에 한 번씩 전에는 노 젓는 배, 돛단배로 동력선이 없을 당시에는 돛단배로 무동력선으로 다녔는데. 그 이후에 발동선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물 때 따라서 새벽에 갈 때 있고. 또 뭐 점심때 갈 때 있고. 하루 시내 거긴 청라도에서는 ‘인천 간다’ 그래요. ‘인천 간다’ 그러면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또 들어와요. 물 때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다녔고.

우리는 예비군 훈련받을라 하면은, 통보를 미리 하잖아. 그러면 이제 물때가 새벽이면 새벽에 나가야 될 거 아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장으로 가는 거야. 그냥 맨손으로 가기는 뭐하니까, 바닷가 가가지고 승어, 예비군 저기 있으니까 승어 잡고 그러면은 내일 예비군이니까 새벽에 나오지만 승어 갖고 거기 갖고가는거야. 그리고 있다 점심 먹고 나면은 아 물때가 조금 있다 가야되는데 가야되겠습시다 그러면은 그냥 가. 그랬던 사람이 열 몇 명이야.

그래서 청라도 사람들이 섬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육지 되는 걸 굉장히 동경했고 그 당시엔. 뭐 육지화가 제일 목표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자랐죠. 우리는 항상 육지를 그리워했고. 그래서 청라도에서 보면은 밤에, 이쪽이 육지죠. 청라도에서 육지를 보면은 불빛이 보여요. 그런걸 보고 육지를 동경하고 그랬었죠.

청라 분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민재 선생님이나 청라 분교에 관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창영분교죠. 그 양반 아직 살아 계세요. 이민재 선생님 살아 계세요. 그 양반이 한 6대 정도 될 거예요. 1대는 일전(일제강점기)때도 천막 쳐놓고 있었다는 거 보니까.

이민재 선생님이 청라도에 부임하셨는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게 섬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형이 화수동에 살았었어요. 화수동에 사는데, 거기 가서 년 육지 가서 공부하지 여긴 배울 게 없다고 그래서, 4학년 때 오니까는 이민재 선생님이 소년학교(초등학교) 또 와서 내 4학년 담임을 하더라고. 그게 인연이, 그렇게 해서 이민재 선생님이 거기서 한 7, 8년 계셨드렸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7~8년 있었으면 제일 많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잘 모르고, 선생들.

초등학생 때 육지로 올라오시고서는 본가(청라도)와 인천을 왔다 갔다 하셨나요?

초등학교 다니고 방학 때만 왔다갔다 했죠. 그 이후에 19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돌아왔거든요. 거기에 부모님 유산이 있어서.

네, 다시 입도 하셨네요?

네, 어머니 혼자 계시고 그래서, 어머니 모시러 들어간거예요. 형제들 많긴 하지만, 글썄 거기서 들어가서. 그 이후서부터 스무살때부터는 왔다갔다 하고 또, 형이 또 저쪽 경서동에 살았고. 농사일 도 와주러 왔다갔다 하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 갯벌이나 바다에서 놀던 추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기억나는데, 그 어려서 거기 바닷가에서 놀 자리가 없잖아. 바다밖에 더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서해안이라 갯벌이 골이 시다고. 나도 몇 번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내다보이는 보리밭이 있었어. 거기서 이제 하면 “니들 바다에 나가지 말어” 그거 빠져 죽을까봐 그러는 거거든. 근데, 아니 그 보이는 게 바단데 놀 데가 어디 있어 또. 그러니까 어차피 몰래 노인네 몰래 가서 놀다가 오는거야. 그러면 여름에 그렇잖아요. 뽕히 표가 나. “너 어디 갔드랬어” “가긴 어디를 가요” 대가리에 뽕뽕 굵으면 소금이 나와요. 피부도 뽕뽕 굵으면 하얘져. “이 늙은 새끼!” 하면서 내치는 거야. 표가 나가거든.

그러니 수영은 아마 그래서 청라도가 여기 있으면 그 앞에 문점도라고. 문점도가 아파트 하는 거기일 거야. 거기를 수영치고 다녔다고. 망둥이 잡으러. 지금 수문있는 데. 거기가 망둥이가 들어오는 골목이거든. 청라도에. 거기 잘 잡혀. 들어오면 쌍거리로 잡는거야.

전에는 문점개라고 그래요. 청라도 하고 문점도 바로 앞에 인데. 거기 경서동 사람들도 우리 사람들도 사두리라고 그래요 사두리. 이렇게 딱 V자로 해가지고 물 들어올 때 딱 치면은, 거기 망둥어, 게, 숭어 들어오는 건 다 잡히고 가끔 이렇게 하는거야. 떠가지고.

그거 요령이 있어 그것도. 그게 이제 사두리인데. 그거 인제 물 나가면은 위에서 물이 팔팔팔팔 거기 이제 흘러. 냇물마냥. 그래서 여름에 맨발로 가면 게 있잖아 그 꽃게 새끼가. 그 새끼가 등이 뼈죽하잖아. 그거에 찔려가지고 못 다녔었어. 그렇게 많았어. 바짝바짝 했는데 뭐. 옛날이지.

청라도에 당제를 지내던 나무가 있었다는데, 기억에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당제를 드렸는데 돌아가면서 했어요. 임현□씨, 이덕□씨,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다고, 당제를.

옛날 내 기억이 나는 게, 선달 그믐날은 보름제라고 해가지고 저기 배가 많았드랬어요. 무슨 배가 많았냐면 옛날에 그 지금 큰 무역

선이 석탄을 수입할 때예요. 그럼 주문천에 바다에 정박하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배가, 하시끼라는 배야. 일본. 하시끼. 멩텅구리라 그래 지금. 그 당시 멩텅구리 같은 배가 호수로 해서 무연탄을 그 배에다가 2차 하역을 잡아가지고 설탕으로 하역하는. 그거 때문에 배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구정 보름이면은 이제 그, 그거지. 배꼬세라 그러지. 시루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시루떡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랑 나눠 먹는 거예요. 뭐라도 생기잖아요. 밥해다 먹고, 막 걸리도 먹고. 그러면서 그제 일중에 말하자면 풍어제지. 뭐. 풍어제. 그래서 그때도 했고.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은 없으시죠?

우리는 기억 못 하죠. 근데 우리 지금 미국에 가서 사시는 형이 있는데 지금 뭐 거의 여든이 돼가죠. 저희 형이 어려서 피난시절이니 까는, 그 양반이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 때에 거기는 뭐 어떤이나 그런 걸 채취해서 생활했거든요. 농사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항상 바다에 나가서 조개도 줍고 굴도 캐고 그렇게 하다 그때 전쟁이 난 거야. 근데 처음에는 뭔가 했었대. 마른 번개인가 그랬다는거야.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전쟁이었고 그게 우리 개인적인 우리 집안일이지만 큰 형이 그 당시에 저 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해서 갔다구요. 그래서 4차 회담 때 만났는데. 남한 가족하고 그 형이 그쪽에선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내려 온 거예요. 그래서 영길리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던 그런 얘기, 미국에서 글로 온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내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 뭐 얘기를 듣고서 대충 편 집을 해서 그 당시의 실정을 좋게 표현해주세요.

청라도를 마지막으로 떠나오실 때 상황을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청라도가 이제 그 당시에 동아건설이 쓰레기 매립지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동아건설이 일단 망했잖아요. 망하고, 이명수한테, 시청에 가서 이명수 상대로 또 니가, 이명수도 그거야. 내가 성공하면 준다 그랬지 나도 망하게 생겼는데 뭘 주냐 이거야. 모가지 떼라는 거야. 그러니 또 정부 상대로 한거지. 그러면은 1차 계승자가 못했으면 2차 계승자가 동아가 됐든 정부가 됐든 해줘야 될 거야냐. 그래야 진행이 되는데, 노태우 때 그 군사정권하고 다 해먹고 뭐 줄게 있어, 안주는 거야. 청라도가 그렇게 하다가 동아건설이 이제 망하고 정부에서 단지 계획을 세워서 저쪽에 매립지, 이쪽은 토지 공사에서 하는 진행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다 쫓겨 나온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땅 조금 있는 사람들은 청라도에 보상 받아가지고 택지 분양을 받아가지고 집짓고 사는 사람이 한 50곳 집에 10집? 청라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연결고리가, 그게 보상을 해준다 그랬는데 보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콩, 밭, 조개 채취 해먹던 사람이 그 보상 몇 푼에 전세금 받아 나와가지고 시내에서 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변두리로 가는거야. 변두리가 개발되면 또 같은 이유로 가는 거지.

그게 60년대 후반, 70년대 정도인가요?

[인천시 서구 경서동 동아매립지 관련 보도자료 전해주며] 그렇죠. 매립 사업이 64년도에 시장, 동아건설이 70 몇 년 도에 해서 80년도에 뭐 거기 자료 보면 쭉 나와 있을거예요.

그래 그게 내가 아까 자료 드렸잖아요. 그 양반이 이명수라는 사람이 영등포에 재력가예요. 그 양반이 김옥창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서 순사로 활동을 하다가 거기다가 양식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둘이 의기투합해서 독을 쌓아가지고 양식업을 하려고 이런 허가를 한 거예요. 하다보니까 이명수하고 김옥창이라는 두 분이 양해각서가 있겠죠. 계약서. 계약서 따라서 지분율이 정해질 거 아니예요. 이명수는 돈을 냈고, 김옥창은 기술. 거기서 합작을 해다가 이제 기술 보전은 그 막아야 기술이라 하고, 이명수가 그 위에 있었어요.

이명수가 재력으로만 한 게 아니고 부인 힘을 얻어 가지고 미군 장비들, 그 당시에는 전쟁이 끝난 이후니까 미군 장비들을 한국에 나와있는 미국 고관들을 섭외해가지고 미군 장비들로 막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양반이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뭐 돈을 준 게 아니고 밀가루를 줬다구요. 밀가루를 쥐가지고 전시에 난민들을 위해서 이거 먹고 일해라. 이래서 독 모아 가지고 자립해서 잘 먹고 살아라. 거기서 뭐 위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었어요. 전시에 내려오다가 섬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거길 기반 삼아서 쪽 살다가 이명수란 분이 사업목적 갖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2차 동아 건설에서 그걸 바깥에다 막아가지고 하니깐 이사람은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 이명수하고는 청라도 섬에 잘 살아보자고 석화 양식장이라고 있어요. 둘을 30, 40m 해가지고 돌덩어리를 바다에다가 쪽 나열해놔요. 그러면 거기 굴이 붙어요. 그럼 굴 채취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던 것을, 우리가 육지화되면, 땅 막으면 몇천 평씩 주마. 해가지고 그게 3000평씩 주마 그렇게 된 거야.

육지도 동경했고 땅 3000평도 준다니까 얼씨구나 한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동아건설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는 동아건설하고 이제 소송이 된거 아니예요. 소송이 되가지고 김옥창이하고 이명수하고 합작이 되가지고 동아 상대로 그렇게 한거야. 그러니까는 이명수한테 우리는 당신이 계약서 준대로 우린 한 거니까, 우리는 동아

상대로 뭐 할 그제 없다. 당신이 이겨가지고 우리한테 다오. 이렇게 된거야. 그러니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들 먹고 살려고.

그 당시 사업을 할려고 청라도를 그 사람이 다 샀어요. 청라도 그 앞에 문점도 있고 거기를 다 사가지고 매립을 했었어. 미군 장비들 거기다가. 매립은 그 부분만 하고 청라도는 원래 싸게 샀으니까는 원래 청라도 자체가 운현궁이라고 있죠? 그 왕권 시절에 서울에 있는 운현궁. 그 소유의 땅이었어요. 세어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그 궁에 가가지고 2원에 샀다 그랬던거 같애 옛날에. 청라도 전체를. 그렇게 사가지고 아들들한테 다 분배하고 지금 이제 아까 학교 얘기했잖아요. 달튼 학교도 그 땅하고 바꾼거야. 그 이명수가 그 재단이에요. 원래 이봉덕이라고 이명수 부인의 재단인데. 그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청라도를 개인적으로 자기네 땅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골짜기 막아가지고 농경지, 밭 만든거 뭐 그런거 밖에 없었지.

그 당시 청라도 떠나오실 때 심경을 말씀해주세요.

아이 그런데, 거기서는 외부 청라도 사람끼리는 그 당시에는 싸움을 해도 맨날 불 사람들이니까 그거 했는데, 그 공사판 떠돌이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맨날 불협화음이야. 맨날 싸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협동이 안 되는 거야. 보상 때문에 정부 축하고 토지공사하고의 협상을 해야 할 거 아냐. 그러면, 땅 있는 사람들하고 외부에서 전세세입자, 주변에서 와서 개 기르는 사람들, 농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맘이 안 맞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땅이라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자기 고유를 위해서 투쟁하지 우리를 위해 안 한다. 그리고 땅이라는게, 보상이라는게 무슨 근거 없이 보상을 허지 거기 살

왔다고 무조건 줘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 대체 자원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어. 그래서 야 그러면, 니들은 니들 권리 주장하고 우리는 우리 권리를 주장하자. 해서 양분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 고향 버리고, 우리는 거기가 고향이니까 고향 버리고 오는 그 심정이야. 그때 데모의 이슈가 이제 그거예요 우리는. 나는 뭐 보상도 필요 없다. 고향 지키고 고향 땅에서 살고 싶은데 니들이 왜 그러냐. 근데 이게 그제 이제 얘기할 거리거든요.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흠어질 수밖에.

그래서 그러니까는 빠이빠이 하고 빨리 가는게. 욕지 되는 것도 그리워했고 뭐 이제 거기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욕지가 되었어도 자가용 없이는 힘들었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후회없이 미련없이 훌훌 털고. 여기 뭐 그래서 고향이, 행정구역이 경서동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거기가면 이제 친구들도 있고 또 고향이라는 의미, 경서동이라는 의미, 주변이니까. 거기서 차로 5분,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가 고향이라고 봐요.

떠나오시고 나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많이 바뀌었지. 그게 뭐 이제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지. 지금 바뀌었으니까는. 옛날에 거기서 살라고 하면 답답해서…. 거기서 무얼 해.

그럼 부모님이랑 가족들 다 모시고 나오신 거죠?

예,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셔서, 나는 형 밑에서 컸어요. 형이 가는 데로 따라다녔고.

근데 우리는 고향이 보이잖아. 그리고 가깝아요 가끔. 집은 없어
졌어도 그 터는 있으니까. 그게 위안이 되는 거야. 그 이북이나 수몰
민 같으면 얼마나, 물속에 있는데 고향이. 이북에 있는데 고향이. 얼
마나 가슴 저리겠어요.

그래서 사진, 청라도에 자료가 그 사진은 내가 그 후배들한테 이
렇게 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줬고, 그 이후에는 옛날얘기 해봐야 잔
소리한다 그러고. 요즘 애들은.

의식주라던가 당시 섬 생활 이야기 들려주세요.

어촌에서는 이제, 거기 생활이야 그게. 바지락때되면 주기가 있어
요. 바지락때면 가을인가 그럴거야. 그럼 그걸 다 판매를 못 하니까
그걸 까. 그럼 젓을 담가가지고 이듬해 하면은 좋은 가격으로….

그럼 집안일도 도우시는 거네요?

응. 굴젓도 그렇고. 망둥이를 지금은 전에 겨울에 먹는 게 반찬이
망둥이 말렸다가 겨울에 먹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반찬인데. 지금
은 그게 얼마나 비싼지 그게. 옛날 맛 그 잊지 않으려고 지금은 비
싸.

약간 물에다가 담가요. 북어라고 보면 돼. 북어처럼 된 걸 물에다
가 약간 불렸다가. 제일 흔한 게 밥할 때 거기 그릇에다가 넣어서 그
안에다 넣고 찌는 거야.

옛날엔 가마솥에다 그랬어.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이 양재기에다가 반찬 할 것도 그 안에서 넣고서 어느 정도 밥 되
면 열고서 갖다 놓으면 그게 익어. 계란도 넣고. 계란찜도 하고.

육지화되고 나서도 청라도가 있던 흔적을 알아보시겠어요?

흔적은 조금 있어요. 다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공원이야 공원. 그래서 청라도 바로 위로 지나가지고 직진 도로가 거기서 4차선인지 2차선인지 쪽 났는데 뭐.

여기 보면, 옛말로 배뿌리라고 있어요. 선착장도 있고 그랬는데 그 자리가 높았어. 가면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고 그랬거든 절벽이라. 지금은 조그만 언덕이야. 언덕이 돼버렸어. 다 메꿔가지고. 아유 참.

거기, 거기는 옛날에 그 섬에는 들고나는 데 무슨 성황당이라고 있잖아. 지금 아직 그거 있어 큰 나무가. 뱃터에서 좀 들어오면은 그거 엄나무(음나무)야. 그거 한 300년(약 200년)은 됐다 그러지.

당제는 그 위에 인데. 그 동영상 틀어보면은 큰 나무. 상수리 나무인지 참나무야. 그리고 옆에 소나무. 고목이 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죽더라고. 고사됐어. 근데 그 뿌리, 소나무 뿌리가 아주 저 우리가 나무를 하러 가끔 올라가잖아. 소나무를 해 가지고 오래됐으니까는 소나무 뿌리가 거꾸로 튀어나오면 멋있더라구.

(소각장 뒤쪽으로) 일도 거긴 일도야. 옛날에 배 왔다갔다하던 바로 길목이지 뭐. 그 지금 군부대 있고 소각장 내려가는 그 바로 모퉁이가 양지 발러. 양지 발라가지고 어릴 적에 애들하고 칩뿌리가 양지 바른 데에 겨울에, 이른 봄에 보면은 배고프면 그거 캐먹으러 가는 거야. 근데 양지바르고 그러니까. 빨리 녹기도 하고 거 알겠어. 웬만 큼 하면 그냥 끊어지고 그랬지 뭐. 거기로 칩뿌리 캐러 다녔다고.

청라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노래가 떠올라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거. 여기 지척이니까. 우리 집 옥상에서 보면 바로 보이고. 그러니까 뭐 고향이라

는.... 지금 사는 데도 고향이니까. 특별히 크게 느끼는 건 없어요.

옛날 사시던 집이 생각나시겠어요.

난 그런 생각은 안 나고 가끔 여기 뒤로 가. 가면은 여기 누구네 집, 여기 누구네 집 하면서 보면 알지. 나무가 아직 뒤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쪽 나와.

나중에 여자 어른들도 모셔서 부엌살림이나 생활 모습 여쭙고 싶네요.

부인도 거기 사람인데. 우리 처갓집이 배 타고 들어오면 첫 집이 예요. 첫 집이든, 이북에서 피난 내려 와 가지고, 6·25 때 피난 내려 와 가지고 거기 이제 조금 며칠 있다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꼬방 짓고서 이렇게 한 거야. 거기 대다수가, 반 이상이 난민들이라고 보면 돼. 반 이상이 원래 고향이 이북인거지. 6·25 때 잠시 머물렀다 돌아갈려다가, 못가니까 정착한거지.

근데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죽고 몰라. 몰라 요즘 애들은.

서구에 사시는 분들도 청라가 원래 섬이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하 그렇지. 그 난, 이 친구가 가끔 나보고 도지사, 도지사 거리는데 그 거 강원도 도지사 시키면 하고, 이 섬 도지사 시키면 안한다고. 하하

이번 취재 타이틀이 나왔는데요? 청라도 도지사님과의 인터뷰.

도지사는 많아요. 거 도지사는, 청라도에서 살다 나온 사람들 다 도지사라고 그래. 하하.



| 인터뷰 모습



| 청라도 음나무



| 배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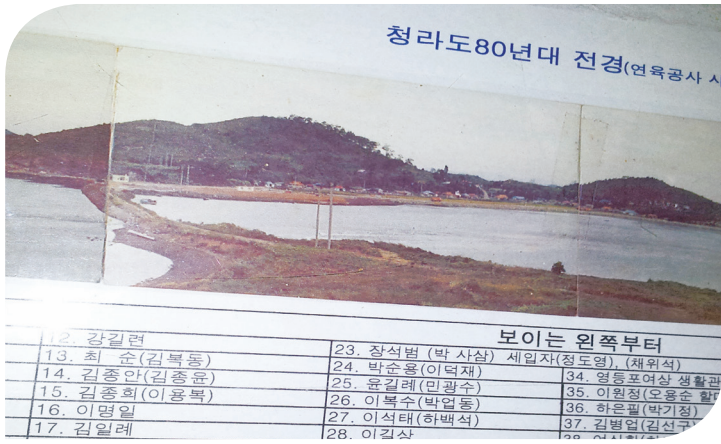


| 재빼기



| 옛 청라도를 기억하며





| 1980년대 청라도 전경



| 1980년대 청라도 마을



| 이주 전 청라도 마을회관



| 옛 청라도 김종안님 자택

Epilogue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2
남서곶

에필로그

지리의 포로

인천을 대표하는 원로 가운데 한 분으로 최근까지 서구문화원 이사로도 활동했던 심재갑 선생의 고향은 가좌동이다. 뿌리 깊은 그의 세거지다. 그런데 그는 부평동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서곶면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서도 부평으로 학교를 다닌 것이다. 당시 석남초등학교는 아직 개교하기 전이라 논외로 하더라도,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 후반의 ‘1면(面) 1교(敎)’ 정책에 따라 설립된 서곶초등학교가 면사무소 소재지였던 연희동에 어엿이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서곶면의 자연부락들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치우쳐 있던 가좌동의 학령기 소년들은 “그 학교까지의 거리가 한 십오 리 정도, 이십 리까지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도 가고, 주안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부평으로도 갔어요”라고 한 인터뷰에서 심재갑 선생은 회고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도 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가좌동 청송심씨 고택에서 부평구보건소 뒤편에 있는 그 학교까지 직선거리로 4·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주안도 비슷한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평이나 주안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 것이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는 서곶초등학교 다니는 것에 비해 절반 거리에 불과했다. 물론 가좌동에서 부평으로 가려면 험준한 ‘장고개’라는 산을 넘어야 했고, 주안으로 가려면 갯골의 ‘번지기나루’(일명 ‘보도진’)라는 물을 건너야 했지만, 막상 면소재지인 연희동에 가려고 해도 신작로 자갈길을 따라 가정동까지 먼 길을 걸어가서 또 굽이굽이 ‘싱아고개’를 넘어 심곡동을 지나야 했으니 어렵긴 매한가지였을 것이다. 어린 시절 심재갑

선생의 통학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근현대 남서곶의 정체성, 지역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 그리고 인문지리적 특성까지 엿볼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 출신인 팀 마샬은 그의 저서 『지리의 포로들(Prisoners of Geography)』에서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한 나라의 역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천착하면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전쟁, 권력, 정치는 물론이고 오늘날 거의 모든 지역에 사는 인간이 거둔 사회적 발전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물론 현대의 기술이 정신적, 물리적 거리를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게 있다. 지구라는 행성의 70억 인구에게 주어진 선택들은 늘 우리를 제약하는 강과 산, 사막과 호수, 그리고 바다에 의해 어느 정도는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자녀를 길러내는 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양의 풍수지리 사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중국과 일본 등 한자문화권에서는 수천 년 동안 간룡법과 장풍법이 나라의 도읍을 정하거나 개인의 주택지나 묘 자리를 정하는 요체가 되기도 했다.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와 길흉화복이 기후와 풍토를 의미하는 풍(風)과 물과 관계된 모든 것을 뜻하는 수(水)로 대표되는 지리적 환경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삶은 ‘지리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남서곶은 한 세기 전, 북서곶인 ‘모월곶면’과 통합되어 ‘서곶면’을 구성하기 전에는 ‘석곶면’이라는 명칭을 가진 어엿한 독립 행정구역이었다. ‘석곶’은 신현동 해안마을의 옛 이름인 ‘돌곶이’의 이두식 한자어다. 주지하듯이, 이두(吏讀)는 신라 때부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던 차자(借字)표기법이다.

하와이 진주만 공습 이후 태평양전쟁이 확대되면서 미드웨이해전과 남양군도 혈투에서부터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미군에 밀리던

일제 대본영은 전황이 더욱 불리해지자 일본열도는 물론, 한반도의 여러 대도시에서 최후의 시가전까지 준비하며 전투에 방해가 되는 부녀자와 어린이들은 시골로 이주시키는 대규모의 강제 ‘소개령’을 내렸다. 그로 인해 소년 심재갑은 서곶초등학교에도 다녔고 저 멀리 검단초등학교에도 다녔다. 교육열이 강했던 그의 부친이 그를 서곶초등학교 인근으로 소개(疏開)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한 두어 달 서곶국민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또 전쟁이 악화될 것 같아서 김포에 검단초등학교, 거기 가서 한 달도 안 있어가지고 해방을 거기서 맞았거든요.’라고 회상했다. 그의 선친인 심운섭은 인천의 신교육기관으로 1907년 설립된 인천공립보통학교(창영초등학교 전신)를 졸업하고 서구지역 최초로 중학교 과정인 인천상업학교를 졸업한 분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지역 유지들과 뜻을 모아 ‘가좌동강습소’를 열었는데, 그 강습소가 훗날 석남초등학교의 모태가 된다.

부익부 빈익빈 ❶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1899년 경인철도가 부설되기 전까지 거의 1천 년간 인천을 포함, 경인지역의 중심지는 지금의 계산동인 부평이었다. 천안에서 수원, 시흥을 거쳐 김포, 파주 개성으로 이어지는 지역 교통의 허브이자 최고의 변화가이기도 했다. 철도 개통 이후에도 수십 년간 시내 중심지인 계산동과 한적한 외곽인 부평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되었다. 지금도 계산삼거리 근처에 있는 부평초등학교 교정에는 부평도호부 청사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으며, 경인교대 인근에는 옛 교육기관이었던 부평향교가 인천의 진산이라는 계양산을 아늑하게 등지고 우뚝 서 있다. 저녁노을이

내려앉은 부평향교의 그 서슬 푸른 솟을 대문과 이끼 낀 기왓장은
강직했던 조선시대 선비의 기품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다.

부평군 모월곶면이던 북서곶 지역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부평읍내
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농업경제적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부익부 빈익빈’의 기제에 따라 북서곶 지역 자작농
들이 소유하던 많은 전답은 점차 박주사(박용재) 집안 같은 부평의
대지주들 소유로 넘어가고 빈농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기 시작했
다. 사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해방 전까지 70퍼센트 이상의 서곶
지역 농민들은 소작농이었다. 대지주들은 동리별 마름을 임명하여
소작농들을 관리하고 가을걷이가 끝나면 소출을 거두어갔다.

그런데 북서곶의 대지주들이 전통적인 전업 지주층이었다면, 남
서곶의 큰 지주들은 대부분 인천부의 상업자본가나 권력가들이었
다. 남서곶 지역은 시나브로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의 새로운 시장
질서에서 치부를 한 인천의 신흥 부자들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은 것
이다. 제2공화국 시절 내각 수반이었던 장면 박사의 인동장씨 집안
도 그 중 하나다. 평안북도 출신인 장면의 부친 장기빈은 대한제국
세무 관료로 발탁되어 탁지부에서 근무하다가 개항과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서울의 관문이라던 인천세관으로 발령을 받아
치부를 했다.

장면 집안 뿐 아니라 역사의 전환기에 새로운 사업기회와 일자리
를 찾아 서울의 관문이었던 인천으로 몰려든 수많은 군상들 가운데
치열한 생존경쟁을 뚫고 성공한 사업가들은 인천을 새로운 세거지
로 삼으면서 선산의 확보와 안정된 식량 보급처로 갯골 너머 남서곶
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당시 인천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변두리 시골
은 개건너인 남서곶이었다. 서곶을 사랑하여 평생 ‘석남’을 아호로
사용하기도 했던, 인천시립박물관 초대관장을 지낸 미술평론가 이
경성 선생도 화수동에서 태어나 용동에서 성장했지만, 그의 집안 선

산은 석남동에 있었다. 해방직후 중국에서 빈털터리로 귀환하여 배다리시장에서 ‘승리비누’와 ‘신흥철강’이라는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며 5, 60년대를 풍미했던 내 외종조부(이기주)도 가좌동, 석남동 일대에 수많은 전답을 소유했던 이른바 부재지주였다.

부익부 빈익빈 ②

문화인류학자들에 따르면, 농업혁명이 시작되었던 7천 년 전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부의 불평등은 존재했고 또 대물림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당시 유럽의 농경사회에서 ‘가진 자’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대대손손 물려줌으로써 불평등이 대물림되기 시작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중부 유럽 지역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 유골 300여 구를 분석해 나무를 깎거나 다듬는 연장인 ‘자귀’와 함께 매장된 농부들과 그렇지 않은 농부들에게서 불평등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출신 지역을 밝혀주는 치아 속 스트론튬 동위원소 분석 결과 돌자귀와 함께 묻힌 농부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해 동위원소의 다양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귀를 가진 사람들이 가까운 토지에서 자란 농작물을 먹고 산 반면 자귀가 없는 사람들은 먼 곳까지 다니며 농사를 짓거나 수렵채집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연구진은 “자귀를 가진 사람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뿐 아니라 초기 농민들이 선호했던 비옥한 황토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이들은 이런 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두락’이라는 면적 단위가 있다. 한 말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의 크기를 말하는데, 우리말 ‘마지기’의 이두식 한자어다. 그런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토지면적은 일정한 게 아니라, 평지와 산지, 토지

의 비옥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대개 논은 150내지 200평, 밭은 150내지 300평을 의미했는데, 지역에 따라 달랐다. 서곶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논과 밭 1마지기는 150평이었다.

전통적 농경사회였던 서곶에서도 문전옥답에 대한 선호와 집착은 매우 강했다. 풍수지리의 영향으로 자연부락들은 대체로 배산임수를 특징으로 하는데, 그 이상적 지형은 마을뿐 아니라 농경지에도 해당되었다. 따라서 마을 인근의 농경지에 대한 선호는 땅값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마을에서 가깝고 극심한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쌀의 소출을 기약할 수 있는 이른바 ‘골답’과 그렇지 않은 ‘건답’의 땅값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서곶의 기득층들은 주로 골답을 소유하고 그 좋은 땅을 주로 장자에게 대물림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기슭을 개간하여 만든 건답은 대체로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건답이었다. 건답은 가뭄이라도 들면 수확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중농 이상의 농가들은 전체 소유 농지면적은 비슷해도 농지의 질에 따라 수확량이 달랐다. 문전옥답을 소유한 전통적 대농과 변두리 산기슭 건답을 가진 중농들은 해마다 기후에 따라 수확의 차이가 컸다.

그런데 그 경제적 차이가 오늘날까지 유의미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1972년 전격적으로 시행된 이른바 개발제한구역 때문이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서곶 지역에서도 그린벨트는 주거지와 그 인근 지역은 피하고 설정되는 게 보통이었다. 결과적으로 문전옥답들은 그린벨트에 걸리지 않아 추후 서곶지역이 도시화되어 시가지로 개발되면서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로소득을 얻은 반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기슭에 조성된 농지인 건답들은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이면서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재산형성이 어려워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례가 많다.

농지개혁과 전쟁, 봉건적 신분질서의 붕괴

고즈넉한 농경사회였던 서굿 지역에도 모두 세 차례의 큰 사회경제적 변화가 찾아왔다. 첫 번째 변화의 물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전격 시행된 농지개혁이었다. 6·25전쟁으로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되었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개혁이자 무혈혁명이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원칙이었던 북한과 달리 정부의 ‘유상수용 유상분배’의 결과로 서굿에서도 90퍼센트 이상의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었다. 대를 이어 가난의 질곡에서 고통받던 소작농들에게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강화 출신의 사회주의자로 초대 농림부장관에 발탁된 죽산 조봉암을 앞장세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상한선을 3정보(9천평)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나라에서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강제로 수용하는 혁명적 결정을 내렸다.

소작농들은 ‘병작반수제’(소작인이 땅 주인과 수확물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로 경작하던 지주의 땅에서 나는 소출의 150퍼센트, 즉 3년분 소작료만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그 땅을 소유하여 지주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소작농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희소식이었다. 특히 자식을 많이 낳아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여 남의 땅을 많이 부치던 소작농들이 최고 수혜자가 된 반면, 농사지를 노동력이 부족했던 지주 집안들은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 그 개혁의 결과로 지주와 소작농이라는 봉건적 신분질서도 함께 무너졌다.

1만 년 전 인류가 수렵채집생활을 포기하고 이른바 정주형 농경목축생활을 시작한 이래, 농업생산성은 사실상 가족 구성원들의 근력과 가족의 활용에 좌우되었다. 과거 서굿지역에서는 일상의 삶에서 ‘삼부자’라는 어휘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

내렸다. 삼부자란 문자 그대로 가족내에서 아버지와 장성한 아들 둘을 말한다. 젊은 남녀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꾸려 아들을 낳고 키워 그 조합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논농사에 필수적인 ‘가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적으로 증대되었다. 가래는 큰 삽처럼 생긴 가랫날에 양쪽 귀통이를 새끼끈으로 묶어서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한 사람은 가래손잡이를 붙들고 힘과 방향을 조절하는 농기구다. 가래를 사용하면 흙을 떠서 멀리 보낼 수 있고, 흙을 파 올리는 힘든 일도 쉽게 할 수 있다.

농가에서 소를 보유하고 있느냐 여부도 아주 중요했다. 소를 갖고 있으면 다목적 운송수단이었던 우마차를 끌 수 있는 것은 물론, 논과 밭에 ‘쟁기질’과 모내기 직전의 ‘씨래질’까지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자어로 건(件)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사람 인(人) 변에 소 우(牛)자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과 소가 결합하여 비로소 ‘일을 구분하는 한 단위’가 된다는 개념어인데, 매우 절묘하다. 농가에서 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경운기나 포크레인, 트랙터같은 중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근현대 서곶사회에서 농지개혁 전후부터 6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를 통틀어 농사만 지으면서도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격변은 6·25전쟁이었다. 전쟁은 농지개혁과 함께 지주계층의 몰락을 가속화하였다. 해방정국에서 좌우익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던 서곶의 많은 젊은이들이 진퇴가 반복되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간의 국제전으로 확대, 3년이나 지속되었던 6·25전쟁의 와중에서 전사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서곶지역에서도 자의반 타의반 월북한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난해서 못 배운 계층이 아니라 대부분 가방끈 긴 지주 집안 출신들이었다. 월북자의 가족들은 이후 연좌제같은 족쇄에 걸려 피폐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많은 전답도 해방 후 일본인들이 살던 적산가옥들처럼 헐값에 타인의 소유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한 가정의 출신으로 공부부를 아주 잘했던 수재들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는 꿈은 접어야 했다. ROTC 장교로 임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보안부대를 통한 신원조회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격변은 70년대 초반의 그린벨트 설정이었다.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1971년경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에 걸쳐 도시 주변 지역에 띠처럼 설정된 그린벨트에 남서곶도 예외는 아니었다. 졸지에 자기 땅이 그린벨트로 설정된 주민들은 망연자실,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큰 고통을 받았다. 그린벨트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개건너와 산너머

지금은 거의 들을 수 없는 옛말이 되었지만,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6, 70년대 인천 사람들은 원도심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가좌동을 비롯한 남서곶 지역을 보통 ‘개건너’라고 했다. 나중에는 남서곶 뿐 아니라 서곶지역 전체를 마치 고유명사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불렀다. 그런데 나는 그 명칭이 그렇게 싫을 수 없었다. 졸지에 내 고향이 변방, 주변부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시골이라고 업신여기고 얕잡아본다는 느낌 때문에 더욱 싫었는지도 모른다. 한 번은 친한 급우와 쉬는 시간에 그 일로 교실에서 주먹다짐까지 했다.

인천 도심에서 볼 때 갯골 건너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개 건너’라는 명칭은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서곶 쪽에서 인천 도심을 바라볼 때는 인천도 ‘개 건너’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방적으

로 ‘개 건너’라고 부르지 말라. 사실 너도 인천이라는 ‘개 건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말꼬리를 잡고 감정이 격해져서 싸움이 된 것 같다. 물론 그 친구와는 지금도 자주 만나며 가깝게 지낸다.(신현동 출신으로 일찍이 인천 시내 중고등학교에 주로 걸어서 통학했던 윤학의 선생에 따르면, 1950년대에도 ‘개건너’라는 명칭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한편, 부평읍내(계산동)와 뒀밭(작전동), 까치말(작전동), 갈월리(갈산동), 새별이(효성동)는 물론 도두머리(서운동), 굴재(굴현동), 동면(박촌동) 토박이들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부평의 변방인 서곶 지역을 ‘산너머 서곶’ 또는 그냥 간편하게 ‘산너머’라고 불렀다. 한남정맥의 험준한 계양산과 철마산 줄기 너머 서쪽에 있는 곳, 고장, 장소라는 의미다.

일제강점기가 종식되고 해방이 되자, 이 지역은 ‘서곶’이라는 한글 명칭으로 통칭되기 시작했다. ‘서곶초등학교’ 등 학교 이름은 물론 ‘서곶출장소’, ‘서곶지서’ 같은 행정기관의 명칭과 함께 ‘서곶로’와 같이 도로명예까지도 ‘서곶’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며 자리를 잡았다. 주민들도 오랫동안 그 명칭에 익숙해졌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서곶’으로 지역 명칭의 표기가 변경되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아예 ‘서곶’으로 굳어졌다. 지명 변경이나 개칭에 대하여 주민공청회 같은 일련의 합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흔적도 없다. 이른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일각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이다.

어제까지의 세계

엣그제 한 방송의 여행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의 외진 마을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된 인간의 두개골들이 마

을 한가운데 보관되어 있는 장면을 방영했다. 그 두개골들의 주인은 멋모르고, 실수로 그 마을에 밭을 디뎠다가 비명횡사한 사람들이었다. 과거 그 마을에서는 낫선 이들이 마을 영역으로 들어오면 가차 없이 큰 칼로 목을 베었다는 얘기를 족장은 서슴없이 했다.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어제까지의 세계(The World Until Yesterday)』에서 비단 그가 연구하던 파푸아 뉴기니 뿐 아니라, 인류의 전통사회 대부분이 자신들의 영역을 배타적으로 관리했으며, 낫선 이들이 자신들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일단 적으로 간주하여 그 마을과의 연고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참히 살해했다고 서술한다.¹⁾

50여 년 전,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한창 호기심 많던 초등학교 친구들 예닐곱 명과 말로만 듣던 석남국민학교에 놀러 갔다가 그 동네의 또래 아이들에게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다. 당시 그 학교 핸드볼(송구)팀이 유명해서 구경이나 하려고 갔다가 운동장 철봉대에 매달려 서로 장난을 치며 놀았던 것뿐이었는데, 낫선 아이들이 운동장을 마구 휘젓고 다닌다는 얘기가 삼시간에 퍼지면서 교문 밖으로 그쪽 아이들 숫자가 위협적으로 늘어나 있었다. 아이들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고 불청객들의 자기들 영역 침범에 매우 분개해 있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북서쪽에서 그냥 놀러 왔을 뿐이라는 우리들의 해명에도 귀를 기울이는 눈치가 아니었다. 무척 난감했다.

다행히 어디선가 그 장면을 지켜보던 동네 청년들이 나타나 중재를 하면서 그 적대적 대치는 어렵지 않게 종결되었다. 청년들은 석

1) 자유로운 왕래에 대한 제약들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회의 구성원들은 상대를 ‘친구·적·이방인’이란 세 부류로 구분한다. ‘친구’는 일차적으로 자신이 속한 무리나 마을의 구성원이며, 자신의 무리와 현재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이웃 무리와 마을의 구성원도 친구이다. ‘적’은 자신의 무리와 현재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웃 무리와 마을의 구성원이다. ‘이방인’은 멀리 떨어져서 자신이 속한 무리와 거의 접촉이 없는 무리에 속한 미지의 사람을 가리킨다.

남국민학교가 개교하기 전, 서곶국민학교를 다닌 선배들이었다. ‘어디서 왔느냐, 그 동네 누구 아느냐?’ 정도의 대화로 연고 확인은 아주 쉽고도 충분하게 끝났다. 그 청년들은 우리가 서곶이라는 한 울타리에 속한 친구들이라는 증언을 하며 같은 편이므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타이르기까지 했다. 불과 반세기전까지만 하더라도 서곶은 분명 보르네오섬이나 파푸아 뉴기니와 크게 다른 것이 없는 인류의 전통 사회 가운데 하나였다.

남서곶의 도시화

지리적 이동과 사회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근현대인의 삶은 타향살이다. 어쩌면 도시의 삶 자체가 이미 타향살이인지도 모른다. 고향은 이제 각자 기억의 심연에서나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띠처럼 이어지는 경인지역은 1899년 개통된 경인철도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일제강점기 많은 인력을 고용했던 부평의 미쓰비시 조병창과 인천의 철도공작창도 철도역 인근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경인철도 노선에서 북서쪽으로 한참 벗어나 오랫동안 조용한 목가적 농촌마을로 남아있던 서곶 지역, 그중에서도 남서곶이 먼저 도시화된 결정적 계기는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였다.

서울의 서부지역과 인천항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남서곶과 부평, 궁극적으로는 서울과의 차량 왕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안아지고개’가 뚫려 사람과 물자의 통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서곶지역도 수도권의 일부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한국수출산업공단 제4단지가 경인고속도로 부평 인터체인지 좌측에 들어서고, 제5단지와 6단지가 가좌 인터체인지 인근에 들어서면서 산업공단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 수요가

급증했고 부족한 택지의 대안으로 남서곶이 부각되었다. 이후 주공 아파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동주택과 빌라, 다가구주택들이 논과 밭에 마구 들어섰다.

빈번한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화와 익명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고속도로가 남북을 관통하며 달리면서 남서곶 지역은 동서로 단절되어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가정동이 루원시티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남서곶은 이제 새로운 첨단도시로서의 가능성을 꿈꾸고 있다.

서곶 토박이 개론

인천 서구 주민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거의 전국에서 모여든 이웃들과 어울리다보면 내가 서곶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상대방은 나에게 “서구 토박이시군요.”라고 말하곤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자부심으로 뿌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겸연쩍기도 하고 다소 불편하기도 하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특별한 뜻 없이 그냥 하나의 사실(fact)로만 말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서구 토박이에 대해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 고정관념의 완고한 틀(frame)을 통해서만 나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나는 꿈쩍없이 오래된 마카로니 웨스턴, 서부영화의 제목처럼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가운데 하나로 거칠게 분류되어 그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위험에 노출되고 만다. 그 순간 그는 나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지극히 미

시적이며 개별적인 인상이나 느낌을 서구 토박이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generalize)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다행히 내가 상대방에게 나쁘지 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만약 나에게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나로 인하여 서구 토박이 집단 전체가 도매급으로 매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박이’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곳에서, 대대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기반을 닦고 살면서 자기들만의 토속 언어와 전통(Native language and tradition)을 고수해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천 서구의 옛 지명(검단 제외)인 ‘서곶’의 토박이는 ‘서곶에서 대대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며 서곶에 삶의 기반을 닦고 살면서 자기들만의 언어 습관과 전통을 고수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현재 인천 서구의 주민으로 본인만 서곶초등학교나 석남초등학교를 나온 사람과, 서구에서 대대로 살아오며 삶의 기반을 닦고 살지만, 서곶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 모두 ‘서곶 토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중에서 ‘서곶 토박이’에 보다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명제는 각각 인천 서구 토박이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므로, 공히 ‘서곶 토박이’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굳이 말 하라고 한다면, 인천 서구에서 대대로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서곶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이 서구 토박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거의 90년의 연륜을 가진 서곶초등학교와 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석남초등학교가 자연부락들로 구성되었던 시절, 이 지역의 소년들에게 일정한 언어 습관과 전통을 포함한 정체성(Identity)을 형성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일종의 용광로와 같은 역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서곶면 시절부터 대대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온 서구 주민이라도 일제강점기 이지역 유일한 근대 교육기관이었던 서곶초등학교와 해방 직후 설립된 석남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토박이의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자신이 ‘서곶 토박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본다. 감수성이 예민한 틴에이지(Teenager) 시절,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며 뛰놀았던 6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다.

영화 ‘갱스 오브 뉴욕(Gangs of New York)’을 보면 19세기 중반,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 형성기에 아일랜드 이민자들과 뉴욕 토박이들과의 조직적 싸움이 전개되는 내용이 나온다. 유럽 이민자들이 급증하여 토박이 집단을 위협하게 되자 토박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면에 새로운 이민자 집단은 뉴욕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이 지고 있는 의무에 합당한 권리를 쟁취하고자 투쟁하는 모습이 조명된다.

여기서 나는 당시 뉴욕의 토박이들과 인천 서구의 기득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곶 토박이’들을 비교해 본다. 과연 토박이들은 서곶 지역사회 일반 구성원으로 향유하고 있는 제반 권리에 합당한 정도의 의무라도 기꺼이 부담하고 있는가?

해방 직후, 강소천 선생님께서 만든 서곶초등학교 교가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배우자 일 하~자 부지런~히 내일의 서곶 위~해, 새 나라 위해’.

‘서곶’으로 학교 이름 바뀌야 했나

소문난 애주가였던 『명정40년』의 변영로 선생은 6·25전쟁으로 고향했던 부산 피난시절, 거리에서 제자들이라도 만나면 손을 덥석 잡고 ‘오늘이 내 생일이네.’라며 술을 얻어먹었다.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매일 생신이십니까?’하자 대답하기를 “이 힘든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 숨 쉬는 날이면 생(生)일이지, 그럼 죽은(死) 날인가?”라고 했다. 한자 ‘생’은 태어날 ‘생’이라는 뜻과 함께 살 ‘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선생은 필경 ‘생·일’이라고 띄어서 말했겠지만, 제자들은 그냥 ‘생일birthday’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개념은 사전적으로 ‘논쟁에서 가설을 설정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바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를 말한다.’

모교 졸업식에 초청 받아 참석하다

지난 2월 중순, 나는 초등학교 졸업 48년만에 모교를 공식적으로 다시 찾았다. 봄을 재촉하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다. 이번에는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모교 졸업식에 가서 후배들에게 축하도 하고 상장도 수여하고 장학금까지 주고 왔다. 졸업식 노랫말처럼 이별의 아쉬움이 자못 크지만, 새로운 시작의 설렘도 있는 졸업식 풍경은 반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어린 후배들에게 평생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그런데 그 좋은 날, 내 머릿속은 줄곧 맴돌던 한 가지 생각으로 개운치가 않았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48년전 나는 분명 김신삼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서곶국민학교’ 졸업장을 받고 졸업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후배들은 ‘서곶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있다. 학교 연혁에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96년 3월 1일 ‘서곶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어 초등학교로 바뀐 연유는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언제 어떤 근거로 학교 이름이 ‘서곶’에서 ‘서곶’으로 둔갑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서구청 웹사이트를 찾아보아도 마찬가지다. 그 동안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시침을 똑 떼고 있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다. 교명을

바꾸면서 저명한 향토사학자이자 동문이신故 이훈익 선생님이나 다른 선배 동문, 지역 원로들께 자문을 구한 흔적도 없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혹시 누군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 이를테면 ‘A는 X다. B도 X다. C도 X다. D도 X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X다.’의 형식 말이다. 그러나 이 형식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X를 만족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중 일부(?)의 사실로부터 전체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A, B, C, D에 장산(꽃), 호미(꽃), 대(꽃), 월(꽃) 같은 요소를 대입하여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X는 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들어서면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시흥의 ‘배곧신도시’ 같은 예외도 적지 않다. 지금 시흥에 가서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배곧’이 아니라 ‘배곶’으로 고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지명은 보통명사 아닌, 고유명사

주지하듯 지명은 일반명사가 아니다. 고유명사다. 오랫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명에 함부로 맞춤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남의 제사에 와서 ‘감 나라 배 나라, 굴러 간다 주워 나라’하며 참견하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일이다. 특히 서곶을 단순히 서곶의 오류로 보았을 가능성은 아주 고약하다. 해방직후 ‘서곶초등학교’라는 소박한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학교에서 수십 년간 공부했던 우리 선후배 동문은 물론, 가르치셨던 선생님들까지 정확한 한글 맞춤법도 모르는 무지렁이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서곶(西串)은 사실 서곶의 이두식 한자어다.

중국이 죽(竹)의 장막에 은둔해 있던 시절, 서방 언론들은 수도 ‘베이징(Beijing)’을 대부분 ‘피킹(Peking)’이라고 표기했다. 사실 북경을 우리말로 발음하면 ‘베이징’보다는 ‘피킹’이 더 가깝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인들의 뜻에 따라 모두 베이징으로 지칭한다. 서울도 시대에 따라 중세도시 한양에서 한성,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경성 등

여러 이름으로 표기되었지만 해방 이후 순수한 우리말인 ‘서울’로 확고하게 자리가 잡혔다. 한성 표기를 고집하던 한자 종주국 중국도 이제는 서울을 ‘首爾(서우얼)’로 표기하고 있다.

‘서곳’으로 바꾼 까닭을 밝혀야

국어사전은 ‘곳’을 ‘일정한 자리나 지역’이라고 설명한다. 인천 서구의 옛 이름인 ‘서곳’은 행정구역상 오랫동안 부평의 일부로 존재했다. 부평의 중심지였던 지금의 계산동에서 보았을 때 계양산 너머 바닷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서쪽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었다. 부평 토박이들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부평의 변방인 서곳지역을 ‘산너머 서곳’ 또는 그냥 ‘산너머’라고 불렀다. 연희동에는 서곳면사무소가 있었다. 이후 서곶출장소가 이 지역 행정을, 서곶지서가 치안을 담당해왔다. 그리고 오늘날 학교 바로 옆에는 서구지역은 물론, 인천이라는 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들어섰다. 천지개벽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서곳’을 다시 ‘서곳’이라는 고유 명칭으로 되돌려놓는 게 마땅하다고 믿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물론 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한다. 그러나 학교의 간판인 이름이 ‘서곳’에서 ‘서곳’으로 바뀌었다면 학교 연혁에 언제 무슨 근거로 교명이 그렇게 변경되었는지는 지금이라도 밝히는 게 옳지 않을까? 그 동안 ‘서곳’을 거쳐간 수많은 졸업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아예 무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총동창회장 김영덕(제34회)

(이 글은 2016년 8월 1일자 서곶초등학교 동창회보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김영덕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부록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②
남서곶

남서곶 연표

선사

구석기

석기를 만들어 사용

가정동 유적에서 고토양층과
주먹도끼, 찌개 등 석기 출토

신석기

수렵·어로·채집 및 원시적 농경 시작

청동기

잉여생산물 축적과 계급이 발생하고
청동기를 제작하여 사용

단군왕검 고조선 건국

삼국

B.C. 18

졸본부여에서 비류, 온조 남하
비류는 미추홀에 도움을 청함

3C

백제 고대국가로의 성장

가정동 유적에서 흙무지무덤과 짧은목항아리
출토

4C 중반

고구려 남하정책 실시

427

고구려 평양 천도(장수왕 15)

475

고구려 한강유역 장악(장수왕 63)

백제 웅진(공주) 천도(문주왕 1)

고구려 현재 인천 부평권역에

주부토군(主夫吐郡) 설치

538

백제 사비(부여) 천도(성왕 16)

551

백제 한강유역 일부 회복(성왕 29)

553

신라 한강유역 장악(진흥왕 14)

648

신라 김춘추 당 태종을 만나 나당동맹 체결

660

백제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

668

고구려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

670~676

나당전쟁

676년 신라의 삼국 통일

통일신라

- **685**
9주 5소경으로 군현제 개편
인천지역은 한산주(漢山州)에 속함(신문왕 5)
- **698**
고왕 대조영 발해 건국
- **751**
불국사와 석굴암 건립(경덕왕 10)
- **757**
군현제 정비로 주부토군을
장제군(長堤郡)으로 개칭(경덕왕 16)
- **828**
장보고 청해진 설치
- **844**
인천 연안의 대당항로 및 해상무역 보호를
위해 강화에 혈구진(穴口鎭) 설치(문성왕 6)
- **9C말~10C초**
지방 호족세력의 성장
인천지역에서는 인주이씨(仁州李氏),
부평이씨(富平李氏), 강화위씨(江華韋氏) 등
호족세력 대두
- **892**
견훤 후백제 건국
- **901**
궁예 후고구려 건국

고려

- **918**
궁예 축출 후고구려 멸망
태조 왕건 고려 건국
- **919**
고려의 궁궐 만월대(滿月臺) 창건(태조 2)
- **926**
발해 거란(遼)에 의해 멸망
- **935**
신라 경순왕 고려에 자진 항복함으로써 신라
멸망(경순왕 9)
- **936**
후백제 고려에 의해 멸망(신검 1)
고려의 후삼국 통일
- **940**
장제군을 수주(樹州)로 승격(태조 23)
- **956**
노비 안검법 실시(광종 7)
- **958**
과거제도 실시(광종 9)
- **993**
거란(遼) 1차 침입,
서희의 담판으로 해결(성종 12)
- **995**
지방관제 신설로 주수를 포함한 주요 주·군에
단련사(團練使) 파견(성종 14)
- **1005**
단련사 혁파(목종 8)

1010

거란 2차 침입(현종 1)

1018

거란 3차 침입(현종 9)

1018

지방관제 개편으로 전국에
4도호부·8목·56지주군사·
28진장·20현령 설치(현종 9)
수주에 지주사(知州事)를 설치

1019

귀주대첩(龜州大捷)(현종 10)

11C후반~12C

경서동 녹청자 가마 축조 및 녹청자 제작

1107

윤관의 여진정벌, 9성 건설(예종 2년)

1124

부평향교 설립(인종 2), 수주의 진산인 계양산
남쪽 심일리(深逸里)에 건립

1145

김부식 등이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삼국사기(三國史記)』 편찬(인종 23)

1150

수주를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읍호 변경(의종 4)

1170

무신 정변(의종 24)
이후 최씨무신정권의 집권으로 이어짐

1196

최충헌의 정권 장악

1198

만적의 난

1215

안남도호부를 계양(桂陽)도호부로 개칭(고종
2년)

1219

이규보(李奎報)가 계양부사로 좌천되어 읍.
자오당기(自娛堂記), 명월사시(明月寺詩),
망해지(望海誌) 등의 시문을 남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명월사, 망일사가
고려 초기의 사찰로 계양산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됨

1231

몽골의 고려 침략(고종 18)
이후 1259년(고종 46)까지 약 30여 년간 총
6차례 걸쳐 여·몽전쟁이 계속됨

1232

개경에서 강화로 도읍을 옮김(고종 19)
이후 1270년(원종 11)까지 약 40여 년간
강도(江都)시대가 이어짐

1234

세계 최초 금속 활자로 상정고금예금 인쇄

1236

팔만대장경 새김(~1251)

1259

몽골(이후 원(元))과 강화(講和)를 맺음

1270

무신정권 붕괴 및 개경 환도(원종 11) 삼별초
항쟁이 시작됨

● 1273

삼별초 항쟁 제주도에서 진압됨
이후 1356년(공민왕 5) 반원정책이
성공하기까지 원의 간섭을 받음

● 1274

고려 태자 왕거(충렬왕) 원에서
제국대장공주와 혼인. 이후 귀국하여 즉위

● 1281

일연 『삼국유사(三國遺事)』 편찬(충렬왕
7), 1285년 완성

● 1308

계양도호부를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충렬왕 34)

● 1310

전국의 목(牧) 폐지,
부평부(富平府)로 읍호 변경(충선왕 2)

● 1359~1361

홍건적의 고려 침입(공민왕 8)

● 1366

권세가들이 불법으로 점탈한 토지와 농민을
되찾기 위해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
설치,
신돈의 개혁 추진(공민왕 15)

● 1377

최영(崔瑩)이 강화·통진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고 교동·강화의 사전(私田)을
혁파해 군자(軍資)를 충당케 함(우왕 3)

● 1377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간행(우왕 3)

● 14C후반~15C

최이(崔怡)가 세국운송을 위한
김포굴포(운하)를 계획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
지세를 살폈으나 불가하여 중지됨

● 1388

위화도 회군 명나라의 요동(遼東)을 공략하기
위해 출정했던 이성계 등이 위화도에서
회군해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우왕
14)

조선

1392

고려 멸망, 태조 이성계 조선 건국

1394

한양 천도,
정도전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편찬

1395

조선의 법궁(法宮) 경복궁 창건(태조 4)

1400

조선 개국공신 조반(趙胖)이 현재 가정동에
가정(佳亭)이라는 정자를 지어 말년을 보냄.
이후 그의 아들 조서강(趙瑞康) 또한 만년에
가정에 은거

1401

율도의 돌이 저절로 670척이나 옮겨졌다고
실록에 기록됨

1413

조선 8도의 지방 행정 조직 완성
부평부를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로 개칭
(태종 13)

1438

부평도호부를 부평현(富平縣)으로 강등
(세종 20)

1446

부평현에서 부평도호부로 복구(세종 28)

1446

훈민정음 반포(세종 28)

1454

『세종실록』 지리지에 축곶봉수 기록
고려 시대에 처음 지어진 이후 조선 시대에도
활용된 것으로 추정

1469

『경국대전(經國大典)』 완성

16C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평도호부 역원조에 금륜역(金輪驛), 구슬원
(球瑟院) 기록
금륜역과 구슬원의 설치 시점은 『신증동국
여지승람』 편찬되기 이전인 최소 16C일 것
으로 추정

1505

부평도호부를 부평현으로 강등(연산군 11)

1506

부평현을 부평도호부로 복구(중종 원년)

1506~1545

김안로(金安老)에 의해 김포굴포 작업이 착수
되었으나 원통현에 이르러서는 중단되었다고
실록에 기록됨

1592

임진왜란(선조 25)

1597

정유재란(선조 30)

1627

정묘호란(인조 5) 여진족 후금(後金)의 조선
침략

1636

병자호란(인조 14) 청의 조선 침입,
전쟁으로 부평향교 소실

1688

부평향교 재건(속중 14)

1698

부평도호부를 부평현으로 강등(속중 24)

1707

부평도호부로 복구(속중 33)

1710

금위영제조 민진후의 건의에 따라 석곶 해안
에 방어진 설치
『비변사등록 60책 속중 36년 11월』

1745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강화 문수산성과 주
위의 방비를 논하며 “부평은 서쪽으로 해변에
가깝고 석곶(石串)은 진소(津所)로 삼아 첨사
(僉使)를 둬야 마땅하니, 덕포첨사(德浦僉使)
를 석곶으로 옮긴다면 부평은 비록 이읍(移
邑)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으니…”라고 아
뢰
『영조실록 61권, 영조 21년 3월 11일』

1757

『여지도서』 부평도호부 방리 항목에서 처
음으로 석곶면(남서곶)과 모월곶(북서곶) 지
명이 등장하며 각각 8개의 마을이 있다고 기
록됨(영조 33)

1789

『호구총수』에 석곶면(남서곶)에는 봉현리,
가정리, 신현리, 포촌리, 번자리, 가자리, 울도
등 7개 마을이 소속되어 있다고 기록됨(정조
13)

1790

해일로 인하여 석곶면의 제방이 무너져 짚물
이 밭으로 들이치고 소금가마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7월 10일』

1801

신유박해(辛酉迫害)(순조 1)

조선 조정의 천주교인에 대한 대규모 박해

1850~1860

『여도비지』, 『대동지지』에서 금륜역이 부
평부에서 서쪽으로 1리에 있다고 기록됨.
1850~1860년에 현재 서구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 가능

1861

김정호 『대동여지도』 간행(철종 12)
대동여지도에는 백석산, 축곶, 모월면 경명현,
원적산 등이 확인되며 백석산과 축곶 정상에
는 봉수대가 표시됨. 장도, 호도, 울도 등 섬도
확인됨

1866~1871

병인박해(丙寅迫害)

1866

9월 6일 경기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
이 ‘이양선 큰 배 3척, 작은 배 3척이 오시 팔
미도로부터 올라와 큰 배 1척은 부평 울도 앞
나룻가에서 닻을 내리고 머무르고 큰 배 2척,
작은 배 3척은 석곶면 세어도쪽으로 올라갔
다’고 아뢰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9월 6일』

9월 7일 경기 감사 유치선이 ‘영종 첨사(永宗
僉使) 심영규(沈永奎)가 올린 등보(謄報)에
의하면, 이달 5일 오시경에 이양선 3개의 돛
을 단 배 3척과 2개의 돛을 단 배 4척이 신의
수영(水營)의 경내에 있는 팔미도 외해(外海)
에서부터 부평 경계의 물치도(勿雉島)와 호도
(虎島) 사이에 가서 정박하고 있다’고 아뢰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9월 7일』

1866

10월 9일 순무영 선봉중군 이용희가 ‘덕포첨사 이두현의 보고에 의하면 부평 일대에 정박하던 이양선 5척 중 3척이 세어도 밖을 향해 나가고 연통선 1척은 8일 오시에 팔미도 쪽으로 내려갔다’고 아뢰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10월 9일』

1866

병인양요(丙寅洋擾)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침입(고종 3)

1868

흥선대원군의 47개의 서원을 제외한 전국의 서원을 철폐(고종 5)

1871

(미국)이양선이 인천과 안산 사이의 해안의 수심을 측정함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4월 10일』
신미양요(辛未洋擾) 미국이 무력으로 조선의 개항을 끌어내기 위해 미해군 함대를 보내 강화해협을 탐측하는 등 강화도를 침략
『경기읍지(京畿邑誌)』 역원조에 금문역과 구슬원의 폐지 기록됨(고종 8)

1875

윤요호 사건(고종 12)

1876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 (고종 13)

1879

현재 서구 연희동에 연희진(延喜鎭)을 설치하여 서해로부터 도성으로 향하는 육로를 차단하고 소속 포대를 설치하여 외세의 침입을 방지. 소속포대는 용두포대[연희포대], 가정포대, 원창동 포대, 가좌포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1882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고종 19)
연희진 혁파
임오군란
제물포 조약

1883

제물포 개항
일본, 청 등 각국 조계(租界) 설치

1884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부평부에 설치, 민영목을 기연해방사무(畿沿海防事務)로 임명하여 경기도 연해지방의 방비를 담당(고종 21)

갑신정변(甲申政變)

1885

기연해방영 영문(營門)을 서울 용산 만리창(萬里倉)으로 이설

1894

동학농민운동(고종 31)

1894

갑오개혁(甲午改革)

1894~1895

청일전쟁(淸日戰爭) 조선의 지배를 둘러싸고 중국(청)과 일본 간에 벌어진 전쟁

1895

을미사변(乙未事變) 10월 8일(양력) 새벽 일본공사 미우라를 비롯한 세력이 경복궁을 기습하여 명성황후를 시해

단발령 강제시행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시행으로 격분한 유생들은 근왕창의(勤王倡義) 기치 아래 친일 내각의 타도와 일본세력의 축출을 목표로 의병을 일으킴

● 1896

아관파천(俄館播遷) 을미사변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1896년(건양 1) 2월 11일부터 약 1년간 조선의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관(공사관)에 옮겨 거처함

● 1897

대한제국 선포

● 1899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 고적조에 가정(佳亭)에 관한 명사들의 시 기록

● 1899

국내 최초의 철도 ‘경인선’ 개통
(인천-노량진 구간)

● 1902

서울 인천 간 전차 개통

● 1904

러일전쟁(露日戰爭) 발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체결

● 1905

을사조약(乙巳條約) 체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 1906

최익현, 신돌석 의병 봉기

● 1907~1908

국채보상운동 대한제국 정부와 민간의 경제적 독립을 막기위해 일본은 차관(借款)을 대량으로 들여오자, 이에 국민들의 모금으로 국채를 갚자는 운동이 전개됨

● 1907~1910

정미의병(丁未義兵) 고종의 강제 퇴위·정미 칠조약 체결·군대해산 등을 계기로 전개된 일련의 구국항일무력전 단행
남서곶을 비롯한 현재 인천 서구와 부평 지역에서 국권 회복을 위한 의병 봉기

● 1909

안중근 의사,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일제강점기

● 1910

경술국치(庚戌國恥)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한일합병조약 체결. 대한제국 주권 강탈, 일제의 군사 강점 및 식민통치(대한제국 융희 4)

● 1914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부제(府制) 실시 및 군·면 통폐합

부평군 해체 및 인천부 일부와 통합하여 부천군(富川郡) 신설, 석곶면은 모월곶면과 통합되어 서곶면으로 조정

● 1915

대한광복회 조직

● 1918

가정동 철마산에 풀 베러 온 세 명의 소년들이 늑대를 잡아 주재소에 신고함
『매일신보』 1918년 5월 22일 기사

● 1919

1월 고종 승하

1919

3·1운동

검단 오류동 출신 심희성(沈熾誠) 황어장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의열단 조직

1923~1924

암태도 농민항쟁 전남 신안군 암태도의 소작인들이 일제의 식민수탈정책에 편승해 성장한 대지주의 소작료 강제징수에 항거하며 소작쟁의 참여

1923

관동대학살 일본 관동대지진 때 일본 관헌과 민간인들이 한국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를 학살함

1925

조선공산당 결성

부천군 농사장려회에서 농업 강습 실시
(서곶면에서 7명 참석)

『동아일보』 1925년 2월 6일 기사

서곶면 360명 연희주재소에서 중두 시행
『동아일보』 1925년 4월 22일 기사

1926

6·10 만세운동 순종의 인산일(因山日)인 6월 10일을 기해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중심의 민족독립운동

서곶면 어촌민 약 1천 명 콜레라 예방주사 접종

『동아일보』 1926년 8월 7일 기사

1927

신간회 결성

1928

원산총파업

황해도 연백군서 정조(正租) 332석을 신고 인천으로 오던 배가 세어도 근처에서 풍랑으로 조난됨. 세어도 주민이 이를 구원하였으나, 그 대가로 배에 실은 쌀 30여 석을 강탈함. 이를 연희주재소에 고발하여 인천경찰서로 주범이 인치됨

『동아일보』 1928년 10월 5일 기사

1929

광주학생항일운동

1930

가좌리 나루터에서 급류로 인해 배가 뒤집혀 뱃사공 1명 사망

『중외일보』 1930년 7월 20일 기사

1931

일제의 만주 침략

1932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부천군 서곶면 사무소 낙성식 거행
『매일신보』 1932년 10월 8일 기사

1933

가좌리 178번지 나루터 뱃사공 한광수씨가 본인 집 앞 개울에 떠내려온 어선 1척을 발견하여 인천서에 신고함

『동아일보』 1933년 11월 25일 기사

1934

서곶면 밤섬(栗島)에서 화재. 섬에는 화약고가 있어 소방수 및 보안주임 급파됨. 화약고지기 김장윤씨의 초가집 전소

『동아일보』 1934년 12월 8일 기사

1935

서곶면 포리(현 원창동) 강덕인씨가 소작권 무단이동에 대해 소작쟁의를 제기함
『동아일보』 1935년 3월 26일 기사

1936

서곶공립보교(西串公立普校)의 학급 확충을 위해 지역의 유력자 등이 기성회를 조직하여 기금 3천 5백원을 모금함
『매일신보』 1936년 6월 10일 기사

1937

황국신민의 서사 제정, 신사 참배 강요

1938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 조직

인천에서 강화 삼산면으로 향하던 부천동운 조합의 제삼통운환(第三通運丸)이 유빙(流水)으로 인해 서곶 세어리(細魚里) 근방에서 돌아감
『동아일보』 1938년 1월 15일 기사

1939

국민징용령 강제 연행 시작, 1945년까지 45만여 명이 끌려감

서곶소학교의 학급 확충 실현(서곶면민 부담금 3천원, 도비 1천 5백원 투입 계획)
『매일신보』 1939년 1월 11일 기사

1940

한국 광복군 창설

창씨 개명 실시

인천과 서곶면을 오가는 버스 운행에 관한 진정을 당국에 제출
『동아일보』 1940년 3월 15일 기사

부천군 서곶면이 인천부(仁川府)로 편입, 서곶출장소 설치

서곶면의 마을 이름을 일본식 지명인 정(町)으로 변경

서곶 소학교를 정상(井上) 소학교로 변경
『동아일보』 1940년 4월 2일 기사

194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발표 및 대일 선전포고

세어도에 고아들을 위한 시설 건설계획 발표
『매일신보』 1941년 3월 28일 기사

1942

독립 동맹 및 조선 의용군 결성

1943

징병제·학병제의 실시로 조선 청년들이 일본 군으로 끌려감

1944

조선총독부의 여자 정신대 근무령 공포 및 시행

월미도와 서곶을 오가는 항로 개통
월미도에서 안동포를 돌려 서곶으로 오는 여객선 취항(하루 왕복, 편도 운임 60원)
『매일신보』 1944년 5월 1일 기사

입영 장정을 위한 장행회(壯行會)가 서곶출장소를 비롯한 각 출장소에서 개최 예정을 알림
『매일신보』 1944년 8월 27일 기사

해방 이후 근현대

1945

8·15 광복
건국준비위원회 발족, 마·소 군정 실시, 모스
크바 3상 회의 개최

일본식 지명인 정(町)으로 변경된 서곶을
비롯한 인천의 마을 이름을 복원시킴

1946

제1차 마·소 공동위원회 소집
38선 이북으로 통행금지

1947

제2차 마·소 공동위원회 개최
여운형 피살

세어도, 청라도, 울도에 분교 설치계획 발표
『매일신보』 1947년 11월 12일 기사

1948

김구·김규식 등 남북 협상 참가
제주 4·3 항쟁.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세어도, 울도, 청라도에 분교 설치를 위해
학무과장이 현지 조사함
『매일신보』 1948년 8월 3일 기사

1949

정부 농지개혁법 공포

김구 순국

경명현에서 중심성사적비 발견되어 인천시립
박물관으로 이관
『매일신보』 1949년 8월 10일 기사

인천시가 여름 수확 곡식의 매상 목표량으로
조곡(粗穀) 4,300입으로 설정, 각 군의 목표
량 달성을 평균 80%. 서곶은 83% 달성
『경향신문』 1949년 8월 22일 기사

가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구호 대책으로 서
곶과 수원에 2억 2천만원의 염전축조공사에
이들을 투입(서곶 3천명, 수원 5백명)
『동아일보』 1949년 11월 22일 기사

1950

서곶의 가을 수확 곡식 매상 할당량은 1,184입
이었으나, 478입밖에 채우지 못함(전체 평균은
80% 달성)
『경향신문』 1950년 1월 14일 기사

1949년 가뭄피해민 구제대책으로 시행된 염전
축조 공사의 노임이 지급되지 않아 내부공사에
착수하지 못함

『매일신보』 1950년 1월 26일 기사
연희, 심곡, 고잔에서부터 청라도와 근방 소도
서를 연결하는 제방 구축 등 총면적 1,500정보
(4백5십만 평)의 염전 신축 발표
『매일신보』 1950년 2월 26일 기사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조인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 발발

1951

소련 유엔 대표, 38선 정전회담 제의

1952

발체 개헌안 통과

1953

『인천공보』에 故유희진 선생의 향토사
연구를 ‘서곶지방지(西串地方誌)’란 주제로
연재함. 서곶의 역사를 비롯하여 산업, 교통,
교육 등을 망라함

울도에 굴 양식장 설치 계획 발표
『인천공보』 1953년 5월 27일 기사

포로교환 및 휴전 협정 조인

1954

인천시 상공과에서 6개 어촌을 순회하며
‘어촌위안의 밤’을 열고 영화 상영
(울도, 청라도, 세어도, 복성동, 육련동, 동춘동)
『인천공보』 1954년 10월 30일 기사

개헌안 사사오입 통과

1956

제3대 정·부통령 선거 실시
대통령에 자유당 이승만, 부통령에 민주당 장면
당선

1958

진보당 사건 발생으로 위원장 조봉암 등
간부 7명 간접 혐의로 구속

1960

4·19 혁명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
서울 시내 대규모 학생 총궐기
이승만 하야

1961

5·16 군사 쿠데타 발발

1962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공용 연호 서기(西紀)로 변경

인천시 보건당국에서 울도, 세어도, 청라도 등
의사가 없는 섬에 진료반 파견
『경향신문』 1962년 10월 16일 기사

1963

대통령 선거 실시 박정희 당선

1964

한·일 회담 반대 시위
월남 국군파견 협정 체결

1965

서구 가좌동 일대 및 남구 도화동의 인천기계
산업단지가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됨

1966

한·일 협정 조인

1968

인천시 구제(區制) 실시
서곶출장소는 북구에 편입
경인고속도로 개통

1969

3선 개헌 국민투표 법안 통과

1970

울도 인천화력발전소 건설 위한 한미차관협정
정식 체결(8천만 달러)
『매일경제』 1970년 1월 24일 기사

울도 인천화력발전소 1호기 완공

경서동 녹청자 요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211호 지정

석남동에 거북시장·신거북시장 개설

새마을 운동 시작

서울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

1971

석남동·가좌동 일대에
인천목재공업단지 완공

1972

울도 경인에너지 준공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유신헌법 확정

원적산 관동도로 개통

● 1974

울도 인천화력발전소 2호기 완공
『매일경제』 1974년 6월 5일 기사

● 1975

대통령 긴급조치 9호 발표

● 1975

가정동에 콜롬비아 참전기념비 건립
1979년부터 매년 콜롬비아 독립기념일인 7월
20일을 전후하여 주한 콜롬비아 대사와 6·25
참전 유공자회 서구지회 회원 등이 참석해
추모식 거행
2005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지정
2018년 연희동 경명공원으로 이전

● 1978

가좌동에 (주)영창악기의 악기제조 공장 건립

● 1979

부마항쟁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 피격 살해
유신체제 몰락 신군부 쿠데타

● 1980

5·18 광주민주화운동

● 1981

가좌시장 개설

● 1982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15호 지정

가좌동 축산물 시장 개설

● 1983

KBS 이산가족 찾기 TV 생방송

● 1985

강남시장 개설
북구 원창동-청라도-일도-장도를 잇는
방조제 완공(7,400m)

● 1986

향토사학자 이훈익 선생, 인천지방향토문화
연구소 개설

제10회 아시안게임 서울 개최

● 1987

6월민주항쟁

● 1988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최

인천직할시 서구 설치

● 1989

중앙시장 개설

● 1989

형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와 수교

● 1990

석남동 소재 조서강 묘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호 지정

● 1990

소련과 국교 수립

류사눌 묘,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호 지정

조서강 묘,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호 지정

- **1991**
UN총회에서 남북한 UN가입안 만장일치 통과
가좌동에 인천서구도서관 개관
- **1992**
중국어 국교 수립
- **1993**
금융실명제 실시
- **1994**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 **1995**
인천직할시, 인천광역시로 승격
지방 자치제 확대(자치단체장 선거 등)

옛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인천서구문화회관 개관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3호 지정
심즈 신도비, 인천시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제32호 지정
- **1996**
인천시가 개발 논쟁이 일고 있는 4백 99만평
규모의 동아건설 매립지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에 들어감
『매일경제』 1996년 5월 15일 기사

제1회 서곶문화예술제 개최
- **1999**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
- **2001**
인천국제공항 개항
- **2002**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개원
녹청자 사료관 개관(現인천서구녹청자박물관)

축곶봉수 지표조사 실시
연대, 연수실, 방호벽 등 조사
- **2004**
한백문 묘역,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4호 지정
- **2005**
인천서구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개소
- **2007**
세어도에 해저 케이블을 통한 전력 공급
- **2008**
김안정 묘 출토 묘비,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7호 지정
- **2009**
허암 정희량 유허지,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8호 지정
- **2010**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9호 지정
의령남씨 종중 묘역,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0호 지정
평산신씨 종중 묘역,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1호 지정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신설

제1회 허암 청소년 백일장 개최

2011

제1회 녹청자 축제 개최

세어도 정서진호 운항 시작

정서진 표지석 제막식 및 해넘이 축제 개최

2012

서구청춘합창단 『갈채』 창단

2014

석남동 소재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인천시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제26호 지정

제17회 아시안게임 인천 개최

서구 연희동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막식 개최

2015

가좌동 소재 범명사 선문염송설화 권1-30

인천시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제70호 지정

2016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2017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로 전환

인천기점~서인천IC 10.45km 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인천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수

가좌동 코스모화학 공장부지 활용 사업

계획(인천 서구청, 에이블커피그룹)

석남동 거북시장 도시재생사업 추진

2018

가좌동 진주2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경비원과 청소원의 최저임금인상분을 관리비 인상과 일자리 지원금으로 부담하기로 결정. 경비원과 청소원의 해고와 편법근무 등을 막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진주2단지를 방문하여 감사의 뜻 전함

『경인일보』 2018년 1월 26일 기사

세어도 개발 대상 도서로 지정

가정지구 내 3천28㎡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발달장애 교육센터' 착공

행정안전부가 서구의 행정수요를 고려해 1개국(局) 증설 승인

4개국(총무, 복지문화, 경제환경, 도시관리)에서 5개국으로 1개국을 증설 예정

신현중학교 홍석준 선생님과 1학년생들이 학교 앞 분식집 화재를 초기에 진압

『기호일보』 2018년 9월 14일 기사

콜롬비아군 참전 기념비 가정동에서 연희동 경명공원으로 이전

신현동 출신故김응학 명인의 弟 김응열님이 고인이 사용하던 국악기를 교육 및 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구문화원에 기증. 가야금, 해금, 태평소 등 국악기 총 10종, 32건에 대한 기증협약서 체결

이윤희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부 록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2
남서곶

서곶 지역 마을이름 변천사

서곶 지역 마을이름 변천사

북서곶(모월곶)

마을이름 시기	인천 광역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시천동	백석동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	청라동
호구총수 (1789)	부평부 모월곶면	검암리	고잔리 청라난지도	시천리	백석리	연희리	-	공촌리	청라도
일제강점기 (1914)	부천군 서곶면	검암리	고잔리	시천리	백석리	연희리	-	공촌리	청라도
광복 이후 (1946)	인천시 서곶 출장소 (1940)	검암동	경서동	시천동	백석동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	청라도
복구 편입 (1968)	인천시 북구 서곶출장소	검암동	경서동	시천동	백석동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	청라도
인천직할시 서구 설치 (1988)	인천 직할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시천동)	(백석동)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	청라도
인천광역시 (1998)	인천 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동 신설 (2010.6.10.)
인천광역시 (2013)	인천 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 12동 분동

남서곶 (석곶)

마을이름 시기	인천 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호구총수』 (1789)	부평부 석곶면	봉현리 가정리	신현리	포촌리 울 도	번작리	가좌리
일제강점기 (1914)	부천군 서곶면	가정리	신현리	포리	고작리 (고잔리 일부)	가좌리
광복 후 (1946)	인천시 서곶출장소 (1940)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북구 편입 (1968)	인천시 북구 서곶출장소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인천직할시 서구 설치 (1988)	인천직할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 1·2동	가좌 1·2·3동
인천광역시 (1998)	인천직할시 서구	가정 1·2·3동	신현원창동		석남 1·2·3동	가좌 1·2·3·4동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2

남서곶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7

-
- 발행일** | 2018년 12월
- 발행처**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 발행인** | 정군섭 (인천서구문화원 원장)
- 기 획** | 서덕현 (인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이윤희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 집 필** | 강덕우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강옥엽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김영덕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김윤식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원규 (전 동국대학교 교수)
이창섭 (경인문화회 회원)
윤미란 (인문학연구실 오만가지 연구원)
이승희 (인하대학교 강사)
정영진 (인하대학교 강사)
이윤희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 편 집** | 이윤희 김다슬
-

ISBN 979-11-952675-6-9

ISBN 979-11-952675-4-5 (세트)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